

국립국어원 2007-1-19

발간 등록 번호
----------

11-1370252-000067-14
----------------------

2007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 김봉국

연구 보조원 : 김세환

조사 지역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동면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7년도 권역별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용역’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연구책임자 : 김봉국

연구보조원 : 김세환

2007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	7
2. 전사 원칙 .....	12
3. 전사 자료 .....	15
제 1 편 구술 발화 .....	17
제 2 편 어휘 .....	160
제 3 편 음운 .....	208
제 4 편 문법 .....	246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2007년도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강원도 홍천군은 강원도 중서부에 있는 군으로서, 우리나라의 시나 군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서울특별시의 3배 정도된다. 북쪽으로 춘천시와 인제군, 서쪽으로 경기도 가평군·양평군, 남쪽으로 횡성군과 평창군, 동쪽으로 양양군과 강릉시에 접해 있다. 이 지역은 태백산맥 서사면(西斜面)의 일부를 차지하여 기복이 심하며, 인근에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산지가 군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하천은 북한강(北漢江)의 지류인 홍천강(洪川江)이 여러 계류를 합쳐서 군 중앙부를 동서로 관류하여 유역에 홍천분지와 소규모의 하안단구 및 산록완사면을 발달시켜 농경생활의 무대로 이용되고 있다.

홍천읍은 홍천군청을 끼고 있으며, 홍천군의 행정, 교육, 문화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55번 고속국도가 관통하기도 한다. 동면은 전형적인 농경생활 지역으로서 농업 인구가 거의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천군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1.2 조사 기간

2007년 7월 23일 ~ 7월 30일

2007년 8월 8일 ~ 8월 14일

2007년 10월 17일 ~ 10월 20일

## 1.3 제보자

### (1) 주제보자

- 이름 : 이
- 성별 : 남
- 나이 : 79세(1929년생)
- 출생지 : 강원도 홍천군
- 거주지 : 강원도 홍천군
- 선대거주지 : 강원도 양양군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 학력 : 소학교 중퇴
- 병역 : 육군 제대

- 제보자 소개 과정 : 경로당에서 만남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없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약간 불분명한 소리를 내기도 함.

## (2) 보조 제보자

- 이름 : 박
- 성별 : 여
- 나이 : 91세(1917년생)
- 출생지 : 강원도 홍천군
- 거주지 : 강원도 홍천군
- 선대거주지 : 강원도 홍천군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 학력 : 무학
- 병역 : 해당사항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길가에서 만남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연로하기 때문에 청력이 약함.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목소리를 허스키하지만 말이 빠르고 분명함.

- 이름 : 원
- 성별 : 남
- 나이 : 92세(1916년생)
- 출생지 : 강원도 홍천군
- 거주지 : 강원도 홍천군
- 선대거주지 : 강원도 홍천군
- 직업 : 한의사
- 경력 : 한의학을 수학
- 학력 :
- 병역 :
- 제보자 소개 과정 : 박 할머니를 통해서 만남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양호함.

## 1.4 조사자

(1) 이름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교수)/김세환(서울대학교 박사과정생)

(2) 조사 일시 : 2007년 8월 8일 ~ 10월 20일

(3) 조사 장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알프스 여관(이\*\*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4리 경로당(이\*\* )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제보자의 집(박\*\* , 원\*\* )

(4) 조사 내용

2007년 7월 23일	제보자 선정, 구술 1
2007년 7월 24일	제보자 선정, 구술 2
2007년 7월 25일	제보자 선정, 구술 3
2007년 7월 26일	구술 4, 5
2007년 7월 27일	구술 6
2007년 7월 28일	어휘 1, 2
2007년 7월 29일	어휘 3, 4
2007년 7월 30일	어휘 5, 6
2007년 8월 08일	어휘 7, 구술 7
2007년 8월 09일	어휘 8, 구술 8
2007년 8월 10일	어휘 9
2007년 8월 11일	음운 1, 2
2007년 8월 12일	음운 3, 4
2007년 8월 13일	음운 5/문법 1
2007년 8월 14일	문법 2, 3
2007년 10월 17일	어휘 보충 조사
2007년 10월 18일	어휘 보충 조사
2007년 10월 19일	음운 보충 조사
2007년 10월 20일	문법 보충 조사

SGW_HC_01	0:44	구술 1	이**
SGW_HC_02	1:26	구술 2	이**
SGW_HC_03	2:00	구술 3	이**
SGW_HC_04	0:27	구술 4	이**
SGW_HC_05	0:43	구술 5	이**
SGW_HC_06	0:48	구술 6	이**

SGW_HC_07	1:00	어휘 1	이**
SGW_HC_08	1:27	어휘 2	이**
SGW_HC_09	2:29	어휘 3	이**
SGW_HC_10	1:26	어휘 4	이**
SGW_HC_11	1:01	어휘 5	이**
SGW_HC_12	2:03	어휘 6	이**
SGW_HC_13	1:32	어휘 7	이**
SGW_HC_14	3:20	어휘 8	이**
SGW_HC_15	1:32	음운 1	이**
SGW_HC_16	1:23	음운 2	이**
SGW_HC_17	1:05	음운 3	이**
SGW_HC_18	2:48	음운 4	이**
SGW_HC_19	1:47	어휘 9	박** /원**
SGW_HC_20	0:40	음운 5/문법 1	이**
SGW_HC_21	0:57	문법 2	이**
SGW_HC_22	1:20	구술 7	박** /원**
SGW_HC_23	0:39	구술 8	박** /원**
SGW_HC_24	0:17	문법 2	이**
SGW_HC_25	1:04	문법 3	이**

## 1.5 전사

### (1) 1차 전사(2007년 9월)

구술발화 : 김세환  
어휘 : 김봉국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 (2) 1차 점검(2007년 10월)

구술발화 : 김세환  
어휘 : 김봉국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 (3) 2차 점검(2006년 11-12월)

구술발화 : 김세환

어휘 : 김봉국

음운 : 김봉국

문법 : 김봉국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 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

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 ]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e)'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 ⑥ 제보자가 여자인 박귀순 할머니인 경우에는 '+여'라는 표시를 하였다.



2007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 1.2. 일생 의례

###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예 어르신 어제 그 때까지 여쭙바뻐거 중에서 저희가 쫘... {예 어르신 어제 그 몇가지 여쭙았던 것 중에서 저희가 쫘...}

10201 @ 어르신 그 성하미... 다시 한번만 쫘 말쓰믈 여쭙... 노그미 잘 안 돼... {어르신 그 성함이... 다시 한번만 쫘 말씀을 여쭙... 녹음이 잘 안 돼서...}

10201 # 이름? {이름?}

10201 @ 예. {예.}

10201 # 이 \*\* . {이\*\*.}

10201 @ 예 그다음에 연세가 어떻게? {예 그다음에 연세가 어떻게?}

10201 # 칠십하호비라, 기사생. {칠십하호비라, 기사생.}

10201 @ 아 기사생이지요. {아 기사생이지요.}

10201 # 칠십 하호비 기사생이야. {칠십 하호비 기사생이야.}

10201 # 그래 이르나 이른 아홉살 머근 사람두 기사생이라구 뻐띠. {그래 일흔 아, 일흔 아홉살 먹은 사람도 기사생이라고 뻐띠.}

10201 @ 예, 뻐띠요. {예, 뻐띠요.}

10201 @ 금 어르신 그, 보자, 태어나싱고시 태어나싱고시 그... {그럼 어르신 그, 보자, 태어나신 곳이 태어나신 곳이 그...}

10201 # 위, 위룬니, 동면. {위, 위룬니, 동면.}

10201 # 동면. {동면.}

10201 @ 도, 도부터 얘기하면요? {도, 도부터 얘기하면요?}

10201# 아니지, 여기가 흥천이니깐 인제 그 나 태:난덴 동면 위룬니래는데서 태어나찌. {아니지, 여기가 흥천이니까 인제 그 나 태어 난 데는 동면 위룬니라는 데서 태어났지.}

10201 @ 예. {예.}

10201 @ 그러다가 이제 아홉... {그러다가 이제 아홉...}

10201 # 아홉살에 인제 일루 너머옹거지, 여 흥천느루. {아홉 살에 인제 이리로 넘어 온 것이지, 여기 흥천으로.}

10201 @ 흥천... {흥천...}

10201 # 마라잠 으부루 나옹거지. {말하자면 읍으로 나온 것이지.}

10201 @ 아, 예. {아, 예.}

10201 @ 지그믐 사시는 고시? {지금은 사시는 곳이?}

10201 # 열쌍굴. {열쌍굴.}

10201 @ 예? {예?}

10201 # 열쌍굴. {열쌍굴.}

10201 @ 열쌍굴요? {열쌍굴요?}

10201 # 으. {으.}

10201 @ 거기 아이, 지금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 아니, 지금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10201 # 그리이까 흥천군 하오완니 . {그러니까 흥천군 하오완리 .}

10201 @ 아, 예 참 오셔서, 그... {아, 예 처음 오셔서, 그...}

10201 # 처:메 웅건 염:봉니지 요기 다리 근네, 거건 염:봉. {처음에 온 것은 연봉리이지 요기 다리 건너 거건 연봉.}

10201 # 이 다리 건너가며 그 연봉이야, 거기. {이 다리 건너 가면 그 연봉이야, 거기.}

10201 # 거기가 어 지금 이 시내보다 더 넓어요, 인구가 엄청 넓져. {거기가 어 지금 이 시내보다 더 넓어요, 인구가 엄청 넓지.}

10201 # 거기 살:다가 유기도 사변 나넌 바라메 지비 타서 그래서 내가 인제 쪼끔 앵게찌. {거기 살다가 육이오 사변 나는 바람에 집이 타서 그래서 내가 인제 쪼끔 옮겼지.}

10201 # 앵기다가 또 거그서 또 떠가주고 여을쌍구레 내와 사라씨씨, 그래서 그래. {움기다가 또 거기서 또 떠 가지고 열상굴에 내려와 살았었어, 그래서 그래.}

10201 @ 예 그다메 그, 어르신 그 일가튼거 하셔짜나요, 어떤닐 하셔씨요, 어릴때부터 쪽:: 하신, 주로 하셔떤 이리? {예 그 다음에 그, 어르신 그 일같은 것 하셨잖아요, 어떤 일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쪽 하신, 주로 하셨던 일이?}

10201 # 농사진능거, 그거지 머 농사진능거, 벤농사 그냥 반농사 그거지. {농사 짓는 것, 그거지 뭐 농사 짓는 것, 벼농사 그냥 밭농사 그거지.}

10201 # 그이간 그 그때는 연나리, 연나리니간 이 채:수장사라능게 읍씨. {그러니까 그 그때는 옛날, 옛날이니까 이 채소장사라는 것이 없어.}

10201 @ 예. {예.}

10201 # 이 흥처네 여, 지금 여기... {이 흥천에 여, 지금 여기...}

10201 @ 예. {예.}

10201 # 또 딱 두사람이씨, 왜정때, 채수해는 사라미, 인제 그거는 그사람드른 그걸 이제 뽀바다 내다 시자으다 파는 사라미 딱 두사람이씨. {또 딱 두 사람 있어, 왜정 때, 채수하는 사람이,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뽑아다가 내다 시장에다 파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

10201 # 그르이 그 그게 업찌. {그러니 그 그게 없지.}

10201 @ 음. {음.}

10201 # 그이까 머 인제 머 벤농사하고 뭐 바치래야 뭐 옥씨기 콩 뭐 여러가지지 뭐 팔, 뭐 깨: 뭐 주루 그거지, 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벼농사하고 뭐 밭이라야 뭐 옥수수 콩 뭐 여러가지지 뭐 팔, 뭐 깨 뭐 주로 그거지, 뭐.}

10201 @ 어르신 그 아번니믄 그 아까 얘기했뉼 월, 월... {어르신 그 아버님은 그 아까 얘기했던 월, 월...}

10201 # 워룬니. {월운리.}

10201 @ 워룬니에 계속 쪽:: 자라셔씨요? {월운리에 계속 쪽 자라셨어요?}

10201 # 그럼 거 거기서 타이여 나고. {그럼 거 거기서 태어 나고.}

10201 @ 한 면 뉼때 뉼다고 하셔씨요? {한 몇, 몇 대 뉼다고 하셨어요?}

10201 @ 대수가? {대 수가?}

10201 # 뉼태가 그게 뭐, 저... {몇 대가 그게 뭐, 저...}

10201 # 내가 인제 그 우리 고조 하라머지가 이꺼덩. {내가 이제 그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있거든.}

10201 @ 예. {예.}

10201 # 그이까 거기서버터 사운 동머니서 태: 낭거지,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일루 너머웅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뉼 동면에서 태어 난 것이지,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리로 넘어온 거지.}

10201 @ 음. {음.}

10201 @ 다, 그분들도 다: 농사를 지으셴나요? {다, 그분들도 다 농사를 지으셨나요?}

10201 # 그럼요, 원래는 농사... {그럼요, 원래는 농사...}

10201 # 근데 옛날 로인들 뭐 마른 금바~에다 노코 인제 우리 우리 지바니. {그런데 옛날 노인들 뭐 말은 금방아에다 놓고 이제 우리 우리 집안이.}

10201 # 노인네들 금방아에도 노코 왜, 금 캐능거 이짜너, 그걸 방에다가 찌어여, 그걸 그래가주고 대개 이 무래다 이르면 인제 그미 나오자나. {노인네들 금방아에도 놓고 왜, 금 캐는 거 있잖아, 그걸 방아에다 쫓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대개 이 물에다 일면 이제 금이 나오잖아.}

10201 @ 아. {아.}

10201 # 그거 해고 뭐 저 여러가지 헨 모냐, 그래가 인제 도늘 버런는데 ... {그거 하고 뭐 저 여러가지 한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10201 # 인제 그게 내리 막파네 내려 와가지고 우리, 마라자면 우리 아버지 성니미 인는데 내가 그때도 클쎄 보문, 그 양바는 신서니야, 마라자문, 여름 사철 그점 버선발 상:꼬 뭐 그 그래고 그 다 일꾸늘 두고 해 머그니까는, 종들 주고 해 머그니깐. {이제 그게 내리 막판에 내려 와 가지고 우리,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 형님이 있는데 내가 그때도 클 때 보면, 그 양반은 신선이야, 말하자면, 여름 사철 그저 버선발 신고 뭐 그 그리고 그 다 일꾼을 두고 해 먹으니까 종들 주고 해 먹으니까.}

10201 # 또 여자도 좋: 또 그거 해... {또 여자도 좋 또 그거 해...}

10201 # 그래다가 인제 그 자소니 우리 사:추니 인제 그걸 재사니 우뜨케 마라 머근거지, 그래서 쫓짱 망행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자손이 우리 사촌이 이제 그걸 재산이 어떻게 말아 먹은 것이지, 그래서 쫓딱 망한 것이지, 뭐.}

10201 @ 어르신 그 공부향거는 소학교 다니진 모태따고 얘기하셔짜나요. {어르신 그 공부한 것은 소학교 다니지는 못했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10201 # 그쎄, 난 여 여길 도 아홉싸레 너머와씨니까는, 동면서. {글쎄, 난 여 여길 또 아홉 살에 넘어 왔으니깐, 동면서.}

10201 # 지금도 그러치마는 고 연향에 이짜너 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연향에 있잖아, 왜.}

10201 @ 이파. {입하}

10201 # 그럼, 이파, 거 연향으비자너, 그런데 아홉싸리간 도:제 못뜨러가지, 그래가지고. {그럼, 입하 그 연향을이잖아, 그런데 아홉 살이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10201 # 그 드러갈, 그 안 되지, 아홉싸린데 우뜨케 드러가, 국민학교, 여 여기지 여기 초등학교 모뜨러간단 얘기야. {그 들어갈, 그 안 되지, 아홉 살인데 어떻게 들어가, 국민학교, 여 여기지 여기 초등학교 못 들어간단 얘기야.}

10201 # 그래서 여기서 한 저 장진평이라고 여기 한 사키로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저 장진평이라고 여기 한 사 키로 되는데...}

10201 # 거기서 이 함:무늘 가르쳐씨, 그 함문. {거기서 이 한문을 가르쳤어, 그 한문.}

10201 # 한:무늘 가르치는 사라미 왜놈드리 인제 그걸 모태게 해니까는 거기 한 사라미 점문 사라미야 그. {한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왜놈들이 인제 그걸 못 하게 하니깐 거기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야 그.}

10201 # 그 사라미 자기에 도:늘 모아가지고 채글 사다가 한:무늘 양가르치고 인제, 그 일본놈 일봉끄를... {그 사람이 자기의 돈을 모아가지고 책을 사다가 한문을 안 가르치고 이제, 그 일본놈 일본글을...}

10201 # 고기서 가르치다가 그러이까 그거 누가 슈트해주능거또 어꾸, 그 사람 월급 타명능거또 엄능거야, 그게 마리아. {거기서 가르치다가 그러니까 그거 누가 슈트해주는 것도 없고, 그 사람 월급 타먹는 것도 없는거야, 그게 말이야.}

10201 # 그래떠니 그거또 또 모태게 하니깐 그사라미 고만 둥거지, 뭐. {그랬더니 그것도 또 못

하게 하니깐 그 사람이 그만 둔 것이지, 뭐.}

10201 # 그래 거기에, 마:른 한 이항여녕가 그래 땡겨도 그러케 마라능거야. {그래 거기에, 말은 한 이 학년인가 그래 다녀도 그렇게 말 하는 거야.}

10201 # 나뽀나나라 그때 인제 나이 마는 사람들 인제... {나뽀 아니라 그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

10201 # 그러니까 여기 모뜨러간 사람드리 거기 가서 그걸 배우다가 그냥...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배우다가 그냥...}

10201 # 그건 간판두 엄능거야, 그러니깐 아::무리 자래도 소용업찌, 뭘 해 먹질 모태. {그건 간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잘 해도 소용없지, 뭘 해 먹질 못 해.}

10201 @ 그러니까 정시기 아니언데요? {그러니까 정식이 아니었는데요?}

10201 # 그러치, 그 왜정텐데, 그럼. {그렇지, 그 왜정 텐데, 그럼.}

10201 # 그르~이~까 아니 쫘 하니항연 뭘 말로 한 이항연 해다가 마룽거지 뭐. {그러니까 아니 쫘 한 이 학년 뭘 말로 한 이 학년 하다가 만 것이지 뭐.}

10201 @ 어르신 그 군대는 가따 오셔쫘? {어르신 그 군대는 갔다 오셨쫘?}

10201 # 그럼, 난 수물다서세 가쫘. {그럼, 난 스물 다섯에 갔어.}

10201 @ 수물, 수물다서세 어디로... {스물, 스물다섯에 어디로...}

10201 # 나, 삼사다네 가이쫘쫘요, 삼사단. {나, 삼사단에 가 있었어요, 삼사단.}

10201 @ 거기 배꼐부대자나요? {거기 백꼐부대잖아요?}

10201 # 거, 배꼐부대요, 아 일성부대. {거, 백꼐부대요, 아 일성부대.}

10201 @ 아, 일쫘부대... {아, 일성부대...}

10201 # 지금 그 삼사단 저 뭐, 육싸단, 개덜, 이 후 후방으로 몬:나와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그 삼사단 저 뭐, 육사단, 개들, 이 후 후방으로 못 나와 지금 오늘날까지.}

10201 # 이 후방을 몬:나와, 개드른, 이 전 전방으로만 도라요. {이 후방을 못 나와, 개들은, 이 전, 전방으로만 돌아요.}

10201 @ 그래요? {그래요?}

10201 # 그래 저, 양:구 뭐 그런텔 라와요, 그 육싸다녕가 메싸다닌는데. {그래 저, 양구 뭐 그런테를 나와요 그 육사단인가 몇 사단 있는 데.}

10201 @ 며싸단... {몇 사단...}

10201 @1 이사단 이시빌사단. {이사단 이십일사단.}

10201 # 이시비사단, 이시비사다는 후방이 아녕가? {이십이사단, 이십이사단은 후방이 아녕가?}

10201 @1 이시빌싸단, 이시빌. {이십일사단, 이십일.}

10201 # 후방이 아냐요? {후방이 아니에요?}

10201 # 그런사람드른 몬:나와, 그부대는 몬:나와. {그런 사람들은 못 나와, 그 부대는 못 나와.}

10201 # 그르~이~까 항꾼나와도 요글 몬:나오더라, 인제꺼정은 나오더라구. {그러니까 한껏 나와도 요기를 못 나오더라, 인제까지는 나오더라고.}

10201 # 나 헬때 저 인젠 나와. {나 할 때 저 인제는 나와.}

10201 # 그러다 도리켜 드랴, 전방으로. {그러다 돌이켜 들어와, 전방으로.}

10201 @ 음. {음.}

10201 # 그래 그사람들 전방근무해, 전부. {그래 그 사람들 전방 근무해, 전부.}

10201 @ 거기서 한 얼마나 근무하쫘쫘요? {거기서 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10201 # 온년. {오 년.}

10201 @ 왜 이케 오래 하쫘쫘요? {왜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10201 # 우리 군대 갈때는 이 체대래능게 업짜너. {우리 군대 갈 때는 이 체대라는 것이 없잖

아.}

10201 # 제대랭게 우꾸 가면 하:니 움능거지. {제대라는 게 없고 가면 한이 없는 거지.}

10201 @ 그럼 메쌀때 가면, 오시비, 일러네 가서썬요? {그럼 몇 살 때 갔던, 오십 이, 일 년에 가셨어요?}

10201 # 그러치, 수물, 수물다아세 제대를 해꺼든. {그렇지, 스물, 스물 다섯에 제대를 했거든.}

10201 @ 음. {음.}

10201 # 스물다선머거서. {스물 다섯 먹어서.}

10201 # 아니 수물다서세 가따, 전중을, 그래가 수물 아호베 나와서요. {아니 스물 다섯에 갔다, 전중을, 그래서 스물 아홉에 나왔어요.}

10201 @ 아. {아.}

10201 # 그르~이~까 나만 항게, 그무게 간놈 다그르케 해썬. {그러니까 나만 한 것이, 그 무렵에 간 놈 다 그렇게 했어.}

10201 # 그래도 이게 인제 휴저니 되구 그르이까 제대가 나오거지. {그래도 이게 이제 휴전이 되고 그러니까 제대가 나온 거지.}

# 그르이까 그냥 가든 주으린 해고 강거지 지베 올라고 가능건 업썬. {그러니까 그냥 가면 죽으려나보 하고 간 거지 집에 오려고 가는 건 없어.}

10201 @ 아. {아.}

10201 # 제, 제대가 업짜너, 지베 온다란 보장이 업짜너, 또 휴가두 업꾸. {제, 제대가 없잖아, 집에 온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또 휴가도 없고.}

10201 # 휴가두 업썬. {휴가도 없어.}

10201 # 요거 휴저니 돼: 가지고 그게 전부 멩그러징거지. {요거 휴전이 돼 가지고 그게 전부 만들어진 거지.}

10201 @ 군대 가서 고생 마니 하셔겐네. {군대 가서 고생 많이 하셨겠네.}

10201 @ 계그븐 머여썬요? {계급은 뭐였어요?}

10201 # 그런데 이 전방부대드른 또 이 사단하고 또 달라. {그런데 이 전방부대들은 또 이 사단하고 또 달라.}

10201 # 계급 또까치 아놀라가. {계급 똑같이 안 올라가.}

10201# 각싸단마다 다 달려요. {각 사단마다 다 달라요.}

1020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1 # 그럼, 여느 사다는 썬콜라가도 또 여느사다는 우꾸, 이 삼사다는 질: 증그블 안해썬. {그럼, 여느 사단은 썬 올라가도 또 여느 사단은 없고, 이 삼사단은 제일 진급을 안 해 썬.}

10201 # 우리 군버네 여느 사다늘 보든, 상사, 일등사, 이등 상사꺼정 하는데. {우리 군번에 여느 사단을 보면, 상사, 일등사, 이등 상사까지 하는데.}

10201 # 우린 최호야 병장빠게 안되능거야, 그러케 증그블 안썬요, 그 삼사다는. {우리는 최고라고 해야 병장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진급을 안 썬요, 그 삼사단은.}

10201 # 그 또까썬 아너, 그래서, 그래서 병장으로 이따가 나와썬. {그 똑같지를 앓아, 그래서, 그래서 병장으로 있다가 나왔지.}

10201@ 음. {음.}

10201 @ 그 어르신, 그 가족, 가족뿌는, 지금 자제부니 어 저버네 이남 사너여따고 그러셔썬? {그 어르신, 그 가족, 가족분은, 지금 자제분이 이남 사너였다고 그러셨썬?}

10201 # 어, 그럼. {어, 그럼.}

##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30 @ 그다메 어제 쪼끔 하다가 마라뎡게... {그 다음에 어제 조금 하다가 말았던 게...}

10230 @ 예저네 그 제사 지내셔짜나요, 어제 그 장네 이러케 얘기를 하셧는데 제사도... {예전에 그 제사 지내셨잖아요, 어제 그 장네 이렇게 얘기를 하셧는데 제사도...}

10230 @ 보통 옛, 옛날에는 어르신 어려쓸때 인제 어르신네 아버지나 이런분드리 인제 제사를 지내자나요, 제사는 일러네 며뻔 지내나요? {보통 옛, 옛날에는 어르신 어렸을 때 이제 어르신네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는 일년에 몇 번 지내나요?}

10230 # 한버니지, 지사지내능건. {한 번이지, 제사 지내는 건.}

10230 # 함분배께 더 지내? {한 번밖에 더 지내?}

10230 # 고거 도라가신 날짚 잡짜너. {그거 돌아가신 날짜를 잡잖아.}

10230 @ 예, 근데 그 제사에는 어떤 제사가 이썬요, 보통, 그... {예, 근데 그 제사에는 어떤 제사가 있어요, 보통, 그...}

10230 # 그케 방아찌사지. {그래, 방에제사지.}

10230 @ 예? {예?}

10230 # 방아서 지내능거 저냐게. {방에서 지내는 거 저녁에.}

10230 # 지사. {제사.}

10230 @ 아 예, 저냐게요? {아 예, 저녁에요?}

10230 # 그래, 그건. {그래, 그건.}

10230 @ 근데 그 제사가 보통 명저레도 이꼬 아니면 도라가셔뎡 날도 이짜나요. {근데 그 제사가 보통 명절에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셨던 날도 있잖아요.}

10230 # 명저렌 다 지내, 누구던지, 그래고... {명절엔 다 지내, 누구든지, 그리고...}

10230 @ 예. {예.}

10230 # 그냥 이러케 지내능건 인제 마냐개 내가 오늘 주거썬, 그래뎡 주근나리 아니고 어, 인제 어제 산:날로 나를 잠능거야, 주구머는.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건 이제 만약에 내가 오늘 죽었어, 그러면 죽은 날이 아니고 어, 이제 어제 산 날로 날을 잡는 거야, 죽으면.}

10230 @ 예예. {예예.}

10230 # 고나레 가서 지살 지내능거지. {그 날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10230 @ 주근날 전나레요? {죽은 날 전날에요?}

10230 # 그래, 사러, 그럼, 사러서 인제 주궁걸 날짜를 안쳐. {그래, 살아, 그럼, 살아서 이제 죽은 걸 날짜를 안 쳐.}

10230 # 주궁건 날짜르 안쳐, 사, 사러 인는 동아네 고 날짜 자버 가지고. {죽은 건 날짜를 안쳐, 사,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날짜를 잡아 가지고.}

10230 @ 음. {음.}

10230 # 그르िका 뎡년 지살 지내능거지, 그거 누구나 업썬. {그러니까 뎡년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거 누구나 업이.}

10230 # 그 방, 방에서. {그 방, 방에서.}

10232 @ 금, 제사를 지낼 때, 처메 인제 제사를 제사나리 다가오며는 뭘 준비를 하나요, 보통?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처음에 이제 제사를 제삿날이 다가오면 뭘 준비를 하나요, 보통?}

10232 # 다해지, 음식 장마는 다 한다구, 골고리. {다 하지, 음식장만 하는 것은 다 한다고, 골고루.}

10232 @ 어떤 음식글... {어떤 음식을...}

10232 # 뭐... {뭐...}

10232 # 인제 삼탕이 이꾸, 가는. {이제 삼 탕이 있고, 간은.}

10232 # 인제 삼탕은 인제 고사리 무우 나물 인제 고로케 해서 대구 고러케 삼탕이라 그래 대개.

10232 @ 아, 고사리... {이제 삼 탕은 이제 고사리, 무, 나물 이제 그렇게 해서 대개 그렇게 삼 탕이라 그래 대개.}

10232 # 그 무우, 그러, 삼탕 고러케 노쿠, 그거 해구 인제 과일, 과일 일른대루 다 사다가 피고. {그 무, 그렇, 삼 탕 그렇게 놓고, 그거 하고 이제 과일, 과일 있는대로 다 사다가 피고.}

10232 @ 어땡걸 논나요, 어땡걸 피나요? {어떤 걸 논나요, 어떤 걸 피나요?}

10232 # 밤:, 대추 이짜너, 밤: 대추, 사과, 감:, 줄:, 뭐. {밤, 대추 있잖아, 밤 대추, 사과 감, 꿀, 뭐.}

10232 # 그릉거 사탕, 다 노치. {그런 거 사탕, 다 놓지.}

10232 @ 사탕요? {사탕요?}

10232 # 그럼. {그럼.}

10232 @ 사탕도 봐요? {사탕도 봐요?}

10232 # 그럼, 인는사람 다 봐. {그럼, 있는 사람 다 봐.}

10232 @ 사탕은 뭐조? {사탕은 뭐조?}

10232 # 왜 사탕, 왜 똥그랑거 이짜너. {왜 사탕, 왜 동그란 거 있잖아.}

10232 @ 멍능거요? {떡는 거요?}

10232 # 그럼 애들 멍능거. {그럼 애들 먹는 거.}

10232 @ 그건 파이리 아니자나요? {그건 과일이 아니잖아요?}

10232 # 파이른 아니지. {과일은 아니지.}

10232 @ 근데 사탕을 봐요? {근데 사탕을 봐요?}

10232 # 그럼 과일, 저저 과줄. {그럼 과일, 저저 과줄.}

10232 # 그 바폴루 왜 과줄 멍길자너, 그거 노쿠. {그 밥폴로 왜 과줄 만들잖아, 그거 놓고.}

10232 # 그르이까 인제 또 자른 지내는 사람 떡뚜 해구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잘 지내는 사람 떡도 하고 뭐.}

10232 @ 떠근 어떤 떠글 해요? {떡은 어떤 떡을 해요?}

10232 # 근데 백설기는 안썬 그건 인제 파츠루다가 각, 파출 가루로 해가주구다 그걸 뿌려가주 두 고러케. {근데 백설기는 안 썬 그건 이제 팔으로다가 각, 팔을 가루로 해 가지고 그걸 뿌려가지고도 그렇게.}

10232 # 고러케 해노쿠 척, 인제 뭐 소고기, 뭐... {그렇게 해 놓고 척, 이제 뭐 소고기, 뭐...}

10232 @ 척, 이요? {척이요?}

10232 # 그래 메물 척, 메물적 밀저기짜너, 그거 부쳐서 그거 노꾸. {그래 메물적, 메물적 밀적 있잖아, 그거 부쳐서 그거 놓고.}

10232 @ 아. {아.}

10232 # 다하지, 아주, 그르이까 음식이라 골고리 다해지, 모태능게 업써유. {다하지, 아주,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골고루 다 하지, 못 하는 게 없어요.}

10232 # 잘지내는 사라믄 아주, 다 해, 사람 멍능건 다: 지내, 그계지 뭐. {잘 지내는 사람은 아주, 다 해, 사람 먹는 건 다 지내, 그거지 뭐.}

10232 # 그 뭐 누, 내나업씨 그건 다 그르케 돼 이씨, 운는 사라믄 해 볼 수 업짜너, 마니 모태자너. {그 뭐, 누구, 내나없이 그건 다 그렇게 돼 있어, 없는 사람은 해 볼 수 없잖아, 많이 못 하

잖아.}

10232 # 그르니까 내 성이끝, 우예 무랑그르세 메만 깨끄시 지, 떠놔도 된대능거야, 원:: 엔날로 인네들, 업씨면. {그러니까 내 성의껏, 위에 물 한 그릇에 메만만 깨끗이 짓어, 떠 놔도 된다는 거야, 원 옛날 노인네들, 없으면.}

10232 # 물 하구, 냉수하구 그저 치, 밥 그저 깨끄시 지어, 지어서 지살 지내두 다 상과니 읍따. {물하고, 냉수하고 그저 밥 그저 깨끗이 짓어, 짓어서 제사를 지내도 다 상관이 없다.}

10232 @ 예. {예.}

10232 @ 음식근 누가 준비를 해요, 남자가 준비 하능거 이꼬, 여자가 준비하능거 이쨌? {음식은 누가 준비를 해요, 남자가 준비 하는 거 있고, 여자가 준비하는 거 있쨌?}

10232 # 아, 다 그건 여자드리 해. {아, 다 그건 여자들이 해.}

10232 @ 남자드리 뭐... {남자들이 뭐...}

10232 # 으~이~, 그건 업씨. {아니, 그건 없어.}

10232 @ 안동 가면 남자드리 이러케 뭐, 밤:까꼬. {안동 가면 남자들이 이렇게 뭐, 밤 깎고.}

10232 # 남잔 모태. {남잔 못 해.}

10232 @ 밤도 양까까요? {밤도 안 깎아요?}

10232 # 그건 다, 인제 인제 술: 때, 남자가 해능건 그 떡치능거 떡. {그건 다, 이제 이제 설 때, 남자가 하는 건 그 떡 치는 거 떡.}

10232 @ 예. {예.}

10232 # 떡메, 그건, 그거는 인제 술:때. {떡메, 그건, 그거는 이제 설 때.}

10232 # 남잔제 거기 해당이 되지 뭐.{남자는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지 뭐.}

10232 @ 고기는 어떻 고기 쓰나요? {고기는 어떤 고기 쓰나요?}

10232 # 소고기지. {소고기지.}

10232 # 소고기두, 소고기, 소고기 모싸면, 돼:지고기 올라가능거지. {소고기도, 소고기, 소고기 못 사면, 돼지고기 올라가는 거지.}

10232 @ 그다메 물꼬기는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요?}

10232 # 물꼬기는 아놀라가. {물고기는 안 올라가.}

10232 # 그거 이러케 아주, 천대로 이러케, 쪽쪽 솔:지 양쿠 이러케 넙쩌카게 해야되지, 그럼. {그거 이렇게 아주, 모양대로 이렇게, 짹짹 썰지 않고 이렇게 넙적하게 해야 되지, 그럼.}

10232 # 고 피는 접시가 이짜너, 목, 목쩍씨라고, 고기다가. {그것 피는 접시가 있잖아, 목, 목접시라고, 거기다가.}

10232 # 고기는 뭐. {고기는 뭐.}

10232 @ 음. {음.}

10232 # 그르니까 멍녕거넌, 사라미 멍녕건 인제 다, 그 부모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은, 사람이 먹는 건 이제 다, 그 부모니까.}

10232 # 주겨썬두, 그르니까 다 자기 성이끝 해능거야. {죽었어도, 그러니까 다 자기 성의껏 하는 거야.}

10232@ 그럼 인제 음식글 장마나고, 거기 인제 그 병풍에다가 그 저기 저, 저기... {그럼 이제 음식을 장만하고, 거기 이제 그 병풍에다가 그 저기 저, 저기...}

10231 # 그래, 병풍 마~ 이러케 가리고, 고, 고기 인제 지방을 씨어 되자너. {그래, 병풍 막 이렇게 가리고, 거기 이제 지방을 씨야 되잖아.}

10231 @ 예, 지방을 쓰고 나서 이제, 인제 저를 지, 제사를 지낼때 젤 먼저 하능게 뭐예요, 가치 가족뜨리 인제 쪽. {예, 지방을 쓰고 나서 이제, 이제 절을 지,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같이 가족들이 이제 쪽.}

10231 # 인제 모이자너, 그래튼 장:소니 먼저 자늘 올리능거야 그계. {이제 모이잖아, 그러면 장  
손이 먼저 잔을 올리는 거야 그계.}

10231 @ 예. {예.}

10231 # 장:소니, 아니면 크나드리 질: 먼저 인제 자늘 올리지. {장손이, 아니면 큰아들이 제일  
먼저 잔을 올리지.}

10231 @ 예. {예.}

10231 # 그다음에 인제 잔 올린다음에 인제 또 야중에 인제 또 인제 시꾸대루 다 가치 해구 그  
래구 거기두 뭐 삼자니야 그러치만. {그 다음에 이제 잔 올린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이  
제 식구대로 다 같이 하고 그러고 거기도 뭐 삼잔이야 그렇지만.}

10231 # 그거두 또 지반말 달라요. {그것도 또 지방마다 달라요.}

10231 # 삼자니고, 또 우편 사라튼 다, 지반시꾸 다 잔 올리고. {삼 잔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집안 식구 다 잔 올리고.}

10231 @ 음, 삼자는 뭐예요? {음, 삼 잔은 뭐예요?}

10231 # 세:번. {세 번.}

10231 @ 음. {음.}

10231 # 월래 그 세:번 제살 지내능거, 세:번 이르케 해. {원래 그 세 번 제사를 지내는 거, 세  
번 이렇게 해.}

10231 # 그거 지사지내고 인제 이르케 대:고 자놀리고 나오튼 또 수깔루 가 푹푹 두드리자나.  
{그거 제사지내고 이제 이렇게 대고 잔 올리고 나오면 또 술갈로 가지고 푹푹 두드리잖아.}

10231 @ 예예. {예예.}

10231 # 강저리라고래, 그거, 강절. {강절이라고 그래, 그거, 강절.}

10231 @ 강절요? {강절요?}

10231 # 음. {음.}

10231 @ 수까라그로 푹푹 두드리능거. {술가락으로 푹푹 두드리는 거.}

10231 # 으, 수까라글 인제 그르까따 노:튼 그걸 세:번 이러케 딱딱, 그래튼 이러나튼 또 인제  
시꾸대루 다: 이러나서 가치 인제 재:배 해구 인제 그래구 또 와서 인제. {으, 술가락을 이제 그  
릇 갖다 놓으면 그걸 세 번 이렇게 딱딱, 그러면 일어나면 또 이제 식구대로 다 일어나서 같이  
이제 재배를 하고 이제 그러고 또 와서 이제.}

10231 # 내가 이제 장:소니 자놀린 다음에 인제 지차가 와서 또, 또... {내가 이제 장손이 잔 올  
린 다음에 이제 지차가 와서 또, 또...}

10231 @ 지사? {지사?}

10231 # 응, 두:째 아드리 와서 해능거야. {응, 둘째 아들이 와서 하는 거야.}

10231 @ 아. {아.}

10231 # 그르이까 석짜니야, 월래가. {그러니까 석 잔이야, 월래가.}

10231 @ 그럼 젤 먼저 장소니 저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가치 재:배를 다하고. {그럼 제일 먼저  
장손이 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재배를 다 하고.}

10231 @ 그다음에 인제 둘째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와서...}

10231 # 그럼 또 또 자늘 올리지, 혼자. {그럼 또 또 잔을 올리지, 혼자.}

10231 @ 둘째가 와서 자늘 올리기 저네 인제 뭐 수까라글 푹푹 두드리능거 언제 해요? {둘째가  
와서 잔을 올리기 전에 이제 뭐 술가락을 푹푹 두드리는 거 언제 해요?}

10231 # 그래튼 인제 이러나능거야, 이리, 끈나능거야, 인제 두번 저를 해구 강절 해튼, 장소니  
저를 두:번 해구 인제 나오튼 다음에 인제 또 함번, 전부 또 해:, 또 해튼 또 인제 그다음서버터  
해구 나와서 이러나서 또 인제 두:째가 인제 또 혼자가서 헨다구.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일어, 끝나는 거야, 이제 두 번 절을 하고 강절 하면, 장손이 절을 두 번 하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전부 또 해, 또 하면 또 이제 그 다음서부터 하고 나와서 일어나서 또 이제 둘째가 이제 또 혼자가서 한다고.}

10231 # 그래든 그때 인제 뭐 밥뚜 말:구 뭐 똑딱꺼리고 다: 인제 음:서게다가 인제 절갈도 인제 고기 잡쑤라고 고기다 노코, 인제 그러케 해.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밥도 말고 뭐 똑딱꺼리고 다 이제 음식에다가 이제 젓가락도 이제 고기 잡수라고 고기에다 놓고, 이제 그렇게 해.}

10231 @ 강절 이러케 할 때 그 뚜두리는 사람 누구예요? {강절 이렇게 할 때 그 두드리는 사람 누구예요?}

10231 # 아, 그건 인제, 그건 뭐 아무이나 아무나 양짜게서 해니까는. {아, 그건 이제, 그건 뭐 아무 사람이나 아무나 양쪽에서 하니까.}

10231 @ 아 그머 고걸 딱 뚜드리면 인제 다가치 이러나능거예요? {아 그럼 그걸 딱 두드리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10231 # 그래. {그래.}

10231 # 그르케 해능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231 # 그래서 세버니야유, 그게 지사지내능게 그런데 사라미 만:차너 시꾸드리 그래면... {그래서 세 번이예요, 그게 제사 지내는 게 그런데 사람이 많잖아, 식구들이 그러면...}

10231 # 뭐 딸두이꼬 메누리도 이꼬 그르~이~까 지끄른 인제 그걸 따지지 아나, 세번 해구 네, 뭐 네버니니 다서빠니니 다 헬라른 해구 그래 그건. {뭐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따지지 았아, 세 번 하고 네, 뭐 네 번이니 다섯 번이니 다 하려면 하고 그래 그건.}

10231 @ 음. {음.}

10231 # 앙그래요, 볼래가. {안 그래요, 본래가.}

10231 @ 음. {음.}

10231 # 인제 옛날 규수가 인제 세:버니야 그게 월래가, 세버놀리면 아놀리자너. {이제 옛날 규척이 이제 세 번이야 그게 월래가, 세 번 올리면 안 올리잖아.}

10231 @ 아 예. {아 예.}

10231 # 그럼. {그럼.}

## 1.3. 생업 활동

### 1.3.1. 농농사

10302 @ 그다메 음, 어르신 그 옌나레는 그 생업, 활동 가통걸 이러케 해쓸텐데, 뭐 농농사, 반농사 이렇거뜨를 마니 지으, 지어쓸텐데 농농사, 반농사와 팔려내서 쯤 여쭙보고 시풍거시 인는데 요. {그 다음에 음, 어르신 그 옛날에는 그 생업, 활동같은 걸 이렇게 했을텐데, 뭐 농농사, 반농사 이런 것들을 많이 짓으, 짓었을텐데 농농사, 반농사와 관련해서 쯤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

10302 @ 옌나레 농농사를 마니 지어짜나, 아이, 농농사를 마니 지찌 앙코 쯤끔 지어짜나요, 그래도 바떼기가통겨. {옛날에 농농사를 많이 짓었잖아, 아니, 농농사를 많이 짓지 않고 조금 짓었잖아요, 그래도 받떠기 같은 거.}

10302 # 그래서. {그래서.}

10301 @ 근데 이제 벼가, 벼가통 경우에는 인제 품종드리 이써짜나요, 품종드리, 어떤 품종드리 이쨌나요? {근데 이제 벼가, 벼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종들이 있었잖아요, 품종들이, 어떤 품종들이 있었나요?}

10301 @ 옌나레도, 옌나레 인능거랑 요즘 하능거랑 혹씨 뭐 다르게 이쨌니까? {옛날에도, 옛날에 있는 거랑 요즘 하는 거랑 혹시 뭐 다른 게 있습니까?}

10301 # 그, 그문도래능게 이써. {거, 거문도라는 게 있어.}

10301 @ 예? {예?}

10301 # 그문도, 그문도가 이꾸... {그문도, 그문도가 있고...}

10301 @ 그문도. {그문도.}

10301 # 어, 그게 이꾸. {어, 그게 있고.}

10301 # 그문도가 이꾸 또, 이제 하도 오래돼:서 그릉겨, 그래구다가 인제 뭐야, 아이또, 생각또 벼랑가난나네. {그문도가 있고 또, 이제 하도 오래 되어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야, 아이 또, 생각도 별안간 안 나네.}

10301 # 유:고, 유, 유고싸리라고 이써유 또. {유고, 유, 유고쌀이라고 있어요 또.}

10301 @ 유고쌀요? {유고쌀요?}

10301 # 응. {응.}

10301 # 그게 아주 인날 싸린데 그게 조와 아주. {그게 아주 옛날 쌀인데 그게 좋아 아주.}

10301 # 지금 그걸 아내서 그러치, 아주 그건 밥마시 자르르 흐른다구 아주. {지금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아주 그건 밥맛이 자르르 흐른다고 아주.}

@ 유고싸리요? {유고쌀이요?}

10301 # 그럼 조완는데 그게 다 읍새징거야. {그럼 좋았는데 그게 다 없어진거야.}

10301 @ 음. {음.}

10301 # 그게 읍새지고 인제 지끔 새루 인제 대:구 저런, 나오는데 또 그래구 아이고 하난 또 뭐시라, 생가기 또 안나네, 그건, 팔따리. {그게 없어지고 이제 지금 새로 이제 마구 저런, 나오는데 또 그리고 아이고 하나는 또 뿔이라, 생각이 또 안 나네, 그건, 팔달이.}

10301 @ 팔따리요? {팔달이요?}

10301 # 예, 팔따리라 그러는데 그걸 해머는 그건 벼가 느저 여는 벼보다 아주. {예, 팔달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면 그건 벼가 늦어 여는 벼보다 아주.}

10301 # 느께 인제 여무는데 그거또 사라만테는 싸른 조:치 아주, 그게, 아주 머긴 조:치. {늦게 이제 여무는데 그것도 사람한테는 쌀은 좋지 아주, 그게, 아주 먹긴 좋지.}

10301 # 근데 그렇게 지금 읍씨, 지끄른 수확 마이 나능걸 쥘, 전부 해자너, 그래서 밤마덤능게 그거야.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어, 지금은 수확 많이 나는 걸 제일, 전부 하잖아, 그래서 밥맛 없는 게 그거야.}

10301 # 그래 지금 오:대싸리 그게 나오거야유. {그래 지금 오대쌀이 그게 나온 것이요.}

10301 # 그러게 오:대싸리 벌써 나온제가 오래 돼써유. {그렇게 오대쌀이 벌써 나온 때가 오래 됐어요.}

10301 # 텔레비에 나오자나 저 저, 처룬, 거 나오자너. {텔레비전에 나오잖아 저 저, 철원, 거 나오잖아.}

10301 @ 근데 그거는 마니 나는데 밤마슨 업꼬, 그러거? {근데 그거는 많이 나는데 밥맛은 없고, 그런거?}

10301 # 아니 오대싸른 조용거지, 그럼 평가바들, 그 뭐 수 수 미구그루 수출된다고 전 텔레비에 나오더라구. {아니 오대쌀은 좋은 거지, 그럼 평가 받을, 그 뭐 수, 수,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10301 @ 음. {음.}

10301 # 근데, 거기선 안지까지 그걸해, 그러~이~간 인제 그보다두 더 수, 수추리 마이 나오능 거, 벼가 더 마이 나오닝걸, 이 사람드른 심는 사라른 그게 마이 나와야 인제 매상을 해구 인제 그래기 뻘서 그래서... {그런데, 거기선 아직까지 그걸 해,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도 더 수, 수출이 많이 나오는 거, 벼가 더 많이 나오는 걸, 이 사람들은 심는 사람은 그게 많이 나와야 이제 매상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10301 # 베, 벼가 마이 나오능건 밤마시 읍씨요. {벼, 벼가 많이 나오는 건 밥맛이 없어요.}

10301 @ 예. {예.}

10301 # 쌀: 머끼 나빠, 옛날 저저 저 미국사람들 알랑미 나오자너. {아주 먹기 나나빠, 옛날 저저 저 미국사람들 알랑미 나오잖아.}

10301 @ 예. {예.}

10301 # 그시기야, 지금 싸리. {그 식이야, 지금 쌀이.}

10301 # 그르~이~까 수화기 조금 나능게일수록 밤마슨 조:치. {그러니까 수확이 조금 나는 것일수록 밥맛은 좋지.}

10301 # 그르이까 수화기 안나니까 인제 그릉걸 대:구 정부에서두 그러케 한다구. {그러니까 수확이 안 나니까 이제 그런 걸 마구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10301 @ 알랑미는 어떻거여써요? {알랑미는 어떤 거였어요?}

10301 # 알랑미는 저, 이, 미군서 나오능거 이씨. {알랑미는 저, 이, 미군서 나오는 거 있어.}

10301 @ 미군, 미구네서요? {미군, 미군에서요?}

10301 # 예. {예.}

10301 @ 그건 밤마시 쯤... {그건 밥맛이 쯤...}

10301 # 나빠유, 그런데 고거또 인제 발따리 돼:서 쯤 인제 쯤 나:긴 난는데 그게 수화기 마이 나드라구, 나기는. {나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발달이 돼서 조금 이제 쯤 낫긴 낫는데 그게 수확이 많이 나더라고, 나기는.}

10301 @ 예. {예.}

10301 # 근데 그걸 아, 지금 안들 헤드라구. {그런데 그걸 아, 지금 하지들 았더라고.}

10301 # 팔따리가 참:: 밤마슨 조은데. {팔달이가 참 밥맛은 좋은데.}

10301 # 나는 뭐 내가 지루는, 순전히 난 뭐 마이 나오능거뚜 실코 그냥 지베서 머그니까는 그냥 팔따리 심는데. {나는 뭐 내가 기르는, 순전히 난 뭐 많이 나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서 먹으니까 그냥 팔달이 심는데.}

10301 # 그건 또, 여너 벼를 수화글, 열까마가 나면 그건 일구여덜까마베께 안 나, 가마가. {그건 또, 여느 벼를 수화글, 열 가마가 나면 그건 일곱여덜 가마밖에 안 나, 가마가.}

10301 # 그런데 그걸 가따 짜:든 항가마이에 여덜말아흙말쌍나온다구 그래, 싸리. {그런데 그걸 갖다 쪼으면 한 가마니에 여덜아흙 말씩 나온다고 그래, 쌀이.}

10301 # 근데 여느건 그러케 싸리 또 안빠지거든, 그러이까 그느른 그대신 꺼푸리 알버, 팔따리는 . {그런데 여느 것은 그렇게 쌀이 또 안 빠지거든, 그러니까 그놈은 그대신 껌풀이 얇아, 팔달이는.}

10301 # 여는 베는 이 \*\* \*\*\* 췌, 아래 껌떼기가, 그래서 그래요. {여느 벼는 이 ?? ??? ?, 아래 껌떼기가, 그래서 그래요.}

10301 # 그래서 그 팔따리가 조완는데. {그래서 그 팔달이가 좋아하는데.}

10301 # 지금 인제 그렇거 귀영 모태, 어디가 머거본적..., 최:고 조아 밤마순. {지금 이제 그런 거 구경 못 해, (요즘은) 어디 가 먹어 본 적...(없어), 최고 좋아 밥맛은.}

10301 # 난 지끄매들 그 박까따 농:거 몸먹개써, 저 버리밥가태서, 설그러워. {난 지금 애들 그 밥 갖다 놓은 거 못 먹겠어, 저 보리밥같아서, 설그러워서.}

10302@ 금 그, 그렇거뜨를 이러케 농사를 예저네 지으셔짜나요, 지이 보셔짜나요, 그럼 그 과정이 처:메는 어떠케 인제 엔나레 인제 농사를 지으려며는. {그럼 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농사를 예전에 짓으셨잖아요, 짓어 보셨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10302 # 그래 그... {그래 그...}

10302 @ 지그른 인제 뭐 그걸 필라야 되자나요, 범씨. {지금은 이제 뭐 그걸 무엇을 놔야 되잖아요, 범씨.}

10302 # 인제 베씨를 따로 인제 그걸 갈:게 따루 떠러, 베씨를 인제 고게 인제 잡빠, 그렇거 이러케 속짜. {이제 범씨를 따로 인제 그걸 가을에 따로 떨어, 범씨를 인제 그게 이제 잡벼, 그런 거 이렇게 속지...}

10302 # 그러~이~까 고 잡빠 안 서꾸마, 잡빠는 여는 베하거든 키가 커유. {그러니까 그 잡벼 안 속으면, 잡벼는 여느 벼보다 키가 커요.}

10302 # 그건 또 여물지도 아너, 그래 인제 고걸 가려서 갈:게 베빌찌게 골라서 고러케 고걸 따루 떠러다 뒤, 인제 뒤따가 보메 가서 인제 그걸 해, 가다, 그걸 글찌는 그냥 무레 당귀찌, 그걸. {그건 또 여물지도 아냐, 그래 이제 그걸 가려서 가을에 벼 벨 적에 골라서 그렇게 그걸 따로 떨어져 뒤, 이제 뿔다가 봄에 가서 인제 그걸 해, 가져다 그걸 그때는 그냥 물에 담궜지, 그걸.}

10302 # 무레 당귀따가 내가 인제 메친날 한다능걸 알구다 미리 당귀나따, 인제, 벼가 뿌러야. {물에 담궜다가 내가 이제 며칠 날 한다는 걸 알고서 미리 담궜었다, 이제, 벼가 불어야.}

10302 # 그래머 그저네 그전, 노늘 상:꾸 그러이까 새끼줄로 이러케 떠워, 엔나렌, 그냥. {그러면 그전에 그전, 논을 삼고 그러니까 새끼줄로 이렇게 띄어, 옛날엔, 그냥.}

10302 # 아주 엔나렌 그냥 그거또 안 띄우구, 그냥 잉그르루 그냥 이러케 뿌러때, 엔나레는. {아주 옛날엔 그냥 그것도 안 띄고 그냥 금 없이 그냥 이렇게 뿌렸대, 옛날에는.}

10302 @ 뭘로 뿌려요? {뭘로 뿌려요?}

10302 # 그냥, 이러케 금두 양 그:노쿠. {그냥, 이렇게 금도 안 굶어 놓고.}

10302 @ 예예. {예예.}

10302 # 근데 우리가 우리 헬찌는 이 말뚜글 요러케 바꾸, 예러케 바꾸 그래서 이 요 강:겨구루다 요러케 해서 여기다 새끼주르 요러케 띄우든 요:가 요러케 땅나오자너. {근데 우리가 우리 할적에는 이 말뚜글을 요렇게 박고, 요렇게 박고 그래서 이 요 간격으로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 새끼줄을 요렇게 띄면 요기가 요렇게 딱 나오잖아.}

10302 @ 아, 그러면 사가그로 사가계 각, 모서리에 그 뭐, 나무를 바꼬 거기에 주를 요::러케 치며는 사가경이 되네요. {아, 그러면 사각으로 사각에 각 모서리에 그 뭐, 나무를 박고 거기에 줄을 요렇게 치면 사각형이 되네요.}

10302 # 그래든 인제 요마끔 공가늘 냉겨, 사람 땡기능걸. {그러면 이제 요만큼 공간을 남겨, 사람 다니는 걸.}

10302 @ 사람 땡기능공가늘 만들고... {사람 다니는 공간을 만들고...}

10302 # 그래 골:로 가면서 고기다 이러케 호호 뿌리지 뭐. {그래 골로 가면서 거기다 이렇게 훌훌 뿌리지 뭐.}

10302 @ 아. {아.}

10302 @ 베씨를 이러케 고루... {베씨를 이렇게 고루...}

10302 # 그래딩게 인제 그게 또 읍새지고 지끄든 인제 판때기가 나오자너, 그게 읍새져찌. {그러던 게 이제 그게 또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판대기가 나오잖아, 그게 없어졌어.}

10302 # 그게 엔:날 해능게 읍새지구 지끔 새로 인제 이 판때기로다 나온, 판때기다가 지끄든 그걸 또 분능거야. {그게 옛날 하는 게 없어지고 지금 새로 인제 이 판대기로 나온, 판대기에다가 지금은 그걸 또 붓는 거야.}

10302 # 근데 고걸 고기다... {근데 그걸 거기에다...}

10303 @ 엔나레는 고걸 뭐라고 그래씨요?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10302 # 모, 모자리 파니라 그래지. {모, 모자리 판이라 그랬지.}

10303 @ 그러쥬, 그쥬, 노네다가 한쥬그로 요리::케 해서 모자리파늘 만들고나서... {그러쥬, 그쥬, 눈에다가 한쥬쪽으로 요렇게 해서 모자리 판을 만들고 나서...}

10303 @ 그다메 어, 그다메 인제 고거를 언제쥬메 다시 인제 고거를...? {그답에 어, 그답에 이제 그거를 언제쥬 다시 이제 그거를...?}

10303 # 아, 운:제 해느냐. {아, 언제 하느냐.}

10303 @ 예. {예.}

10303 # 그러이까 한식 저, 빨::리 해는 사라미 한식게 해는데 한식게 해기엔 너무 나리 추와가 지구 그게 모가 잘 띠, 시질 안트라구, 그게. {그러니까 한식 전, 빨리 하는 사람이 한식에 하는데 한식에 하기엔 너무 날이 추워서 그게 모가 잘 띠, 서질 았더라고 그게.}

10303 @ 예. {예.}

10303 # 그게 뭐 뿌려따해서 뭐 그게 아주 조용게 아니야, 그게 다: 안 나와요. {그게 뭐 뿌렸다 해서 뭐 그게 아주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다 안 나와요.}

10303 # 나리 인제 그게 다 이러케 마지면 고게 잘라오는데 싸기 투켜서, 잘란돼. {날이 이제 그게 다 이렇게 맞으면 그게 잘 나오는데 싸이 터서, 잘 안 돼.}

10303 # 그르이겐 고구땡 너무 느꾸 고구땡은 너무 느저. {그러니까 곡우 땡 너무 늦고 곡우 땡은 너무 늦어.}

10303 # 그르이께 한식찌네 인제 인제 한시기 너머가든 부어 그걸, 한식. {그러니까 한식 전에 이제 이제 한식이 넘어 가면 붓어 그걸, 한식.}

10303 # 나, 나무 심능거 이짜너, 그때 분는다구. {나, 나무 심는 거 있잖아, 그때 붓는다고.}

10303 @ 예, 한싱 너머가면... {예, 한식 넘어 가면...}

10303 # 근데 한식찌네 분능거는 좀 심드러. {근데 한식 전에 붓는 거는 좀 힘들어.}

10303 @ 근데 분능게 뭐쥬? {근데 붓는 게 뭐쥬?}

10303 # 모자리 핸대능거여, 모, 그림. {모자리 한다는 거야, 모, 그림.}

10303 @ 아, 모자리를 한다능거쥬. {아, 모자리를 한다는 거쥬.}

10303 # 베씨 그거 뿌리능거 그건데. {베씨 그거 뿌리는 거 그건데.}

10303 @ 음. {음.}

10303 # 그래, 그거. {그래, 그거.}

10303 @ 그럼, 일러늘 이러::케 노코 보며는 인제 베통사를 질:때 처메는 베틀을 이러케 고루고 그다메 인제 그거를, 베틀을 몰:라서 모자리 파늘 만들조. {그럼, 일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베통사를 짓을 때 처음에는 베틀을 이렇게 고르고 그담에 이제 그거를, 베틀을 골라서 모자리 판을 만들조.}

10303 # 그래 인제 그걸 인제... {그래 이제 그걸 이제...}

10303 # 모가 인제 이마꿈 조:우먼 시물때면 인제 그때사버텀 인제 노늘 가라가주구 전부 쌍:꾸 고다가 인제 그걸, 사라미 드러가서 이러거 소느 자버댕, 뽕짜너 전부. {모가 이제 이만큼 좋으면 [사라면] 심을 때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눈을 갈아가지고 전부 삶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 당, 뽕잡아 전부.}

10303 # 그래가주구 그걸 인제 고거또 도, 한옹쿠씩 썬, 그래가주구다 지푸라글 동:개서 그래서 가주와서 인제 가따, 쌀문 노네다가, 이러, 여:기저:기 뿌레노:문 인제 사라미 쪽:: 드러가주구다가 그 시물 때 그걸 가따가 시무부더 이러케 뒤루 빠꾸르 해 나가, 나가능거야 인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것도 또, 한 옹큼씩 썬, 그래가지고 지푸라기를 동여서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제 갖다, 삶은 눈에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뿌려 놓으면 이제 사람이 쪽 들어가서 그 심을 때 그걸 갖다가 심으면서부터는 이렇게 뒤로 가면서 나가, 나가는 거야 인제.}

103023 @ 그러며는 이제 그러케 모자리파늘 만들고나서 고거를 이제 봉격썬그로 이제 모를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모자리 판을 만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를 어...}

10302 # 그르िका 그걸 모자리 해서 한 오시빌가는 계:속 그걸 강가멸 해:애지 그거만, 모를. {그러니까 그걸 모자리 해서 한 오십 일 간은 계속 그걸 강감을 해야지 그거만, 모를.}

10302 @ 강가물요? {강감을요?}

10302 # 아, 그, 잘, 이제 모가 잘 되게끔 인제 만날 가 물두 조정해구 만날 보러댕기지. {아, 그, 잘, 이제 모가 잘 되게끔 이제 매일 가 물도 조정하고 매일 보러 다니지.}

10302 @ 예예. {예예.}

10303 # 그래가주구 인제 그게 시머는 인제 내간지 이러케 뽕바두 한주미 되며는, 이러케 되며는 인제 나를 바더서 모를 심녕거지 뭐, 제, 노늘, 조, 인제 가러가주구 전부.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서면 이제 목아지 이렇게 뽕아도 한 줌이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날을 받아서 모를 심는 거지 뭐, 이제, 눈을, 줌, 이제 갈아가지고 전부.}

10302 @ 노늘 가라가주구 인제 모를 심:꼬 나서... {눈을 갈아가지고 이제 모를 심고 나서...}

10305 # 그래 인제 거 눈물 보다가 인제 그게 인제 그때는 또 인제 그걸, 지끄문 암매:요, 호무 이짜나, 허무. {그래 이제 거 눈물 보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때는 또 이제 그걸, 지금은 안 매요, 호미 있잖아, 호미.}

10305 @ 예예. {예예.}

10305 # 옛날엔 그거 허무 전부 매:썬. {옛날엔 그거 호미 전부 땀어.}

10305 @ 예예, 허무로. {예예, 호미로.}

10305 # 그니까 배뿌글 파능게 안지아, 배뽕기 여기썬머 그 여궐, 그니까 요러케 다: 주를 뛰어 시머 그거또, 공가늘. {그러니까 뱃복을 파는 게 아니고, 뱃복이 여기 있으면 그 옆을, 그러니까 요렇게 다 죽을 띄어 심어 그것도, 공간을.}

10305 # 그르िका 그 공가늘 허무루 파서 그걸 어퍼뿌러. {그러니까 그 공간을 호미로 파서 그걸 덮어버려.}

10305 # 그냥 글거서 그걸 퍼떡, 이러낭걸 어퍼뿌러, 그르िका 풀 몬나오게. {그냥 굽어서 그걸 퍼떡, 일어난 걸 덮어버려, 그러니까 풀 못 나오게.}

@ 예예. {예예.}

10305 # 단지 그거야, 그건 풀 몬나오게. {단지 그거야, 그건 풀 못 나오게.}

10305 # 그래다가 인제 그래고 거반 인제 비로를 팔 무런 이씨면...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거의 이제 비료를[베가?] 팔팔 무렵이 있으면.}

10305 # 피라능게 이짜, 피 피, 노네. {피라는 게 있잖아, 피 피, 논에.}

10305 # 옌나렌 그게 마이 나와요, 그래 인제 그건 베하고 피하곤 달르거등, 인제 새까리가. {옛날엔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 이제 그건 벼하고 피하곤 다르거든, 이제 색깔이.}

10305 # 그르이까 인제 그걸 대:구...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마구...}

10305 @ 색깔이 어떠케 다르조? {색깔이 어떻게 다르죠?}

10305 # 고건 좀 허여스름 해, 피는. {그건 좀 허여스름해, 피는.}

10305 @ 아, 예. {아, 예.}

10305 # 어, 피는 허여스름 해유, 그런데 또 그게 베보다 키가 좀, 울썩 이러케 올라가니깐. {어, 피는 허여스름해유, 그런데 또 그게 벼보다 키가 좀, 울썩 이렇게 올라가니깐.}

10305 @ 근데 처음엔 잘 구벼리 앙가자나요. {근데 처음엔 잘 구별이 안 가잖아요.}

10305 # 그러치, 처:메 그림, 패:야 인제 베가 패고 해면 아주 완저~이~ 달라져, 그건 또 베 이러케 패:면 그노른 이마꿈 올라와서 팬다구, 그게. {그렇지, 처음엔 그림, 패야 이제 벼가 패고 하면 아주 완전히 달라져, 그건 또 벼 이렇게 패면 그놈은 이만큼 올라와서 팬다고, 그게.}

10305 # 그르이까 인제 그래두 그거 마~이~ 남 또 베가 안 되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거 많이 나면 또 벼가 안 돼요.}

10305 # 그래서 그 옌나렌 그걸 마:내찌, 지그른 인제 야기 조으니깐. {그래서 그 옛날엔 그게 많았지, 지금은 이제 약이 좋으니까.}

10305 # 그 야그루 다 그 치른 그거뚜 망거지게 돼이씨. {그 약으로 다 그걸 치면 그것도 망가지게 돼 있어.}

10305 # 풀락 풀, 죽뜨시 인제 그래가주구 인제, 지뜨른 그래 띄내, 농사진능게. {풀약, 풀, 죽듯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래 편해, 농사 짓는 게.}

10305 # 옌나렌 야기 읍찌. {옛날엔 약이 없지.}

10305 @ 예 그러케 인제 피, 피를 이게 다 자바서 골라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인제 갈: 되며는 인제... {예 그렇게 이제 피, 피를 이게 다 잡아서 골라 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을 되면 이제...}

10302 # 그림 인제 그래가주구 인제 그걸 인제, 인제 비게 될 때는 인제 베가 다 누::러케 여물면 인제 무를 인제 몬, 안 대지, 노네다가.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이제 베게 될 때는 이제 벼가 다 누렇게 여물면 이제 물을 이제 못, 안 대지, 논에다가.}

10302 @ 예예, 그러초. {예예, 그렇죠.}

10302 # 무를 안 대면 베, 베가 안 되자너, 짜라라게야 어우리지 안차너, 그거 몰루 되능거니깐, 그르~이~까. {물을 안 대면 벼, 벼가 안 되잖아, \*\*\*\*\* 어울리지 않잖아, 그거 몰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302 # 인제 누::러켄, 노::라케 되면 내가 인제 베를 비게따 해몬 미리 무를 인제 안 대능거야. {이제 누렇게 노랑게 되면 내가 이제 벼를 베겠다 하면 미리 물을 이제 안 대는 거야.}

10302 # 그래 인제 말러야 그때서 인제 가서 나스루다 벼, 비지. {그래 이제 말러야 그때서 이제 가서 낫으로 벼, 베지.}

10302 @ 음. {음.}

10302 # 벼까러가주구 인제 그걸 전부 그걸 인나렌 지브루 끄드레써. {벼 깔아 가지고 이제 그걸 전부 그걸 옛날엔 집으로 꺼 들었어.}

10302 # 지끄른 이 기계가 이써, 노네서 다 떨자누. {지금은 이 기계가 있어, 논에서 다 떨잖아.}

10302 # 옴:나렌 그 다, 아무리 머러두 지브루 가주와야돼. {옛날엔 그 다 아무리 멀어도 집으로 가지고 와야 돼.}

10302 # 지비, 마다~으~서 떠러. {집에, 마당에서 떨어.}

10302 # 그래므 인제 그, 그르니까 마당두 인제 널:게 다 옴:나렌 인제 베를 그래므 인제 그걸 또 파월 추석때 지:늑 이짜너, 빨건흙. {그러면 이제 그 그러니까 마당도 이제 넓게 다 옛날엔 이제 벼를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팔월 추석 때 진흙 있잖아, 빨건 흙.}

10302 # 그거 돌: 안 서깁거 그걸 파다가 거기다가 또 까러. {그거 돌이 안 섞인 거 그걸 파다가 거기다가 또 깔아.}

10302 # 까러가주구 이 무를 뷁: 가주 한테 버무려서 싹 발러놔. {깔아가지고 이 물을 부어 가지고 한테 버무려서 싹 발라 놔.}

10302 @ 아, 그 마당에요? {아, 그 마당에요?}

10302 # 그림. {그림.}

10302 # 그래야지 여너 흐기 모:래 뭐 그릉게 지끄른 패하고 또까짜너. {그래야지 여느 흙이 모래 뭐 그런 게 지금 \*\*\* 똑같잖아.}

10302 # 그르이간, 그림 돌 안드러가게. {그러니까 그림 돌 안 들어가게.}

10302 # 그느물 하, 그래가주 인제 왕겨를 갈따 또 가벼게 뿌리구다 사름 지지 발버. {그 놈을 하, 그래가지고 이제 왕겨를 갖다 또 가볍게 뿌리고서 사람이 짓이겨 밟아.}

10302 # 그래므 아주 흘기 아니러나지, 둘두 우꾸. {그러면 아주 흙이 안 일어나지, 돌도 없고.}

10302 # 옴:나렌 그래, 그래서 거기두 그냥 기계루 이러케 떨:자너. {옛날엔 그래, 그래서 거기도 그냥 기계로 이렇게 떨잖아.}

10302 # 기계 아리유? {기계 알아요?}

10302 # 요러케 멩그능거 이써, 사라미 떠:능거 요러케 대구. {요렇게 만드는 거 있어, 사람이 떠는 거 요렇게 대고.}

10302 @ 예, 그 이게 뭐뭐 철사가통게 이러케 이러케 올러용거 그렁거 아녕가요? {예, 그 이게 뭐 뭐 철사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 온 거 그런 거 아닌가요?}

10302 # 그래, 그렁거, 도라가능게 이써. {그래 그런 거 돌아가는 게 있어.}

10302 @ 예예. {예예.}

10302 # 이 구르개통이 이만해. {이 구르개 통이 이만해.}

10302 @ 고걸 뭐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10302 # 응, 발기, 기계라 그래, 발기계라 그래니... {응, 발기계라 그래, 발기계라 그러니...}

10302 @ 발기계요? {발기계요?}

10302 # 통이 이만해, 그런데 거기 사시리 이러케 이써. {통이 이만해, 그런데 거기 사슬이 이렇게 잇어.}

10302 @ 예. {예.}

10302 # 꺼꺼징게, 이러케 옥, 다바더서. {끼어진 게 이렇게 옥, 치숫아서.}

10302 @ 예예, 그러케 해서. {예예, 그렇게 해서.}

10302 @ 이게 도라가며는 이제 거 대기만 하면 이러케. {이게 돌아 가면 이제 거기 대기만 하

면 이렇게.}

10302 # 뒤에서 그걸 발부면 그누미 도라가지. {뒤에서 그걸 밟으면 그 놈이 돌아가지.}

10302 # 그래 인제 사래미 고기다 두리서 이러케 이러케 떨어내, 옌나렌 사무, 그르케 해머거찌 뭘. {그래 이제 사람이 거기다가 돌이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내, 옛날엔 계속, 그렇게 해 먹었지 뭘.}

10302 # 그래딩게 지끔 인제 발따리 되니깐 뭘. {그러던 게 지금 이제 발달이 되니까 뭘.}

10302 # 다 기계루 가... {다 기계로 가지고...}

10302 # 옌나렌 다 그러케 해머거써, 그래, 또 아주 고:를 찌게는 그그이 읍써써, 또. {옛날엔 다 그렇게 해 먹었어, 그래, 또 아주 고래 적에는 그것이 없었어, 또.}

10302 # 아주, 우리 태어나기 저네는 또 그게 아니구... {아주, 우리 태어나기 전에는 또 그게 아니고...}

10302 # 이 쇠 아리 이르케, 이르케 돼써, 그게, 아주. {이 쇠알이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게 아주.}

10302 # 근데 이르케 길더라구, 긴데...{그러던 이렇게 길더라고, 그런데...}

10302 @ 쇠,쇠, 쇠... {쇠, 쇠, 쇠...}

10302 # 그 쇠가 이 그림, 이, 이러케 바겨, 이 넘찌캉게 이런데 이르케 돼써. {그 쇠가 이 그림, 이, 이렇게 박아, 이 넘직한 게 이런데 이렇게 됐어.}

10302 # 그래면 사래미 여기다가 베로 하노쿰 가주 거거단 이르케 대:서 쪽, 이러케 홀터. {그러면 사람이 여기다가 벼를 한 움큼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대어서 쪽, 이렇게 훑어.}

10302 # 아주 옌나렌 그러케 해써. {아주 옛날엔 그렇게 했어.}

10302 @ 그건 뭐라고 해, 옌나렌은 그걸? {그건 뭐라고 해, 옛날에는 그걸?}

10302 # 베 흥능거라 구래드라구 그저네 그걸. {벼 훑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전에 그걸.}

10302 @ 아, 그거는 그때는... {아, 그거는 그때는...}

10302 # 그르이까 우리 나온, 우리 태어나기 저넨 그게 이써써. {그러니까 우리 나오기, 우리 태어나기 전엔 그게 있었어.}

10302 @ 그거 보셔써요? {그거 보셨어요?}

10302 # 그러치유, 지끄뚜 그거 이써유, 저,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거. {그렇지요, 지금도 그거 있어요, 저,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거.}

10302 # 애드리 와따, 학생드리 그거뚜 해긴 헤드라구. {애들이 왔다, 학생들이 그것도 하긴 하더라고.}

10302 # 가드니, 이르케 돼 이씨니까 베가 하노쿰 드러다가 거그다 이러케 해가 이러케 하믄. {가드니 이렇게 돼 잇으니까 벼가 한 움큼 들어다가 거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0302 # 인제 여근 꼭때긴 널꾸 미테가 쪼워거든, 그래서 베아리 안빠지거든, 그러이간 다 떠러져 나와, 그림, 그래. {이제 여긴 꼭대기는 넓고 밑에가 좁거든, 그래서 벼 알이 안 빠지거든,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와, 그림, 그래.}

10302 # 옌나렌, 아주 옌나렌 또 그래써, 그래따가 인제 우리 태어나구 나이께 기계가통어 나와 가주구. {옛날엔 아주 옛날엔 또 그랬어, 그랬다가 이제 우리 태어나고 나니까 기계같은 거 나와 가지고.}

10302 # 그래따 인제 또 그게 읍써지구 인제 처목, 마저, 발똥기가 새루 또 나오대, 벼떠능게. {그랬다가 이제 또 그게 없어지고 이제 전부 마저, 발똥기가 새로 또 나오대, 벼 떠는 게.}

10302 @ 예. {예.}

10302 # 그래더니... {그러더니...}

10302 @ 음. {음.}

10302 @ 예, 하네 농사는 인제 벼농사는 그러케 지짜나요. {예, 한 해 농사는 이제 벼농사는 그렇게 짓잖아요.}

10305 @ 그러며는 이제 옌나레 이제 모를 내짜나, 인제 아까 그 모자리 파네 인능거뜨를 이제, 진짜 모에다가 이제 심, 해이되자나요,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내기를 하자나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모를 냈잖아요, 이제 아까 그 못자리 판에 있는 것들을 이제, 진짜 모에다가 이렇게 심, 해야되잖아요,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10305 @ 그러면 고령과정이 어트케 돼요, 젤: 먼저 이제 그 중, 모자리 아까 모자리 파늘 만드러서 그 모자리 파네 인능 그... {그러면 그런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이제 그 중, 못자리 아까 못자리 판을 만들어서 그 못자리 판에 있는 그...}

10305 @ 모... {모...}

10305 # 벼, 그래 모. {벼, 그래 모.}

10305 @ 모를 이제 그걸 어터케 하나요, 그거를 먼저 이제... {모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먼저 이제...}

10305 # 인제 그케 이러케 크자니, 크며는 인제 이러케 자며 보면 요케 이러케... {이제 그케 이렇게 크잖아, 크면 이제 이렇게 잡아 보면 요케 이렇게...}

10305 @ 한... {한...}

10305 # 한줌 요러케 지버보며닌 그케 인제 이러케 하믄 요마큼 올라오믄 심는다구. {한줌 요렇게 집어 보면 그케 이제 이렇게 하면 요만큼 올라 오면 심는다고.}

10305 # 요 한주는 짚브니까 무리, 무를 대구 시무니깐, 그그 물쏘게 드러감 나쁘거덩, 그러이까 인제. {요 한 줌은 짧으니까 물이, 물을 대고 심으니까, 그 그 물 속에 드러가면 나쁘거든, 그러니까 이제.}

10305 # 그케 물쏘게 안드러가구 나오게 되면 인제 고걸 인제 구르케 되믄, 나를 바찌. {그케 물 속에 안 들어가고 나오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되면 날을 받지.}

10305# 아:문날 내가 모를 심는다, 그래구 인제 사라물 은녕거지. {아무날 내가 모를 심는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얻는 거지.}

10305 @ 사라물 은는, 아. {사람을 얻는, 아.}

10305 # 그러, 으더야 심찌, 사라미 꼬주니까 앙그래. {그래, 얻어야 심지, 사람을 꺾 주니까 안 그래.}

10305 # 그러이간 인제 뭐 마:능건 한 이십명 뭐 한 십명 인제 그러케.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것은 한 이십 명 뭐 한 십 명 이제 그렇게.}

10305 # 내크, 고노는 인제 뎨명이면 심께따 인제 그걸 가장해구 사람 으더서 심, 그날 심녕거야. {\*\*, 그 논은 이제 몇명이면 심겠다 이제 그걸 가정하고 사람 얻어서 심, 그날 심는 거야.}

10302 @ 그러면 인제 모자리파네 인능 그 모를 그 모에, 노네 옴기기 저네 노늘 이제 어트케 해야 됩니까, 그이까 겨우리 되면 일판 노니 말라 이쓸텐데 그걸 어트케 합니까 제일 먼저 할꺼, 하능거는? }그러면 이제 못자리 판에 있는 그 모를 그 모에, 눈에 옴기기 전에 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일단 눈이 몰라 있을텐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할 거, 하는 거는?}

10302 # 그래가 인제 그 인제 갈:게 농사드리구, 그이드매 \*\*\*\* 보메 가서 인제 모자리헬래믄 인제 이, 이 무리 머 논마둥 인능게 아니자너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가을에 농사들이고, 그 이듬 해 \*\*\*\* 봄에 가서 이제 못자리 하려면 이제 이, 이 물이 뭐 논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

10302 # 보, 보, 보:가 이써, 보래능게 거그서 인제 이 마, 이찌 보래능게 이써유, 그르~이~까 보는 물디레농걸 보라 그래. {보, 보, 보가 있어, 보라는 게 거기서 이제 이 마, 있지 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물 들여 놓은 것을 보라고 그래.}

10302 @ 예예, 물드리능걸. {예예, 물 들이는 것.}

10302 # 그래튼 그제 아주 보가 인제 머, 그:리가 마래자른 한 머 오:리꺼정 되는 데두 이써. {그러면 그제 아주 보가 이제 뭐, 거리가 말하자면 한 뭐 오 리까지 되는 데도 있어.}

10302 # 그걸 거기 가 끄러와, 그래 이제 거기서 개우를 마거가주구 글루 무를 디러보내이지, 그누미 이러케 내려가머는 그 중간중간, 인제 논드리 거거서 구 무를 빼가게 돼이써, 논마둥. {그 걸 거기 가 끌어 와, 그래 이제 거기서 개울을 막아가지고 그리로 물을 들여 보내지, 그 놈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 중간중간, 이제 논들이 거기서 그 물을 빼 가게 돼 있어, 논마다.}

10302 # 그래서 인제 그걸 거거서 무를 대서 인제 모자리파늘 멍기능거지 인제 노느 먼저 모, 멍길지, 모자리 터를. {그래서 이제 그걸 거기서 물을 대서 이제 못자리 판을 만드는 거지 이제 논을 먼저 모, 만들지, 못자리 터를.}

10302 @ 모자리 터를 만들고 이제 노니 이러케 이쓰면 먼저 켈먼저 그니까 무를 대능게 아니라 그저네 인제 소를 가지고서 논, 노늘 이러케 막... {못자리 터를 만들고 이제 논이 이렇게 이쓰면 먼저 켈 먼저 그러니까 물을 대는 게 아니라 그전에 이제 소를 가지고 논, 논을 이렇게 막...}

10302 # 같:지, 가:능거 애기지. {같지, 가는 거 애기지.}

10302 @ 예예, 바트, 어, 노늘. {예예, 밭을, 어 논을.}

10302 @ 켈먼저 어뜨케 하나요? {켈 먼저 어떻게 하나요?}

10302 @ 겨우내 이러케 이써뎌 노늘... {겨우내 이렇게 있었던 논을...}

10302 # 그래, 그래 인제 그, 그걸 저... {그래, 그래 이제 그, 그걸 저...}

10302 @ 켈먼저... {켈 먼저...}

10302 # 옴:나레는 그 인제 버리두 싱:꾸 그래썬유. {옛날에는 그 이제 보리도 심고 그랬어요.}

10306 # 버리 시므며, 인제 그걸 인제, 강:거 버리 싱글구. {보리 심으면, 이제 그걸 이제, 간 것 보리 심고.}

10302 # 그래구 인제 양가:는 사라튼 보메 겨울라가주구 인제 이, 뭐야 시몽는나리짜너 왜, 땅이 나도:는 머 나무싱꾸 그때 땅이 풀릴때 이제 소루 가러 냉겨 흐글. {그러고 이제 안 가는 사람은 봄에 겨울나가지고 이제 이, 뭐야 식목일날 있잖아 왜, 땅이 남아 도는, 뭐, 나무 심고 그때 땅이 풀릴 때 이제 소로 갈아 넘겨 흙을.}

10302 @ 아, 소를 가지고서요? {아, 소를 가지고서요?}

10302 # 그럼. {그럼.}

10302 # 가라냉겨, 그래따가 인제 무리 인제 보를 마거섬 무리 드로며 인제 내가 인제 그걸 소 루더 썬머. {갈아 넘겨, 그랬다가 이제 물이 이제 보를 막아서 물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이제 그 걸 소로 삶아.}

10302 @ 근데 예저네 제가 보머는 소를 이러케 바틀 아니, 노늘 이러케 갈자나요, 이러케, 이 러::케 갈고나서 그다메 그, 갈고만 끈나능게 아니라 그다메 흐글 한번씩 또 고르고 머 그릉거또 하지 안나요, 갈고?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보면 소를 이렇게 밭을 아니, 논을 이렇게 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갈고 나서 그다음에 그 갈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담에 흙을 한번씩 또 고르고 뭐 그런 것도 하지 않나요, 갈고?}

10302 # 가러나:따가... {갈아 났다가...}

10302 @ 갈, 가러나따가... {갈, 갈아 났다가...}

10302 # 으, 그르까 그거 그냥 가러나, 그래구... {응,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갈아 뉘, 그러고...}

10302 # 물, 혼헨데는 그냥 가러. {물, 혼한 데는 그냥 갈아.}

10302 # 무리 마는대는 무를 맘:대루 내가 사용할썬 이써뎌, 노네다가, 그건 그냥 가러만뉘두 썬

차너유. {물이 많은 데는 물을 맘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논에다가, 그건 그냥 갈아만 놔도, 괜찮아요.}

10302 # 그르~이~깨 무리 더 저:근데는 그걸 가러가주구 또 쓸머놔, 이러케. {그러니까 물이 더 적은 데는 그걸 갈아가지고 또 삶아 놔, 이렇게.}

10302 # 무를 대가주, 굴데: 폐:나케, 그르~이~간 그냥 가, 가, 가러어풍거는 야중에 무를 델:래 든 그르~이~간 요런데 한대전 드러감 그건 열때저비 드러가두 퍼지지를 아너. {물을 대가지고, 구덩이가 편편하게, 그러니까 그냥, 갈아 얹은 거는 나중에 물을 대려면 그러니까 요런 데 한 대 접이 들어가면 그 건 열 대접이 들어가도 퍼지지 않아.}

10302 # 가러나씨니깐, 그르~이~간 이, 물짤븐텐 그걸 가따 또 무를 대가주구 쓸머 놔이돼. {갈아 났으니깐 그러니까 이, 물 짤븐 텐은 그걸 갖다 또 물을 대 가지고 삶아 놔야 돼.}

10302 # 쌀믈게는 뭐냐, 소루다 이래 쌀머, 이제 소루다 이러 퍼::나케, 무를 가주구 그래 그래 든 인제 그케 인제, 물 우세 말러부찌, 그래 든 인제 모시물제 인제 물대기가 쉬워. {삶은 것은 뭐냐, 소로 이렇게 삶아, 이제 소로 이렇게 편편하게 물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케 이제 물 없으면 말라 붙지, 그러면 이제 모 심을 제 이제 물 대기가 쉬워.}

10302 # 무리 쉽게 퍼지니깐, 경카리난 무리, 안퍼지지. {물이 쉽게 퍼지니까 덩어리는 물이 안 퍼지지.}

10302 # 그래, 그냥 가러너퍼농건, 너풍건, 가러어풍거는 맹 부~여~이거 거 이러케 특, 털, 이르게 납짜캥게 이르게 델리자너, 가러어퍼시~이~간, 그르이간 그케 무리 이리저리 가구 그르~이~까 무리, 머, 아~, 되지라너. {그래, 그냥 갈아 얹어 놓은 것은, 높은 건, 갈아 얹은 것은 역시 [???] 이렇게 특, 털, 이렇게 납작한 게 이렇게 들리잖아, 갈아 얹었으니깐, 그러니까 그케 물이 이리저리 가고 그러니까 물이, 뭐, 안, 되지 않아.}

10302 # 그러이까는 물 짤븐텐 그걸 회쌀미라구 그래, 그걸 쳐노:면 아지 이러치. {그러니까 물 짤븐 텐 그걸 헛삶이라고 그래, 그걸 쳐 놓으면 아주 이렇치.}

10302 @ 아, 회쌀, 회쌀미라고 그래요? {아, 헛삶, 헛삶이라고 그래요?}

10302 # 그래. {그래.}

10302 # 응, 회쌀미라구 그래 그걸. {응, 헛삶이라고 그래 그걸.}

10302 @ 회쌀... {헛삶...}

10302 # 그림, 응. {그림, 응.}

10302 # 회쌀무르는 논는다 그래. {헛삶을 놓는다 그래.}

10302 # 그걸 치든 인제 물대기가 쉽져, 무리 금방 퍼지니깐, 쪽 퍼지니깐. {그걸 치면 이제 물대기가 쉽지, 물이 금방 퍼지니까 쪽 퍼지니까.}

10302 @ 고걸 회쌀무리라 한다고요? {그걸 헛삶물이라 한다고요?}

10302 # 어. {어.}

10302 # 회쌀미 논는다 구래드라구, 으른드른. {헛삶이 놓는다 그러더라고, 어른들은.}

10302 @ 그까, 다시 천천히 한번 말쓰매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302 # 회쌀미. {헛삶이.}

10302 @ 회쌀. {헛삶.}

10302 # 그르이께. {그러니까.}

10302 @ 아, 회쌀미를 논는다. {아, 헛삶이 놓는다.}

10302 # 이, 그걸 놔:야 무를 잡는다. {이, 그걸 놔야 물을 잡는다.}

10302 @ 아. {아.}

10302 # 물 흔한테는 상과니 움는데, 짤븐텐 회쌀미를 놔야만 무를 자버야 모심끼가 빨르다 이거야 가, 갈:기가 쉽때는 얘가지.

10302 @ 예. {물 흔한 데는 상관없는데, 짧은 데는 헛살이를 봐야만 물을 잡아야 모심기가 빠르다 이거야 같기가 쉽다는 얘기지.}

10302 # 회썰미라구래지 그걸. {헛살이라고 그러지 그걸.}

10302 @ 아, 그래요, 회썰미. {아, 그래요, 헛살이.}

10302 # 기린데 그게 또까쩍 아너. {그런데 그게 똑같진 않아.}

10302 # 여기하구 또 아랜역하구 또 그 달를꺼야, 몰리지 머, 내가 알 때는. {여기하고 또 아랫  
넙하고 또 그 다를꺼야, 모르지 뭐, 내가 알 때는.}

10302 @ 예, 아이구 저히드른 그, 그, 그런 특빠란 뭐가 중요하거든요. {예, 아이구 저희들은  
그, 그, 그런 특별한 뭐가 중요하거든요.}

10302 # 어, 다, 사투리가 이끼 뻬서, 앙 그래? {어, 다,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

10302 @ 아, 예. {아, 예.}

10302 @ 아유, 조썬니다. {아유, 좋습니다.}

10302 # 다 달르다구. {다 다르다고.}

10302 @ 예, 그런 그런 말드리 참 보물입니다, 저히드른 잘 모르능거뜨린데. {예, 그런 그런  
말들이 참 보물입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는 것들인데.}

10302 # 그게 아주, 긴데 여기 머 원:주 나가두 내가 보니깐 저 충청도꺼정 나가판는데 거근, 거  
근 거반 가긴 가떠라구, 여그 사람하구. {그게 아주, 그런데 여기 뭐 원주 나가도 내가 보니까 저  
충청도까지 나가 봤는데 거기는, 거기는 거의 같긴 같더라고, 여기 사람하고.}

10302 @ 그러며는 아까 그 노늘 이리케 갈때 이게 흙 이리케 더플꺼, 가리어플꺼 아니에요, 그  
때 어똥걸 마니 쓰나요, 어똥기구를 쓰나요, 소, 소로 이리케 하능거? {그러면 아까 그 눈을 이렇  
게 갈 때 이게 흙 이렇게 덮을 거, 갈아 엮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걸 많이 쓰나요, 어떤 기구  
를 쓰나요, 소, 소로 이렇게 하는 거?}

10302 # 뭇루 마이 시느냐구? {뭇로 많이 쓰느냐고?}

10302 # 그, 소루 가려야지. {그 소로 갈아야지.}

10302 @ 소로 가는데, 소루... {소로 가는데, 소로...}

10302 # 가리어퍼. {갈아 엮어.}

10302 @ 뭇, 소, 소가 이케 끄는 걸 머라고? {뭇, 소, 소가 이렇게 끄는 걸 뭐라고?}

10302 # 음, 걸 엔:장, 엔:장. {음 그걸 연장, 연장.}

10302 # 엔장이 그걸, 두 두가지지. {연장이 그것, 두 두가지지.}

103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2 # 아랜너카구 여계하구는 썩, 강안두하구는. {아랫넙하고 여기하고는 썩, 강원도하고는.}

10302 @ 아. {아.}

10302 # 여기는 사, 상꼬리자너, 마래자면 인제 험:해구그래니깐 이, 키, 소 두바리루 가려, 겨,  
겨리라구래 그걸. {여기는 사, 산골이잖아, 말하자면 이제 험하고 그러니까 이, 키, 소 두 마리로  
갈아, 겨, 겨리라 그래 그걸.}

10302 @ 아, 겨리요? {아, 겨리요?}

10302 # 응. {응.}

10302 # 그 저네 그리메 나와똥가, 그건 내가 보니깐. {그 전에 그림에 나왔던가, 그건 내가 보  
니까.}

10302 @ 예예예, 쪼미따 보여드리게요, 예. {예예예, 줌 있다 보여드릴게요, 예.}

10302 # 두:마리가 인제 이 이런 작때기 그걸, 멩에라구래. {두 마리가 이제 이 이런 막대기 그  
걸, 멩에라 그래.}

10302 # 그르~이~간 머 한 일곱짜 지래기로 췌. {그러니까 뭐 한 일곱 자 길이로 \*.}

10302 # 그런데 그걸 가따가 그 연장이래는데다 가무태다 인제 고걸 꼬자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연장이래는 데다 가운데다 인제 그걸 쫓아요.}

10302 @ 어디에 쫓는다고요? {어디에 쫓는다고요?}

10302 # 연장 꼬태다가 그걸. {연장 끝에다가 그걸.}

10302 @ 꼬태다가. {끝에다가.}

10302 # 그래구 인제 양짜으서 소가 글루 드러가능게야. {그러고 인제 양쪽에서 소가 그리로 들어가는 거야.}

10302 @ 아, 예예예. {아, 예예예.}

10302 # 그르~이~까 인제 거그서 인제 마라쏘가 이꾸 안쏘가 이꾸 그래. {그러니까 인제 거기서 인제 마라쏘가 있고 안쏘가 있고 그래.}

10302 @ 마라쏘요? {마라쏘요?}

10302 # 어~. {어.}

10302 @ 마라쏘는 머예요? {마라쏘는 뭐예요?}

10302 # 바른손짜잉게 마라쏘야, 왼쪼근 외, 그래서 인제 고거는 시미 그 심 가능거야. {바른손 쪽인 것이 마라쏘야, 왼쪼근 외, 그래서 인제 그거는 힘이 그 힘 가는 거야.}

10302 @ 아 그 오른쪼근 마라쏘, 왼쪼근 왼소 이러케 되나요? {아 그 오른쪽은 마라쏘, 왼쪽은 이렇게 되나요?}

10302 # 어~. {어.}

10302 # 그래서 이 마라쏘는 쫓 야캐걸 끄러두, 그건 왜그랴문 눈, 눈 내가 아까 얘기해짜너, 눈 썰멍거... {그래서 이 말소는 쫓 약한 걸 끌어도, 그건 왜 그러냐면 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눈 삶은 거...}

10302 @ 예. {예.}

10302 # 그런데 그걸 가라 업는데 마라쏰 쫓 야캐, 모, 모미. {그런데 그걸 갈아 얹는데 마라소는 쫓 약해, 몸, 몸이.}

10302 @ 아. {아.}

10302 # 자버댕기가 심드러. {잡아 당기기가 힘들어.}

10302 # 그르~이~깐 이, 이거는 이 안쏘는 가라어폰데루 내: 나가능거야. {그러니까 이, 이거는 이 안소는 갈아 얹은 데로 계속 나가는 거야.}

10302 @ 아, 가라어폰데로 나가고. {아, 갈아 얹은 데로 나가고.}

10302 # 그럼, 이르케 대구 너머가니까는. {그럼, 이렇게 대고 넘어가니까.}

10302 @ 예예. {예예.}

10302 # 그러이까 이 마라쏘는 이 생땅만 밟:꾸 나가, 끌구 나가자누. {그러니까 이 마라쏘는 이 생땅만 밟고 나가, 끌고 나가잖아.}

10302 @ 아. {아.}

10302 # 안쏘는 그 가러녕기니까 그거 번데 바르 쭉쭉 드레, 그르케 인제 그거야. {안소는 그 갈아넘기니까 그거 \*\* 발을 쭉쭉 들어가, 그렇게 인제 그거야.}

10302 @ 안쏘가 히미 조와야 되켤네요, 히믈 고르케 딱딱... {안쏘가 힘이 좋아야 되겠네요, 힘을 그렇게 딱딱...}

10302 # 그래 그럼, 그럼 야캐건 마라쏘루 해구 안쏘는 저신, 그러케 가능거야. {그래 그럼, 그럼 약한 건 마라쏘로 하고 안소는 모두 그렇게 가는거야.}

10302 # 그래서 인제 그거뚜 인제 갈:자문 머 안쏘 마라쏘 인제 그런 얘기가 나오자너. {그래서 인제 그것도 인제 갈려면 뭐 안쏘 마라쏘 인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10302 # 킨테 저 아랜녀언 또 그게 아니자너. {근데 저 아랫넛엔 또 그게 아니잖아.}

10302 # 저 아랫여근 호리쏘 아니야, 호리. {저 아랫넙은 호리소 아니야, 호리.}

10302 @ 저 아랫넙이면 어디조? {저 아랫넙이면 어디쥬?}

10302 # 아랫여개. {아랫넙에.}

10302 # 경기도 저쪼으러 저저, 저 충청두 나가면 다, 충청도만 나가두 게리 저, 호린대. {경기도 저쪽으로 저저, 저 충청도 나가면 다, 충청도만 나가도 겨리, 저, 호리인데.}

10302 @ 아 여기는 겨리만 쓰나요? {아 여기는 겨리만 쓰나요?}

10302 # 응. {응.}

10302 # 그건 호리쏘령건 그건 그건 하나야. {그건 호리소라는 건 그건 그건 하나야.}메

10302 # 그, 요기다 그냥 고오다 끈 매가주구 거기 손미어가지구 가러엄능겨지. {그, 요기다 그냥 거기다 끈 매가지고 거기 소를 메어 가지고 갈아 엮는 거지.}

10302 # 여기는 강안돈 이르케 또 명을 매가주 두바리가 해능겨. {여기는 강원도는 이렇게 또 명을 매가지고 두 마리 가지고 하는 거.}

10302 # 그르~이~까 그거는 아문데두, 이 아::무리 비아리래두 다: 가능게야, 겨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데도, 이 아무리 비탈이라도 다 가는 거야, 겨리는.}

10302 # 그러치만 호리는 그게 힘들구. {그렇지만 호리는 그게 힘들고.}

10302 # 이 가지 이, 이른데두 가유, 가러어퍼, 그 겨리는. {이 가지 이, 이런 데도 가요, 갈아 엮어, 그 겨리는.}

10302 @ 그러켄네요. {그렇겠네요.}

10302 # 소가 그르케 마를 잘드러, 사람보다 나:, 가능개. {소가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사람보다 나아, 가는 것이.}

10302 # 긴데 이 요 충청두 나가니까 내 거그서 배워가주구 완년테 호리쏘를, 건 호리더라구. {그런데 이 요 충청도 나가니까 내 거기서 배워가지고 왔는데 호리소를, 그건 호리더라고.}

10302 # 하, 하나로만 가능겨. {하, 하나로만 가는 거.}

10302 @ 음, 아. {음, 아.}

10302 @ 그럼 이제 고려케 하고나서 그다메 인제 바틀 인제 가라 업짜나요 업꼬나면 그라도 한번 인제 노늘 쌀물때 쓰능겨 또 어떻게 이써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답에 이제 밭을 잇 갈아 엮잖아요 엮고 나면 그래도 한번 이제 논을 삶을 때 쓰는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10303 # 그르~이~깐 모심녕겨 인제 그르케 인제 쌍:꾸, 또 번지르 놔유, 번지. {그러니까 모 심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삶고, 또 번지를 놔요, 번지.}

10303 # 번지래능건 뭐냐면 인제 송파니야. {번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송판이야.}

10303 # 번지가 업따능겨뚜 이르커 널봉걸 인제 한 머 일구여덜짜 지래기를 그 인제 요 요정도 돼, 하바가. {번지가 없다는 것도 이렇게 넓은 걸 이제 한 뭐 일곱 여덟 자 길이를 그 이제 요정도 돼, 폭이.}

10303 @ 하바가요? {하바가요?}

10303 # 어. {어.}

10303 # 이게 하바가 널끼가. {이게 폭이 넓이가.}

10303 @ 아, 널끼가요. {아, 넓기가요.}

10303 # 인제 그느를 가따가 그 쓰:레다가 쓰:레랑건 이, 이르케 돼이짜너, 소 써능겨. {이제 그놈을 갖다가 그 써레에다, 써레라는 건 이렇게 돼 있잖아, 소 써는 거.}

10303 # 거기다 탁뿌쳐, 그레가주다간 인제 그래는 그놈 꿩놀르면 소가 끌꾸 나가면 인제 이 바다가 또까지 되능겨제~이. {거기다 탁 붙여, 그레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놈 꼭 누르면 소가 끌고 나가면 이제 이 바닥이 똑같이 되는 거지.}

10303 @ 예예, 또까치 평평... {예예, 똑같이 평평...}

10303 # 그래픈 인제 그럼 그래가주구 인제 모를 심녕거지 머. {그러면 이제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모를 심는 거지 뭐.}

10303 @ 음. {음.}

10303 @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모를 시물때 예, 모를 예 이게 시물때 음, 인제 무를 대가주고 이게 이 편편하게 만들자나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모를 심을 때 모를 이게 심을 때 음, 이제 물을 대 가지고 이게 이 편편하게 만들잖아요.}

10303 @ 그다메 인제 그 모자리에 인능거를 한 이, 가주고 와, 이제, 예저네 보며는 모자리 이 멩거를 이르케 가주와가 노네 이게 쫘 무꺼서 던저노코 며꾼데 이러케 던저노코 이제. {그답에 이제 그 못자리에 있는 것을 한, 이 가지고 와 이제, 예전에 보면 못자리 어떤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눈에 이렇게 좀 묶어서 던져 놓고 몇군데 이렇게 던져 놓고 이제.}

10303 # 글썸 그. {글썸, 그.}

10303 @ 그답 예, 그조? {그다음, 예, 그쥬?}

10303 # 그래 그거야, 다릉건 업써, 그거이지 뭐. {그래 그거야, 다른 건 없어, 그것이지 뭐.}

10303 # 그르~이~까 인제 그걸 모쥬이짜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종있잖아.}

10303 # 내가 인제 사라플 열:명을 데레가른 열:명을 으더 그래픈 모쥬은 따로 으더이 돼. {내가 이제 사람을 열 명을 데러가면 열 명을 얻어 그러면 못쥬은 따로 얻어야 돼.}

10303 # 그사라픈 모시물 시가니 읍써. {그 사람은 모 심을 시간이 없어.}

10303 # 몰, 그사라미 날러다 전::부 궤주구 인제 그래~이~까. {모를, 그 사람이 날라다 전부 궤 주고 이제 그러니까.}

10303 # 그래구 인제 심:년사람 심, 그저네 싱끼만해구 그래. {그러고 이제 심는 사람 심, 그전에 심기만 하고 그래.}

10303 @ 그~이~까 시물때 인제 모를 이르케 줄로 이르케 주를... {그러니까 심을 때 이제 모를 이렇게 줄로 이렇게 줄을...}

10303 # 음 주르 치지. {음 줄을 치지.}

10303 @ 옌나레 주를 쫘:: 이게 처가주고 인제 사람드리 이러케 가면서 모를 심짜나요, 그다메 인제 ... {옛날에 줄을 쫘 이렇게 쳐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모를 심잖아요, 그답에 이제...}

10303 @ 그다메는 머 판 거는? {그답에 뭐 다른 것은?}

10303 # 아, 땅건 업:짜, 머. {아, 다른 건 없지, 뭐.}

10303 # 그르이까 모심녕거 그걸 끈나능게야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 심는 거 그걸 끝나는 거요, 그거는.}

10303 @ 네, 그러머는 이, 그, 옌나레는 그, 게... {네, 그러면 이, 그, 옛날에는 그...}

10303 @ 아까 그 번지말고 또 머 그 쓰? {아까 그 번지 말고 또 뭐 그 쓰?}

10303 # 쓰레. {쓰레.}

10303 @ 예, 쓰레도 이꼬. {예, 쓰레도 있고.}

10303 # 쓰레랑건 그 소 싸, 그거 땅골루농거야 마라자른, 빨리 쉽게 마라자른, 으. {쓰레란 것은 그 소 썸, 그거 땅 고르는 거야 말하자면, 으.}

10303 @ 그다메 그. {그답에 그.}

10303 @ 아, 예, 고렇게 이써꾸요, 그다메 금 인제 옌나레 농사를 지을때 농사 농사를 진는데

쓰는 기계 기구가튼거 굉장이 마나짜나요? {아, 예, 그런 거 있었고요, 그담에 그럼 이제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농사 농사를 짓는 데 쓰는 기계 기구같은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10303 # 그르~이~간 농사 진능거 뭐 거기서 쇠시랑, 팽이, 머 그러치 머.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뭐 거기서 쇠스랑, 팽이, 뭐 그렇지 뭐.}

10303 @ 아, 쇠시랑, 팽이 그담에 또. {아, 쇠스랑, 팽이 그담에 또.}

10303 @ 땅파는... {땅파는...}

10303 # 고, 고물개 머 그러치 머. {고, 고무래 뭐 그렇지 뭐.}

10303 @ 그거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그거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10303 # 그건 제 모시물때 사용하, 고고물개도. {그건 이제 모 심을 때 사용해, 고무래도.}

10303 # 옛날엔 글썸, 내 아까 얘기해짜너, 그 번지 이러금 나짜너. {옛날엔 글썸, 내 아까 얘기했잖아, 그 번지 이렇게 냈잖아.}

10303 # 그래두 그거 놔따구 다 이르게 똑까쩨 아너. {그래도 그거 냈다고 다 이렇게 똑같진 않아.}

10303 # 그르~이~까 그래두 노푼데가 이짜너. {그러니까 그래도 높은 데가 있잖아.}

10303 # 그 다 흠기 또까치 안되자너, 또언제 널:부니까. {그 다 흠이 똑같이 안 되잖아, 또 이제 넓으니까.}

10303 # 그니까 그때는 널봉건 고물개루 가서 사라미 이러케 더 문질러서 편하게 해능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넓은 건 고무래로 가서 사람이 이렇게 더 문질러서 편편하게 하는 거야.}

10303 # 그르~이~간 또까태야만 모가 또까치 싱끼자너, 지폰데 드러가면 그거 상는다구 거 모가, 망어진다구 물쏘게 드러가면, 그래서 해능거이는데 머. {그러니까 똑같아야만 모가 똑같이 심기잖아, 깊은 데 들어가면 그거 삭는다고 그 모가, 망가진다고 물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는 거 있는데 뭐.}

10303 # 게 고물개 여러가지루 쓰지, 고물개는 이 지베서 인제 타:저카구 베, 또 말리자너, 인나렌 마이 말리자너 베릴. {그래 고무래는 여러가지로 쓰지, 고무래는 이 집에서 이제 타작하고 벼, 또 말리잖아, 옛날엔 많이 말리잖아 벼를.}

10303 # 이 멍서기라능게 그게 거거서 나온거지, 거그다 껍노쿠, 말루는데 그 고물개루다가 . {이 멍석이라는 게 그게 거기서 나온 거지, 거기다 껍 놓고, 말리는데 그 고무래로다가.}

10303 # 그게 마라잠, 사름 손과 또까튼거지. {그게 말하자면 사람 손과 똑같은 거지.}

10303 # 그걸루 이르게 식:: 드리케 대구, 껍노쿠 해능거지, 머 고물개 그러 머 나무 이, 송판때게 구녕만 뚜루면 되, 되능건데우, 그넘 고물개지 머. {그걸로 이렇게 식 들여 대고, 껍놓고 하는 거지, 뭐 고무래는 뭐 나무 이, 송판때기에 구멍만 뚫으면 돼는 건데, 그놈 고무래지 뭐.}

10303 @ 아까 또 그 고물개 말고 또 머이따고 헨나요? {아까 또 그 고무래 말고 또 뭐 있다고 했나요?}

10303 # 쇠시랑. {쇠스랑.}

10303 @ 예, 그거는 언제 쓰나요? {예, 그거는 언제 쓰나요?}

10303 # 아, 그거는 암:테나 써, 그건 수수로. {아, 그거는 아무테나 써, 그건 수수로.}

10303 # 거그 노네두 마이 드러가지 옛날엔 또 갈:두 꺾꺼짤, 아주 옛:나렌, 갈:. {거기 눈에도 많이 들어가지 옛날엔 또 갈:도 꺾었잖아, 아주 옛날엔, 갈.}

10303 @ 갈:이 머예요? {갈이 뭐예요?}

10303 # 사네 가:리라고 그 참나무. {산에 갈이라고 그 참나무.}

10303 @ 예. {예.}

10303 # 그, 이, 이르게 되자너, 그게 소:만때 꺾꺼. {그, 이, 이렇게 되잖아, 그게 소만 때 꺾어.}

10303 @ 아, 갈. {아, 갈.}

10303 # 옌나렌 인제 그 저 옌나렌 이 거 이 비류랭개 읍짜나. {옛날엔 이제 그 저 옛날엔 이 거 이 비료라는 게 없잖아.}

10303 # 옌:나렌 비류가 읍짜나, 다 이거 중여네 나오거지. {옛날엔 비료가 없잖아, 다 이거 중년에 나온 거지.}

10303 # 그르~이~깐 인제 그렇거 인제 풀 또 까까다 그냥 이 다 지베서 저다가 싸가주 씨기가 주구 그거 내구. {그러니까 이제 그런거 이제 풀 또 깎아다 그냥 이 다 집에서 저다가 싸서 썩혀가지고 그거 내고.}

10303 # 사네다 이 소:만때 소:마니 그거야, 갈: 쟁년나리야 갈: 쟁녕게. {산에다 이 소만 때 소만이 그거야, 갈 꺾는 날이야 갈 꺾는 게.}

10303 # 그게 인제 이 인는 사람들 사:라멸 한::자람씩 사가주 인제 그걸 꺾짜너. {그게 이제 이 있는 사람들 사람을 한 자람씩 사서 이제 그걸 꺾잖아.}

10303 # 그래서 노네다 가따 부어. {그래서 눈에다 갖다 부어.}

10303 @ 소를요? {소를요?}

10303 # 가릴. {갈을.}

10303 @ 아, 가를 쟁는다구요. {아, 갈을 꺾는다고요.}

10303 # 그럼, 그래가주구 인제 모시물째 그걸 꺾구다 가러업는다구, 옌나렌.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모 심을 때 그걸 \*고서 갈아 얹는다고, 옛날엔.}

10303 # 그래가주 인제 그걸 쓰:레루다 소가 인제 쓰레루 쓰러가주 해두 인제 그 잘 안되자너, 그래~이~까 그 쇠시랑은 거기 인제 마이 드러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써레로 소가 이제 써레로 썰어가지고 해도 이제 그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쇠스랑은 거기 이제 많이 들어가지.}

10302 # 나무니깐 나무 푹푹 찢러다 가따 쟁거니, 그르이까는 그르~이~깐. {나무니까 나무 푹푹 찢라서 갖다 \*\*\*, 그러니까 그러니까.}

10302 # 그어를 찢거서 이르게 확확 뿌리구, 그째, 이에 공구능거야, 쇠시랑언. {그거를 찢어서 이렇게 확확 뿌리고, 그 때, 이게 공구는 거야, 쇠시랑은.}

10302 # 또 연:때두 마이 씨구 쇠시랑언 지금 아문대두 바파기두 조:쿠 꺾이보다두 그르케 그래 쇠시랑언. {또 여느때도 많이 쓰고 쇠스랑은 지금 아무데도 밭 파기도 좋고 쟁이보다도 그렇게 그래 쇠스랑은.}

10302 # 다 그게 인제 바테두 소용해구 그러치 머. {다 그게 이제 밭에도 소용하고 그렇지 뭐.}

10302 @ 바테도 쓰고 노네도 쓰고, 마이 소용이 마니 이썩네요. {밭에도 쓰고 눈에도 쓰고, 많이 소용이 많이 있었네요.}

10302 # 그런, 다 그게 다 또까태유, 기구래능건 다 노네 씨구 머 사람 머 지베서, 바테두 다 씨구 그래 그. {그런, 다 그게 다 똑같아요, 기구라는 건 다 눈에 쓰고 뭐 사람 뭐 집에서, 밭에도 다 쓰고 그래 그게.}

10304 @ 그리고 아까 노네 무를 땄때 아까 고 물 대는 고 이케 내려, 무리 요러케 내려가는 모디짜나요. {그리고 아까 눈에 물을 땄 때 아까 그 물 대는 그 이렇게 내려, 물이 요렇게 내려가는 못 있잖아요.}

10304 # 보. {보.}

10304 @ 예, 고 보가 이꼬 그다메 내노내 무를 땄라든 고 구멍을 요러케 뚫짜나요. {예, 그 보가 있고 그담에 내 눈에 물을 대려면 그 구멍을 요렇게 뚫잖아요.}

10304 # 그러치. {그렇지.}

10304 @ 고, 고기를 머라고 합니까, 고? {그,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10304 # 그런, 머인, 머, 화, 물꾸녕이라구래지 머, 머헐게 머inna 그걸 내:노쿠 물꾸녕이지. {그

런, 뭘, 뭐, 화, 물구멍이라 그러지 뭐, 뭐 할 게 뭐 있나 그걸 내어 놓고 물구멍이지.}

10304 @ 보가 이케 내려가, 내노니 내노니 이러케 이쓰며는. {보가 이렇게 내려가, 내 눈이 내 눈이 이렇게 있으면.}

10304 # 그럼, 그래, 그제 다 이써. {그럼, 그래, 그제 다 있어.}

10304 @ 그애 요기 구멍을, 요 무리 드로게 그... {그래 요기 구멍을, 요 물이 들어오게 그...}

10304 # 그럼. {그럼.}

10304 @ 고기를? {거기를?}

10304 # 그제두 물꾸멍이지, 머, 마라자른. {그것도 물구멍이지, 뭐, 말하자면.}

10304 @ 물? {물?}

10304 # 구멍. {구멍.}

10304 @ 아. {아.}

10304 # 그애. {그래.}

10304 # 그 대:녕거 물꾸멍이지 머. {그 대는 거 물구멍이지 뭐.}

10304 # 그애 논마둥 다 그제 이져, 그르니까 내가 대능거지, 무래 그래가꾸 인제 무른 그냥 계속 이르케 니러가자나 쪽::. {그래 논마다 다 그제 있지, 그러니까 내가 대는 거지, 물에 그래서 이제 물은 그냥 계속 이렇게 내려가잖아 쪽.}

10304 # 그래곤 노니 인제 중가네 양짜그로 이러케 이시민 인제 다 인제 그 구녕으루다 무를 내 논다, 거기 인제 마거따가 여러나따 그래니깐, 여러놈 무리 인제 내노으루 드러가게 다 그르케, 그르케 행거야. {그러곤 눈이 이제 중간에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다 이제 그 구멍으로 물을, 내 눈을 모두 거기 이제 막았다가 열어났다 그러니까, 열어놓으면 물이 이제 내 눈으로 들어가게 다 그렇게, 그렇게 한 거야.}

10304 # 보허면 그제 항, 그냥 이르케 판때기 가아서 \*\*\*\* 무리 저::기서 \*\* 그 이르케 네러가면 여기 인제 이짜개 다 인제 노니 이써면 딱 구녕이 다 이써여. }보하면 그제 한, 그냥 이렇게 판때기 가지고 \*\*\*\* 물이 저기서 \*\* 그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제 이쪽에 다 이제 눈이 있으면 딱 구멍이 다 있어요.}

10304 # 제, 제논마둥. {제, 제 논마다.}

10304 # 그래 거그 가, 가따 무, 물꾸녕을 가따 인제 마거따가 여러놔따 그래거덩. {그래 거기 갖다 물구멍을 갖다 이제 막았다가 열어났다 그러거든.}

10304 # 그걸로 조정을 해능건데 노네다 물대능개. {그걸로 조정을 하는 건데 눈에다 물 대는 게.}

10304 # 그래 내가 무리 마느머 그거 마느머 또 판데 그, 그 무리 떠, 그 미트루 또 마이 내려가구. {그래 내가 물이 많으면 그거 많으면 또 판 데 그 물이 또 그 밑으로 또 많이 내려가고.}

10304 # 그르케두 해써. {그렇게도 했어.}

10304 # 그제 인제 만나게 또 무리 짤부면 꼭때기두 다, 다, 즈: 노네다 트레다름 알:루 물 하나 두 한나 안내러가구. {그제 이제 만약에 또 물이 짧으면 꼭대기도 다, 다, 자기 눈에다 틀여 대면 아래로 물 하나도 하나 안 내려가고.}

10304 @ 그럼 싸움나는데요. {그럼 싸움나는데요.}

10304 # 왜 안돼, 왜 안해, 물쌘: 말:두 모태지. {왜 안 돼, 왜 안 해, 물싸움 말도 못 하지.}

10304 # 킨데 그건 원:수는 읍써. {근데 그건 원수는 없어.}

10304 # 싸울땐 머 다부지게 싸우지. {싸울 땐 뭐 다부지게 싸우지.}

10304 # 그래두 그때뿐이야. {그래도 그때뿐이야.}

10304 # 그~르~이간 이게 하, 한누리 메게야돼.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먹여야 돼.}

10304 # 한우리 비가 자준내레오면 싸:미 안나지. {하늘이 비가 자주 내려오면 싸움이 안 나지.}

10304 # 말:두 모태, 여여, 그래서 인제 그래두 안되면 이, 그, 팬무를 봐요. {말도 못 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 그, 팻물을 봐요.}

10304 # 왜, 팬무리, 팬무리래능건 그르케 무리 즈그니깐 제마콤 대니까는 서루 다 모태래능거야, 그래주 무리 증가네서 읍새지이. {왜, 팻물이, 팻물이라는 건 그렇게 물이 적으니까 각자 대니까 서로 다 못 대는 거야, 그래서 물이 중간에서 없어지지.}

10304 # 그르~이~깁 그걸 아주 손두 모태게 인제 그얼 사라물 둘, 서이씨 그르케 지전해:선 인제 나가서 팬무를 봐. {그러니까 그걸 아주 손도 못 대게 이제 그걸 사람을 둘, 셋씩 그렇게 지정해서 이제 나가서 팻물을 봐.}

10304 # 근데 그사래미 그 맨 꼭대기서버텀 몽지리 노닐 요러케 대:게끔 그르이까 그 무리 판테루 가꺼이가 한테루만 다 그냥 그 노느 드러가게. {근데 그 사람이 그 맨 꼭대기서부터 모조리 눈을 요러렇게 대게끔 그러니까 그 물이 판 테로 갈 것이 한테로만 다 그냥 그 눈으로 들어가게.}

10304 # 그래 인제 고게 꽤가 또 또 다:메 노니 이씨머 다메 노네다 또 네레대. {그래 이제 그게 꺾어서 또 다음에 눈이 있으면 다음에 눈에다 또 내려 대.}

10304 # 그걸 팬무리라 구래. {그걸 팻물이라 그래.}

10304 # 옌나렌 사무 그르케 해씨. {옛날엔 계속 그렇게 했어.}

10304 @ 아, 팬물. {아, 팻물.}

10304 # 그림. {그림.}

10304 # 그러케 인제 아치메 나가서 그거슨 아치메 끈나, 그래른 또 판사램, 판패가 또 드러온다구, 그사람 고만두구. {그렇게 이제 아침에 나가서 그것은 아침에 끝나, 그러면 또 판 사람, 판패가 또 들어온다고, 그 사람 그만 두고.}

10304 # 그래편 인제 그걸 또 타,끄테꺼정 완저~이~ 다 덴:다멘 비가 안 오머년 또 해이돼, 또 꼭대기서버터 사무 사운 내려가, 그거 팬... {그랬다가 이제 그걸 또 다 끝에까지 완전히 다 덴 다음에 비가 안 오면 또 해야 돼, 또 꼭대기서부터 계속 계속 내려가, 그거 팻...}

10304 @ 그면 그때 팬물가통 경우에는 이게 해서 쪼끔쪼끔씩기러케 다 이러케 하능 건? {그러면 그때 팻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건?}

10304 # 그건 안되지, 그건 지마꿈 대:능건데 그건 머 누가 그건 머 무:라그랜나 그거이, 그거이며. {그건 안 되지, 그건 각자 대는 건데 그건 뭐 누가 그건 뭐라 그랬나 그것은, 그것은 뭐.}

10304 # 그러이까 팬무른 그거야. {그러니까 팻물은 그거야.}

10304 # 그게 물마늘맨 제마콤 대:니깐 머 그냥, 그니 그건 이르미 읍씨. {그게 물 마를 맨 각자 대니까 뭐 그냥, 그러니 그건 이름이 없지.}

10304 @ 예 대는데, 팬무른 그냥 이제 위에서부터 대능거네요? {예 대는데 팻물은 그냥 이제 위에서부터 대는 거네요?}

10304 # 그림. {그림.}

10304 @ 그머, 미태는 무리 안 되자나요? {그림, 밑에는 물이 안 되잖아요?}

10304 # 아, 안 내려가지, 그르치. {아, 안 내려가지, 그렇지.}

10304 # 그걸 물 저궁걸 찌저 불르니깐 서루 모태래능거엔. {그걸 물 적은 걸 찢어 대니까 서로 못 대는 거지.}

10304 # 노년, 노년 논대루 말루능게, 서루 찌저대믄.{논은 논은 논대로 마르는 거야, 서로 찢어대면.}

10304 @ 그르니깐 인제 위에서부터 인제 이르케 해나고 이제 그게 인제 마냐게 인제 다오메 인제 또 무리 오면 그다음 그다음 노네 인제 무를 대조?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오면 그다음 그다음 눈에 이제 물을 대

죠?)

10304 # 그림. {그림.}

10304 # 비가 오면 마니 오면 인제 그게 해사니 되구 아노머 계소긴제 그르케 해. {비가 오면 많이 오면 이제 그게 해산이 되고 안 오면 계속 이제 그렇게 해.}

10304 @ 인제 고런 시그로 팬물 시그로 이러케 해가주... {이제 그런 식으로 팻물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0304 # 그래더 노니 이 손빠다게 드러가 짹짹 갈러져가주고 모시몽게 금방시몽게 말러 가주고 물 귀경모태. {그래다 눈이 이 손바닥에 들어가 짹짹 갈러져가지고 모 심은 게 금방 심은 게 말라가지고 물 구경 못 해.}

10304 # 그르케 해유, 몰라 근데 물흔헨텐 그제 읍꾸. {그렇게 해요, 몰라 근데 물 흔한 데는 그제 없고.}

10304 @ 그르초 무리 앙크, 흔하지 아는텐... {그렇죠 물이 흔하지 않은 텐...}

10304 # 으, 물웁는텐 그르케 헨다구. {응, 물 없는 데는 그렇게 한다고.}

10304 @ 근데, 보예, 보를 보예 따라 인제 무리 내려가는데 인제 무를 이르케 과 이케 놔두는고 슌 머라고 합니까, 여기에? {근데 보예, 보를 보예 딸 이제 물이 내려가는데 이제 물을 이렇게 과, 이렇게 놔두는 곳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10304 # 그, 보무리라 그래지, 봄무리라고. {그 붓물이라 그러지, 붓물이라고.}

10304 # 보, 그림, 보, 보, 보... {보, 그림, 보, 보, 보...}

10304 @ 봄물따라 쪽 올라가면 머가 이써요? {붓물따라 쪽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10304 # 올라가면 머가 이써, 상개우리지, 개우를 마저서 올라가니깐. {올라가면 뭐가 있어, 상개울이지, 개울을 막아서 올라가니까.}

10304 @ 근데 연나래는 개울바께 업써는데 지금처럼 인제 이르케... {근데 옛날에는 개울밖에 없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10304 # 때 때:미 이찌, 지끄믄. {댐이 있지, 지금은.}

10304 @ 아 지끄믄 때:미 인는데 땀말고 연나래는 어떻게 이써...? {아 지금은 댐이 있는데 땀말고 옛날에는 어떤 게 있어...?}

10304 # 그 인제 개우리지 머 개우를 가따 니러가능걸 이르케 마저. {그 이제 개울이지 뭐 개울을 갖다 내려가는 걸 이렇게 막아.}

10304 @ 모까툽거 업써써요? {못 같은 거 없었어요?}

10304 # 연못? {연못?}

10304 # 그 연모시라 구래지. {그 연못이라 그러지.}

10304 @ 그 저수지가요? {그 저수지가요?}

10304 # 그래 저수지를 가서 인제 저수지 머 연모시구 인제 그래 그 이르미 여러가지가 인데. {그래 저수지를 가서 이제 저수지 뭐 연못이고 이제 그래 그 이름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10304 # 그제 인는데나 이찌 다 인나 그까짓것 뭐 웬만한, 물도 그건 또 물이 없어. {그제 있는 데나 있지 다 있나 그까짓 것 뭐 웬만한, 물도 그건 또 물이 없어.}

10304 # 아지 큼겨래야 그거뚜 무리 이찌, 원마냥 건 빼 대면 금방 읍싸지고 그래, 그제, 아주 큼겨래애지. {아주 큰 거라야 그것도 물이 있지, 웬만한 건 빼 대면 금방 없어지고 그래, 그제, 아주 큰 거라야지.}

10304 # 이르케 아주 이 정부에서 마궁거 가트머년 그제 이찌마는 이르케 조음내로 쪼끄민능건 소용두 읍싸. {이렇게 아주 이 정부에서 막은 거 같으면 그제 있지만 이렇게 \*\*\*\* 조금 있는 건 소용도 없어.}

10304 # 여그도 이찌, 저수지가 지금 저 여기 뒤빼래는데 거근 그 정부에서 마가지, 정부 정, 정

부에서, 나라에서. {여기도 있어, 저수지가 지금 저 여기 뒷배라는 데 거기는 그 정부에서 막았지, 정부에서, 나라에서.}

10304 # 그래 그게 지금 한 이십넨 내려오는데 그걸 해먹찌. {그래 그게 지금 한 이십 넨 내려오는데 그걸 해 먹지.}

10304 @ 음. {음.}

10304 # 그지만 그 연모슨 머 쪼끔만 향거는 소용도 읍써, 가물땨 다 그게 다 읍써져. {그렇지만 그 연뫼은 뭘 조그마한 것은 소용도 없어, 가물 땨 다 그게 다 없어져.}

10305 @ 그 연나라는 인제 모를 내고 나며는 인제 한참 인제 벼가 자라자나요, 자라고 나면 인제 노내 풀가통거 나며는 인제 처:메 인제 노내 인제 자라다가 처:메 풀가통게 이케 나며는... {그 옛날에는 이제 모를 내고 나면 이제 한참 이제 벼가 자라잖아요, 자라고 나면 이제 눈에 풀 같은 거 나면 이제 처음에 이제 눈에 이제 자라다가 처음에 풀 같은 게 이렇게 나면...}

10305 # 나오지. {나오지.}

10305 # 그건 노늘 매지. {그건 눈을 매지.}

10305 @ 아, 그렇거를요, 그건 며뻔 맴니까, 보통? {아, 그런 거를요, 그건 몇 번 맴니까, 보통?}

10305 # 아, 하이턴 아이를 찌거, 아이라구 그게 츠음 찡는걸 아이라 그래드라구. {아, 하여튼 아이를 찍어, 아이라고 그게 처음 찍는 걸 아이라 그러더라고.}

10305 # 허무루 그걸 찌거서 이르케 매는데 매구다간 다:메는 인제... {호미로 그걸 찍어서 이렇게 매는데 매고서 다음에는 이제...}

10305 @ 침 하능걸 머한다고요? {처음 하는 걸 뭐한다고요?}

10305 # 허무 찌거 아이 맨다구래드라구. {호미 찍어 아이맨다 그러더라고.}

10305 @ 아, 호무 찌거... {아, 호미 찍어...}

10305 # 호무루다 그걸 파가 이르케 어퍼뿌려 흘글 아주 완저니, 그르이까. {호미로 그걸 파서 이렇게 얹어 버려 흙을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10305 @ 그걸 찡는다고 해요? {그걸 찍는다고 해요?}

10305 # 그래, 풀, 이 푸를 깎찌, 허무루 찌거머 이르케 이르 이르케 이러나, 그 때 금, 그게 딱 빠터 아주, 그램 그느뭇 가따 어퍼 이러케 차곡차곡 그르이까 푸리 인제 소구로 드러가능게야, 인제, 그래따가.. {그래, 풀, 이 풀을 깎지, 호미로 찍으면 이렇게 이렇게 일어 나, 그게 딱 받쳐, 아주, 그러면 그 놈을 갖다 얹어 이렇게 차곡차곡 그러니까 풀이 이제 속으로 들어 가는 거야, 이제, 그랬다가...}

10305 @ 고걸 호무로 찡는다해요, 찡는다해요? {그걸 호미로 찍는다 해요, 찡는다 해요?}

10305 # 그럼 그럼 허무루 매능거지. {그럼 그럼 호미로 매는 거지.}

10305 @ 매는, 허무로 매능거라구... {매는, 호미로 매는 거라고...}

10305 # 그래따가 인제 한 보르미따가 그때가서 소누루 훑켜, 소누루다가. {그랬다가 이제 한 보름 있다가 그때 가서 손으로 훑켜, 손으로다가.}

10305 @ 아이, 근데 소느로... {아니, 근데 손으로...}

10305 # 인제, 고 인제 푸리 도 도러나자너, 그램 소누루 땡기머 인제 또 그 매지. {이제, 그 이제 풀이 돌아 나잖아, 그러면 손으로 다니면서 이제 또 그 매지.}

10305 @ 고걸 머라고 합니?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305 # 그게 그거야, 머 다릉거 업... {그게 그거야, 뭐 다른 거 없...}

10305 @ 처:메 매능거를? {처음에 매는 거를?}

10305 # 야, 호, 그 두:벌 맨다구드라구 그걸. {야, 호, 그 두 벌 맨다 그러더라고 그걸.}

10305 @ 아. {아.}

10305 # 두... {두...}

10305 @ 처, 처:매 매능거는? {처음에 매는 거는?}

10305 # 아이 매능거 허무루, 그럼. {아이매는 거 호미로, 그럼.}

10305 @ 아이 매는, 허무로 매고. {아이매는, 호미로 매고.}

10305 @ 그다매. {그다음에.}

10305 # 두:번째가서 소느 그냥 훔켜, 풀릴, 풀. {두 번째 가서 손으로 그냥 훔켜, 풀을, 풀.}

10305 @ 아, 두벌매능거는 소느로 이르게 훔, 훔킨다고요? {아, 두 벌 매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훔킨다고요?}

10305 # 어. {어.}

10305 # 그래구다 인제 피는 인제 그래구 다:매 인제 이따가 피가 올라오머는 땀땀 뿜, 피사리 르 해지, 피사리라구래지 그걸, 피뿜능거. {그리고 이제 피는 이제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있다가 피가 올라오면 다니면서 뿜, 피사리를 하지, 피사리라 그러지, 그걸, 피 뿜는 걸.}

10305 @ 그걸 머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305 # 피사리. {피살이.}

10305 @ 근데 보통 두번 맴니까? {근데 보통 두 번 맴니까?}

10305 # 그러치. {그렇지.}

10305 # 그르िका 인제 모... {그러니까 이제 뭐...}

10305 @ 두번 매고 그담 피사리 합니...? {두 번 매고 그 다음에 피사리 합니까?}

10305 @ 고려케 한다... {그렇게 한다...}

10305 # 잘매는 사람 세:불꺼정 소누루 매긴 매는, 누가 그르케 하나. {잘 매는 사람 세 벌까지 손으로 매긴 매는, 누가 그렇게 하나.}

10305 @ 아, 세벌째 매는 사라브 소느로 매기도 하는데... {아, 세 벌째 매는 사람은 손으로 매기도 하는데...}

10305 # 그럼, 그른데 아, 그거 인제 그 바다개 달려써. {그럼, 그런데 아, 그거 이제 그 바닥에 달렸어.}

10305 # 푸리 마:능거는 그러꾸 풀 움녕건 머이제 한 두번 해, 그냥 그... {풀이 많은 거는 그렇고 풀 없는 건 뭐 이제 한 두번 해, 그냥 그...}

10305 @ 음. {음.}

10305 # 그렇거지 머. {그런 거지 뭐.}

10305 # 그거 머 벼가 잘 베라고 하능거또 아니고 그래, 지뜨문. {그거 뭐 벼가 잘 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그래, 지금은.}

10305 @ 그걸 멀 맨다고 하나요, 아까? {그걸 뭘 맨다고 하나요, 아까?}

10305 # 논매능거라구래자너. {논 매는 거라 그러잖아.}

10305 @ 아, 논매는 다, 아. {아, 논매는...}

10305 # 어. {어.}

10305 @ 잡풀가통거를 머라고 합니까, 그걸 매능거를요? {잡풀 같은 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매는 거를요?}

10305 # 그저 논매능거지 머 그거뚜 그거 뿜능게 머 다릉게가 머이, 그거. {그저 논 매는 거지 뭐 그것도 그거 뿜는 게 뭐 다른 것이 뭐, 그거.}

10305 @ 그걸 머 지... {그걸 뭐 지...}

10305 # 그르케 인제 그래구 인제 그래군 저 피사리 인제 그... {그렇게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고 저 피사리 이제 그...}

10305 @ 그걸 머... {그걸 뭐...}

10305 # 피, 피사리. {피, 피사리.}

10305 @ 예예. {예예.}

10305 # 피뽐넣거. {피 뽐는 거.}

10305 @ 마지막에 매능걸 머 만도리 그런말 씬, 만도리한다 머 이런말 안, 마지막에 매능걸?  
{마지막에 매는 걸 뭐 만도리한다 뭐 이런 말 안 쓰나요, 마지막에 매는 걸?}

10305 # 야중에 누가 그걸 매나. {나중에 누가 그걸 매나.}

10305 # 하튼, 아이 허무루 찌거 노쿠, 다:메 소느루 흥키머 끈나능건데. {하여튼, 아이 호미로 찍어 놓고, 다음에 손으로 흥키면 끝나는 건데.}

10305 @ 흥키면 끈나고요. {흥키면 끝나고요.}

10305 # 그림, 그걸. {그림, 그걸.}

10305 @ 보통 두번 매네요. {보통 두 번 매네요.}

10305 @ 피사리 하고. {피사리 하고.}

10305 # 그림. {그림.}

10305 # 그래가꼬 인제 피사리인가 순 인제 올라오는대루, 그건 피사리는 한버네 안돼. {그래서 이제 피사리리니까 순이 이제 올라오는 대로 그건 피사리는 한 번에 안 돼.}

10305 @ 예 올라오는대로. {예 올라오는 대로.}

10305 # 그림 오는데 베키는대루 인제 그걸 해주는거야. {그럼 오는데 \*\*\* 대로 이제 그걸 해주는 거야.}

10305 # 그거는 그게 올라오면 아주 보기시러유, 그건 또 이사가 아주 시커머케 나온다구 그제, 그래서 보기시러. {그것은 그게 올라오면 아주 보기싫어요, 그건 또 이삭이 아주 시커멓게 나온다고 그제, 그래서 보기싫어.}

10305 # 또 그제 안해문 아주 베, 안 몸머거유, 베가 안돼유. {또 그제 안 하면 아주 벼, 안, 못 먹어요, 벼가 안 돼요.}

10305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5 # 그누미 무지양 또 거르멀 빠러머꾸 구래서. {그 놈이 무진장 또 거름을 빨아 먹고 그래서.}

10305 # 그 그 피사리 인제 그거 해문 인제 고마니야, 다룽건 업써. {그 피사리 이제 그거 하면 이제 그만이야, 다른 건 없어.}

10305 @ 아, 노는 이제 그런시그로 이제 매머... {아, 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면...}

10305 # 그림, 그림 그러구 끈나능거지 머. {그림, 그림 그러고 끝나는 거지 뭐.}

10306 @ 그, 그다메 이제 그 논농사 말고 이제 밭 농사이짜나요, 밭농사도 마니 지으셔짜, 밭농사를 사실 젤: 마니 지으셔짜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논농사 말고 이제 밭농사 있잖아요, 밭농사도 많이 지으셨잖아요, 밭농사를 사실 제일 많이 지으셨잖아요.}

10306 @ 논농사말고. {논농사 말고.}

10306 # 밭, 밭농사도 그러치 머. {밭농사도 그렇지 뭐.}

10306 @ 예. {예.}

10306 @ 밭농사는 여기엔 주로 진는 곡씨게는 어떻게 이따고 하션나요, 아까? {밭농사는 여기엔 주로 짓는 곡식에는 어떤 게 있다고 하셨나요, 아까?}

10306 # 그르이까 밭농사가 인제 콩이 만차너, 콩. {그러니까 밭농사가 이제 콩이 많잖아, 콩.}

10306 # 콩, 옥수수. {콩, 옥수수.}

10306 # 팔, 팔뚝 파치 이꼬 이:파치 이꾸. {팔도 팔이 있고 이팔이 있고.}

10306 # 근데 이:파춘 지금 안달해요, 그 가치 업따구. {근데 이팔은 지금 안 해요, 그 가치 없다고.}

10306 @ 그다메 이제... {그답에 이제...}

10306 # 그 그거지 머 주로. {그거지 뭐 주로.}

10306 @ 쌀말고 버, 버... {쌀 말고 보...}

10306 # 머? {뭐?}

  

10306 # 그거야. {그거야.}

10306 @ 아까... {아까...}

10306 # 그래구 인제 초관. {그리고 이제 \*\*.}

10306 # 인제 심:능건 머 여러가지니깐. {이제 심는 건 뭐 여러가지니까.}

10306 # 조, 조도 인제 바테다 심꼬. {조, 조도 이제 밭에다 심고.}

10306 @ 여기는 감? {여기는 감?}

10306 # 감자. {감자.}

10306 @ 예, 그거는 안 해, 잘 안해요? {예, 그거는 안 해, 잘 안 해요?}

10306 # 감자두 다해긴 다해지 여기두, 마~이는 안시머두. {감자도 다 하긴 다 하지, 여기도 많이 안 심어도.}

10306 # 감자. {감자.}

10306 @ 또? {또?}

10306 # 인제 그건 수수, 인제 수수 인제 머 머끼두. {이제 그건 수수, 이제 수수 이제 먹기도.}

10306 @ 여어 겨우레 마니 찌거 멩는 그 그렇건 안해요? {여기 겨울에 많이 찍어 먹는 그런 건 안 해요?}

10306 # 겨울 찌거멍능거. {겨울 찍어 먹는 거.}

10306 @ 여름에 찌거멍능거. {여름에 찍어 먹는 거.}

10306 # 고치? {고추?}

10306 @ 예. {예.}

10306 # 고치 다 어디든지 해능건데 머. {고추 다 어디든지 하는 건데 뭐.}

10306 # 고치야 어느나라든지 머 어느나라, 우리나라란 다 정국쩍으루. {고추야 어느 나라든지 뭐 어느 나라, 우리나라란 다 전국쩍으로.}

10306 @ 아까 콩도 하고 버, 버리... {아까 콩도 하고 보리...}

10306 # 버리. {보리.}

10306 @ 그렇거또 마니, 그거도 마니 하자나요. {그런 것도 많이, 그거도 많이 하잖아요.}

10306 # 그래 인제 내 땅인는 사람 마이 해. {그래 이제 내 땅 있는 사람 많이 해.}

10306 # 그르이까 인제 그 또 해면 머 한 이십까마씨키 머 해자너. {그러니까 이제 그 또 하면 뭐 한 이십 가마니씩 뭐 하잖아.}

  

10306 # 또 그 그걸루 먹, 머꾸 살지. {또 그걸로 먹고 살지.}

10306 # 그래구 또 옰나렌 이 지, 이 농사진능거 쌀롱산 이 정부에다 다 빼서가요. {그리고 또 옛날엔 이 농사 짓는 거 쌀 농사는 이 정부에서 다 뺏어갔어요.}

10306 @ 쌀롱사는요? {쌀농사는요?}

10306 # 그러, 다 빼서가 그러케 개드 배급쩍따구. {그래, 다 뺏어가 그렇게 개들 배급줬다고.}

10306 # 우린 농사지머 다 빼서가유. {우린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요.}  
 10306 # 정부에서. {정부에서.}  
 10306 # 그라이꼬다 개들 배, 배그블 줘써 지금 이북과 또까튼 시기야, 여기두. {그러니까 개들 배급을 줘써 지금 이북과 똑같은 식이야, 여기도.}  
 10306 # 근데 지금 삼드리 그걸 몰라 그르치.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렇지.}  
 10306 # 우리 농사 지금 벤농산 다 빼서가 정부에서. {우리 농사 지금 벼농사는 다 뺏어가 정부에서.}  
 10306 # 다 가따 바치그 배:그블 타 머거. {다 갖다 바치고 배급을 타 먹어.}  
 10306 # 거래구 그 시꾸대루 거기 해다 타다아, 그르~이~까 살기가 어려워찌, 그때는. {그리고 그 식구대로 거기 해다가 타다가,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웠지, 그때는.}  
  
 10306 # 지끄면 인제 그게 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는데.}  
  
 10306 # 개 지금 이부게 그거야, 개드리. {그래 지금 이북에 그거야, 개들이.}  
 10306 # 그르케 쌀가따 줘도 맘대루 몸먹짜너 지금. {그렇게 쌀 갖다 줘도 맘대로 못 먹잖아, 지금.}  
 10306 # 개, 개들두 우리시기야, 그게 저 일본놈이 그거 해던 시기야, 그제. {그래, 개들도 우리 식이야, 그제 저 일본놈이 그거 하던 식이야, 그제.}  
  
 10306 # 배:그비라고. {배급이라고.}

## 1.3.2. 밭농사

10310 @ 여기는 그 미른 업썬나요? {여기는 그 밭은 없었나요?}  
 10310 # 으~? {응?}  
 10310 @ 밭, 미른? {밭은?}  
 10310 # 밭? {밭?}  
 10310 @ 예. {예.}  
 10310 # 밭두 해긴 해지 엔나렌. {밭도 하긴 하지 옛날엔.}  
 10310 # 엔나렌 인제 다 미른 해유 인제 그 밭까를 머끼 위해서. {옛날엔 이제 다 밭은 해유 이제 그 밭가루를 먹기 위해서.}  
 10310 @ 예예. {예예.}  
 10310 # 그저넨 인제 엔나렌 그제 머 저 저, 여그 나, 미국써 안나와짜나, 그 엔나렌 내가 해머 거찌. {그전에 이제 옛날에 그제 뭐 저, 저, 여기 나, 미국에서 안 나왔잖아, 그 옛날엔 내가 해 먹었지.}  
 10310 # 참미리 이꾸 호귀리가 이써. {참밀이 있고 호귀리가 있어.}  
 10310 @ 참밀하고? {참밀하고?}  
 10310 # 호귀리라는게 이써유. {호귀리라는 게 있어요.}  
 10310 @ 호? {호?}  
 10310 # 으~, 호귀리, 호귀리. {응 호귀리, 호귀리.}  
 10310 @ 호귀리. {호귀리.}  
 10310 # 그건 또 키가 커, 아주. {그건 또 키가 커, 아주.}

10310 # 한 여덟짜 짜래기르 이르 크는데. {한 여덟자 길이를 이래 크는데.}

10310 # 긴데 그건 좀 머근 클러써. {그런데 그건 좀 먹기는 글렀어.}

10310 @ 호귀리, 호귀리는 마시 업써요? {호귀리, 호귀리는 맛이 없어요?}

10310 # 예, 마시 읍쌔유. {예 맛이 없어요.}

10310 @ 그럼 참밀? {그럼 참밀?}

10310 # 참미른 지끔 우리 멍능게 그게 참미리야, 우리 지끔 나오능거. {참밀은 지금 우리 먹는 게 그게 참밀이야 우리 지금 나오는 거.}

10310 @ 아, 지금 멍능게요? {아, 지금 먹는 게요?}

10310 # 그건 조치. {그건 좋지.}

10310 @ 음. {음.}

10310 # 긴데, 그 호귀리는 옛날에 보~이간 그 지필 마~이 해뜨라구. {근데, 그 호귀리는 옛날에 보니까 그 짚을 많이 했더라고.}

10310 # 지괘 이:는데는 조와. {집 해 이:는 데는 좋아.}

10310 @ 지괘이요? {지괘이요?}

10310 # 지병. {지붕.}

10310 @ 아, 지병. {아, 지붕.}

10310 # 으~. {응.}

10310 @ 아. {아.}

10310 # 그게 지:러가주구. {그게 길어가지고.}

10310 @ 아. {아.}

10310 @ 호귀리가통경우. {호귀리같은 경우.}

10310 # 으, 은데 그거 인제 요런데 이제 저 머 시물때가 업써든 인제 그저네 아버지가 그걸 쪼끔씩 이 심는데 여느거 안 되는데년 그걸 심뜨라구. {응, 근데 그거 이제 요런데 이제 저 뭐 심을 때가 없으면 이제 그전에 아버지가 그걸 조금씩 이 심는데 여느 거 안 되는 데는 그걸 심더라고.}

10310 # 긴데 클러서 그건. {근데 글렀어, 그건.}

10310 # 아주 마시 읍쌔유, 몸머거요, 몸머거. {아주 맛이 없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10310 @ 그머 호귀리는 거이 머 지병인능거 말고는 별로 소용이 별로, 마또 업쓰니까 안하게꼬. {그럼 호귀리는 거의 뭐 지붕 이:는 거 말고는 별로 소용이 별로, 맛도 없으니까 안 하겠고.}

10310 # 그거 안해유. {그거 안 해요.}

10310 @ 주로 참밀로 하네요. {주로 참밀로 하네요.}

10310 # 그럼. {그럼.}

10310 # 참미른, 참미른 요리치아너. {참밀은 참밀은 요렇지 않아.}

10310 # 그건 조:치, 그건. {그건 좋지, 그건.}

10310 # 옛날엔 다. {옛날엔 다.}

10310 @ 참밀 가통 경우에 이제 참밀... {참밀 같은 경우에 이제 참밀...}

10312 # 개도 그거 옛날엔 다 그거 다 이 방에투다 해머거짜. {그래도 그거 옛날엔 다 그거 다 이 방아로 해 먹었지.}

10312 # 지끔 기계가 다 해짜. {지금 기계가 다 했지.}

10312 @ 예. {예.}

10312 # 옛날은 읍써, 그거 물방을까네다 짜, 빠:서 그거 해멍능거야. {옛날은 없어, 그거 물방앗

간에다 찜, 빵아서 그거 해 먹는 거야.}

10312 @ 근데 이제 그... {근데 이제 그...}

10312 # 가루덜, 가루덜. {가루를, 가루를.}

10312 @ 예. {예.}

10312 # 다 쳐서, 지비또. {다 쳐서, 집에 또.}

10312 # 물방애 아니든 지비서 방엘 해 맵기러 노차너, 발방애라구래자너. {물방아 아니면 집에서 방아를 해 만들어 놓잖아, 발방아라 그러잖아.}

10312 # 사라미. {사람이.}

10312 @ 어디서요? {어디서요?}

10312 # 눌러서 찜능거 이짜너, 이 테리비에두 나오자너. {눌러서 찜는 거 있잖아, 이 티비에 나오잖아.}

10312 # 거그다가 다 찜어 명능거이, 엔나렌 다 거기다 찜어 명능게, 베두 그러쿠. {거기다가 다 찜어 먹는 것이, 옛날엔 다 거기다 찜어 먹는 게, 벼도 그렇고.}

10312 # 베두 거기다 다 까머거유. {벼도 거기다다 다 까 먹어요.}

10312 # 그래서 인제 그 머 저 물레방애는 이 개울 물 조운데 물 내려오는데다 그걸 맵기러노커 등, 물레방애. {그래서 이제 그 뭐 저 물레방애는 이 개울 물 좋은 데 물 내려오는 데다 그걸 만들어 놓거든, 물레방아.}

10312 # 그 베 나오자너 물레라고, 왜 이러케 하능거. {그 왜 나오잖아 물레라고, 왜 이렇게 하는 거.}

10312 # 그건 인제 물시므루 도라가서 인제 그게 내려가따가 내려 치꾸 그래긴데 그거 읊는데 순저니 발방애, 사라미 찜어서 명능거야. {그건 이제 물 힘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게 내려갔다 내려 찜고 그럴 것인데 그거 없는 데는 순전히 발방아, 사람이 찜어서 먹는 거야.}

10312 # 베, 베도 그러코, 그 엔나렌 그래쎄, 우리 클젠 다 그거 발방애야. {벼도 그렇고, 그 옛날엔 그랬어, 우리 클 제는 다 그거 발방아야.}

10312 # 글루 다 해명능거지 머. {그걸로 다 해 먹는 거지 뭐.}

10312 # 지끔 인제 그렇게 다 읊쎄져 그러치.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서 그렇지.}

10307 @ 어르신 그럼 그 아까 참밀 이짜나요, 참밀. {어르신 그럼 그 아까 참밀 있잖아요, 참밀.}

10307 # 어~. {응.}

10307 @ 참미른, 어트케 그 농사를 지었나, 참미를 할라며는 보통 언제 씨를 뿌리나요, 그게? {참밀은 어떻게 그 농사를 지었나, 참밀을 하려면 보통 언제 씨를 뿌리나요, 그게?}

10307 # 아, 그게 또까찌. {아, 그게 똑같지.}

10307 # 버리하구 또까툭거야. {보리하고 똑같은 거야.}

10307 # 빨, 뿌리닝거야, 빨, 뿌리닝거. {뿌리는 거야, 뿌리는 거.}

10307 @ 검, 버리나 참밀가툭거 거의 비스탄 시기에 가치 하나요? {그럼 보리나 참밀 같은 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나요?}

10307 # 그게 가, 갈:게 시머유, 갈:개. {그게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10307 @ 아. {아.}

10307 # 베리, 창 그, 버리두. {벼를, 참 그, 보리도.}

10307 @ 버리도 두:가지 종, 며까지 종류가 이짜나요. {보리도 두 가지 종, 몇 가지 종류가 있잔아요.}

10307 # 봄, 봄버리가 이찌. {봄보리가 있지.}

10307 @ 봄버리가 이꼬. {봄보리가 있고.}

10307 # 봄버리는 보메 심녕거야, 보메. {봄보리는 봄에 심는 거야, 봄에.}

10307 @ 예. {예.}

10307 # 겨울 다가도 보메, 그게 저 춘분. {겨울 다 가도 봄에, 그게 저 춘분.}

10307 @ 예예. {예예.}

10307 # 춘분때 봄버리르 가러유. {춘분 때 봄보리를 갈아요.}

10307 # 그거 인제 그래구 버리는 갈:게 갈구. {그거 이제 그러고 보리는 가을에 갈고.}

10307 @ 아, 그냥 버리는 갈:게. {아, 그냥 보리는 가을에.}

10307 # 으~, 농사 지꾸 인제 그림 그래구 그걸 가러서 그걸 겨우를 나자너. {응, 농사 짓고 이제 그림 그러고 그걸 갈아서 그걸 겨울을 나잖아.}

10307 # 그게 인제 갈:게 시면 그제버터 올라온다구. {그게 이제 가을에 심으면 그것부터 올라온다고.}

10307 # 그래가주 거 베틀뎌 모더 퍼래유. {그래가지고 거 베틀 때는 모두 퍼래요.}

10307 # 보, 버리가. {보리가.}

10307 # 버리가. {보리가.}

10307 # 그래따 인제 그게 인제 겨울라그러 해구. {그랬다 이제 그게 이제 겨울 나도록 하고.}

10307 # 봄버리는 그걸 수:를 썰서 인제 춘분때 갈든 그게 또까치 먹게 돼이써. {봄보리는 그걸 설을 썰서 이제 춘분 때 갈면 그게 똑같이 먹게 돼 있어.}

10307 @ 음. {음.}

10307 # 개서 봄버리느 다들 안들 갈드라구. {그래서 봄보리는 다들 안 갈더라고.}

10307 @ 잘 양간하고, 갈고... {잘 안 갈고...}

10307 @ 보린만, 버리만 인제... {보리만 이제...}

10307 # 음때쯔머 인제 내 가능가 보이까 고, 춘분때 이땅이 다 노가유, 춘분. {얼마쯤이면 이제 내가 갈 수 있을까 보니까 그, 춘분 때 이 땅이 다 녹아요, 춘분.}

10307 @ 춘부네... {춘분에...}

10307 # 어, 그땐 다 이 해뜨거더, 그래서 그때 그걸 갈드라구. {어, 그땐 다 이 \*\*\*\*, 그래서 그때 그걸 갈더라고.}

10307 # 옛날레 보~이~까. {옛날에 보니까.}

10307 # 그래구 밀버리는 인제 갈:게 농사 다 해 디리노쿠 그때 인제 갈:게 그 갈자너. {그러고 밀보리는 이제 가을에 농사 다 해 들여 놓고 그때 이제 가을에 그 갈잖아.}

10307 @ 예. {예.}

10307 # 아랜겨게두 물:지 아랜여게두 아마 그르케 아랜여근 저 주루 노네다 마~이 해자너, 아랜여겐. {아랫녘에도 모르지, 아랫녘에도 아마 그렇게 아랫녘은 저 주로 논에다 많이 하잖아, 아랫녘엔.}

10307 @ 음. {음.}

10307 # 전부. {전부.}

10307 # 이 여, 여근 또 노네 되딜 안트라구. {이 여, 여긴 또 논에 되질 않더라고.}

10307 # 여그 일, 일본놈드리 나와가주구다 인제 그걸 시키는데 안 돼. {여기 일본놈들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그걸 시키는데 안 돼.}

10307 # 버리가는데 안되드라 여그. {보리 가는데 안 되더라 여기.}

10307 # 여근 난, 기후가 마썰 안능가태. {여기는 기후가 맞질 않는 것 같아.}

10307 # 그래서 여그는 안되드라구. {그래서 여기는 안 되더라고.}

10307 @ 밀보리는 안된다고? {밀보리는 안 된다고?}

10307 # 그러, 일본놈드리 나와 시키는데 안 돼. {그래, 일본놈들이 나와 시키는데 안 돼.}

10307 # 근데 여그두 저 경상도두 내려가 보, 글루 내려가며 잘 되지, 거 거긴 머 지금 밀버리다: 거기다 갈자녀. {근데 여기도 저 경상도도 내려가 [보면] 그리로 내려가면 잘 되지, 거긴 뭐 지금 밀보리 다 거기다가 갈잖아.}

10307 # 그래구 저 마날도 다 심짜나. {그리고 저 마늘도 다 심잖아.}

10307 @ 예. {예.}

10307 # 여근 안 돼. {여긴 안 돼.}

10307 # 시기가 마썰 안너요. {시기가 맞질 않아요.}

10307 # 여근 단지 그냥 그거 하, 항그루배개 문떡개뜨라구. {여긴 단지 그냥 그거 한 그루밖에 못 먹겠더라고.}

10310 @ 버리는 주로 버리 이꼬 봄버, 봄버... {보리는 주로 보리 있고 봄보리...}

10310 # 보~어~리, 봄버리. {봄보리, 봄보리.}

10310 @ 봄버리 이꼬, 그담에 밀, 보리이꼬. {봄보리 있고, 그담에 밀보리있고.}

10310 # 그, 그림. {그림.}

10310 # 미:리 이꼬 귀리래능게 또 귀, 귀, 귀:리라구 또 이썸. {밀이 있고 귀리라는 게 또 귀라라고 또 있어.}

10310 # 그건 또 아주... {그건 또 아주...}

10310 # 그건 아주 머 마라자 인제 이, 호귀리보다두 더 아주 드럽뜨라구 아주 그건 알개~이~가. {그건 아주 뭐 말하자면 이제 이 호귀리보다도 더 아주 더럽더라고 아주 그건 알갱이가.}

10310 # 알개~이~두 가짜두 안하게, 찢쭈해\* 어뜨케 생겼는데... {알갱이도 같지도 안 하게, 길쭉해[게] 어떻게 생겼는데...}

10310 @ 아, 아귀가요? {아귀가요?}

10310 # 아주 그림, 그 귀 귀:리라구래여. {아주 그림, 그 귀리라 그래요.}

10310 # 그게 아주 옰::나레 한번 나오거 가타 아주 옰::나레 아주. {그게 아주 옛날엔 한번 나온 거 같아 아주 옛날에 아주.}

10310 # 옰::나레 그게 나오거야 근데, 고게 인는데 내 그거 귀경언 헐는데 머거보지는 아닌는데 그건 안시머, 그건 아, 그건 안시머. {옛날에 그게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있는데 내 그거 구경은 했는데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건 안 심어, 그건 안 심어.}

10310 @ 음, 귀리는 안... {음, 귀리는 안...}

10310 @ 그림 아까... {그림 아까...}

10310 # 고, 고건 머 키두 양크구 요, 요정도로 똥는데. {그건 뭐 키도 안 크고 요정도로 똥는데.}

10310 # 그 누가 머 머 야그루 해\*\*\*\*데 그걸 봐:써, 어틸쩌게. {그 누가 뭐 뭐 약으로 해\*\*\*\*데 그걸 봤어, 어틸 적에.}

10310 # 근데 그거는 안 돼. {그런데 그건 안 돼.}

10310 # 알:개~이~가 업써, 그건 우때 찢쭈해게 생겼는데. {알갱이가 없어, 그건 어떻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10310 # 그니까 그건 안 돼. {그니까 그건 안 돼.}

10310 # 그이, 그르~이~까 아주 옰::나레 그게 아마 인제 그게 시머 아주 그게 우투케 버리가 되구 우투케 아마 그르 개명이 돼서 그르케 똥거 가태,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게 아마 이제 그게 심어 아주 그게 어떻게 보리가 되고 어떻게 아마 그래 개명이 돼서 그렇게 된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10310 # 귀리는 못써유. {귀리는 못 써요.}

10310 # 아주 그 옛날에 나온거야. {아주 그 옛날에 나온 거야.}

10310 # 그래 인제 그르... {그래 이제 그렇게...}

10310 # 버리두 거리, 보리두 여기하구 또 저아래하구 또 말찌두 아너. {보리도 보리도 여기하구 또 저 아래하고 또 맞지도 않아.}

10310 # 버리두 버리쌀두 달러. {보리도 보리쌀도 달라.}

10310 # 저그느 알싸리 아니야, 알보리 아니야, 저 저 제주도루 가구. {저기는 알쌀이 아니야, 알보리 아니야, 저 제주도로 가고.}

10310 # 버리, 버리쌀 알싸리야 그건 아주 쌀루나오자너. {보리, 보리쌀 알쌀이야 그건 아주 쌀로 나오잖아.}

10310 # 긴테 여그느 아니야 여그 거, 거칠지. {그런데 여기는 아니야 여긴 거칠지.}

10310 # 거치러. {거칠어.}

10310 # 그래두 마순 여기꺼가 나요. {그래도 맞은 여기 것이 나아요.}

10310 # 찢능게 꺾떼기 달링게 그게 더 나요. {찢는 게 꺾떼기 달린 게 그게 더 나아요.}

10310 # 알개~이~두 곡:꾸. {알갱이도 곱고.}

10310 # 지금 내놓거 이거 지금 이그 나오능거뚜 내, 지끔 우리두 해먹찌마는 근 아랜너꺼야 제주도 근 쌀보리라구래 그걸. {지금 나온 것 이거 지금 이것 나오는 것도 내, 지금 우리도 해먹지만, 그건 아랫넛 것이야 제주도 그건 쌀보리라 그래 그걸.}

10310 # 쌀처럼 나오기 땀서 떨머. {쌀처럼 나오기 때문에, 떨면.}

10310 # 긴테 여그느 앙그러커등, 여근 이 까치래기라구래지 그 빼죽강게 그 끄트머리, 거지뿌러~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거든, 여긴 이 까치래기라 그러지 그 뽕족한 게 그 끄트머리, 거짓부렁 아니야.}

10310 # 이마꿈, 질기가 이만해 그게, 버리는. {이만큼, 길이가 이만해 그게, 보리는.}

10310 # 그애 떨머 인제 그게 다 바사지지. {그래 떨면 이제 그게 다 부셔지지.}

10310 @ 그 여기는 쌀보리는 업써요? {그 여기는 쌀보리는 없어요?}

10310 # 여그느 안해. {여기는 안 해.}

10310 @ 여기는 안하고... {여기는 안 하고...}

10310 # 응. {응.}

10310 @ 제주도 가튼덴, 쌀보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쌀보리고.}

10310 # 응, 그그. {응 그그.}

10310 # 그래 저::아랜 내려가며 해드라 그저네 보니까는 나 어릴, 그때. {그래 저 아래는 내려가면 하더라 그전에 보니까는 나 어릴, 그때.}

10310 # 그애 인제 지끔 주로 제주도서 마~이~ 한 모~야~이. {그래 이제 지끔 주로 제주도서 많이 한 모양이야.}

10310 # 근데 그게 또 지끄른 금싸리 아니야. {근데 그게 또 지끔 금쌀이 아니야.}

10310 # 질 비싸자너, 지금. {제일 비싸잖아, 지금.}

10310 # 그 비싸, 버리 지금. {그 비싸, 보리 지금.}

10310 # 그 안들 해기 때미서. {그 안 하기 때문에.}

10310 # 그게 인제 저, 베 베하군 달러. {그게 이제 저 벼하고는 달라.}

10310 # 해기가 좀 심들지, 그르~이~깐. {하기가 좀 힘들지, 그러니까.}

10310 #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10307 @ 아까 그러면 그 농사 이케 버리농사나 밀롱사 인제 거이 비스타자나요. {아까 그러면 그 농사 이렇게 보리농사나 밀농사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10308 # 그림. {그림.}

10308 @ 버리 농사 지을때 갈:게 가으레 이제... {보리 농사 지을 때 가을에 가을에 이제...}

10308 # 그림, 갈:게 시머. {그림, 가을에 심어.}

10308 @ 썰, 시머서 씨를 뿌리며는 이제... {씨를, 심어서 씨를 뿌리면 이제...}

10308 # 그림. {그림.}

10308 @ 보, 이드매 보매 이제. {봄, 이듬 해 봄에 이제.}

10308 # 보매 이제 퍼러케 올라오며 그때 이제 커, 커, 머이 지끄른 지그른 이제 머 참 비료와 이씨~이간 조치, 옌나렌 그계 읍짜너. {봄에 이제 퍼렇게 올라 오면 그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참 비료와 있으니까 좋지, 옛날엔 그계 없잖아.}

10308 # 그이까 이 사람서 나오능건, 옌:나렌 그걸 차:\*\*, 끄찌기 예긴다구, 망어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옛날엔 그걸 참, 끄찍이 여긴다구, 망웃을.}

10308 @ 망, 망운. {망웃.}

10308 # 그림. {그림.}

10308 @ 예. {예.}

10308 # 그걸 거 가따 가따 뿌리다구. {그걸 거기 갖다 뿌리기도 하고.}

10308 # 그르이까 오줌두 옌:나렌 막 저런데 어디가 깔려? {그러니까 오줌도 옛날엔 막 저런 데 어디가 깔려?}

10308 # 그 아주 인나무루 귀영을 이러::케 파가주 거기다 이제 짐무나페다 놔, 그래야 거기다 한 사람더 그걸 반넝거야, 거기서. {그 아주 이 나무로 구멍을 이렇게 파 가지고 거기다 이제 짐 문앞에다 놔, 그래야 거기다 한 사람들 그걸 받는 거야, 거기서.}

10308 @ 그 망우슨 어떻걸...? {그 망웃은 어떤 걸...?}

10308 # 망은 그계 눈농거지, 눈:능거. {망웃은 그계 누는 거지, 누는 거.}

10308 @ 예? {예?}

10308 # 눈농거지, 똥 똥 그거 그래지. {누는 거지, 똥 그거 그러지.}

10308 # 지끄른 그계 지끔 해당이 읍짜너 이제 거르미 조용게 나오니까. {지금은 그계 지끔 해당이 없잖아, 이제 거름이 좋은 게 나오니까.}

10308 @ 그러초. {그렇죠.}

10308 # 옌나렌 그걸로 더 해: 머거씨니간. {옛날엔 그걸로 더 해 먹었으니까.}

10308 @ 예예. {예예.}

10308 # 그 아, 똥장구라구 이제 마이짜너, 저 아랜너게 왜 저 항아리 이거 멩기러 지, 지구맹기 능, 지끔 나오자너 태래비도. {그 아, 똥장구라고 이제 많이 있잖아, 저 아랫녘에 왜 저 항아리 이거 만들어 지고 다니는, 지금 나오잖아 티비에도.}

10308 @ 고걸 머라고 한다구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10308 # 똥장구라그래지 걸. {똥장구라 그러지 그걸.}

10308 @ 똥장... {똥장...}

10308 # 구, 으~, 똥장구. {구, 응, 똥장구.}

10308 # 그 저 충청도가니깐 아주 그걸 그래드라구. {그 저 충청도 가니까 아주 그걸 그러더라고.}

10308 # 그걸 다 아주 소예다 시쿠 맹기므 주구 그래, 거기는. {그걸 다 아주 소예다 싣고 다니면서 주고 그래, 거기는.}

10309 @ 그러며는 그 아까 그 보리가통경우에는 이제 씨를 뿌리, 이게 바테다 하자나요 바테다가. {그러면 그 아까 그 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씨를 뿌리, 이게 밭에다 하잖아요 밭에다가.}

10309 # 어~. {응.}

10309 @ 받까튼데 할때... {밭 같은 데 할 때...}

10310 # 고:를 캐능거야, 그거 소루다가. {골을 켜는 거야, 그거 소로.}

10310 @ 켈먼저, 아 소로. {켈 먼저, 아, 소로.}

10310 # 고:랑을 캐자너. {고랑을 켜잖아.}

10310 @ 고랑을 켜고. {고랑을 켜고.}

10310 # 그래. {그래.}

10310 @ 그러며는 받, 이르케 하며는 이르케... {그러면 받, 이렇게 하면 이렇게...}

10310 @ 이르케 가며는 요기는 고리 이르, 소근 골... {이렇게 가면 요기는 골이 이렇, 속은 골...}

10310 # 고리 되지. {골이 되지.}

10310 @ 고를 켜고, 그 이 이위는 머라고 합니까? {골을 켜고 그 이 위는 뭐라고 합니까?}

10310 # 그 등이지. {그 등이지.}

10310 @ 아. {아.}

10310 # 근 등이지, 그르이칸. {그건 등이지, 그러니까.}

10310 @ 고고 고걸 캐능거를 고걸? {그걸 켜는 것을 그걸?}

10310 # 고리, 고:를 이르케 쪽 짜개문 흘기 이짜으러 너머가자너. {골을 이렇게 쪽 쪼개면 흙이 이쪽으로 넘어 가잖아.}

10310 # 거 요 등이 되자너. {그 요 등이 되잖아.}

10310 # 그니고는 등이 되며는 여그서 이러케 나와서 이르케 소를 돌려가주구 인제 고고마쿠물 샬: 떠워가주구다 소를 엔:장을 드리대지. {그리고는 등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소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만큼을 사이를 띄워가지고서 소를 연장을 들이대지.}

10310 # 그래머 그게 인제 또 고:리 되자너.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골이 되잖아.}

10310 # 그래머 인제 드 뚝, 가운데 등이 이러케 사무 되능거지. {그러면 이제 뚝, 가운데 등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지.}

10310 # 그래서 인제 거그다 뿌리면 인제 그걸 무들때 그걸루 가따 고물개루 인제 이르케 문녕 거야 인제. {그래서 이제 거기다 뿌리면 이제 그걸 문을 때 갖다 고무래로 이제 이렇게 문는 거야 이제.}

10310 @ 아, 그 고레다가 그걸 심... {아, 그 골에다가 그걸 심...}

10310 # 음, 어퍼 이러케 어퍼 노:니칸, 양짜근 고리 저. {음, 얹어 이렇게 얹어 놓으니까, 양쪽은 골이 저.}

10310 # 그르~이~칸 그걸 인제 씨아슬 뿌리구 그걸 그 흘글 그 문녕거야 인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걸 그 흙을 그 문는 거야 이제.}

10310 # 나가면서 고.. {나가면서 고...}

10310 @ 예 나가면서. {예, 나가면서.}

10310 # 고물개루. {고무래로.}

10310 @ 고물개로 이르케 묻꼬요? {고무래로 이렇게 묻고요?}

10310 # 응. {응.}

10310 # 그게 고물괘 인제 거기두 마이 피로해지, 그게. {그게 고무래는 이제 거기도 많이 필요하지, 그게.}

10310 @ 그러며는 그 논농, 노네서 지을때는 겨리로 하자나요, 받또 그렇가요? {그러면 그 논농사, 논에서 지을 때는 겨리로 하잖아요, 받또 그런가요?}

10310 # 받뚜 향가지지. {받도 한 가지지.}

10310 # 그럼 받뚜 향가지지. {그럼 받도 한 가지지.}

10310 @ 받또 겨리로 하나요? {받도 겨리로 하나요?}

10310 # 걷 또까퉁거야. {그것 똑같은 거야.}

10310 # 또까퉁거야 그건. {똑같은 거야 그건.}

10310 # 그건 머 노네서두 호리씨구 겨리씨구 바테두 만대루해능거지 머. {그건 뭐 논에서도 호리 쓰고 겨리 쓰고 밭에도 맘대로 하는 거지 뭐.}

10310 @ 근데 바테는 여기도 여기는 바테도 주로 겨리만 썬나요? {근데 밭에는 여기도 여기는 밭에도 주로 겨리만 썬나요?}

10310 @ 호리는 안 쓰나요? {호리는 안 쓰나요?}

10310 # 그르이간 여기는 사낙찌대래서 돌: 망쿠 그르~이~까는 여긴 인제 그제 호리래능게 읍 써유. {그러니까 여기는 산악지대라서 돌 많고 그러니까 여긴 이제 그제 호리라는 게 없어요.}

10310 @ 아, 그래요, 호리가요? {아, 그래요, 호리가요?}

10310 # 응. {응.}

10310 # 그건 호리년 사리 조와야돼, 돌:두 억꾸. {그건 호리소는 \*\* 좋아야 돼, 돌도 없고.}

10310 # 그래애지 돌:마는텐 안마저 그러. {그래야지 돌 많은 텐 안 맞아 그래.}

10310 # 그르이까 여근 전부 더 사낙찌대구 인제 사, 이 사네 다 나무까꺼가주구... {그러니까 여긴 전부 더 산악지대고 이제 이 산에 다 나무 깎아가지고...}

10310 # 옴나른, 지끄른 이 사늘 맘대루 못베자너, 옴나렌 그냥 막 비어, 아:무나. {옛날은, 지금은 이 산을 맘대로 못 베잖아, 옛날엔 그냥 막 베어, 아무나.}

10310 # 임자업써, 그냥 가따 벼서 거기 다 누켜, 쪽까러. {임자 없어, 그냥 갖다 벼서 거기 다 눌혀, 쪽 깔아.}

10310 # 그래군 말르먼 가서 그제 불만 질르먼 돼. {그리고 마르먼 가서 그제 불만 지르먼 돼.}

10310 # 그러타구 부트러 가는 놈 하나두 읍써. {그렇다고 불들어 가는 놈 하나도 없어.}

10310 # 불만 안나른, 안나감 고마니여. {불만 안 나면 안 나가면 그만이야.}

10310 # 그래믄 그 인제 그걸 츠메 한데걸 불해노쿠다 해믄 그 제 해에 머 아주 거르미 조:치. {그러면 그 이제 그걸 처음에 한 데 것을 불해 놓고서 하면 그 그 해에 뭐 아주 거름이 좋지.}

10310 # 그래머 가서 인제 조를 그 인제 소누루 인제 다머가주 내가 인제 강겨그루 이러케 인제 훌훌 뿌린다구. {그러면 가서 이제 조를 그 이제 손으로 이제 담아가지고 내가 이제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훌훌 뿌린다고.}

10310 # 그래가 그다메 그때 팽이루 가따 득득 글거나 이르케. {그래서 그담에 그때 팽이를 가지고 득득 긁어 놔 이렇게.}

10310 # 그냥, 파, 파 파 파무게, 판능거야. {그냥, 파 묻게, 파는 거야.}

10310 # 그래곤 머 갈:게 감 그냥 머 말:도 모태 이르치 머 대궁 하나가. {그러곤 뭐 가을에 가면 뭐 말도 못 해 이렇지 뭐 대궁 하나가.}

10310 @ 음. {음.}

10310 # 이 지러키 빠징게 조아. {이 길이가 빠진 게 좋아.}

10310 # 무지장 잘라요. {무진장 자라요.}

10310 # 그르케 해머걸써. {그렇게 해 먹었어.}

10310 # 그래따 인제 그 그으드메 가선 그뎨간 소 가러이돼, 그뎨. {그랬다가 이제 그 이듬 해 가선 그때 가서는 소로 같아야 돼, 그뎨.}

10310 # 츠:메 헬째는 인제 허무루 그냥 이르케 헨는데. {처음에 할 적에는 이제 호미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10310 # 그 으든 조를 베이내고 그 으드메 가 헬램 소루 또 가러. {그 이듬 해 조를 베 내고 그 이듬 해 가서 하려면 소로 또 같아.}

10310 # 글뎨 딱딱캐니까 가러이 돼. {그뎨 딱딱하니까 같아야 돼.}

10310 # 소루 가려 냉기자녀. {소로 갈아 넘기잖아.}

10310 # 그르이간 가려 냉기거든 비아리래두 다 이르게 흘기 알:루 떠러지며 저짜게 가 도라가 두 이짜게 또 고걸 고 등얼래노코. {그러니까 갈아 넘기거든 비탈이라도 다 이렇게 흘이 아래로 떨어지면 저쪽에 가 돌아가도 이쪽에 또 그걸 그 등에 놓고.}

10310 # 싹까능건 또 아주 몽지리 가르니간 차국차국 가려냉깁게 이꾸. {모두 가는 건 또 아주 모조리 가니까 차곡차곡 갈아 넘긴 게 있고.}

10310 @ 멀 가라냉겨? {뭘 갈아 넘겨?}

10310 # 차국차국 가능건 아주 싹까능거지 아주. {차곡차곡 가는 건 아주 모두 가는 거지, 아주.}

10310 @ 예. {예.}

10310 # 그러치만 골질라문 인제 쪼끔 떠워가주구다 소를 디리대능거야, 연장을. {그렇지만 골을 지으려면 이제 조금 떠워서 소를 들이대는 거야, 연장을.}

10310 # 그래먼 그 등이 되구 고리 되구 양짜그러. {그러면 그 등이 되고 골이 되고 양쪽으로.}

10310 # 그러케 해능거지 머. {그렇게 하는 거지 뭐.}

10310 @ 음. {음.}

10310 # 개 여그인제 연나렌 전부 겨리야 여긴. {그래 여기 이제 옛날엔 전부 겨리야 여긴.}

10310 @ 예. {예.}

10310 # 읍쌔유, 지금 여, 여그두 내가 인제 호이를 마이 갈지. {없어요, 지금 여기도 내가 이제 호리를 많이 갈지.}

10310 # 나두 인제 저 충청도 가서 내가 그걸 배워가주구 와가주구. {나도 이제 저 충청도 가서 내가 그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10310 # 호린 나드라구 여기두. {호리는 나더라고 여기도.}

10310 # 그래서... {그래서...}

10310 @ 충청도는 언제 가서 배웠나요? {충청도는 언제 가서 배웠나요?}

10310 # 피, 피란. {피란.}

10310 @ 아, 피. {아, 피.}

10310 # 그런데 저 워, 원주 문마기라는데 이씨유 여. {그런데 저 원주 문막이라는 데 있어요 여.}

10310 @ 문마기이씨요, 예. {문막이 있어요, 예.}

10310 # 내가 거그, 그 수양소서 배:그블 타먹꼬, 인는데 거기 싸라미 으싸무소 댕기는 사람 지귀니 하나 이씨 그런데. {내가 거기 그 수용서에서 배급을 타 먹고, 인는데 거기 사람이 읍사무소 다니는 사람 직원이 하나 있어 그런데.}

10310 @ 의사, 의...? {의사, 의...?}

10310 # 읍싸무소, 사. {읍사무소.}

10310 # 먼, 읍싸무소에 댕기는 사라미 이떠라구, 공무원니. {먼, 읍사무소에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공무원이.}

10310 # 근데 그 짐노니 여덜 마지기야. {근데 그 짐 논이 여덟 마지기야.}

10310 # 그애떠 날보구 그걸 부치래, 그래 나. {그랬더니 날 보고 그걸 부치래, 그래 나.}

10310 # 아니 여보시유, 피란미니 배:급타다 멩는데 뭐가 인는데 우투케 농사, 소, 우투케 농살진년냐 내 그르까. {아니 여보시오, 피란민이 배급 타다 먹는데 뭐가 있는데 어떻게 농사, 소,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내 그러니까.}

10310 # 그건 근심해지 말래. {그건 근심하지 말래.}

10310 # 내가 다 대주그러 하라 이거야. {내가 다 대주니까 하라 이거야.}

10310 # 그르니까 이게 무리 째분노니야. {그러니까 이게 물이 짧은 논이야.}

10310 # 이 하늘만 쳐다보구 해 멧년 노니야. {이 하늘만 쳐다보고 해 먹는 논이야.}

10310 # 비가 와야만 돼, 어드 물 델때두 읍따라구. {비가 와야만 돼, 어디 물 델 데도 없더라고.}

10310 # 그르니까 안단, 안달 부치구 날더러 인제 그걸 부치자라 그래서. {그러니까 안 부치고 날더러 이제 그걸 부쳐라 그래서.}

10310 # 아, 그래, 또 밤머꾸 그냥 노는데 피라~이~ 며 할게 이썬? {아, 그래, 또 밥 먹고 그냥 노는데 피란이 뭐 할 게 있어?}

10310 # 그래서 그래 해보게따구인제 그런데. {그래서 그래 해 보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10310 # 그사라미 그게 인제... {그 사람이 그게 이제...}

10310 # 소도 맏뜨라구. {소도 먹었더라고.}

10310 # 긴테, 그 머 즈아버지 머 군:수꺼지 해머거때. {그런데 그 뭐 자기 아버지 뭐 군수까지 해 먹었대.}

10310 # 근테 아드리 으싸무소에 이뜨라구. {근테 아들이 읍사무소에 있더라고.}

10310 #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걸 해봐써, 거기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걸 해 봤어, 거기서.}

10310 # 그르니까 생전 안해보던거지. {그러니까 생전 안 해보던 거지.}

10310 # 난 여기서 겨리, 소 두:바리만 가주구 운영얼 해써는데. {난 여기서 겨리, 소 두 마리만 가지고 운영을 했어는데.}

10310 # 거그서 그거 헬랭게 안되드라구. {거기서 그거 하려니 안 되더라고.}

10310 # 그래서 참 그 대:구 배우~이~깁 되드라구. {그래서 참 그 대구 배우니까 되더라고.}

10310 # 그래구 거기는 고:노니 마너유, 물, 물린는 노니. {그리고 거기는 고논이 많아요, 물 있는 논이.}

10310 # 인, 보, 본무리 드무러. {붓물이 드물어.}

10310 # 본무른 이 개울무르 대:따 떼머 인제 논 버짱 말르는데. {붓물은 이 개울물을 댔다 떼면 이제 논 바짝 마르는데.}

10310 # 거근 이 노네서 생기는 무리 이떠라구. {거긴 이 논에서 생기는 물이 있더라고.}

10310 # 그런데 그게 무리 째버, 그게. {그런데 그게 물이 짧아, 그게.}

10310 # 그래가주구다 말르구래는데. {그래가지고 마르고 그러는데.}

10310 # 그래서 인제 거그서 그걸 소루 아주 배운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소로 아주 배운 거야 내가.}

10310 # 그래구 인제 거그는. {그리고 이제 거기는.}

10308 # 벼를 벼가주구 이르거 다늘 무꺼등 이 논뚜라~. {벼를 벼 가지고 이렇게 단을 묶거든 이 논두렁에서.}

10308 # 거그서 쪽::까따 이르케 놔, 벼서. {거기서 쪽 갖다 이렇게 놔, 벼서.}그

10308 # 그런데 그래서 인제 그걸 크게 안 무꺼, 요러케 무꺼가주구다 쪽::까따 논뚜러다 해, 벼해, 무꺼가주구.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크게 안 묶어, 요렇게 묶어가지고 쪽 갖다 논두렁에다 해, 벼서 묶어가지고.}

10308 # 그래가따 인제 며 한 여르리래든, 우투케 꼭때기가 거반 시드러지면 한번 이르케 뒤틀러.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열흘이라든지, 어떻게 꼭대기가 거의 시들어지면 한번 이렇게 뒤틀어.}

10308 # 홀랑 뒤집어서 인제, 그래 말르면 또 인제 그걸 소루 거긴 헤드라구. {홀랑 뒤집어서 이제 그래 마르면 또 이제 그걸 소로 거긴 하더라고.}

10308 # 참, 이상. {참, 이상.}

10308 @ 소로? {소로?}

10308 # 그래. {그래.}

10308 # 소 지르매가 이씨. {소 길마가 있어.}

10308 @ 아, 소 지르매요? {아, 소 길마요?}

10308 # 어, 지르매가 인는데 지르매다 그:릉새라구 또 이씨. {응, 길마가 있는데 길마에다 걸채라고 또 있어.}

10308 # 그:릉채라구 이씨. {걸채라고 있어.}

10308 # 그:릉첼 가따 거따 메워. {걸채를 갖다 거기다 메워.}

10308 # 그래먼 그건 이르케 인체 그건 크지. {그러면 그건 이렇게 이제 그건 크지.}

10308 # 지, 지르맨 소등어래 딱 뿌꾸, 그릉체는 한 이 하바가 일구, 일곱짜 하바 찌레기야. {길마는 소 등에 딱 붙고, 걸채는 한 이 넓이가 일곱 자 넓이 길이야.}

10308 @ 그걸 그:렁채라고 합니까? {그걸 걸채라고 합니까?}

10308 # 그림, 그:렁채. {그림 걸채.}

10308 # 그래 인체 고기다 그 베편 지버넌는데를 이 베편, 베편푸루다 이영 역꺼서 그르케 다러서 이르케 멩기러씨유. {그래 이제 거기다 그 베편단 집어 넣는 데를 이 베편짚으로 이영 엮듯이 그렇게 달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10308 # 그래가 그걸 가서 노네 끌구 드러가서 거기다가 베편 베편늘 거그 지버 신능거야. {그래서 그걸 가서 눈에 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베편 베편단을 거기 집어 싣는 거야.}

10308 # 그래서 거긴 또 그르케 해떡뜨라구. {그래서 거긴 또 그렇게 해 떡더라고.}

10308 # 그르~이~깁 사라미 물, 무리 빠지고 모뎅기자너, 그걸. {그러니까 사람이 물이 빠지고 못 다니잖아, 그걸.}

10308 # 일리리 저내지두 모태잔. {일일이 저 내지도 못 하잖아.}

10308 # 그르이가 소루다 그르케 해드라구. {그러니까 소로 그렇게 하더라고.}

10308 # 내 그때 그릉걸 내 배워봐씨. {내 그때 그런 걸 내 배워봤어.}

10308 # 그릉체는 어디드~이~ 이씨유. {걸채는 어디든지 있어요.}

10308 # 그건 엔나래 이 먼데, 여기두 그릉체는 엔날버텀 이씨. {그건 옛날에 이 먼 데, 여기도 걸채는 옛날부터 있어.}

10308 # 그건 왜그러냐문 노니 먼데는 지브 다 무러드리, 되제. {그건 왜 그러냐면 논이 먼 데는 집으로 다 물어 들여야 되지.}

10308 # 노네서 모떠니까. {논에서 못 떠니까.}

10308 # 그르~이~깁 아무리 머러두 그, 지부루 가져와이돼.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그, 집으로 가져와야 돼.}

10308 # 그르이깁 일리리 저오진 모태니깁 그 소에다 엔나래두 내 보니까 우리 아버지두 보니까 그 그릉채르 거기다 시러웅... {그러니까 일일이 저 오지는 못 하니까 그 소에다 옛날에도 내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걸채를 거기다 실어오는...}

10308 # 소노 고, 말을 모태니깁 심등거뚜 몰르자너 글쎄. {소는 그 말을 못 하니까 힘든 것도 모르잖아 글쎄.}

10308 # 그림, 그느무루다 시르니깁 머. {그림, 그 놈으로다 실으니까 뭐.}

10308 # 그리구 산, 사람 바, \*\*\* 두:짐 지능거 한, 거기 소가 하나 하나면 다 시꾸 오자너. {그리고 사람 \*\*\* 두 짐 지는 거 한, 거기 소가 하나면 다 싣고 오잖아.}

10308 # 사람 두:지멸 다. {사람 두 짐을 다.}

10308 # 그르케 날러씨. {그렇게 날랐어.}

10308 # 그래서 내가 그걸 해봐씨유, 거기서. {그래서 내가 그걸 해 봤어요, 거기서.}

10308 @ 음, 그러, 예저네는 그러면 인제 보리, 보리를 아까 보리를 땅을 이르게 갈고 고를 캐가주고 인제 씨를 이르게 고물개로 이르게 무짜나요. {음, 그래,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보리를 아까 보리를 땅을 이렇게 갈고 골을 쪼가지고 이제 씨를 이렇게 고무래로 이렇게 묻잖아요.}

10308 @ 무꼬나면 씨가 자랄꺼 아네요. {묻고 나면 씨가 자랄 것 아니에요.}

10308 @ 씨가 자라고 나서 인제 나중에 인제 그 보리가 자락 나머는 그거또 보리, 버리도 인제 베야 될꺼 아니에요. {씨가 자라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보리가 자라 나면 그것도 보리도 이제 베야 될 거 아니에요.}

10308 # 피, 빈능거, 비능거? {베는 것?}

10308 @ 예. {예.}

10308 # 그러치, 인제 그제 인제 겨우를 나자너. {그렇지, 이제 그제 이제 겨울을 나잖아.}

10308 # 갈:게 시머씨~이~깐 겨우를 나면. {가을에 심었으니까 겨울을 나면.}

10308 # 인제 나리 뜨태지~이~까 그제 퍼::러케 이싸구가 그에 올라오자너.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제 퍼렇게 잎사귀가 그제 올라 오잖아.}

10308 # 그때 인제 또 인넌 사라문, 지끄문 비로가주구 비로가따 뿌리지 거그다가. {그때 이제 또 있는 사람은 지금은 비료가지고 비료갓다 뿌리지 거기다가.}

10308 # 그, 버리에다가 그래문 인제 그 잘 잘지 머. {그, 보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 잘 자라지 뭐.}

10308 # 그래가 이제 크머는 인제 그때가서 인제 그제 여물면 비능거지 머. {그래서 이제 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제 여물면 베는 거지 뭐.}

10308 # 고게 인제... {그제 이제...}

10308 # 그르~이~까 버리 뿌레기가 하지 때 끄너진대유. {그러니까 보리 뿌리가 하지 때 끊어진대요.}

10308 # 버리 뿌레기가. {보리 뿌리가.}

10308 @ 예예. {예예.}

10308 # 그제 사러인능게 하지때문 그제 끄너진대. {그제 살아 있는 게 하지 때면 그제 끊어진대.}

10308 # 그르~이~까 하지때 되면 다 비능거야. {그러니까 하지 때 되면 다 베는 거야.}

10308 # 버리는. {보리는.}

10308 # 그때감 그제 망어저유. {그때 가면 그제 망가져요.}

10308 # 또 오래두 안 망어짐 막껴껴지구 그레~이~까 안되지. {또 오래도 안 망가지면 막 꺾어지고 그러니까 안 되지.}

10308 # 그르~이~간 싱싱할때 비지. {그러니까 싱싱할 때 베지.}

10308 # 그제 하지 때느 그 뿌레기가 끄너진다구 엔나레 노인네 다 그레드라구. {그제 하지 때는 그 뿌리가 끊어진다고 옛날에 노인네 다 그러더라고.}

10308 # 그르~이~까 버리는 여기두 다 시머 머겨씨, 초:니고 어디던. {그러니까 보리는 여기도 다 심어 먹었어, 촌이고 어디든지.}

10308 # 버리 아니며 어디 싸리 어디씨. {보리 아니면 어디 쌀이 어딴어.}

10308 # 버리싸리지, 어디던지. {보리쌀이지, 어디든지.}

10308 # 내 충청도 가뜰덴 버리쌀 지급께 머겨씨, 그 수용소 이썰져게. {내 충청도 갔던 테는 보리쌀 지겹게 먹었어, 그 수용소 있을 적에.}

10308 # 그그 인제 수용소. {그 이제 수용소.}

10308 # 그거 한 사:키로 되거덩, 그거 마누라가 가따 인제 그거 팔구오. {그거 한 사 킬로 되거  
든, 그거 마누라가 갖다 이제 그거 팔고 오고.}

10308 # 나는 나메 일해구 근데. {나는 남의 일 하고 근데.}

10308 # 그래다 나메 일 팔면 그때 그 날리라두 버리쌀 한마른 쥐. {그러다 남의 일 팔면 그때  
그 난리라도 보리쌀 한 말은 쥐.}

10308 # 거기 삼드리. {거기 사람들이.}

10308 # 그래서 참 버리 오:락 해, 하하하. {그래서 참 보리 오래 해, 하하하.}

10308 # 버리쌀 참 말:두 모타게 머겨써, 내. {보리쌀 참, 말도 못 하게 먹었어, 내.}

10308 # 그래서 데루 완는데. {그래서 데려 왔는데.}

10311 @ 그 저기 그럼 버리가통경우에는 이제 바틀 갈기 저네 버리 잘 버리가 잘 심, 잘라게  
할라고 이 밭:끼가통거또 하조? {그 저기 그럼 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밭을 갈기 전에 보리 잘  
보리가 잘 심, 잘 나게 하려고 이 밭기 같은 것도 하죠?}

10311 # 그르~이~까 거루미니지 머. {그러니까 거름이지 뭐.}

10311 # 그으케 거름해능거지 머. {그렇게 거름하는 거지 뭐.}

10311 # 뒤업. {두업.}

10311 @ 아니요, 버리 밭:끼 가통거는 안합니까? {아니요, 보리 밭기 같은 것은 안 합니까?}

10311 # 어, 박:끼. {응, 밭기.}

10311 # 그건 해지. {그건 하지.}

10311 # 그런데 머. {그런데 뭐.}

10311 @ 그게 어똥겁니까, 그게?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게?}

10311 # 그건 반능거야 그르칸 그거 보메 가서 해능거야유. {그건 밭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봄  
에 가서 하는 거예요.}

1031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1 # 갈:게 안해구 겨울. {가을에 안 하고 겨울.}

10311 # 겨울라든. {겨울 나면.}

10311 @ 예 겨울라면. {예, 겨울 나면.}

10311 # 땅이 다 얼:자너, 콩꽁. {땅이 다 얼잖아 콩꽁.}

10311 @ 예예예. {예예예.}

10311 # 어러따가 인제 이 그 인제 스:를 쇠구 인제 보미 됴 그게 들뜨다구. {얼었다가 이제 이  
그 이제 설을 쇠고 이제 봄이 되면 그게 들뜨다고.}

10311 @ 아 예. {아 예.}

10311 # 그래서 뿌레기가 망어진다구 그게 법, 버리밧:끼야, 뿌레기바끼, 근데 여긴 다 그렇건  
업써. {그래서 뿌리가 망가진다고 그게 보리밧기야, 뿌리밧기, 근데 여긴 다 그런 건 없어.}

10311 @ 아, 뿌레기가 망어지는... {아, 뿌리가 망어지는...}

10311 # 그럼, 들뜨니깐. {그럼, 들뜨니까.}

10311 @ 망어지니까 이제... {망가지니까 이제...}

10311 # 어러따 다 떠 어디 땅이던지. {얼었다가 다 떠, 어디 땅이든지.}

10311 # 그르~이~칸 노늘 가러두 멀 할때두 보메 일찌가니 해면 치미 안드러. {그러니까 논을  
갈아도 뭘 할 때도 봄에 일찍이 하면 힘이 안 들어.}

10311 # 느지끼 갈면 따~이~ 착까러안저요. {느죽이 갈면 땅이 착 깔아 앉아요.}

10311 # 땅이래능게 겨울게 어러따웅게. {땅이라는 게 겨울에 얼었으니까.}

10308 # 그래서 고 가러양끼저네 갈:면 다 사라미구 소구 시미 안드러. {그래서 그 갈아 앉기  
전에 갈면 다 사람이고 소고 힘이 안 들어.}

10308 # 그르~이~까 버리두 그거지. {그러니까 보리다 그거지.}

10308 # 이 어러따가 이게 노구니깐 부실해~이~간 뿌레기가 망어진대는 얘기야. {이 얼었다가 이게 녹으니까 부실하니까 뿌리가 망가진다는 얘기야.}

10308 # 그래서 뿌르. {그래서 뿌리.}

10311 @ 밭:. {밭.}

10311 # 그래, 말버춰애만 그 뿌레기가 인제 든드니 배긴대는 얘기지 머. {그래. 밭아 줘야만 그 뿌리가 이제 든든하게 배긴다는 얘기지 뭐.}

10311 @ 아. {아.}

10311 # 그래 버리밭끼라구렌데. {그래 보리밭기라 그랬는데.}

10311 # 인제 아랜너젠 그게 여그보다 땅이 크니깐 거긴 마~이~두 해자너. {이제 아랫녘엔 그게 여기보다 땅이 크니까 거긴 많이도 하잖아.}

10311 # 월래가 저 충청두 나가두 버리 마이 해유. {원래가 저 충청도 나가도 보리 많이 해요.}

10311 # 거기 사람들. {거기 사람들.}

1031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8 # 나는 이 강안도 사람 인제 머 콩버리바비니 머 감자바우라 그래는데. {나는 이 강원도 사람 이제 뭐 콩보리밥이니 뭐 감자바위라 그러는데.}

10308 # 아니야. {아니야.}

10308 # 내가 날리에 충청도 거기서 했는데. {내가 난리에 충청도 거기서 했는데.}

10308 # 거그 사람 쌀귀경 모태. {거기 사람 쌀 구경 못 해.}

10308 # 논두 망킨 만타구면. {논도 망킨 많더구만.}

10308 # 거그 한 이백코가 되는데 내가 나메 이를 땡긴게, 사무 이를 해거덩. {거기 한 이백 호가 되는데 내가 남의 일을 다닌 것이, 계속 일을 했거든.}

10308 # 거, 울 피란 피란미니까 나가 푸멀 파러야 먹짜너. {거, 리 피란민이니까 나가서 품을 팔아야 먹잖아.}

10308 # 그런데 딱 한지비서 이:장네 집빠게 읍써. {그런데 딱 한 집에서 이장네 집밖에 없어.}

10308 # 쌀귀경해는지비가. {쌀 구경 하는 집이야.}

10308 # 그리구 여는지벤 다 아이 콩보리바비아. {그리고 여느 집에는 다 아이, 콩보리밥이야.}

10308 # 이장네 지비가 이를 해야 이바벌 먹게뜨라구. {이장네 집에 가서 일을 해야 이밥을 먹겠더라고.}

10308 # 그래군 다 콩보리바비아유. {그러고는 다 콩보리밥이요.}

10308 # 난 그래서 이야, 그게 머 강안도 그래드 머 간자바우라 그래더니 그게 아니야. {난 그래서 이야, 그게 뭐 강원도 그러면 뭐 감자바위라 그러더니 그게 아니야.}

10308 # 여긴 또 그정돈 아니거등 사시른. {여긴 또 그 정도는 아니거든 사실은.}

10308 # 여, 여그 버리\*, 버리두 마이, 이 강안돈 마이 모씨머. {여, 여기 보리도 많이, 이 강원도는 많이 못 심어.}

10308 # 뭐이, 마이 시머이 잘해이 하루 갈꺼 시물까바. {뭐 많이 심어야 잘 해야 하루 갈 것 심을까 봐.}

10308 # 한, 한 이천평 시무까 머 근데 이천평두 심드러 여, 여기 사람드으. {한 이천 평 심을까 뭐 근데 이천 평도 힘들어, 여기 사람들은.}

10308 # 그 인제 자기 머물꺼 망콥드 심는데. {그 이제 자기 먹을 것만큼들 심는데.}

10308 @ 자기 머글 망쿠... {자기 먹을 만큼...}

10308 # 으~. {응.}

10308 # 그런데 거기 보~이~간, 난 아 인제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난 아, 이

제 그래서 이상하다.}

10308 # 이야, 그케 그래. {이야, 그렇게 그래.}

10308 # 거근 날:리에 다 쫓겨 가능거뚜 아닌데 그러타는데 머. {거긴 난리에 다 쫓겨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는데 뭐.}

10311 @ 그 아까 버리 이르케 들뜨머 버리밭끼르 하자나요. {그 아까 보리 이렇게 들뜨면 보리 밟기를 하잖아요.}

10311 # 으, 버리밭끼 그거야 땅거 읍씨. {응, 보리밟기 그거야 딴 거 없어.}

10311 # 겨우리 나~이~ 땅이 겨울게 어러따가 보미 됴 이게 노구니깐, 따. {겨울이 나니 땅이 겨울에 얼었다가 봄이 되면 이게 녹으니까.}

10311 # 그건 나버터는 아러, 다 뉘귀던지. {그건 나부터는 알아, 다 누구든지.}

10311 # 땅이 물렁해. {땅이 물렁해.}

10311 # 얼:다 부푸러 이러난. {얼다 부풀어 일어난.}

10311 # 이르케 어러따가 이 노구니깐 땅이 노구니까는 부실해지. {이렇게 얼었다가 이 녹으니까 땅이 녹으니까 부실하지.}

10311 # 기래서 버리 뿌레기가 망어진다구 버리바끼해능거예유 그케. {그래서 보리 뿌리가 망가진다고 보리밟기 하는 거예요 그케.}

10311 # 그르이칸 아랜너게는 마이 심짜너 그래서 그케 월래가 아랜너겐 헨는데. {그러니까 아랫녘에는 많이 심잖아 그래서 그케 원래가 아랫녘에는 했는데.}

10311 # 이런 상꼬레는 그거 업... {이런 산골에는 그거 없...}

10311 @ 이 하면서 행사가통거는 안해요? {이 하면서 행사 같은 것은 안 해요?}

10311 # 여, 그거 읍씨, 여긴 이 강아도루는 업씨. {여, 그건 없어, 여긴 이 강원도로는 없어.}

10311 # 근데 그케 아랜너그루 나가니깐 인제 그케 만트라구 행사가 마너 거근 내 아러. {근데 그케 아랫녘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케 많더라고 행사가 많아 거긴 내 알아.}

10311 # 겨울게두 머 이르케 머 무신날 놀구며 그랜데 이 강안도는 그케 읍씨. {겨울에도 뭐 이렇게 뭐 무슨 날 놀고 하며 그러는데 이 강원도는 그케 없어.}

10311 # 행사래능게 읍뜨라구 여겐. {행사라는 게 없더라고 여긴.}

10308 @ 그 아까 노네서 벼가, 벼가 벼가통경우에는 보통 두벌 노를 매자나요? {그 아까 논에서 벼가, 벼가 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벌 논을 매잖아요?}

10308 # 어~어~. {응응.}

10308 @ 근데 바까통경우에 어때요, 버리 버리가통경우에 며뻔 이게. {근데 밭 같은 경우에 어때요, 보리 보리 같은 경우에 몇 번 이게.}

10308 # 버리두 그래 버리두 머 인제 그케 그케. {보리도 그래 보리도 뭐 이제 그케 그케.}

10308 # 머 떼뻬늘 매거나자나 그케 인제 버리나 벼나. {뭐 몇 번을 매거나 그케 이제 보리나 벼나.}

10308 # 이게 잘 서가주구 잘 울장하믄, 잘크머는 푸리 안 나오게 돼이씨. {이게 잘 서가지고 잘 울창하면 잘 크면 풀이 안 나오게 돼 있어.}

10308 # 그르~이~까 풀버다두 이 곡씨기 먼저 올라오니까는. {그러니까 풀보다도 이 곡식이 먼저 올라 오니까.}

10308 @ 머보다요? {뭐보다요?}

10308 # 곡씨기, 베래두 벼가 잘 되믄 벼가 먼저 크다구래, 풀보다. {곡식이, 벼라도 벼가 잘 되면 벼가 먼저 크다 그래, 풀보다.}

10308 # 그르~이~칸 푸리 질쨍이가 못, 올라오질 모태자너. {그러니까 풀이 [질쨍이]가 못, 올라 오질 못 하잖아.}

10308 # 그래서 그래능거야 그래서 인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308 # 풀 마이 오는데 더 매구, 풀 안하오능건 그저 한불 해두 먹꾸 그래능거야, 그건. {풀 많이 오는 데는 더 매고, 풀 안 올라 오는 건 그저 한 벌 해도 먹고 그러는 거야, 그건.}

10308 # 그건 그건 귀정이 업써유. {그건 그건 규정이 없어요.}

10308 # 그래구 머 이 아이 매구 두벌매구 그렇건 귀정이 업써. {그리고 뭐 이 아이매고 두벌매고 그런 건 규정이 없어.}

10308 # 그건 인제 그 풀로랑게 대해서 인제 그게 그 머 두벌매든더, 세벌매든지 그러치. {그건 이제 그 풀 올라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 뭐 두벌매든지, 세벌매든지 그렇지.}

10308 # 풀 아날라능거 양그래, 그르이가 곡써기 잘 되믄 푸리라능게 올라오지 모태게 돼이써. {풀 안 올라 오는 것은 안 그래, 그러니까 곡식이 잘 되면 풀이라는 게 올라오지 못 하게 돼 있어.}

10308 # 지꿈두 그래. {지금도 그래.}

10308 # 어느 곡써기던지 그 곡써기 잘 올라오믄 푸른 다 망거진다구. {어느 곡식이든지 그 곡식이 잘 올라오면 풀은 다 망가진다고.}

10308 # 올라오질 모텐다구. {올라오질 못 한다고.}

10308 # 그르이 곡써기 안되믄 풀베게 성해능게 업짜너유, 생가글 해봐. {그러니 곡식이 안 되면 풀밖에 성하는 게 없잖아요, 생각을 해봐...}

10308 # 그이가 잘되믄 푸리 얼루 올라와 모듈라오지. {그러니까 잘 되면 풀이 어디로 올라와, 못 올라오지.}

10308 # 푸, 이 벼가 썩쌍해니까는. {이 벼가 생생하니까는.}

10308 # 그르~이~가 푸리 올라오질 모태지. {그러니까 풀이 올라오질 못 하지.}

10308 #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10308 # 그리구 지끄면 노니랑걸 매지를 아너, 지끄면 야그루 다 해 지끄면 또. {그리고 지금은 논이란 걸 매지 않아, 지금은 약으로 다 해 지금은 또.}

10308 # 지끄믄 야기 이써, 아주 벼 그 풀 아주 올라오, 시머노쿠 일쭈일마니면 그걸 뿌려요, 지끄면 노네다가. {지금은 약이 있어, 아주 벼 그 풀 아주 올라오, 심어 놓고 일쭈일 만이면 그걸 뿌려요, 지금은 논에다가.}

10308 # 양만 뿌리면 사라미 안대구 그러믄 아주 꿈짜글 모태. {약만 뿌리면 사람이 안 대고 그러면 아주 꿈짜글 못 해.}

10308 # 이 푸리 올라오질 모태. {이 풀이 올라오질 못 해.}

10308 # 지꿈 그르케 해머거. {지금 그렇게 해 먹어.}

10308 # 그래 인나렌 그저 엔나렌 마냐게 아이매구 두벌매머 끝나 아니야. {그래 옛날엔 그저 옛날엔 만약에 아이매고 두벌매면 끝나, 아니야.}

10308 # 그래구 그저 피사리만 해능거야 피마 올라옴 대개. {그리고 그저 피사리만 하는 거야 피만 올라오면 대개.}

10308 # 그때 인제 그럴땐 치월따리 되자너, 인제 음. {그때 이제 그럴 땐 칠월달이 되잖아, 이제 음.}

10308 # 그때 가서 피사르미 해와. {그때 가서 피사리를 해 와.}

10308 # 머 꼭, 또 길른 사람 만해믄 피가 이따구 몬명능거느 아니지. {뭐 꼭 또 기르는 사람 많으면 피가 있다고 못 먹는 것은 아니지.}

10308 # 근데 지장언 만치 싸레두 인제 그게 서끼구 그래, 엔나레 보믄 피사리르 안해믄. {근데 지자은 많지 쌀에도 이제 그게 섞이고 그래, 옛날에 보면 피사리를 안 하면.}

10308 @ 어디에 서킨다구? {어디에 섞인다고?}

10308 # 피, 싸레두 그계. {피, 쌀에도 그계.}

10308 # 그래서 인제 그걸 해능거지 머.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거지 뭐.}

10313 @ 그 예저네 이게 머 서리가통거 마니 하자나요, 예저네는 머 밀가통거또 서리 이짜나요, 남몰래 이르게. {그 예전에 이게 뭐 서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밀 같은 것도 서리 있잖아요, 남몰래 이렇게.}

10313 # 아. {아.}

10313 @ 그룽거 마니. {그런 거 많이.}

10313 @ 어릴때 마니 해보셔썬요? {어릴 때 많이 해 보셨어요?}

10313 # 지끄, 그래 지끄먼제 그룽게 업찌 였나렌 그래, 지끄. {지금, 그래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지 옛날엔 그래, 지금.}

10313 # 아이 마이 해머거찌. {아니 많이 해 먹었지.}

10313 @ 떡꼬 살께 업쓰니까 예. {떡고 살 게 없으니까 예.}

10313 # 그래, 참 나 나두 여그 여기사람두 지끄른 여기지 여기. {그래, 참 나도 여기사람도 지금은 여기지 여기.}

10313 # 난 저::짜게 이써찌마는. {난 저쪽에 있었지만.}

10313 # 여기 였나레 저기 왜정때 이상서니라구 이써유. {여기 옛날에 저기 왜정 때 이상선이라고 있어요.}

10313 # 그느미 여기다 과수워늘 크게 해써유, 여기다가. {그 놈이 여기다 과수원을 크게 했어요, 여기다가.}

10313 # 그르니까 제나기먼 저 강께 나와가주, 또 거기서 오빠서노쿠 빨개버꾸 이 강을 건너와가주구 여 와서. {그러니까 저녁이면 저 강가에 나와가지고, 또 거기서 옷 벗어 놓고 빨개벗고 이 강을 건너와가지고 여기 와서.}

10313 # 하하. {하하.}

10313 # 머 복쌩아, 자우 다 그저 하. {뭐 복숭아, 자두 다 그저 하.}

10313 # 근데 그계 가더 이 바메 따능거 하나두 몬머거. {근데 그계 가도 이 밤에 따는 거 하나도 못 먹어.}

10313 # 어느거 이금경걸 몰르자너. {어느 게 익은 것인 걸 모르잖아.}

10313 @ 그르초. {그렇죠.}

10313 # 그냥 무조건 소네 쥐키머 다 판다구. {그냥 무조건 손에 쥐어지면 다 판다고.}

10313 @ 예. {예.}

10313 # 그애 떡찌두 모태. {그래 먹지도 못 해.}

10313 # 마::이 해바찌, 서리. {많이 해 봤지, 서리.}

10313 # 그건 다 그래 그건 어너 고장이든 다그래. {그건 다 그래 그건 어느 고장이든 다 그래.}

10313 # 그거 였나레 닥써리두 마이 해짜누. {그거 옛날에 닭 서리도 많이 했잖아.}

10313 # 였나렌, 남 당\*\*거 제나게. {옛날엔, 남 닭 \*\* 것 저녁에.}

10313 # 였나레 이 저기 방이 이써, 일꾼방. {옛날에 이 저기 방이 있어, 일꾼방.}

10313 # 지끔 마라잠 그계 인제 지끔 경노당과 똑까튼 시키지. {지금 말하자면 그계 이제 지금 경로당과 똑같은 식이지.}

10313 # 거기 \*\* 모예 논다구. {거기 \*\* 모여 논다고.}

10313 # 그래 이 바메 뭐 뭐 머을께 이써 였나렌, 다 인제. {그래 이 밤에 뭐 먹을 것이 있어 옛날엔, 다 이제.}

10313 # 그래니깐 하두 궁금해먼 저 나메 머 저 바까테 무덩, 바메 가따 그거 훈체다 까머꾸.

{그러니까 하도 궁금하면 저 남의 뭐 저 바깥에 묻은, 밤에 갖다 그거 훑쳐다 까먹고.}

10313 # 사무 그래쎄. {사뭇 그랬어.}

10313 @ 어떻길 까머거요? {어떤 길 까먹어요?}

10313 # 무. {무.}

10313 @ 예, 무. {예, 무.}

10313 # 무 묻짜너, 갈게 뽀바가주구, 그래든 그거 바메 가따 끄내다가 인제 머꾸. {무 묻잖아, 가을에 뽑아가지고, 그러면 그거 밤에 갖다 꺼내다가 이제 먹고.}

10313 # 머 먹을게 머가 이쎄, 옌나렌 머가 이쎄? {뭐 먹을 게 뭐가 있어, 옛날엔 뭐가 있어?}

10313 @ 그 닥또 해꼬요? {그 닭도 했꼬요?}

10313 # 그언 닥뚜 훈체다 머꾸. {그럼 닭도 훑쳐다 먹고.}

10313 # 하하. {하하.}

10313 @ 그 닥, 하하. {그 닭, 하하.}

10313 @ 닥하든, 닥하면 주인이 상당히... {닭하면, 닭하면 주인이 상당히...}

10313 # 아유, 아유 우뽀지베 싹까따 움넌지비가 이쎄. {아유, 아유 어떤 집엔 싹 갖다 없는 집이 있어.}

10313 # 긴데 그건 아러, 아러두 주인이 또 말두 모태, 그뉘미 그뉘미지 멩넝건 다 또까태니깐, 하하. {그런데 그건 알아, 알아도 주인이 또 말도 못 해, 그 놈이 그 놈이지 먹는 건 다 똑같으니까, 하하.}

10313 # 아문 소리두 모태. {아무 소리도 못 해.}

10313 # 옌:나렌 그르케 커쎄, 우리는 클쎄는. {옛날엔 그렇게 컸어, 우리는 클 적에는.}

10313 # 닥쎄리 다 이거 닥쎄리라구해지 그걸. {닭 서리 다 이거 닭 서리라고 하지 그걸.}

10313 # 또 나메 차뵤발 이쎄머 차뵤발 다 가따 바메가 디리 매구. {또 남의 참외발 있으면 참외발 다 갖다 밤에 가 들이 매고.}

10313 # 머 해볼쑤 읍쎄. {뭐 해 볼 수 없어.}

10313 @ 참. {참.}

10313 # 차메. {참외.}

10313 @ 차메요? {참외요?}

10313 # 응. {응.}

10313 # 그래다 인제 복쎄야 머 그렁거 과일 가퉁거 다 그래. {그러다 이제 복숭아 뭐 그런 거 과일 같은 거 다 그래.}

10313 # 그건 그건 바메 행거야. {그건 그건 밤에 한 거야.}

10313 @ 음. {음.}

10313 # 그래서 인제 머 닥 닥쎄리두 바메 몰래 가서 훑키자너. {그래서 이제 뭐 닭서리도 밤에 몰래 가서 훑치잖아.}

10313 # 그게 저 바메다 살살가서 이 배뵤길 살살 글그머 꼬로록 풀 가마이 이쎄유, 달기. {그게 저 밤에 살살 가서 이 배뵤기를 살살 긁으면 꼬로록 풀 가만히 있어요, 달이.}

10313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3 # 그래가주 어느제끄제 대보\*끄제 그진, 우투게 모가지 딱 쥐어서 획 돌려, 그래가주 끌구 나와따구. {그래가지고 어느 \*\*\* \*\*\*\*\* \*\*, 어떻게 모가지 딱 쥐어서 획 돌려, 그래가지고 끌고 나왔다고.}

10313 # 그다 가다 이래 뿌뽀머 막 지랄해유. {거기다 가다 이렇게 붙들면 막 지랄해유.}

10313 @ 푸두둑푸두둑 하자나요. {푸드득푸드득 하잖아요.}

10313 # 껍쎄 \*\*\* 그 지랄. {껍쎄 \*\*\* 그 지랄.}

10313 # 그래두 그서두 요:령이 이씨유. {그래도 거기서도 요령이 있어요.}

10313 # 돼:지 또 해다 머겨써, 옌나레. {돼지 또 해다 먹었어, 옛날에.}

10313 @ 돼:지도요? {돼지도요?}

10313 @ 그 돼:지는? {그 돼지는?}

10313 # 돼:지는 우투게해냐문... {돼지는 어떻게 하나면...}

10313 # 이 머 지금 인제 푸대기 그릉게 이짜너 푸대가통거. {이 뭐 지금 이제 푸대기 그런 게 있잖아 푸대 같은 거.}

10313 # 채를 가주가서 디레 씨워. {채를 가지고 가서 들이 씨워.}

10313 # 그걸 가따가 아가, 이 여기 콧씨워뿌리면. {그걸 갖다가 아가리, 이 여기 콧 씨워버리면.}

10313 # 쿵쿵해게 그 재가 후후 나라가자너. {쿵쿵 하게 그 재가 후후 날아가잖아.}

10313 # 그르~이~까 그, 그느미 드러가 킁 소리두 몬떨르지. {그러니까 그 놈이 들어 가 킁 소리도 못 지르지.}

10313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3 # 그럼, 그래가주 끄러다 해먹꾸. {그럼, 그래가지고 끌어다 해 먹고.}

10313 @ 그이까 푸대가튼데 채를 팡너:가주고 그냥 코에다 확::, 그래도 꿀꾸른 거리자나요. {그러니까 푸대 같은 데 채를 팡 넣어가지고 그냥 코에다 확, 그래도 꿀꿀 거리잖아요.}

10313 # 흙\*\* 이 대:, 코, 코루 드러가는데 그르이까... {흙\*\*, 이 대, 코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10313 @ 아, 코로 드러가니까, 암. {아, 코로 들어가니까.}

10313 # 하하. {하하.}

10313 @ 그머 이제 돼:지는 또 죽겐네요. {그러면 이제 돼지는 또 죽겠네요.}

10313 # 그래, 그래다 나느 그래 보지는 아너는데 그래드라 사람드리. {그래, 그러다가 나느 그래 보지는 았았는데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10313 # 돼:지 해머글래른 그르케 해머거야 된다구, 그래 소리가 안난다구래, 하하. {돼지 해 먹으려면 그렇게 해 먹어야 된다고, 그래 소리가 안 난다 그래, 하하.}

10313 # 옌나레 머 베이써, 다해찌. {옛날에 뭐 \*있어, 다 했지.}

10313 # 그르겐 다 인제 멩게 읍짜너 옌나렌. {그러니까 다 이제 먹는 게 없잖아 옛날엔.}

10313 # 인나렌 머글게 머가 이씨? {옛날엔 먹을 게 뭐가 있어?}

10313 # 참 밥빠게 더 이씨? {참 밥밖에 더 있어?}

10313 # 밥뚜 맘대루 머겨? {밥도 맘대로 먹어?}

10313 # 밥뚜 머 참 배불리멍나 머 그래~이~간. {밥도 뭐 참, 배불리 먹나 뭐 그러니까.}

10313 # 그냥 머 제석뚜, 나두 그르케 커찌만. {그냥 뭐 조석도, 나도 그렇게 컸지만.}

10314 @ 아, 그러머는 여기 그 옌나레는 그 베나 보리나 밀가통거 하고나면 그 집, 마니 이씨짜나요. {아, 그러면 여기 그 옛날에는 그 베나 보리나 밀 같은 거 하고 나면 그 집, 많이 있었잖아요.}

10314 # 집? {집?}

10314 @ 예. {예.}

10314 @ 그걸로 주로 멀 만드러나요? {그걸로 주로 뭘 만들었나요?}

10314 # 옌나렌 인제 멩기능거 그래 머 이 멩석. {옛날엔 이제 만드는 거 그래 뭐 이 멩석.}

10314 # 멩서기라구래자너. {멩석이라고 그러잖아.}

10314 @ 멀로 만드러써요? {뭘로 만들었어?}

10314 # 그에 지비지, 지푸루 맨... {그게 집이지, 짚으로 만[들어]...}

10314 @ 어땡걸, 어땡? {어떤 걸, 어떤?}

10314 # 어? {어?}

10314 @ 쌀. {쌀.}

10314 # 명석 그저 이 방성머 별걸 다 멩기지 그걸루. {명석 그저 이 방석 뭐 별걸 다 만들지 그걸로.}

10314 # 둥구미 뭐. {둥구미 뭐.}

10314 # 그르~이~까 지금 나, 이짜나 나이롱, 나이롱 다 나지 인제 그걸루다 다 멩기러 산태기 구 머구 그걸 집. {그러니까 지금 나이론 다 나지 이제 그걸로 다 만들어 삼태기고 뭐고 그걸 쥘.}

10314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4 # 그 새끼르 파가주 나를 다러가주구 이르케 역짜너. {그 새끼를 파가지고 날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엮잖아.}

10314 @ 나들? {나들?}

10314 # 날, 나리라구래지 인제 그 가느달게 꼬아. {날, 날이라그러지 이제 그 가느다랗게 꼬아.}

10314 # 파가주 인제 그걸 쭈그러 깔구 인제 고그서 노쿠 지푸레기다 고 고기다가 이르케 이르케 여껴 여껴. {파가지고 이제 그걸 쭈그러 깔고 이제 거기서 놓고 지푸라기에다 거기다가 이렇게 엮어.}

10314 @ 음. {음.}

10314 # 그래더 그걸루 인제 이 크::게 이 멩서기라능게 그거야. {그러다 그걸로 이제 이 크게 이 멩석이라는 게 그거야.}

10314 # 지푸루다가. {짚으로다가.}

10314 # 그르~이~간 나를 다 그거 파서 인제 그르케 그거 나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날을 다 그거 파서 이제 그렇게 그거 날이라 그러지.}

10314 # 가느달게 아주 요러케 가느달 파가주. {가느다랗게 아주 요렇게 가느다랗게 파가지고.}

10314 # 그래가주 이 촘초미로 쪽 깔구 고기서버텀 인제 시자글 그느므 지푸를 가따가 대서 이르케 여꾸 여꾸 여꾸. {그래가지고 이 촘촘이 쪽 깔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자글 그 놈 짚을 갖다가 대서 일허게 엮고.}

10314 @ 멩석까통경우에. {멩석 같은 경우에.}

10314 # 응. {응.}

10314 # 그럼, 그르케두 해 멩기는. {그럼, 그렇게도 해 만드는데.}

10314 # 그래거 인제 그거뚜 이 똥구라케두 해구 인제 그걸루 또 둥구미라구 모, 모 다물꺼두 인제 그르케 그르슬 그르케 멩긴다구. {그러고 이제 그것도 이 동그랑게도 하고 이제 그걸로 또 둥구미라고 뭐 담을 것도 이제 그렇게 그릇을 그렇게 만든다고.}

10314 @ 음. {음.}

10314 # 지끔두 그 테레비 나와 저저. {지금도 그 티비 나와 저.}

10314 @ 둥구미 가통거또 만들고요. {둥구미 같은 것도 만들고요.}

10314 # 어, 다:: 그걸루 모태능게 업써, 숨두 이르케 또. {어, 다 그걸로 못 하는 게 없어, 숨도 이렇게 또.}

10314 # 우리 인제 이제 바테 인제 콩이던지 모 시물라머 멀 차이되나, 담찌 모태자너. {우리 이제 밭에 이제 콩이던지 뭐 심으려면 멀 차야 되잖아, 담지 못 하잖아.}

10314 # 지끔드른 인제 깡똥두 조쿠 쇠루 조으니까 별거 아무, 깡똥두 이래 달구 이제. {지금들은 이제 깡똥도 좋고 쇠도 좋으니까 별거 아무, 깡똥도 이래 달고 이제.}

10314 # 거기더 노쿠다 이르게 싱꺼덩 형어불 가주. {거기다 놓고서 이렇게 심거든 \*\*을 가지고.}

10314 @ 음. {음.}

10314 # 근데. {근데.}

10314 # 엔나렌 그... {옛날엔 그...}

10314 @ 고걸 머라고 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10314 # 종조레캐리, 종조레이, 종지레, 종조레. {종조레이, 종지레, 종조레.}

10314 @ 종? {종?}

10314 # 종조래~이라구래지. {종조랭이라그러지.}

10314 @ 종조래~이~. {종조랭이.}

10314 # 응. {응.}

10314 # 그 그걸루다가. {그걸로다가.}

10314 @ 아, 그러니까 고계 이 ... {아, 그러니까 그게 이 ...}

10314 # 고기서 씨아슬 노쿠 이제 그걸루 소느 지머서 심:찌. {거기서 씨앗을 놓고 이제 그걸로 손으로 집어서 심지.}

10314 # 엔나레 다 그랜는데. {옛날에 다 그렸는데.}

10314 @ 씨안까튼거 종조래~이~라고...? {씨앗 같은 거 종조랭이라고...?}

10314 # 그럼, 거기다 \*\*. {그럼, 거기다 \*\*.}

10314 @ 마리 재민네요, 종조레이. {말이 재밌네요, 종조랭이.}

10314 # 근데 그게 지끄른 읍짜너, 지끄른. {근데 그게 지금은 없잖아, 지금은.}

10314 # 모태능게 읍찌, 그 지푸룬 다 멩기러 그게 그게 인제. {못 하는 게 없지, 그 짚으로는 다 만들어 그게 그게 이제.}

10314 # 그래구 그래구 소, 지병해이꾸, 소먹꾸 인제 그거 그거지 머. {그리고 소, 지붕 해 이고, 소 먹고 이제 그거지 뭐.}

10314 @ 소먹꾸요? {소 먹고요?}

10314 # 그럼. {그럼.}

10314 # 소 메기구. {소 먹이고.}

10314 @ 소매기고. {소 먹이고.}

10314 # 그럼. {그럼.}

10314 # 지, 지붕 해 이꾸, 그러지 머. {지붕 해 이고, 그러지 뭐.}

10314 # 한 여덜칸 되믄 영:이 한 뱅마람드러가지. {한 여덜 칸 되면 이영이 한 백 마름 들어가 지.}

10314 # 그러케 해유, 그래 그거 냉거진 다 소가 멩녕... {그렇게 해요, 그래 그거 나머지는 다 소가 먹는...}

10315 @ 여기에 아까 얘기해뵈 꼬치, 꼬치농사도?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고추농사도?}

10315 # 꼬치? {고추?}

10315 @ 예. {예.}

10315 # 꼬치두 우린 머 머글 망큼 해니칸 여그두 크, 여기는 크... {고추도 우린 뭐 먹을 만큼 하니까 여기도 크, 여기는 크...}

10315 @ 꼬치보다는 아무래도 옥씨기 쥬 만초? {고추보다는 아무래도 옥수수 제일 많죠?}

10315 # 지끄르면 인제 옥씨기 마이덜 심찌, 지끄른 근데 파러멍거\*\* 옥씨기지. {지금은 이제 옥

수수 많이들 심지, 지금은 근데 팔아 먹는 \*\* 옥수수지.}

10315 @ 옥씨기도... {옥수수도...}

10315 # 근데 그게 해능게 또 빨르구 쉬:꾸. {그런데 그게 하는 게 또 빠르고 쉽고.}

10315 @ 어트케 옥씨기는 인제 어트케... {어떻게 옥수수는 이제 어떻게...}

10315 # 옥씨기 그거뚜 시무면 돼, 그거 저 고:랑 그르케 시머. {옥수수 그것도 심으면 돼, 그거 저 고랑 그렇게 심어.}

10315 @ 언제 언제? {언제?}

10315 # 응? {응?}

10315 @ 언제 심나요? {언제 심나요?}

10315 # 그거뚜 때에 따라 심닝거야 이, 일찍 인제 머글래면 인제 이 봄, 저 겨울라가주 보메 빨리. {그것도 때에 따라 심는 거야 일찍 이제 먹으려면 이제 이 봄, 저 겨울 나가지고 봄에 빨리.}

10315 # 빨리 인제 해, 또 해면 심는 사람 이짜나. {빨리 이제 해, 또하면 심는 사람 있잖아.}

10315 # 아, 보메요? {아, 봄에요?}

10315 # 그레이칸 이 서리 오능게 끄너지믄 괜차너. {그러니까 이 서리 오는 게 끊어지면 괜찮아.}

10315 @ 예. {예.}

10315 # 이 슬새두 인제 이 대구 서리가 오자너 왜. {이 설 쇠도 이제 이 대구 서리가 오잖아 왜.}

10315 # 그게 인제 어름, 농:파 또까통건데 이제. {그게 이제 얼음, 눈과 똑같은 건데 이제.}

10315 # 그게 오머는 망어져. {그게 오면 망가져.}

10315 @ 예. {예.}

10315 # 그래. {그래.}

10315 # 인제 감자두 그러쿠. {이제 감자도 그렇고.}

10315 # 그래서 그냥 고겨 아노릴때가서 시무면 인제. {그래서 그냥 그거 안 올 때 가서 심으면 이제.}

10315 # 그러~이~칸 인제 그거뚜 일찍 심능건 옥씨기는 일찍 시머 일찍 뛰니칸 먹꾸, 또 야중 시무머 야중 뛰니까 먹꾸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일찍 심는 건 옥수수는 일찍 심어 일찍 뛰니까 먹고, 또나중 심으면 나중 뛰니까 먹고 그냥.}

10315 # 그건 맘대루 해능거야. {그건 맘대로 하는 거야.}

10315 @ 금 보메 심기도 하고 그다메 또 언제? {그럼 봄에 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언제?}

10315 # 그르이까 그거는 마이, 오래 못심찌.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오래 못 심지.}

10315 @ 주로 보메 그래도 옥씨기는 보메 마니 심? {주로 봄에 그래도 옥수수는 봄에 많이 심?}

10315 # 그럼 지금 그 지금 한창이 아니야, 지금. {그럼 지금 그 지금 한창이 아니야, 지금.}

10315 @ 지금 그래서 인제 지금 한창...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창...}

10315 # 그럼 지금 한창이야 인제 그게 너머가며 고마니아, 인제. {그럼 지금 한창이야 이제 그 게 넘어 가면 그만이야, 이제.}

10315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5 # 그래머 인제 지, 진장 이게 인제 그래면 진장 처리 나오자너, 지금 인제 짐장 시물때가 예요, 지금, 지금 벌써. {그러면 이제 짐장 이게 이제 그러면 짐장철이 나오잖아, 지금 이제 짐장 심을 때예요, 지금 벌써.}

10315 @ 짐장 시물... {짐장 심을...}

10315 # 그럼 지금 그럼. {그럼 지금 그럼.}

10316 @ 여기에는 과일가통거뜨른 어똥게 이썬썬, 아까? {여기에는 과일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었죠, 아까?}

10316 # 으~, 과일? {응, 과일?}

10316 @ 예. {예.}

10316 # 여기 과이리 머야 머. {여기 과일이 뭐야 뭐.}

10316 @ 아까. {아까.}

10316 # 거 사, 여 여그느 사과드리 안돼. {거 , 여기는 사과들이 안 돼.}

10316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6 # 이 강안돈 들, 사과가 안 돼. {이 강원도는 사과가 안 돼.}

10316 @ 사과가 안 되구요. {사과가 안 되고요.}

10316 # 여기 저 복숭아, 그거지 머, 자두. {여기 저 복숭아, 그거지 뭐, 자두.}

10316 @ 자두. {자두.}

10316 # 자두래능거 복쌩아보다 도, 자두는 고야라구래, 옴나렌 고야라구래자너, 고야. {자두라는 게 복숭아보다도 자두는 고야라 그래, 옛날엔 고야라 그러잖아, 고야.}

10316 @ 아 예예예. {아 예예예.}

10316 # 어 쪼끔. {어 조금.}

10316 # 그제 인제 신식... {그제 이제 신식...}

10316 @ 고거보다 좀 자가꼬 달고 마시썬썬? {그거보다 좀 작았고 달고 맛있었죠?}

10316 # 근데 지금 인제 그제 읍썬지구 그걸 대:구 이르케 바페가주 크게 크게 돼썬. {근데 지금 이제 그제 읍어지고 그걸 대구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크게 됐지.}

10316 # 그래, 그제 자두라구래드라구. {그래, 그제 자두라 그러더라고.}

10316 # 그거 인제 꽤 커 그거느. {그거 이제 꽤 커 그것은.}

10316 # 그거지 머 주루, 그렇거야 여긴, 과이른 읍썬. {그거지 뭐 주로, 그런 거야 여긴, 과일은 읍어.}

10316 # 복쌩아 인제 그 그저네 \*\*\* 복쌩두 해긴 해이지, 복쌩아. {복숭아 이제 그전에 \*\*\* 복숭아 하긴 해야지, 복숭아.}

10316 @ 어트케 그건 재배를 하나요? {어떻게 그건 재배를 하나요?}

10316 # 인제 그... {이제 그...}

10316 # 그거뚜 인제 전여부루 해는 사라미짜네, 인제 여기두 그제. {그것도 이제 전업으로 하는 사람있잖아, 이제 여기도 그제.}

10316 # 아이 \*\*루 인제 그 바테다 그르케 시무머, 해는 사라미썬. {아니, \*\*로 이제 그 밭에다 그렇게 심으며 하는 사람 있어.}

10317 @ 여기에 이게 사나나 들, 바까튼데 나는 그 나무리나 풀가통거뜰 풀가통게 어떻게 이썬니가, 푸레는, 풀? {여기에 이게 산이나 들, 밭 같은 데 나는 그 나물이나 풀 같은 것들 풀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풀에는 풀?}

10317 @ 이름 아시능거 이썬면. {이름 아시는 거 있으면.}

10317 # 머 사라미 멍녕거? {뭐 사람이 먹는 거?}

10317 @ 예 멍능거뚜 이꼬 안멍, 몸멍능거두 인는데 멍능거는 어똥게 인나요? {예 먹는 것도 있고 안 먹, 못 먹는 것도 있는데 먹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10317 # 아~멍녕걸 모:과. {안 먹는 것은 모과.}

10317 # 멍능건 지금 머 여기 머 나물취 수기취 떡취. {먹는 건 지금 뭐 여기 뭐 나물취 수기취 떡취.}

10317 @ 떡취, 수? {떡취, 수?}

10317 # 응. {응.}

10317 @ 수? {수?}

10317 # 쭈. {쭈.}

10317 @ 아, 쭈. {아, 쭈.}

10317 # 응. {응.}

10317 # 그래구 인제. {그리고 이제.}

10317 @ 수위취? {수위취?}

10317 # 찬나물. {참나물.}

10317 @ 예? {예?}

10317 # 찬나물. {참나물.}

10317 @ 찬나물료? {찬나물요?}

10317 # 모시대, 머 여러가지지 머 나물 이르면 수두 읍찌 머. {모시대, 뭐 여러가지지 뭐 나물 이름은 수도 없지 뭐.}

10317 # 그건 그건 어너 고장인 다 인녕건대, 그건 어너고자~이나 다 인녕거야 그. {그건 어느 고장이든 다 있는 건데, 그건 어느 고장이나 다 있는 거야, 그.}

10317 @ 꼬순 어떻게, 꼴? {꽃은 어떤 게 꽃?}

10317 # 응? {응?}

10317 @ 꼴, 꼴, 아이, 아능꼴 마니 이쓰세요? {꽃 아는 꽃 많이 있으세요?}

10317 # 꼴? {꽃?}

10317 @ 예, 꼴. {예, 꽃.}

10317 # 꼬순, 꼴피능거? {꽃은 꽃 피는 거?}

10317 @ 예예. {예예.}

10317 # 여긴 머 여기 꼴피녕거 저... {여긴 뭐 여기 꽃 피는 거 저...}

10317 # 창꼬시 이짜너 왜, 인제 사라미 멍녕거, 그거. {참꽃이 있잖아 왜, 이제 사람이 먹는 거, 그거.}

10317 # 또 문멍녕꼴, 철뚝꼬치라구래자너 그게. {또 못 먹는 꽃, 철쭉꽃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10317 # 그거는 머 사라미 안먹떠라, 그거 주루 그게 만트라구. {그건 뭐 사람이 안 먹더라, 그거 주로 그게 많더라고.}

10317 @ 그다메 보메 피는... {그담에 봄에 피는...}

10317 # 응. {응.}

10317 # 그래구 인제 여능거 시시항거지 머 여능거뜨른 머. {그리고 이제 여느 것 시시한 거지 뭐 여느 것들은 뭐.}

10317 # 그 인제 잡푸레서 나오능거 인제. {그 이제 잡풀에서 나오는 거 이제.}

10317 # 그게 사라미 멍능다구 다 꼬치 피능게 아니거등. {그게 사람이 먹는다고 다 꽃이 피는 게 아니거든.}

10317 # 모, 문멍녕거뚜 꼬치 이꾸 그래드, 그건 머 대중을 모태. {못 먹는 것도 꽃이 있고 그러더(라), 그건 뭐 대중을 못 해.}

###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 인제 그 모내기 가뽕거 끈나고 나서 가으리 되며는 인제 가으레 이제 다 걷짜나요, 고 걸 머라고 합니까, 가으레 이? {이제 그 모내기 같은 거 끝나고 나서 가을이 되면 이제 가을에 이제 다 걷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을에 이?}

10318 # 가을거지라구래지. {가을걸이라 그러지.}

10318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8 # 갈:게 인제 다 거더서 내, 가을 거 거지라구. {가을에 이제 다 걸어서 내, 가을걸이라고.}

10318 @ 음. {음.}

10318 @ 근데 이러케 보면 옛날에는 이게 탈고기짜나, 탈곡할때, 할때랑. {근데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이게 탈곡있잖아, 탈곡할 때 할 때랑.}

10318 # 탈고기야, 탈고근 인제 기궤가주구 하능게 탈고캐능거야. {탈곡이야, 탈곡은 이제 기궤를 가지고 하는 게 탈곡하는 거야.}

10318 @ 옛날에는 이제 벼를 이케 딱 비고 타작할때 그 과정이 어떠케 땀:나 옛날에는, 인제 벼를 딱 베고 나서 그다음에 어떠케 합니까? {옛날에는 이제 벼를 이렇게 딱 베고 타작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땀:나 옛날에는, 이제 벼를 딱 베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318 # 옛날엔 기궤나기 저네 벼를 타, 이제 비자너, 벼서 인제 지부루 가따 싸:. {옛날엔 기궤나기 전에 벼를 이제 베잖아, 벼서 이제 집으로 갖다 쌓아.}

10318 # 그런데 고걸 다:늘... {그런데 그걸 단을...}

10318 @ 고거슬 인제. {그것을 이제.}

10318 # 다늘 쪼끔썰무겨. {단을 조금씩 묶어.}

10318 # 벼를 말려서 노네서 말려가주구. {벼를 말려서 논에서 말려가지고.}

10318 @ 노네서 인제 뵤, 다늘 만들조? {논에서 이제 뵤단을 만들조?}

10318 # 그래 요러케 쪼꾸마케. {그래 요렇게 조그망게.}

10318 # 그래머 인제 그걸 \*\* 가따노쿠 싸쿠 그걸 다 이 채라구 이씨. {그러면 이제 그걸 \*\* 갖다 놓고 쌓고 그걸 다 이 채라고 있어.}

10318 # 이 꼬누루 해가다 이걸 매가다 이 이르케 그래구 인제 여그다 인제 이 머 도라무짱가뽕거 그걸로쿠 거기다가 때려서 빼능거야. {이 끈으로 해가지고 이걸 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이 뭐 드림통 같은 거 그걸 놓고 거기다가 때려서 빼능거야.}

10318 @ 채를료? {채를요?}

10318 # 그럼 벼를. {그럼 벼를.}

10318 @ 다늘 요러케 요정도한 다늘 해서 가주오자나요 지베 가주와서 그다음에 그거를 어트케... {단을 요렇게 요정도인 단을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집에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10318 # 그걸 인제 이르케 요르케 해믄, 인제 무겨 그걸루. {그걸 이제 이렇게 요렇게 하면, 이제 묶어 그걸로.}

10318 # 그냥 무꾸 꼬테가서 인제 그걸 나, 그거 꼬트마리를 빈자릴 인제 소느 쥐어. {그냥 묶고 끝에 가서 이제 그걸 꼬트머리를 빈 자리를 이제 손으로 쥐어.}

10318 # 그래가주다 이르케 내려 이르카머 일루해서 이르카다 내려 처 그르다 그걸 떠러머거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 이렇게 하면 이리로 해서 이렇게 내려 처 그렇게 그걸 떨어 먹었어.}

10318 @ 예. {예.}

10318 # 채, 채찌리라 구래지 그걸 채라구래. {채, 찻질이라 그러지 그걸 채라 그래.}

10318 # 옛날엔 그래다가 인제 기궤가 나오거지. {옛날엔 그러다가 이제 기궤가 나온 거지.}

10318 @ 아. {아.}

10318 @ 채로 이제 떼다고요? {채로 이제 떼다고요?}

10318 # 그러, 옛날엔 보리구 머, 버리두 다 하지 머 버리두 순저~이~ 그걸루 떠러찌, 이 채... {그래, 옛날엔 보리고 뭐 보리도 다 하지 뭐 보리도 순전히 그걸로 떨어지, 이 채...}

10318 @ 그걸 채라고 합니까, 태라고 합니까? {그걸 채라고 합니까, 태라고 합니까?}

10318 # 음, 채라구래, 채질한다구래. {음, 채라 그래, 찻질한다 그래.}

10318 @ 아. {아.}

10318 # 그걸루 다떠러머건, 버리두. {그걸로 다 떨어 먹었(어), 보리도.}

10318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8 # 버린 또 머 기계버다 그걸루 사뭇 떠러, 채지르루다가. {보리는 또 뭐 기계보다 그걸로 사뭇 떨어, 채질로다가.}

10318 @ 아, 채질로 다 떠능... {아, 채질로 다 떠는...}

10318 # 그럼 그걸루 다 떠러머저씨, 옛날엔. {그럼 그걸로 다 떨어 먹었어, 옛날엔.}

10318 # 그르이까 제낙 사라플 한 한 여나무씩 은는다구. {그러니까 저녁 사람을 한 여남은씩 얻는다고.}

10318 # 인제 그걸 머 운:능게 아니라 도라가머 해능거야. {이제 그걸 뭐 얻는 게 아니라 돌아가며 하는 거야.}

10318 # 내가 해믄 다:멘 판 사람꺼 해유, 제나게, 바:메 떠능거야 와서, 채질이지. {내가 하면 다음엔 다른 사람 것 해유, 저녁에, 밤에 떠는 거야, 와서, 채질이지.}

10318 @ 음. {음.}

10318 @ 금 채질할때 이렇거또 이짜나요, 그 막대기가통걸, 콩가통걸 요러케 다라가주구 이러케 딱 치능거? {그럼 채질할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막대기 같은 걸, 끈 같은 걸 요렇게 달아가 지고 이렇게 딱 치는 거?}

10318 # 그건 도리깨. {그건 도리깨.}

10318 @ 예. {예.}

10318 # 그거 인제 다 떠렁거 다 떠렁거 인제 그게... {그거 이제 다 떼 거 다 떼 거 이제 그 게...}

10318 # 베투 그러쿠 모던지 버리두 까칠자너, 그 수궤:미짜너, 그래서 그게 몽그능거구. {벼도 그렇고 뭐든지 보리도 까칠하잖아, 그 수염 있잖아, 그래서 그게 몽개는 거고.}

10318 # 북대기가 인제 나오니까 북대기 인제 그런데 그걸 떠러머끼 때레 그 도리깨르 때리능거야. {북대기가 이제 나오니까 북대기 이제 그런데 그걸 떨어 먹기 때문에 그 도리깨로 때리는 거야.}

10318 @ 북대기가 머요? {북대기가 뭐예요?}

10318 # 그르이까 이 채질함 빠지능거뚜 이짜너. {그러니까 이 채질하면 빠지는 것도 있잖아.}

10318 # 그게, 무꺼도, 그 인제 그걸 다 형크러저짜너 그르~이~까 그걸 또 빨래면 도리깨루 그 걸 디레 두둔다구. {그게, 묶어도, 그 이제 그걸 다 형클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또 빨래면 도리 깨로 그걸 들어 두드린다고.}

10318 @ 아, 고 그 흐트러진 그걸 북대기라 하나요? {아, 그 흐트러진 그걸 북대기라 하나요?}

10318 # 그래, 그럼 그거 인제 때레야 인제 그게 거다리 다 빠지지. {그래, 그럼 그거 이제 때려야 이제 그게 걸 알이 다 빠지지.}

10318 @ 그러초. {그렇죠.}

10318 @ 아, 그르걸 인제 도리깨로... {아, 그런 걸 이제 도리깨로...}

10318 # 도리깨루 때리능거야 그거느. {도리깨로 때리는 거야 그거는.}

10318 @ 그다메 인제 거 이게 막 흐트러징걸 그머 어트케 해요, 그다메 그렇걸? {그답에 이제 거 이게 막 흐트러진 걸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답에 그런 걸?}

10318 # 아, 그르케 그르케 그 내가 아까 해뎀, 마당 그케 녀:게 그르케 해가주구다 다 고, 담, 판데루 못뵈:나가게 해노쿠 또 떠:닝거지 머. {아, 그렇게 그렇게 그 내가 아까 했던, 마당 그케 넓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판 데로 못 뵈어 나가게 해 놓고 또 떠 넘기지 뵈.}

10318 @ 떨고나서 그다메 인제 그거를? {떨고 나서 그답에 이제 그거를?}

10318 # 그래구 씨러모:능거지 머. {그러고 쓸어 모으는 거지 뵈.}

10318 @ 씨러모아서, 그다메는 인제 어트케 하조? {쓸어 모아서, 그답에는 이제 어떻게 하조?}

10318 # 다해가주 인제 각, 그르세 담:능거지 머. {다 해가지고 이제 각, 그릇에 담은 거지 뵈.}

10318 # 까불루고. {까불고.}

10318 @ \*\* 인제 그케. {(그래) 이제 그케.}

10318 @ 아, 머 어트케? {아, 뵈 어떻게?}

10318 # 까 까불루지. {까불지.}

10318 @ 뵈로요? {뵈로요?}

10318 # 그저네 이 풍채라구 또 이씨 그케 이걸 풍채라구래. {그전에 이 풍채라고 또 있어 그케 이걸 풍채라 그래.}

10318 # 사래미 돌링거, 인제 꼭때게다 부:머닌. {사람이 돌린 거, 이제 꼭대기에다 부으면.}

10318 # 이걸 도러가, 그걸 그 봉채라능게 그케 저, 이 손풍기와 또까태, 그케 이짜너 그아네 그 케 그케 도러감 바람뵈 낸:다구. {이걸 돌아 가, 그걸 그 봉채라는 게 그케 저 이 선풍기와 똑같 아, 그케 있잖아 그 안에 그케 그케 돌아 가면 바람을 낸다고.}

10318 # 그래머 그케 떠러지면서 아른 알대루 떠러지구 그 인제 북때기느 그케 바라메 바까트루 나가지, 떠어 나, 나가지. {그러면 그케 떨어지면서 알은 알대로 떨어지고 그 이제 북때기는 그케 바람에 바깥으로 나가지, 떨어 나, 나가지.}

10318 # 그 풍채가. {그 풍채가.}

10318 # 알만 남꼬요? {알만 남고요?}

10318 # 그러, 아란 인제 따루 이르케 떠러지구. {그래, 알은 이제 따로 이렇게 떨어지고.}

10318 @ 그다메 요러 요러케 요러케 치는 그, 까부는 그렇거? {그답에 요렇게 치는 그, 까부는 그런 거?}

10318 # 건 치. {그건 키.}

10318 @ 예. {예.}

10318 # 까부능건 치라구. {까부는 건 키라고.}

10318 # 엔나렌 인제 그래구 주루 이 소. {옛날엔 이제 그러고 주로 이 소.}

10318 @ 아까 그 발기계가통걸루 이르케 하능거는 언제 하는? {아까 그 발기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언제 하는?}

10318 # 채? {채?}

10318 # 채질해능거? {채질하는 거?}

10318 @ 채, 채 말고, 아까. {채, 채 말고 아까.}

10318 # 도리깨? {도리깨?}

10318 @ 예, 아이 도리깨말고 아까 이케 발 기에루. {예, 아니 도리깨 말고 아까 이렇게 발기계 로.}

10318 # 으~. {응.}

10318 # 그건 아주 엔:나래 나옉거지, 우리 나오기저네. {그건 아주 옛날에 나온 거지, 우리 나오기 전에.}

10318 # 태어날찌게 태어날찌게 우리 나오기 저넨 아주 옴:날 고려찌겐 그게 이러 며 이러치 이 런데 요긴 이러케 널짜너? {태어날 적에 태어날 적에 우리 나오기 전옴 아주 옛날 고래 적에 그 게 이렇지 이룬데 요기는 이렇게 넓잖아?}

10318 # 여긴 여긴 쪼바지자너, 그룽간 인제 이르케 넓쩍캐다구, 그게. {여긴 좁아지잖아, 그러 니까 이제 이렇게 넓적하다고, 그게.}

10318 # 그르케 이게 딱 찢러서. {그렇게 이게 딱 찢라서.}

10318 # 그르~이~간 베를 여그서 인제 그걸 가따가 한웁쿰 쥐어가주구 거그서 탁 디리며 그게 이, 일루 네러갈까 아니야, 그래믄 여기 소느 자버댕기며 다 그 홀터지지 며. {그러니까 벼를 여 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한 움쿰 쥐어가지고 거기서 탁 들이면 그게 이리 내려 갈 거 아니야, 그 러면 여기 손을 잡아 다니면 다 그 훑어지지 뭐.}

10318 # 그래 인제 그 그게 나와따가 인제 기계가 나옉거지. {그래 이제 그게 나왔다가 이제 기 계가 나온 거지.}

10318 @ 그르며는 그 다늘 이러케... {그러면 그 단을 이렇게...}

10318 # 으, 그건 채질이구, 채지리구. {응, 그건 채질이고, 채질이고.}

10318 # 인제 고건 고 다메 인제 이걸루 해니깐 더디니까 또 그 채지리 나옉거지. {이제 그건 그담에 이제 이걸로 하니까 더디니까 또 그 채질이 나온 거지.}

10318 # 그르~이~간 사래미 인제 여러시 해니깐 그거뚜 쉬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여럿이 하니까 그것도 쉬워.}

10318 @ 아, 처:메는 이게 받기게나 이렇거 막 베를 홀터내능걸루 하다가 그다메 힘드니까 그다 메. {아, 처음에는 이게 받기게나 이런 거 막 벼를 훑어 내는 걸로 하다가 그담에 힘드니까 그담 에.}

10318 # 쇠끄렁. {\*\*\*}

10318 @ 채질로 이러케 탁 이러케 하게 되고요. {채질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하게 되고요.}

10318 # 그르케 해 그게. {그렇게 해 그게.}

10318 @ 음. {음.}

10318 @ 금 그르케 나오면 그르케 하고 나면 이제 음. {그럼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음.}

10318 # 그래다 인제 그래구 그뎨 또 머 풍채가 업씨면 또 까불러 뎨, 여자드리, 치루다 까불러 애지 그걸. {그러다 이제 그리고 그뎨 또 뭐 풍채가 없으면 또 까불어 대, 여자들이, 키로다 까불 러야지 그걸.}

10318 # 풍채인넌지분 풍채루 돌리구, 그래야 북때길 빼내는데. {풍채 있는 짐은 풍채로 돌리고, 그래야 북대기를 빼내는데.}

10318 # 또 그거 읍씨면 순저~이~ 까불러이 되구. {또 그거 없으면 순전히 까불어야 되고.}

10318 # 그르~이~까 이 베넨 주루 이르케 항::군데루 이르케 모:자너, 인제 그르케 떠러가주구 그래면. {그러니까 이 벼는 주로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으잖아, 이제 그렇게 떨어가지고 그 러면.}

10318 # 그걸 좀 날릴제는 사름드리 인제 가가서 체, 까:부는 체루가주가서, 하나가 이러케 찌언 지면, 이 송판까통거다 이르케 퍼다 이르케 혹 올리머넨 올라가자너, 그게. {그걸 좀 날릴 적에는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체, 까부는 체를 가지고 가서, 하나가 이렇게 끼어 없으면 이 송판 같은 걸로 이렇게 퍼다 이렇게 혹 올리면 올라가잖아, 그게.}

10318 # 그래면 여폐서 인제 그 치루가주구다 이르케 하면 이 손풍기서 바람이 나니깐 북때기가 내려가능게. {그러면 옆에서 이제 그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선풍기서 바람이 나니까 북대 기가 날아가는 게.}

10318 # 그르니까 아른 알대루 떠러지구, 그르케 해:찌. {그러니까 알은 알대로 떨어지고, 그렇게 했지.}

10318 # 까불루구 저, 그괘머 또 이르크 그래구 그래, 까, 이 치가, 치는. {까불고 저, 급하면 또 이렇게 그러고 그래, 이 키가, 키는.}

10318 @ 그머 나다리 나오며는 인제 인제 알 알, 나다를 북때기 나라가고 남능거 며예요? {그럼 낱알이 나오면 이제 이제 알, 낱알을 북대기 나라가고 남는 거 뭐예요?}

10318 # 근 알짜지 며. {그건 알짜지 뭐.}

10318 @ 예? {예?}

10318 # 그거 인제 그거 알짜지, 인제 그거. {그거 이제 그거 알짜지, 이제 그거.}

10318 @ 알짜, 고령걸 머라고 합니까? {알짜,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10318 # 그걸 머라구래. {그걸 뭐라 그래.}

10318 # 그건 난 그건 몰르겐는데. {그건 난 그건 모르겠는데.}

10318 @ 그걸, 머 나, 나달... {그걸 뭐, 낱알...}

10318 # 안 나다리며 나다리지 머 머 그거야 머 그건 머 이르미 머인나. {아니 낱알이면 낱알이지 뭐 그거야 뭐 그건 뭐 이름이 뭐 있나.}

10318 @ 알 알, 알짜가 남짜나요. {알짜가 남잖아요.}

10318 # 그림. {그림.}

10319 @ 이제 알짜가 나무면 인제 고걸 인제 어트게 배끼조? {이제 알짜가 남으면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벗기조?}

10319 @ 그 알짜가 이쓰면 알짜를 이제 다시 인제 고 또 껍질을 버껴야 되자나요, 그거 하능건 어트게 하나요? {그 알짜가 있으면 알짜를 이제 다시 이제 그 또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10319 # 어~. {응.}

10319 # 그걸 찌어야지, 그래믄. {그걸 찌어야지, 그러면.}

10319 # 지, 찌닝거. {찢는 거.}

10319 @ 어디다 어디다 찌습니까? {어디다 찢습니까?}

10319 # 거 방해다 찌닝거지. {그 방아에다 찢는 거지.}

10319 @ 아 그거 종류가 어떻게 이쨌? {아 그거 종류가 어떤 게 있죠?}

10319 # 중누가 머 물레방아두 이꾸 머 발방아두 이꾸 머 지끄므 그러치 머 지끔 기계가 인제. {종류가 뭐 물레방아도 있고 뭐 발방아도 있고 뭐 지금은 그렇지 뭐 지금 기계가 이제.}

10319 @ 엔나래는 그 아까... {옛날에는 그 아까...}

10319 # 엔나렌 발방아지 며. {옛날엔 발방아지 뭐.}

10319 @ 발방아가 이짜나요, 그다메 이제 소로 이러케 하능거도 이쨌나요? {발방아가 있잖아요, 그답에 이제 소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나요?}

10319 # 맷돌. {맷돌.}

10319 @ 아니요, 맷돌 말:고 소 이르케 이르케 이르케... {아니요, 맷돌 말고 소 이렇게...}

10319 # 소소 소루 해능거? {소로 하는 거?}

10319 #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10319 @ 그거는 머라고 해요? {그거는 뭐라고 해요?}

10319 # 아이 그게 머라구래더라. {아니 그게 뭐라 그러더라.}

10319 # 그 소루 돌리능게다 그거 인제 크니까는. {그 소로 돌리는 게 다 그거 이제 크니까.}

10319 @ 예예. {예예.}

10319 # 그룽까 인제 아이아이, 그거뚜 이져버런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것도 잊어 버렸는

데.}

10319 @ 머 연... {뭐 연...}

10319 # 연지, 머 연데, 머 연... {연지, 뭐 연데, 뭐 연...}

10319 # 연:자방아라구래더라 머라 구래더라그걸. {연자방아라 그러다라 뭐라 그러더라 그걸.}

10319 @ 아, 근데 여기는 업써요? {아, 근데 여기는 없어요?}

10319 # 아이구, 업써, 난 내가 여태커더두 여긴 그렇긴 업써, 난 모뵈. {아이고, 없어, 난 내가 여태 커도 여긴 그런 건 없어, 난 못 봐.}

10319 # 연:자방애래능건 업써. {연자방아라는 건 없어.}

10319 # 그게 연::나레 나오게야 그게. {그게 옛날에 나온 거야 그게.}

10319 @ 그럼 인제 방, 그 방, 딴, 발방애가 이꼬 그다메 물레방, 물레방애가 이짜나요. {그럼 이제 방, 그 방, 딴, 발방아가 있고 그담에 물레방아가 있잖아요.}

10319 # 응. {응.}

10319 @ 그럼 그 고거에 고기에 머 어뜨게 생겨써요, 고거는? {그럼 그 그것에, 뭐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는?}

10319 # 그니깐 인제 그게 저 말해잠 무튀에 인제 전, [2초] 이 여그서 인제 무레 내려와. {그러니까 잇 그게 저 말하자면 물 위에 이제 전, 이 여기서 이제 물에 내려와.}

10319 # 그러면 여그다 물레방알 이 지불 지꾸 그걸 방엘로커딩, 그러면 인제 그 무리 나라와서 그 물레방아 왜, 지금 그 맹그능거 이짜너 그거, 이\* 너리\* 이르카 투 쾡거 도러가능거 이짜너. {그러면 여기다 물레방아를 이 집을 짓고 그걸 방아를 놓거든, 그러면 이제 그 물이 내려와서 그 물레방아 왜, 지금 그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 \*\* \*\*\* 이렇게 큰 거 돌아 가는 거 있잖아.}

10319 @ 예, 도라가조 예. {예, 돌아 가조 예.}

10319 # 그게 인제 무리 고아다 똑떠러지며 고게 무리 괴게 되게 멩기러써. {그게 이제 물이 거기에 똑 떨어지면 그게 물이 괴게 되게 만들었어.}

10319 # 그래서 그느미 거 무리 괴니까 그게 도러가능거야, 대:구, 다릉건 업써. {그래서 그 높 이 거 물이 괴니까 그게 돌아 가는 거야, 대구, 다른 건 없어.}

10319 # 인제 그르케 멩기능거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지.}

10319 # 그\*\* 그래서 그게 연나레 이 강에두 그게 여긴 강에도 여 흥쳐네는 흐이가 이서써, 우리르 클째, 연나레. {그\*\* 그래서 그게 옛날에 이 강에도 그게 여긴 강에도 여기 흥천에는 \*\*가 있었어, 우리 클 때, 옛날에.}

10319 # 그때~이~ 거기다가 인제 전부 찌멍녕거구.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전부 찢어 먹는 거고.}

10319 # 그리구 인제 지베단 그 나무 가달징걸 벼다가 멩기러서 지베다 멩기러쿠 인제 찢어머꾸. {그리고 이제 집에다 그 나무 가달이 진 걸 벼다가 만들어서 집에다 만들어 놓고 이제 찢어 먹고.}

10319 # 주로 그래구... {주로 그러고...}

10319 @ 방애는 어뜨케 사용해써요, 어떠, 언, 그 마이 발, 주로 발방애를 마니 사용해쥬? {방애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어땡, 그 많이, 주로 발방아를 많이 사용했쥬?}

10319 # 발방애, 글썸 그건 지베다가 인제 으즈까네다 멩기러 노쿠, 그거. {발방아, 글썸 그건 집에다가 이제 헛간에다 만들어 놓고, 그거.}

10319 @ 어디에 만드러? {어디에 만들어?}

10319 # 이게 인제. {이게 이제.}

10319 # 나무가 이르케 \*\*\* 크다가 이르케 되다 이르케 되능게 이짜너 가달기가 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 크다가 이렇게 되다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 가달이, 나무가.}

10319 @ 예. {예.}

10319 # 어~, 이 가다리 징계. {응, 이 가달이 진 계.}

10319 # 이 여기 이러 쪽 올라가다 인제 이르케 가다리 징계 이썬유. {이 여기 이래 쪽 올라가다 이제 이렇게 가달이 진 계 있어요.}

10319 @ 예예예. {예예예.}

10319 # 인제 그걸 찢러다가 지베서 멍기능거야. {이제 그걸 찢러다가 집에서 만드는 거야.}

10319 # 그르이간 사라미 요 가다리 요러케 양짜으러 돼 이짜너. {그러니까 사람이 요 가달이 요렇게 양쪽으로 돼 있잖아.}

10319 # 그리구 대가리가 이짜너 인제 여. {그리고 대가리가 있잖아 이제 여기.}

10319 # 그 인제 거기다가 또 구녕을 뚫러서 공이래능게 인제 괴~이~라구래 그걸 저 거기다가 그 엔나렌 그걸 또 그걸 멍기러여. {그 이제 거기다가 또 구멍을 뚫어서 공이라는 게 이제 공이라 그래 그걸 저 거기다가 그 옛날엔 그걸 또 그걸 만들어요.}

10319 # 이 솔, 부어서 멍길더시 그걸 멍기러. {이 솔 부어서 만들 듯이 그걸 만들어.}

10319 # 그르이개 이르케 요러케 빼쪽빼쪽캐가주구 그래서 그걸 사다가 고기다 마쳐.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뽀족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다가 거기다 맞춰.}

10319 # 그래가준제 거 대가리다 마치거덩.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가리에다 맞추거든.}

10319 # 그러머 인제 이짜서 인제 그걸 이 가무태다 인제 찌경이라구 인제 멍기러.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걸 이 가운데다 이제 찌경이라고 이제 만들어.}

10319 @ 가 가무태? {가무태?}

10319 # 어, 그럼. {응, 그럼.}

10319 # 그럼, 그래야 거기 부터이찌, 방해가. {그럼, 그래야 거기 붙어 있지, 방아가.}

10319 # 작때기르 가따 이르케 근네망녕다구. {작대기를 갖다 이렇게 건네 막는다고.}

10319 # 그래 거기 언체서. {그래 거기 없혀서.}

10319 # 그래머 인제 이야, 대가리 인테 거 공이가 이썬게 그게 내리 찢녕젠테 거기 인제 그 이도... {그러면 이제 대가리 있는데 그 공이가 있으니까 그게 내리 찢는 건데 거기 이제 그 이도...}

10319 @ 그 미테는 머예요, 고 미테는? {그 밑에는 뭐예요, 그 밑에는?}

10319 # 괴, 공이라구 이썬, 공이라구. {공, 공이라고 있어, 공이라고.}

10319 @ 공, 공이로 하고. {공, 공이로 하고.}

10319 # 응, 그럼. {응, 그럼.}

10319 @ 이 미테는 요걸 머라고 합니? {이 밑에는 요걸 뭐라고 합니까?}

10319 # 그건 방애 화기지, 확, 응. {그건 방아 화이지, 확, 응.}

10319 # 돌:루 까껴서 그러 구녕얼 파나서, 그래 거기다... {돌로 깎아서 그래 그멍을 파 놔서, 그래 거기다...}

10319 @ 주로 돌:로 합니까 아니면 나무? {주로 돌로 합니까 아니면 나무?}

10319 # 도. {돌}

10319 # 나무는 안 되지. {나무는 안 되지.}

10319 # 그건 도:리야, 도르 까껴서 해니간 공인데. {그건 돌이야, 돌을 깎아서 하니간, 공이가 인는데.}

10319 # 그르이가 고걸 조정얼 해서 인제 거기에 인제 저짜게서 두:리 올라가서 반:능거야. {그러니까 그걸 조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저쪽에서 두 사람이 올라가서 밟는 거야.}

10319 # 양짜가서 발부~이~까 그게 올라가자너, 이르케. {양쪽에서 밟으니까 그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10319 # 올라가서 고 떠러지자너, 거\*\*, 베 가통걸 지버너쿠. {올라가서 거기 떨어지잖아, 거\*\*, 벼 같은 걸 집어 넣고.}

10319 # 그래구 그 인제 그늘, 그래구 그늘미 내려 찢년 바라메 까지능거지. {그리고 그 이제 그 놈, 그리고 그 놈이 내려 찢는 바람에 까지는 거지.}

10319 # 사래미 발버다 까꾸 물레방아는 그 무리 도라가면서 그게 또 그거뚜 인제 물레방아는 그건 이만한 아주 이렇걸 \*\*\* 여기다가. {사람이 밟아서 까고 물레방아는 그 물이 돌아 가면서 그게 또 그것도 이제 물레방아는 그건 이만한 아주 이런 걸 \*\*\* 여기다가.}

10319 # 그림 그기 양짜가서 이르케 도라가서 그 방애를 어 여글 드리 치니깐 이노무 바, 방애가 올라가자너. {그럼 거기 양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그 방아를 여길 들어 치니까 이 놈의 방아가 올라가잖아.}

10319 # 공이가 이르케. {공이가 이렇게.}

10319 # 그래따가 그게 똑또라가면 또 똑떠러지구 또 도라가면 똑떠러지구. {그랬다가 그게 똑 돌아가면 또 똑 떨어지고 또 돌아가면 똑 떨어지고.}

10319 # 그거야 사, 그거뚜 사랑과 똑까통거, 사람 발부거따, 논녕거파 그 시기야, 똑까태, 그거야. {그거야 그것도 사람과 똑 같은 거, 사람 밟아 거기다가 놓는 것과 그 식이야, 똑같아, 그거야.}

10319 # 그래서 그걸 화기라구래, 그거저 미테거, 미테꺼. {그래서 그걸 화이라 그래, 그거 저 밑에 거, 밑에 거.}

10319 @ 그머 화게다 이거 공이로 팍 찌거서 인제 그르케 하면서 또 이제 또 여페서는... {그럼 화에다 이거 공이로 팍 찌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또 옆에서는...}

10319 # 그른제 그걸 대:구 인제 고그다 소네 사라미 손지럴 해이되자너 미테서. {그래 이제 그걸 대구 이제 거기다 손에 사람이 손질을 해야 되잖아, 밑에서.}

10319 @ 자꾸 이르케... {자꾸 이렇게...}

10319 # 으~, 저:조 거글, 그림. {응, 저어 쥐 거길, 그림.}

10319 # 그래구 인제 머 떡빵애든 머 찢녕거 가루 찢녕거 거기더 인제 찌면서 여자더리 인제 가주와서 그 체루다가 체에다 이짜너 왜, 체, 거기다 노쿠다 이르케 흔들머 인제 가루가 하여케 빠지지. {그리고 이제 뭐 떡방아든 뭐 찢는 거 가루 찢는 거 거기다 이제 찢으면서 여자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체로 체에 있잖아 왜, 체, 거기다 놓고 이렇게 흔들면 이제 가루가 하얗게 빠지지.}

10319 @ 그러면 인제 쌀가통거를... {그러면 이제 쌀 같은 거를...}

10319 # 싸른 그냥 그냥 인제 다 되며 그냥 파능거지 머. {쌀은 그냥 그냥 이제 다 되면 그냥 파는 거지 뭐.}

10319 @ 방아에 인제... {방아에 이제...}

10319 # 그림 방아야. {그림 방아야.}

10319 # 물레방애다. {물레방아에다가.}

10319 # 옴나레느 그 주루 그냥 물레방애 마이 해떡꾸, 또 물레방애 양가는사람 지비서 찌어멍년 사람 지비다가 그르케 밭, 밭뱅얼 맹기러 노쿠 그걸루 찌어 떡꾸 그래써. {옛날에는 그 주루 그냥 물레방아 많이 해 먹고, 또 물레방아 안 가는 사람 집에서 찢어 먹는 사람 집에다가 그렇게 밭방아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찢어 먹고 그랬어.}

10320 @ 그러며는 아까 그 베나 보리나 밀가통거 이르케 찌, 찌짜나요, 찌:면 이게 저:준다그래 짜나, 여페서. {그러면 아까 그 벼나 보리나 밀 같은 거 이렇게 찢잖아요, 찢으면 이게 저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10320 @ 저:주고 인제 나쁜 껍질가통게 이짜나요, 껍질. {저어 주고 이제 남은 껍질 같은 게 있

잖아요, 껌질.}

10320 # 껌뜰 버리지, 그건 이썸. {껌질 버리지, 그건 있어.}

10320 # 근데 아이제는 그건 못먹어, 저 머 꺼칠한, 그러구 인제 대:구 오래찌면 그거 싸레 인제 부터서 고거 아주 그건 곱:찌. {근데 아이제는 그건 못 먹어, 저 뭐 꺼칠한, 그리고 이제 대구 오래 찢으면 그거 쌀에 이제 붙어서 그거 아주 그건 곱지.}

10320 @ 고걸 머라고, 고 고웅거를? {그걸 뭐라고, 그 고운 것을?}

10320 # 근데 그제 싸레기가 나요. {근데 그제 싸레기가 나요.}

10320 # 대:구 찢:니까는. {대구 찢으니까.}

10320 # 까지능게 인제 그르케 싸레기하구 고:께 나오는 제가 이썸. {까지는 게 이제 그렇게 싸레기하고 곱게 나오는 겨가 있어.}

10320 # 인제 그걸 가따가 또 무르면서 반주개서 그걸 머겨썸, 사라미 반주걸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서 그걸 먹었어, 사람이 반죽을 해서.}

10320 # 개떡기라구래자너, 반대기 이르케 해서. {개떡이라 그러잖아, 반대기 이렇게 해서.}

10320 # 엔나렌 그래서 그걸 버리, 개떡기라 구래 버리개떡기라구. {옛날엔 그래서 그걸 보리, 개떡이라 그래 보리 개떡이라고.}

10320 # 그 사라미 저무 머, 그르니까 버\*. {그 사람이 전부 \*, 그러니까 보리.}

10320 # 쌀떡근 안머겨썸, 싸레서 나오능거 안명는데 버리제는 머거. {쌀떡은 안 먹었어, 쌀에서 나오는 거 안 먹는데 보리겨는 먹어.}

10320 # 건 구수해요, 그르~이~갠 그 구수행게 그 싸리 부서져가주고, 고 싸레기가. {그건 구수해요, 그러니까 그 구수한 게 그 쌀이 부서져가지고, 그 싸레기가.}

10320 # 그래가주구 고 치머 고 싸레기가 나온다구. {그래가지고 그 치면 그 싸레기가 나온다고.}

10320 # 그래니깐 인제 그거하구 제, 가는, 보드란 제하구 그 인제 그걸 반주글 해가주 썸서 머겨썸.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겨, 가는, 보드란 겨하고 그 이제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썸서 먹었어.}

10320 # 엔나렌 주루 인제 저냐게 명능게 그거야. {옛날엔 주로 이제 저녁에 먹는 게 그거야.}

10320 @ 그러면 처음... {그러면 처음...}

10320 # 그래 버리개떡기라구래자너. {그래 보리 개떡이라 그러잖아.}

10320 @ 예. {예.}

10320 @ 처메 썸 썸어, 썸:쓸때 나오능 그걸 머라고 합니까? {처음에 썸어, 썸었을 때 나오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320 # 버리제. {보릿겨.}

10320 @ 그머 싸리며는요? {그럼 쌀이면요?}

10320 # 버리싸리구 버리제구 그러치 머, 그거 다: 문니? {보리쌀이고 보릿겨고 그렇지 뭐, 그거 다 문니?}

10320 @ 예, 보리쌀말고 그냥 버리 버리가트머는 버리제가 나오자나요. {예 보리쌀 말고 그냥 보리 같으면 보릿겨가 나오잖아요.}

10320 # 그래. {그래.}

10320 @ 아님, 땅거는요? {아니면 탄 거는요?}

10320 # 땅:건 읍찌. {탄 건 없지.}

10320 # 인제 그거서 아, 대:구 찢면 고:께 고:께... {이제 거기서 대구 찢으면 곱게 곱게...}

10320 @ 처메 거친 그 껌찌를 머라고 해요? {처음에 거친 그 껌질을 뭐라고 해요?}

10320 # 그래 그... {그래 그...}

10320 # 거칭 걸? {거친 걸?}

10320 @ 예. {예.}

10320 # 아, 제, 제지 머 그거, 제지 머머 인나 그제 따루 인나 그제. {아, 겨지 뭐 그거, 겨지 뭐 있나 그제 따로 있나 그제.}

10320 @ 제 중에서 아주 고:옹거는 머라고? {겨 중에서 아주 고운 것은 뭐라고?}

10320 # 아 그거뚜 그러치 그거 머 그건 그 이러면 읍씨유, 도통. {아 그것도 그렇지 그거 뭐 그건 그 이름은 없어요, 도통.}

10320 @ 그거 머 와, 왕... {그거 뭐 왕...}

10320 # 아 왕거는 왕거는 그거 거칠대능걸 왕거지 머 다르게 이씨? {아 왕거는 왕거는 그거 거칠다는 걸 왕거지 뭐 다른 게 있어?}

10320 @ 왕거요? {왕거요?}

10320 # 그럼, 그르~까. {그럼, 그러니까.}

10320 @ 왕거가 머예요? {왕거가 뭐예요?}

10320 # 그이 츠츠, 츠:메 짜:머너 인제 엉그러차너, 제도, 그건 아무도 문먹짜너, 소두 문 먹꾸 개:두 문먹짜. {그 이 처음에 찡으면 이제 엉크렁잖아, 겨도, 그건 아무도 못 먹잖아, 소도 못 먹고 개도 못 먹지.}

10320 # 그르~까 오래 찌어야 그 쌀하구 싸리 바사지면서 인제 그래다 그걸 개두 먹꾸. {그러니까 오래 찌어야 그 쌀하고 쌀이 부서지면서 이제 그러다가 그걸 개도 먹고.}

10320 # 연나렌 개:가 춘데 그거먹꾸 사라씨. {옛날엔 개가 추운데 그거 먹고 살았어.}

10320 @ 근데 머 왕제라능거, 왕제... {근데 뭐 왕겨라는 거, 왕겨...}

10320 # 와, 왕:제라는 그 그 제, 제가주그래 그건. {왕겨라는 그 겨가지고 그래.}

10320 # 베, 베두 깡겨 왕겨제라구래자너, 그걸. {벼, 벼도 깡 거 왕겨라 그러잖아, 그걸.}

10320 @ 왕? {왕?}

10320 # 그래, 그건 제는 머 그간 소용두 움녕거야. {그래, 그건 겨는 뭐 그까짓 소용도 없는 거야.}

10320 @ 아, 그양 왕제, 왕제도 이씨요? {아, 그냥 왕겨, 왕겨도 있어요?}

10320 # 그거야 그걸 가주그래치. {그거야 그걸 가지고 그랬지.}

10320 # 그걸 왕제라 구래지 그 깡겨 베 인제 츠:메 찢녕거 나가녕걸. {그걸 왕겨라 그러지 그 깡 거 벼 이제 처음에 찡는 거 나가는 걸.}

10320 @ 고다메 고:옹거는 머라고 고거? {그답에 고운 것은 뭐라고 그거?}

10320 # 그건 곱:따구 머머 그 머머 이르미 따루 읍씨. {그건 곱다고 뭐뭐 이름이 따로 없어.}

10320 @ 똥, 똥게 가통거느 머 그렇거 아내... {똥게 같은 것은 뭐 그런 거 안 해...}

10320 # 어? {응?}

10320 @ 똥. {똥.}

10320 # 읍씨, 그거느, 그건 이르면 읍씨. {없어, 그거는 그건 이름은 없어.}

10320 @ 새:째 머 새째라는 마른 안쓰나요, 썬, 세째. {세째라는 말은 안 쓰나요, 세째.}

10320 # 그건 이름읍씨. {그건 이름 없어.}

10320 # 보드럽때능거 배께 더 이씨 머? {보드럽다는 것밖에 더 있어 뭐?}

10320 @ 버리째. {보릿겨.}

10320 # 으, 아이째는 문먹꾸 다. {응, 아이째는 못 먹고 다.}

10320 # 베두 그래차너. {벼도 그렇잖아.}

10320 # 아이젠 누가 멩나? {아이째는 누가 먹나?}

10320 @ 아이째하고 왕제하고는 머가? {아이째하고 왕겨하고는 뭐가?}

10320 # 그게 왕제가, 그게 그거지. {그게 왕겨가, 그게 그거지.}

10320 # 그게 왕:제너 깍, 그냥 거꺼풀까니깐 그러케 인제 베두 그러차너. {그게 왕겨는 그냥 길 거풀 까니까 그렇게 이제 벼도 그렇잖아.}

10320 # 베두 아이제가 이꾸 인제 걸, 또또 또 대:구 찌머 또 그거뚜 또까통거지. {벼도 아이제가 있고 이제 걸, 또 대구 찢으면 또 그것도 똑같은 거지.}

10320 # 베, 베도, 버리파 또까통거야, 츠:멘 꺾떼기 가니까 왕제가 나오자너. {벼, 벼도, 보리와 똑같은 거야, 처음엔 꺾떼기 가니까 왕겨가 나오잖아.}

10320 # 왕:제가 나가구 인제 그다베 보드란 그 대:구 나오자너. {왕겨가 나가고 이제 그담에 보드란 그 대구 나오잖아.}

10320 # 그래서 그 곱:짜너. {그래서 그 곱잖아.}

10320 # 그니깐 개:가 멍نگ게 인제 그느멀. {그러니까 개가 먹는 게 이제 그 놈을.}

10320 @ 그 이르미 업써요, 고거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거는?}

10320 # 이른 업써여, 그거야 아이제구 그래지 머 그거. {이름은 없어요, 그거야 아이제고 그러지 뭐 그거.}

10320 @ 그머 등제, 등게 이런말... {그럼 등겨, 등겨 이런말...}

10320 # 등게래능게 그거야. {등겨라는 게 그거야.}

10320 # 등게래능건 그건 그인제 그걸 까다가 등게라그래 이러멀. {등겨라는 건 그건 그 이제 그걸 까다가 등겨라 그래 이름을.}

10320 @ 어떻거를료? {어떤 거를료?}

10320 # 쩡:걸가따가 그 꺾떼기르 가 등게라구래지 그걸. {쨍은 걸 갖다가 그 꺾떼기를 가지고 등겨라 그러지 그걸.}

10320 @ 음, 어떻게 더 고와요? {음, 어떤 게 더 고와요?}

10320 # 아이, 곱:닝건 다 또까통거지. {아니, 고운 건 다 똑같은 거지.}

10320 # 머 아이제는 거칠지. {뭐 아이제는 거칠지.}

10320 @ 아이제는 거칠고. {아이제는 거칠고.}

10320 # 그럼, 그거 냉게 아이제는 무언제 소용이 읍써 그건 아무데두 그건 그냥 거릉건 씨구. {그럼, 그거 내니까 아이제는 무엇에도 소용이 없어, 그건 아무데도 그건 그냥 건 것은 쓰고.}

10320 # 또 버리는 대:구 찌머 고 아이제가 이에 싸래서 대:구 베껴저가주구 고:게 나온다구. {또 보리는 대구 찢으면 그 아이제가 이에 쌀에서 대구 벗겨져가지고 곱게 나온다고.}

10320 # 그, 그르~이~까 인제 그걸 개:떠걸 해머거져.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떡을 해 먹었지.}

10320 # 근데, 소 소 소는 안 돼, 소는 저 이 이 베는 그냥 고웅거는 그냥 그건 술 메겨. {근데, 소는 안 돼, 소는 저 이 벼는 그냥 고운 것은 그냥 그건 소를 먹여.}

10320 # 그냥, 그 인제 쇠 쇠물끄르는 데다 한바가지 뉘:서 그걸 싸래기라 구래지 마:란 인제 그 싸애기하구 베에 그 싸래기 징:거하구 그거 보드란 제하과 나오거덩. {그냥, 그 이제 쇠죽물 끓이는 데다 한 바가지 넣어서 그걸 싸래기라 그러지 말은 이제 그 싸래기하고 벼에 그 싸래기 지은 거하고 보드란 겨하고 나오거든.}

10320 # 그래 그거넌 짐성얼 메기녕거야. {그래 그거는 짐승을 먹이는 거야.}

10320 # 쌀제는 그래 저 사라미 안머겨유. {쌀겨는 그래 저 사람이 안 먹어요.}

10320 # 버리제넌 머거두 쌀제는 안머겨, 사라미. {보릿겨는 먹어도 쌀겨는 안 먹어, 사람이.}

10320 # 버리제는 멍넌데 쌀제는 안머겨, 그건. {보릿겨는 먹는데 쌀겨는 안 먹어, 그건.}

10320 @ 등제라는 마른 안쓰나요? {등겨라는 말은 안 쓰나요?}

10320 # 등, 그걸 가따 등게라그래. {등, 그걸 갖다 등겨라 그래.}

10320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20 # 제, 그걸가따가 그걸 그걸. {겨, 그걸 갖다가 그걸.}

10320 # 그래 지끄른 전부 소 소가 멍녕거야. {그래 지금은 전부 소가 먹는 거야.}

10320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20 # 등계년 전부 소가 멍녕거야. {등겨는 전부 소가 먹는 거야.}

10320 @ 왕제 왕제는? {왕겨는?}

10320 # 왕제는 그 내꼬지능거지, 거 꺼풀짱거, 츠:메 짱거. {왕겨는 그 내버리는 거지, 껌풀질 깐 거, 처음에 깐 거.}

10320 @ 아이제... {아이제...}

10320 # 그래. {그래.}

10320 # 그래드 방으그 베 쥘능계 그 츠:메 아주 꺼푸만 살짝 까내능계야 그 기계가. {그래도 방아에 그 벼 쥘는 게 그 처음에 아주 껌질만 살짝 까 내는 거야, 그 기계가.}

10320 @ 근데 고걸 아이제라고 하는 마를 마니 써요? {근데 그걸 아이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10320 # 그럼 그래 그게 언제 츠:메. {그럼 그래 그게 이제 처음에.}

10320 @ 왕제라는 마를? {왕겨라는 말을?}

10320 # 왕제라그래지 그건 왕제. {왕겨라 그러지, 그건 왕겨.}

10320 # 근데 \*\* 그거 지금 전부 그건 가따가 지끔 소릴 까려주자너. {근데 \*\* 그거 지금 전부 그건 갖다가 지금 소를 깔아 주잖아.}

10320 # 옛날엔 태워서 재를 멍기런데, 지끔 그게 전부 소까려주는데루가, 지금 왕계가. {옛날엔 태워서 재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전부 소 깔아 주는 데로 가, 지금 왕겨가.}

10320 # 그거 지부 그걸 저무 또 파러머겨유, 지끄른. {그거 짚을 그걸 전부 또 팔아먹어요, 지금은.}

10320 @ 음. {음.}

10321 @ 그다음 그 그러며는 그. {그다음 그러면 그.}

10321 @ 곡씨글 이제 타자카고나며는 어트케 인제 마무리진나요, 보통 마무리 질:때 곡씨 타작... {곡식을 이제 타작하고 나면 어떻게 이제 마무리 짓나요, 보통 마무리 지을 때 곡식 타작...}

10321 # 다머가:서 거기 옛날엔 또 가, 저무 옛날엔 가마니지. {답아서 거기 옛날엔 또 전부 옛날엔 가마니지.}

10321 # 그 지푸루 짱 가마니. {그 짚으로 짱 가마니.}

10321 # 옛날엔 다 그거, 거기다 다머서 가따 그게 썩닌거지, 머 지바네... {옛날엔 다 그거 거기다 답아서 갖다 그게 쌓는 거지, 뭐 집안에...}

10321 @ 어디 어디 집 어디에다 놔둬니까? {어디 집 어디에다 놔둬니까?}

10321 # 아느루 저 그래머 쥐 안먹게 멍기녕거지 비안맡꼬. {안으로 저 그러면 쥐 안 먹게 만드는 거지 비 안 맞고.}

10321 @ 궁까 어디에 주로... {그러니까 어디에 주로...}

10321 # 그 바 방으루 마이 두지. {그 방으로 많이 두지.}

10321 @ 방에요? {방에요?}

10321 # 그럼, 인제 그래꼬 창꼬가튼데.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 창고 같은 데.}

10321 @ 궁까 싸른 또 따, 따로 어디 놔두는데 이짜나요, 싸른. {그러니까 쌀은 또 따로 어디 놔두는 데 있잖아요, 쌀은.}

10321 # 인제 그건 그건 인제 거그서 가따 짜:면 언제 가따 전부 또 향아리다 옛날엔 노이께,

항아리다 뉘서 머거찌. {이제 그건 이제 거기서 갖다 쥘으면 이제 갖다 전부 또 항아리에다 옛날엔 놓으니까,항아리에다 넣어서 먹었어.}

10321 @ 아, 항아리다 너씀니까? {아, 항아리에다 넣습니까?}

10321 # 어. {응.}

10321 # 지금 항아리가 쥘 조아요, 곡써건 최고야 그건. {지금 항아리가 쥘 좋아요, 곡식은 최고야 그건.}

10321 # 지금 고치가통거뚜 말려서 거다 너른 안 망어져. {지금 고추 같은 것도 말려서 거기다 넣으면 안 망가져.}

10321 # 항아리가 그게 조용거야. {항아리가 그게 좋은 거야.}

10321 @ 넙찌가게 싸를 이러케 다마두는 그 고기를 머라고 하나요, 싸를? {넙찌하게 쌀을 이렇게 담아 두는 그 거기를 뭐라고 하나요, 쌀을?}

10321 # [3초].

10321 # 싸르 다머주능거? {쌀을 담아 두는 거?}

10321 @ 예예, 항아리말고 싸를 다마두... {예예, 항아리 말고 쌀을 담아 두...}

10321 # 그게 싸리 아니지, 두지라구 이씨, 두지. {그게 쌀이 아니지, 뉘지라고 있어, 뉘지.}

10321 # 두진제 마라자므 이 시게 이 방 이르케 그건 양짜근 지동얼 바가주 거기다가 호:뉘 파가주 송파니 이르케 두꿈:겘 가따가 전부 이르그 뺑둘레. {뉘지 이제 말하자면 이 식이야 이 방, 이렇게 그건 양쪽은 기둥을 박아서 거기다가 홈을 파서 송판이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가 전부 이렇게 뺑 둘러.}

10321 # 그걸 찌머서 이르케 그래다 그걸 두지라구래. {그걸 쥘으면서 이렇게 그러다 그걸 뉘지라 그래.}

10321 # 그래~이~까 인제 음:넌, 인넌 사라믄 인제 거 그걸 멩간더 베털 그냥 거그다가 디리싸, 그냥 가따 분:넌다구 그건. {그러니까 이제 없는,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걸 만들어 베퉀를 그냥 거기다가 들이 썬아, 그냥 갖다 붓는다고 그건.}

10321 # 담짚 앙쿠 거기다가 두지에다 가따 부어, 그래가주 인제 가따 내다 짚뎌 그르세다 다머서 인제 내다 찌꾸 그래. {담지를 얹고 거기다가 뉘지에다 갖다 부어, 그래서 이제 갖다 내다 쥘을 뎌 그릇에다 담아서 이제 내다 쥘고 그래.}

10321 # 그게 말해, 창꼬파 또까통거지 다룽건 업씨, 두지래능게. {그게 말하자면, 창고와 똑같은 거지 다른 건 없어, 뉘지라는 게.}

10321 # 그게 또 \*집따러서, 두지 인넌 사래미 힘들구 여:레 한집뚜 안 되구 백찌베 한집뚜 아니야. {그게 또 \*\* 따라서, 뉘지 있는 사람이 힘들고 열에 한 집도 안 되고 백 집에 한 집도 아니야.}

10321 # 그건 아주 부:자싸라미 하능거야, 그건, 그림, 그건. {그건 아주 부자 사람이 하는 거야, 그건, 그림, 그건.}

10321 # 여느 사라믄 머 가:미 그건 모태. {여느 사람은 뉘 감히 그건 못 해.}

10321 # 그르~이~간 인제 여느 그르세 안 담꾸 거기다 다 씨레 분는... {그러니까 이제 여느 그릇에 안 담고 거기다 다 쓸어 붓는...}

10321 # 그래이까 부:먼서 이른 송판, 두쿠웅거 아주 이러커덩, 그걸 가따 이르케 대구 찌무먼서 부니까는. {그러니까 부으면서 이런 송판, 두꺼운 거 아주 이러거든, 그걸 갖다 이렇게 대구 끼워 넣으면서 부으니까.}

10321 # 그래가주. {그래가지고.}

10321 @ 마니 드러가젠네요. {많이 들어가겠네요.}

10321 # 으~, 그럼 마이 드러가지 머 아주. {응, 그럼 많이 들어가지 뭐 아주.}

10321 # 여느 그르셴 분능건 조금 드러가자너. {여느 그르셴 붓는 건 조금 들어가잖아.}

10321 # 그르~이~간 인제 그케 아주 그 부자눈드리 인제 그르케 멩기러서 그건 따루 아주 이르 크 향카늘 멩기러유, 지블 지어서 아주 그르크 해써. {그러니까 이제 그케 아주 그 부자 놈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그건 따로 아주 이렇게 한 칸을 만들어요 집을 지어서 아주 그렇게 했어.}

10321 # 그건웁서, 뱅명에 하나두 읍써 그건. {그건 없어, 백 명에 하나도 없어 그건.}

10321 @ 음, 아까 그... {음, 아까 그...}

10322 @ 아까 그 가을... {아까 그 가을...}

10322 # 가을거지? {가을건이?}

10322 @ 예, 그케 끝나면 아~이~, 이제 아까 집까통거또 이꼬, 나무가통거뜰도 이쓰며는 어떤 용폼드를 마니 써따고 헨나요, 아까, 그 집까통걸로? {예, 그케 끝나면 아니, 이제 아까 짚 같은 것도 있고, 나무 같은 것들도 있으면 어떤 용폼들을 많이 썼다고 했나요, 아까, 그 집 같은 걸로?}

10322 # 지핀, 지핀 그거야 엔나렌. {짚은, 짚은 그거야 옛날엔.}

10322 # 지봉 해 이꼬. {지봉 해 이고.}

10322 @ 예, 지봉. {예, 지봉.}

10322 # 지봉해 이꾸 냉거진 소멍녕거야, 다룽건 읍써. {지봉해 이고 나머진 소 먹는 거야, 다른 건 없어.}

10322 @ 아까 그 멀: 만드는다고 해짜나, 이거 안 , 사라미 안는 머. {아까 그 멀 만드는다고 했잖아, 이거 앓, 사람이 앓는 뭐.}

10322 # 멩석? {멩석?}

10322 @ 예. {예.}

10322 # 인제. {이제.}

10322 @ 그거슨 모양이 어때요, 멩, 모양? {그것은 모양이 어때요, 멩, 모양?}

10322 # 이르치 머, 멩서기래니가 이 하바 이르케. {이렇지 뭐, 멩석이라니까 이 넓이 이렇게.}

10322 # 내가 제 헬 내르미지. {내가 이제 할 나름이지.}

10322 @ 예? {예?}

10322 # 내가 해, 찰라르미야 그건, 머 쪼꾸마케 헬람 짜구 머. {내가 해, 찰 나름이야 그건, 뭐 조그맣게 하려면 짜고 뭐.}

10322 @ 그케 네모난... {그케 네모난...}

10322 # 건 네모 반뜨태게 짜구 또 똥구라케 똥글. {그건 네모 반듯하게 짜고 또 동그랗게 동글.}

10322 @ 짜기도 하고요. {짜기도 하고요.}

10322 # 도레방서기라구랜데 그건 도레방서기라. {도레방석이라 그러는데 그건 도레방석이라.}

10322 # 근데 똥구라케 그 인제 그르케 지푸루다 그거 짜서. {근데 동그랗게 그 이제 그렇게 짚으로 그거 짜서.}

10322 @ 똥구라케 짜능거슨 머라구요? {동그랗게 짜는 것은 뭐라고요?}

10322 # 도레방서기지 그거 언제 이 끈말 꼬테 마\*\*\*\*\* 똥구라케 위루케 올라가게 해써여. {도레방석이지 그거 이제 이 끝에 마\*\*\*\*\* 동그랗게 이렇게 올라가게 했어요.}

10322 # 곡씨글 다머두 그케 헤지지 양케 그거, 그걸 도레방서기래, 똥구라케. {곡식을 담아도 그케 헤지지 양케 그거, 그걸 도레방석이라, 동그랗게.}

10322 # 그거 멩서건 그냥 일짜구. {그거 멩석은 그냥 일 자고.}

10322 @ 아 멩서근 일짜로 이케 하고. {아 멩석은 일 자로 이렇게 하고.}

10322 # 그림. {그림.}

10322 # 그르캐지 며. {그렇게 했지 뭐.}

10322 @ 방서근 아까 도레방석. {방석은 아까 도레방석.}

10322 # 으. {응.}

10322 @ 그 방석또 이르케 네모로 이르케 하능거 인나요? {그 방석도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하는 거 있나요?}

10322 # 그르~이~까 도레 방서근 다름거 아니야, 내가 거그다 인제 멀 널:면 바까트루 헤지지 말라구 행거구. {그러니까 도레방석은 다른 거 아니야, 내가 거기다 이제 뭘 널면 바깥으로 훌어 지지 말라고 한 거고.}

10322 @ 예. {예.}

10322 # 또 멍서건 그냥 이르케 그냥 일짜루 이르케 네모 반뜨태게. {또 멍석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일 자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10322 # 그 인제 그건 그대신 이러치 며 이 하바가, 그러쿠 이 양짜게 다 이르케 질:게 짜지. {그 이제 그건 그 대신 이렇게 뭐 이 넓이가, 그렇고 이 양쪽에 다 이렇게 길게 짜지.}

10322 # 그건 인제 그래 그래가 주루 인제 곡쓰걸 거기다 다며, 담, 너러서 인제 말러 멍네게 엔나렌 다 그르케 인제 마... {그건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곡식을 거기다 담아, 널어서 이제 말러 먹는 게 옛날엔 다 그렇게 이제 마...}

10322 @ 곡씩 담:는 아까 곡씩 담:는 머 등 머 이써짜나요? {곡식 담는 아까 곡식 담는 뭐 등 뭐 있었잖아요?}

10322 # 둥구미라 또 그래. {둥구미라 또 그래.}

10322 # 그거뚜 지푸루 그르케 다 그르케 멍기능거야 그 지끔 그르시구루 짜능거야 마라자면 그 걸 가따 지푸루. {그것도 짚으로 그렇게 다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 지끔 그릇 식으로 짜는 거야 말하자면 그걸 갖다 짚으로.}

10322 # 저네두 테레비에 나오는데 그걸 대:구 해드라구, 경노당에서. {전에도 티비에 나오는데 그걸 대구 하더라고, 경로당에서.}

10322 # 그걸루 머 지푸루 모짜능게 읍씨. {그걸로 뭐 짚으로 못 짜는 게 없지.}

10322 # 지끔 우리 인제 사형시 해능거 찰람 다 그거 그거 손재주 인년 사래미 해능거지 여느사람 모태. {지끔 우리 이제 사형씨 하는 거 짜려면 다 그거 손재주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여느사람 못 해.}

10322 # 그른 사람 그 다 멍기지 그게. {그런 사람 그 다 만들지 그게.}

10322 # 그걸루 모태능게 읍씨. {그걸로 못 하는 게 없어.}

10322 # 소두 그래 소도 이 보메 인제 푸리 나고 뜨더 먹꾸 그래자너 그르~이~간 이 멍이 이 써, 멍. {소도 그래 소도 이 봄에 이제 풀이 나고 뜯어 먹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멍이 있어, 멍.}

10322 # 멍 씨우녕거뚜 그거 새끼를 파가주 그걸 그물뜨더시 그르캐씨. {멍 씨우는 것도 그거 새끼를 파가지고 그걸 그물 뜯듯이 그렇게 했어.}

10322 # 그래가주 똥구라케 그래서 인제 그걸 이베다 가떠 모 몸먹게 해. {그래가지고 동그략게 그래서 이제 그걸 입에다 갖다 못 먹게 해.}

10322 # 이르케 썩워, 그래 인제 그게 이제 세빠당만 몬나오면 몬먹꺼덩, 소년. {이렇게 썩워, 그래 이제 그게 이제 헛바닥만 못 나오면 못 먹거든, 소는.}

10322 # 그래~이~간 인제 드문드문 그르케 해:서 뺩돌레 싸. {그러니까 이제 드문드문 그렇게 해서 뺩 둘러 싸.}

10322 # 그걸 씨:면 꿈짱모태 모뜨더먹찌. {그걸 씨우면 꿈쩍 못 해 못 뜯어 먹지.}

10322 # 그래서 인제 바치구 노니구 가:능게 그거야. {그래서 이제 밭이고 논이고 가는 게 그거야.}

10322 # 그 명이 있는데 지끄면 내가 참 그 머 사과 바구니가통게 이따, 지그면 그르케 멩기런. {그 명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참 그 뭐 사과 바구니 같은 게 있다,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

10322 # 그걸가 가가따 소릴 씨울땐 사람마들 다 보구 인제 참 영:구두 잘헨네 나보구 인제 그 큰 소리 그랜데. {그걸 가지고 소를 씨울 땐 사람마다 다 보고 이제 참 연구도 잘 했네 나보고 이제그런 소리 그랬는데.}

10322 # 그걸 가따 씨움 땅마저, 사과 그거 담:넣거 그가따 씨웁까 땅맡뜨라구. {그걸 갖다 씨우면 딱 맞아, 사과 그거 담는 거 그거 가져다 씨우니까 딱 맞더라고.}

10322 # 긴테 그건 알버서 쉬망거지드라구. {근데 그건 얹아서 쉬 망가지더라고.}

10322 # 그걸 명이라구래거든. {그걸 명이라 그러거든.}

10322 # 그건 못씨군, 소는 모뿌려머거. {그건 못 씨우고는 소는 못 부려 먹어.}

10322 # 풀라구 해면 대:구 그거 뜨더 먹기 땀서, 소가. {풀 나고 하면 대구 그거 뜯어 먹기 때문에, 소가.}

10322 # 또 판테루 가구 그래서. {또 판 테로 가고 그래서.}

10322 # 멩얼 씨우구 가 소가 꼼짜걸 모태거덩. {멍을 씨우고 가야 소가 꼼짜를 못 하거든.}

10322 # 그래서 사람한테 매여서 끌러더 이를 해구 그래. {그래서 사람한테 매여서 끌려서 일을 하고 그래.}

10322 @ 그다메 머가, 이 모자가통거또 만듭니까? {그답에 뭐가, 이 모자 같은 것도 만듭니까?}

10322 # 밀짚모자라구래지, 근데 밀 그 이짜너 그거 힘드러 그거 모태. {밀짚모자라 그러지, 근데 밀 그 있잖아 그거 힘들어 그거 못 해.}

10322 @ 그다메 이게 옛날엔 신? {그답에 이게 옛날엔 신?}

10322 # 신, 집쌌기. {신, 짚신.}

10322 # 집쌌기는 옛날엔 다 뉘기던지 머. {짚신은 옛날엔 다 누구든지 뭐.}

10322 # 이, 그거 안 싱꾼 크질 모태니까 두꺼웁걸 시는엔 귀경얼 모태 나두 고무시니래느걸 일쌩얼 몰:르구 사른 사라미야. {이, 그거 안 신고는 크질 못 하니까 두꺼운 걸 신은 아이는 구경을 못 해 나도 고무신이라는 걸 일쌩을 모르고 산 사람이야.}

10322 # 집쌌기루만 사랑거지. {짚신으로만 산 거지.}

10322 # 인제 그게 확 퍼져가주 고무시널 시너찌. {이제 그게 확 퍼져가지고 고무신을 신었지.}

10322 # 그래자늬 인제 송판느 게다 까꺼 상:꾸 그거야 주루.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송판을 게다 깎아 신고 그거야 주루.}

10322 @ 아, 송판늘 멀 까까 시너요? {아, 송판을 뭘 깎아 신어요?}

10322 # 그걸 게, 게다라그러자, 일번님들 신녕거 이짜너, 그거. {그걸 게다라 그러잖아, 일본놈들 신는 거 있잖아, 그거.}

10322 # 그래서 인제 그걸 해가 그걸루 전부 주루 땡겨찌 머.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그걸로 전부 주루 다녔지 뭐.}

10322 @ 음. {음.}

10322 # 그래구 인제 머 농사 머 사네가능거뚜 집쌌길 사머야 이제 싱꾸 땡기구. {그리고 이제 뭐 농사 뭐 산에 가는 것도 짚신을 삼아야 이제 신고 다니고.}

10322 @ 음. {음.}

10322 # 그거야. {그거야.}

10322 @ 그땐 나무로 머 만드능건 업써씨요? {그땐 나무로 뭐 만드는 건 없었어요?}

10322 # 나무루 매능게 머 그게 나무해능게 머 질편능거. {나무로 매는 게 뭐 그게 나무 하는게 뭐 집 짓는 거.}

10323 # 아 그게 이 지금도 머 농사진능거나 머나 할찌게 보면 옛날하구 지금하군 천지차이자너. {아 그게 이 지금도 뭐 농사짓는 거나 뭐나 할 적에 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이잖아.}

10323 @ 차이가 만초. {차이가 많초.}

10308 # 지금두 논 한마지기 옛날레는 부치찌마넌. {지금도 논 한 마지기 옛날에는 부치지만.}

10323 # 우리 서미라구래찌으걸. {우리 섬이라 그래 그랬지 그걸.}

10323 # 옛날엔 그 서면, 지푸래길 요러케 주키: 가주구 그걸 여꺼요. {옛날엔 그 섬은, 지푸래길 요렇게 쥐어 가지고 그걸 엮어요.}

10323 # 그래서 그걸 이르크 멩긴다구 통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든다고 통을.}

10323 # 그리이간 말하잠 베 향가마드러 가, 가마네, 가마니라구래지 이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벼 한 가마 들어, 가마니라들 그러지 이걸.}

10323 # 가마니 두가마가 그게 서미 드러가 옛날. {가마니 두 가마가 그게 섬이 들어가 옛날.}

10323 # 그 테레비 나오자너 왜, 삼:덜 지구맹기능거 열거가 들구 맹기능거 이짜너 왜. {그 티브이 나오잖아 왜, 사람들 지고 다니는 거 엮어서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왜.}

10323 # 그 여꺼가주구 그걸 서미야. {그 엮어가지고 그걸 섬이야.}

10323 # 그리이까 논 한마지기다 고겨 나오능거야. {그러니까 논 한 마지기에 그거 나오는 거야.}

10323 # 수량이. {수량이.}

10323 # 농살 지면 논 한마지게. {농사를 지으면 논 한 마지기에.}

10323 # 지끄면 그게 논 한마지기로 부치면 네다섯가마가 나오자너, 벼가, 옛날엔 그래쎄. {지금은 그게 논 한 마지기를 부치면 네다섯 가마가 나오잖아, 벼가, 옛날엔 그랬어.}

10323 # 그래니 머. {그러니 뭐.}

10323 # 그게 다 시국따러서 되구 그리키 땡서. {그게 다 시국 따라서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323 # 옛날엔 그래떠 머 개바리 읍씨구 그래~이~간 옛날엔 글쎄. {옛날엔 그랬어 뭐 개발이 없고 그러니까 옛날엔 글쎄.}

10323 # 그 벼두 꺼칠허대이, 이 슈:미 달려때이 옛날엔. {그 벼도 까하더라고요, 이 수염이 달렸더니 옛날엔.}

10323 @ 예 수여미요? {예, 수염이요?}

10323 # 그럼, 그게 꺼칠허케 나와때유, 근데 그게 읍:짜너. {그럼, 그게 꺼칠하게 나왔대요, 근데 그게 없잖아.}

10323 @ 음. {음.}

10323 @ 저, 옛날레 겨울, 되면 겨울 그, 땡감 이짜나, 땡감, 어땡겅 주로 마니 썬나요? {저, 옛날에 겨울, 되면 겨울 그, 땡감 있잖아요, 땡감, 어떤 걸 주로 많이 썬나요?}

10323 # 그르~이~간 이 나무가 인제 큰 이 소나무 참, 인제 소나무 찬나무 그릉거 읍씨면 인제 그 미테다 나능건 회추리 요러케 나오게 이짜너, 또.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제 큰 이 소나무 참, 이제 소나무 찬나무 그런 거 없으면 이제 그 밑에다 나는 건 회초리 요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 또.}

10323 @ 예예. {예예.}

10323 # 주루 인제 그걸 벼:다 해떠. 주로 이제 그걸 베다 했어.

10323 # 그르~이~까 큰나무는 또 맘대루 잘르질 모태자너. {그러니까 큰나무는 또 맘대로 자르지 못 하잖아.}

10323 # 근 정부에서 인제 그르니까는 또또 또 내 사나닌 나메 사네더 그르케 모태구 인제 고려 산초래이 요령겨. {그진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또 내 산 아닌 남의 산에도 그렇게 못 하고 이제 그런 산초랭이 요런 거.}

10323 @ 예. {예.}

10323 # 고... {그...}

10323 # 주루 인제 고령걸 마니 인제 벼:다 때구.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베다 때고.}

10323 # 또 그 인제 소나무 그 솔까피, 그거 인제 이 단풍드러 떠러징걸 그걸 갈퀴루 글거다 때:지 머. {또 그 이제 소나무 그 솔잎, 그거 이제 이 단풍들어 떨어진 걸 그걸 갈퀴로 긁어서 때지 뭐.}

10323 @ 그 옌나레 머 정부에서 안 할 때는 나무 이러케 해서 하고 그래쪄? {그 옛날에 뭐 정부에서 안 할 때는 나무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랬쪄?}

10323 # 근데 인제 그거뚜 인제 중가네 대:개 인제 먹기 심드니까 인제 몰:래덜 나무든지 벼다가 인제 때 끄리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중간에 대개 이제 먹기 힘드니까 이제 몰래들 나무든지 베다가 이제 때 끊이는 사람들.}

10323 @ 음. {음.}

10323 # 음년 사라프 힘드러, 그래니까 인제 이게 그 영임소 몰:래 인제 저, 몰:래 그 나무 벼다 패:서 인제 그걸 여, 여글라와요 시장얼, 팔러. {없는 사람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육림소 몰래 이제 저, 몰래 그 나무를 베다 패서 이제 그걸 여기를 나와요, 시장을, 팔러.}

10323 # 지게에다 저서, 그르케 먹꾸 사러썬. {지게에다 저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

10323 # 그런데 그 사람더런 그래 그까진 나무 하나 파러 머 싸르 한말 사능거뚜 아니자너, 그래~이~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 그까짓 나무 하나 팔아 뭐 쌀을 한 말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10323 # 그당시에 이 국씨가 요 요리킹 무꺼나와. {그 당시에 이 국수가 요렇게 묶여 나와.}

10323 # 가게에예. {가게에.}

10323 @ 국씨가요? {국수가요?}

10323 # 어~. {응.}

10323 # 그르~이~간 인제 그사라면 인 고거 나무 한짐 파러가주 인제 고거 사가주 드러가능게, 그걸루 때를 이우능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거 나무 한 짐 팔아가지고 이제 그거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걸로 때를 때우는 거야.}

10323 # 그래다보~이~간 이 나무가 마~이~ 너머가능거지 그게. {그러다 보니 이 나무가 많이 넘어가는 거지 그게.}

10323 # 여그뚜 그저네 이르케 근네다 보문 엄::청난데 그 몰래 다, 하하, 몰래 다 비어다 다 그르케. {여기도 그전에 이렇게 건너다 보면 엄청난데 그 몰래 다, 하하, 몰래 다 베어다 다 그렇게.}

10323 # 죽께씨니 뭐. {죽겠으니, 뭐.}

10323 # 도, 돈:뻘리가 업짜나. {돈벌이가 없잖아.}

10323 # 어디가 돈뻘리 하... {어디 가 돈벌이 하...}

10323 # 여기 옌나레 돈뿌리 해능게 이 저 옹:기, 그른맹기능거, 옹기점. {여기 옛날에 돈벌이 하는 게 이 저 옹기, 그릇 만드는 거, 옹기점.}

10323 @ 예. {예.}

10323 # 그 흑, 흑 파능거 배끼 업씨유. {그 흑 파는 거밖에 없어요.}

10323 # 근데 그걸 파란데 내가 해봐써, 나두 참. {그런데 그걸 팔았는데 내가 해 봤어, 내도 참.}

10323 # 가서 일쭈이럴 그 흘걸 파내면 아주, 끈내이, 그건 땅수게서 파내녕거야. {가서 일주일 을 그 흙을 파내면 아주, \*\*\*, 그건 땅 속에서 파내는 거야.}

10323 # 아주 땅수게서 드러가서 아주. {아주 땅 속에서 들어 가서 아주.}

10323 # 아주, 등잔뿌리 거, 머 등잔뿌르 켜노쿠 그글 파내는데 그래가주 구:레서 꼬:러내구 인 제 바까테서 그러내구랜데. {아주, 등잔불이 거, 뭐 등잔불을 켜놓고 그걸 파내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끌어내고 이제 바깥에서 끌어내구 그랬는데.}

10323 # 일쭈이럴 해야 쌀, 아주 쌀 굴때루 흘터가주 쌀한말 쥐. {일주일을 해야 쌀 아주 쌀 굴 대오 훑어가지고 쌀 한 말 쥐.}

10323 # 이레를 해야 쌀한마르 은:더. {이레를 해야 쌀 한 말을 얻어.}

10323 # 근데 모쌀게써, 증말, 마누래 하나두 문미게게뜨라구. {근데 못 살겠어, 정말, 마누라 하나도 못 먹이겠더라고.}

10323 # 일꺼리가 업씨. {일거리가 없어.}

10323 # 그르~이~까 사람드리 나무래두 비어애 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라도 베야 뭐.}

10323 # 옌나렌 여그 사람드리 다 나무를 때~이~, 때가주구 사러쓰~이~까 사라미. {옛날엔 여기 사람들이 다 나무를 때니, 때가지고 살았으니까 사람이.}

10323 # 그뎌 연타니 읍짜너. {그뎌 연탄이 없잖아.}

10323 # 그게 순전 나무루 해니까 인제 그건 잘 메키지. {그게 순전히 나무로 하니까 이제그건 잘 먹히지.}

10323 # 그르~이~까 그르케 나무가 인제 야매루 다 모아다 모두 파러머거...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가 이제 몰래 다 모아다 모두 팔아먹어.}

10323 # 말두모태. {말도 못 해.}

10323 # 나는 그래두 인제 그른 장사느 안해받는데. {나는 그래도 이제 그런 장사는 안 해 봤는데.}

10323 # 운:년 사라면 그래, 운년 사라머 전부 힘드러써, 살기. {없는 사람은 그래, 없는 사람은 전부 힘들었어, 살기.}

10323 # 나무 아니면 여기 사람덜 거반 굴머죽따시피 헨는데 머. {나무 아니면 여기 사람들 거의 굶어 죽다시피 했는데 뭐.}

10323 @ 근데 인제 겨울 되면 나무 이게 잘라서, 옌나레 나무 잘라서 이르케... {근데 이제 겨울 되면 나무 이게 잘라서, 옛날에 나무 잘라서 이렇게...}

10323 # 그 장작. {그 장작.}

10323 @ 예. {예.}

10323 # 글 장자기라그. {그걸 장작이라고.}

10323 # 그게 인제 요르케 나물 패자너 도끼루, 그게 두:자야 지레기가. {그게 이제 요렇게 나무를 패잖아 도끼로, 그게 두 자야 길이가.}

10323 # 드레길 인제 고걸 파다 이제 장자글 때, 그걸 장자기라 그래, 그걸. {드레기(?)를 이제 그걸 파다 이제 장작을 때, 그걸 장작이라 그래, 그걸.}

10323 # 백까지가 항, 항강다리야. {백 가치가 한 강다리야.}

10323 # 백개를 가따. {백 개를 가지고.}

10323 @ 예? {예?}

10323 # 고... {고...}

10323 # 고거 항개피, 항개비 시어서 백개. {그거 한 개피, 한 개피 세어서 백 개.}

10323 @ 예예. {예예.}

10323 # 백까지며 하, 항강다리라구랜다구. {백 가치 뭐 한 강다리라 그런다고.}

10323 @ 아, 한 강다리. {아, 한 강다리.}

10323 # 어, 다리르. {응, 다리르.}

10323 # 그리, 한. {그래, 한.}

10323 @ 아, 한... {아, 한...}

10323 # 항강다리라구래지. {한 강다리라 그러지.}

10323 @ 항강다리. {한 강다리.}

10323 # 으~. {응.}

10323 @ 아, 예. {아, 예.}

10323 # 그래머 인제 고걸 또 그저네 이 저, 이 소 마:차 소가 이씨, 마:차랭게 맹그러 인제, 거 그다 시꾸너 패:가주 나오데 거기다 시꾸. {그러면 이제 그걸 또 그전에 이 저, 이 소 마차 소가 있어, 마차란 것이 만들어 이제, 거기다 싣고는 패가지고 나오데, 거기다 싣고.}

10323 # 그래머 인제 그걸 가따 쥐니 사자나.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주인이 사잖아.}

10323 # 그제 인제 이가, 메강다리다, 며 열가니, 열강이다, 다섯쌍이며 다섯쌍이다, 그래머 인제 쥐니 그럼 쉬어 냉게라 인제. {그제 이제 이거, 몇 강다리다, 뭐 열 개니, 열 강다리다, 다섯 강다리면 다섯 강다리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럼 세어 넘겨라 이제.}

10323 # 쉬어 네긴제, 인제 내가 가주간 내가 인제 마:차에 올라서 그걸 쉬어 냉기다가, 쥐:는 \*\*, 인제 고거 쉬:능걸 본다구. {세어 넘길 때, 이제 내가 가니 간 내가 이제 마차에 올라서 그걸 세어 넘기다, 주인은 \*\*, 이제 그거 세는 걸 본다구.}

10323 # 그런데 고거도 한눈 팔째... {그런데 그거도 한눈 팔 제...}

10323 # 그르~이~까 항강다릴 쉬:며너 항가치가 일루 와 인제 고게 인제 고게 인제. {그러니까 한 강다리를 세면 한 가치가 이리 와 이제 그제 이제 그제 이제.}

10323 # 그런데 쥐너 인제 고걸 보느, 인제 그르~이~까 이거... {그런데 주인은 이제 그걸 보느, 이제 그러니까 이거...}

10323 # 먼:산 볼째 항가진 와, 똑 떠러진다구. {먼산 볼 제 한 가지씩 와, 똑 떨어진다구.}

10323 # 그래머 항강다리야 두:개 와 떠러짐, 두:강다리 며 이, 이박까지가 되녕거야. {그러면 한 강다리가 와, 두 개와 떨어지면, 두 강다리 뭐 이, 이 백가치가 되는 거야.}

10323 # 그르케 인제 쥐, 쥐:널 쏘기서 그르케 파러 먹꾸 그래씨. {그렇게 이제 주인을 속여서 그렇게 팔아 먹고 그랬어.}

10323 # 쥐... {주인...}

10323 @ 항강다린데 두강다리다. {한 강다리인데 두 강다리다.}

10323 # 그럼 고르케 해끄... {그럼 그렇게 했고...}

10323 # 제대루 해:가주군 안 되자너, 그 며 그제 돈:또 항강다리르 백까지 파러봐짜 음:마 되우 며, 아주 그레이까. {제대로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 뭐 그제 돈도 한 강다리를 백 가치 팔아

봤자 얼마 되오, 뭐, 아주 그러니까.}

10323 # 그르케들 해먹꾸 그래쎄. {그렇게들 해 먹고 그랬어.}

10323 # 그르~까 마:차, 마:차래능게 제무시르 여카르 행거지, 옌나렌. {그러니까 마차, 마차라는 게 제무시 역할을 한 거지, 옛날엔.}

10323 @ 무슨 여카요? {무슨 역할요?}

10323 # 제무시, 제무시, 이 차, 짐신는 차, 제무시 이짜너. {제무시, 제무시, 이 차, 짐신는 차, 제무시 있잖아.}

10323 @ 제무시요? {제무시요?}

10323 # 으~. {응.}

10323 # 아이 짐신넌 차 마리아. {아이, 짐신는 차 말이야.}

10323 @ 예. {예.}

10323 # 그, 그 여카르 해따구 마:차가. {그 역할을 했다고 마차가.}

10323 @ 아. {아.}

10323 # 그저네 그게 읍짜너. {그전에 그게 없잖아.}

10323 # 차가. {차가.}

10323 @ 예예예. {예예예.}급

10323 # 그르~이~까 그게 다 행거지, 마:차, 그 소루다가. {그러니까 그게 다 한 거지, 마차, 그 소로다가.}

10323 # 마:차루다가 다 해머궁거야. {마차루다 다 해 먹은 거야.}

10323 @ 아, 마차가. {아, 마차가.}

10323 # 옌나렌 소가 다: 그 어느 산판니그. {옛날엔 소가 다 그 어느 산판이고.}

10323 # 뭐 어딜가던지 여그서 머 삼십니르 나가던 소가 다 시꾸 땡기능거야. {뭐 어딜 가든지 여기서 뭐 삼십 리를 나가던 소가 다 싣고 다니는 거야.}

10323 # 그래구 지끄르 고, 고바위가 읍짜너. {그리고 지금은 급경사진 데가 없잖아.}

10323 # 다, 그 전부 여그 망 고개 이 말:두 모태게 근데 그게 그때 그래구 왜넌드미 다 그 자갈루 까룽거야. {다, 그 전부 여기 막, 고개 이 말도 못 하게 근데 그게 그때 그러고 왜놈들이 다 그 자갈로 깎 거야.}

10323 # 그래두 소가 그거 끌:구 다: 땡기구 그래쎄, 옌나렌. {그래도 소가 그거 끌고 다 다니고 그랬어, 옛날엔.}

10323 # 그 옹:기 그르뚜 그거 멩길먼 그 마차가 다: 저 한 삼십니꺼정 사십니꺼정 끌구 나가서 그르케 파러 먹꾸 그래. {그 옹기 그릇도 그거 만들먼 그 마차가 다 저 한 삼십 리까지 사십 리까지 끌고 나가서 그렇게 팔아 먹고 그래.}

10323 @ 음. {음.}

10323 # 그르~이~까 제무시가 읍씨~이~까느. {그러니까 제무시가 없으니까.}

10323 # 그래다 인제 고게 또 제무시가 생기는 바라메 팬차너찌. {그러다 이제 그게 또 제무시가 생기는 바람에 팬찮았지.}

10323 # 생겨두 또 그뎌 또 이게 시발리가 아니자너. {생겨도 또 그뎌 또 이게 휘발유가 아니잖아.}

10323 # 까:스루 해자너. {가스로 했잔아.}

10323 # 까:스가 안니라 저 숲, 숲, 참나무 수딤짜누. {가스가 아니라 저 숲, 숲, 참나무 숲있잖아.}

10323 # 그걸 차, 풍무니다 달구다가 그 날로루 다러가주 그걸 피워, 그, 그걸루다가 대~게쎄. {그걸 차 풍무니다 달고서 그 난로를 달아가지고 그걸 피워, 그걸로 다녔어.}

10323 # 수추루다가 그애, 엔, 옛날 운전순 전부 그거야. {숯으로다가 그 옛날 운전수는 전부 그거야.}짓

10323 # 그래더 조수, 조수래능게 이짜너 엔나렌. {그러다 조수라는 게 있잖아 옛날엔.}

10323 # 그릉께 그 사람드 미, 한 사면, 사온연 인제 땡기다가 인제 그때 슈:물 봐:서 운전면허 따구 그래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삼 년, 사오 년 이제 다니다가 이제 그때 시험을 봐서 운전면허를 따고 그랬어.}

10323 # 지금똥 아니야 인제. {지금들은 아니야 이제.}

10323 # 나두 우리 성니미 열:빼널 가쎄, 참 사람 환:장해지. {나도 우리 형님이 열 번을 갔어, 참 사람 환장하지.}

10323 # 열:빼널 가, 열:빼널 다 떠러지능거야. {열 번을 가, 열 번을 다 떨어지는 거야.}

10323 # 이야! {이야!}

10323 # 거지뿌리 아이, 차, 채쭈가 이래 내가 보면. {거짓부렁 아니야, 차, 책 수가 이래, 내가 보면.}

10323 # 킨테 그걸 다 보는데 그래두 안 돼. {근테 그걸 다 보는데 그래도 안 돼.}

10323 @ 음. {음.}

10323 # 지끄면 근냥, 머, 운저, 운전 그, 면하짱 인녕거 보고 나~ 이상해. {지금은 그냥, 뭐 운전 그, 면허장 있는 거 보고 나는 이상해.}

10323 # 우리성언 열:뺨 가따 저:무 다 떠러져쎄. {우리 형은 열 번 갖다 전부 다 떨어졌어.}

10323 @ 음. {음.}

10323 # 기런데. {그런데.}

10323 # 강안도하구 저 아랜역하구 또 달러 그게. {강원도하고 저 아랫녘하고 또 달라 그게.}

10323 # 강안도 쉬:미 쥘:루 어려워. {강원도 시험이 제일 어려워.}

10323 @ 음. {음.}

10323 # 저근 평저니구 여그 사낙찌대 애니야. {저긴 평전이고 여기는 산악지대 아니야.}

10323 # 그래서 여긴 참, 여, 강안도 면하짱 따기 심드러. {그래서 여긴 참, 강원도 면허장 따기 힘들어.}

10323 # 그래두 우뚜게 되긴 똬:넌데. {그래도 어떻게 되긴 똬는데.}

10323 @ 어르신 아까 그 땡감 중에서 이케, 사네 가머는 나무가 주거이쓰면 주군 나무 이이, 여기, 나무 이케 주군 나무 나무 베고 나머지는 그, 베고 난 나머지 이짜나요, 그게 막 썩어 썩짜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 아까 그 땡감 중에서 이렇게, 산에 가면 나무가 죽어 있으면 죽은 나무, 여기, 나무 이케 죽은 나무 나무 베고 나면 그, 베고 난 나머지 있잖아요, 그게 막 썩어 썩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323 # 그걸 머 우리는 머 그냥 썩근 방대라 구래찌 머 그냥 그릉거 배께 몰라. {그걸 뭐 우리는 뭐 그냥 썩은 방대라 그랬지 뭐 그냥 그런 거밖에 몰라.}

10323 @ 나무가... {나무가...}

10323 # 응 글쎄. {응 글쎄.}

10323 @ 베고 나면 썩, 썩짜나요. {베고 나면 썩잖아요.}

10323 # 응, 응. {응, 응.}

10323 @ 그게 썩으면 인제 그걸 이제 이르케... {그게 썩으면 이제그걸 이제 이렇게...}

10323 # 씨굼바리라구래드라구 다릉건 읍씨. {씨굼바리라 그러더라고 다른 건 없어.}

10323 @ 아. {아.}

10323 # 다른 이윤 여능건 읍씨유. {다른 이유는 여느 것은 없어요.}

10323 @ 며, 싹 싹따리 싹... {뫼, 싹다리...}

10323 # 싹따린 인제 그 나무에 달링걸 싹따리라 구래. {싹다리는 이제 그 나무에 달린 걸 싹다리라 그래.}

10323 @ 아, 나무에 달링겨요? {아, 나무에 달린 거요?}

10323 # 개, 나, 나무에 달려서 싹, 그게 이 여푸루 가가주 인제 그게 죽짜너, 그러면 이파리가 읍짜너. {그래, 나무에 달려서 그게 이 옆으로 가서 이제 그게 죽잖아, 그러면 이파리가 없잖아.}

10323 @ 예예. {예예.}

10323 # 그래 그걸 싹따리라구래구. {그래 그걸 싹다리라 그러고.}

10323 # 인제 그건 주루 인제 우리내가 나무꾸니 그건 따다가 인제 올라가서 따가주 그걸 가따가 때:찌 그건. {이제 그건 주로 꾸이제 우리내가 나무꾸이 그건 따다가 이제 올라가서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뺏지 그건.}

10323 @ 아, 싹따리르... {아, 싹다리를...}

10323 # 으~, 싹따리아 그건. {응, 싹다리아 그건.}

10323 @ 그다메 그 베고 난 뿌... {그담에 그 베고 난 뿌리...}

10323 # 따, 따... {따, 따...}

10323 # 따:개라능 그거인녕거는 그걸 그 저 씨 씨굼바리란 나 그거배께 몰라. {따개라는 그거 있는 것은 그걸 그 저 씨굼바리라는 나 그거밖에 몰라.}

10323 @ 아, 씨굼바리. {아, 씨굼바리.}

10323 # 그래 그건 이르므 읍씨. {그래 그건 이름은 없어.}

10323 # 그냥 나무에서 서가주 인녕걸 싹따리라 구래. {그냥 나무에서 서가지고 있는 걸 싹다리라 그래.}

10323 @ 음. {음.}

10323 # 나무가 그래면서 큰다구 싹, 나무가. {나무가 그러면서 큰다고 나무가.}

10323 # 나무가 저절루 미테서버텀 이빠리가 퍼서 사무 올라가능게 아니야, 클쭈룩 먼저 달링겨 인제 죽게 돼 이씨. {나무가 저절로 밑에서부터 이파리가 피어서 사뭇 올라 가는 게 아니야, 클쭈룩 먼저 달린 거 이제 죽게 돼 있어.}

10323 @ 음. {음.}

10323 # 그르, 그래머 대:개 크능게야, 그르글 그 싹따리라구래지. {그러면 대개 크는 거야, 그런 걸 그 싹다리라 그러지.}

10323 @ 아. {아.}

10325 @ 겨울되면 겨우레 멩능거뜨리 이짜나, 겨우레 며, 멩능게 주로, 어뜬? {겨울되면 겨울에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겨울에 먹는 게 주로, 어뜬?}

10325 # 벼, 지, 지베서? {집에서?}

10325 @ 예, 지베서 멩능걸. {예, 집에서 먹는 것.}

10325 # 아이, 엔나레 뭐가 이씨, 지베서 멩능게? {아니, 옛날에 뭐가 있어, 집에서 먹는 게?}

10325 @ 이르케 며, 나뫼따가 이케 멩능거 이짜나, 이르케 재:배해따가? {이렇게 뭐, 뫼뫼다가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재배했다가?}

10325 # 읍:씨, 머물께 저저 그때 내가 아까 내 저, 무, 무 무드거 무: 그거 그냐~ 끄내다 먹꾸. {없어, 먹을 게 저저그때 내가 아까 내 저, 무 묻은 거 무 그거 그냥 꺼내다가 먹고.}

10325 @ 무:?: {무?}

10325 # 그래, 무:. {그래, 무.}

10325 @ 그걸 인제 미테 이래 땅에 무더놔따가요? {그걸 이제 밑에 이래 땅에 묻어 놔다가요?}

10325 # 그래, 그거 먹찌 뭐 이써, 그래구 인제. {그래, 그거 먹지 뭐 있어, 그러고 이제.}

10325 # 감자, 머 인제 고구마, 인제 주로 인제 그거 화리뿌레 구워멍녕거 그거지. {감자, 뭐 인제 고구마, 이제 주로 이제 그거 화룻불에 구워 먹는 거 그거지.}

10325 @ 아, 그다메, 그거 말고 또 옥...? {아, 그답에, 그거 말고 또 옥...?}

10325 # 옥수수? {옥수수?}

10325 @ 예. {예.}

10325 # 옥썬수는 푸를제나 먹찌, 그건. {옥수수는 푸를 적에나 먹지, 그건.}

10325 @ 예. {예.}

10325 # 퍼럴제나 인제 그걸 구워먹찌. {퍼럴 적에나 이제그걸 구워 먹지.}

10325 # 그런데 인제 여문다른 모, 몽가, 그건 쌀무, 머, 몸먹찌. {그런데 이제 여문 다음은 못, 그건, 삶아야[도?] 먹지, 못 먹지.}

10325 # 그 인제 그런데 그거 인제 가러가주 그건또 인제 음식그루 인제 때 이능건 가러가주구 다가 이 매토리랑게 이짜너 왜, 매흘, 도:를 왜. {그 잇 그런데 그거 이제 갈아가지고 그건 또 이제 음식으로 이제 때 잇는 건 갈아가지고서 이 맷돌이란 게 있잖아, 왜, 맷돌, 돌을 왜.}

10325 # 거기다 가러가주 인제 그걸 썬:면 인제. {거기다 갈아가지고 이제 그걸 썬면 이제.}

10325 # 목뽀니께 인제 버머기 되믄 가따 놀루면 그게, 구수처럼 나와 그래, 오채국씨 지끔 그 래자누 왜. {목 되니까 이제 범벅이 되면 갖다 누르면 그게, 국수처럼 나와 그래, 올챙이국수 지끔 그러잖아 왜.}

10325 # 그건 바, 바가지... {그건 바가지...}

10325 @ 무슨 국씨요? {무슨 국수요?}

10325 # 구녕얼 뿔버서 고루 깝, 꼭뽀기다 인제 거그다 거그다 꾸놀러서 국씨 놀루드시 이르거 나오자너. {구멍을 뚫어서 고루 꼭대기에다 이제 거기다가 꼭 눌러서 국수 누르듯이 이렇게 나오잖아.}

10325 @ 예, 국씨가. {예, 국수가.}

10325 # 그런데 올채 무기라구래자너 그걸, 그근데... {그런데 올챙이목이라 그러잖아 그걸, 그근 데.}

10325 @ 올? {올?}

10325 # 올채~이~. {올챙이.}

10325 @ 예. {예.}

10325 # 웬, 깨구리 되능게 올채~이~라 구래자너. {왜, 깨구리 되는 게 올챙이라 그러잖아.}

10325 # 그거처럼 생겨찌 그게. {그거처럼 생겼지 그게.}

10325 # 구녕얼 이르게 뿔러씨니깐 크니깐 고게 고게 속싸라 툽 떠러짐 올채~처럼 고게 나와 여. {구멍을 이렇게 뚫었으니까 크니까 그게 그게 속 싸이 툽 떨어지면 올챙이처럼 그게 나와요.}

10325 # 그래서 그걸 올채무기라구래. {그래서 그걸 올챙이목이라 그래.}

10325 # 기렌데 지끄머 인제 그걸 안 해구 또 시양철루 국씨처럼 가느달게 내놓게 구녕얼 뿔러 서 놀루니깐 그건 지따라케 지그면 나오능게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하고 또 생철(?)로 국수처럼 가느다랑게 나오는 것이, 구멍을 뚫어서 누르니까 그건 길다랑게 지금은 나오는 거야.}

10325 # 옛날엔 전부 지비서 그저 바가지를 바가지, 그걸 시머가주 인제 그게, 우, 주루 그래. {옛날엔 전부 집에서 그저 바가지를 바가지, 그걸 심어가지고 이제 그게, 주로 그래.}

10325 # 사람한테 그게 최:고 조용거야 지끔. {사람한테 그게 최고 좋은 거야 지끔.}

10325 # 이 나일롱꺼슨 사람한테 조치 아너. {이 나일론 것은 사람한테 좋지 않아.}

10325 # 바가지가 최고 조아, 사람한테넌. {바가지가 최고 좋아, 사람한테는.}

10325 # 그림. {그림.}

10325 @ 음. {음.}

10325 # 그래 그 인제 그놈을 툄렁거 거그다 인제 그거 꼭씨걸 주걸 끄레가주 누꾸다가 꼭때게서 쾡눌루머 그 인테. {그래 그 이제 그놈을 툄은 거 거기다 이제 그거 꼭씨를 죽을 꿏여가지고 늘게 하다가 꼭대기에서 꼭 누르면 그 이제.}

10325 # 그 미테 인제 무리 있~이~가, 찬무리나. {그 밑에 이제 물이 있어서, 찬 물이나.}

10325 # 그래구 곧밧. {그러고 그 밧.}

10325 # 구녕이 크니꺼너 툄 소리가 올채이다 툄 떠러진다구, 그래더 그걸 올채 무기라구래지. {구멍이 크니까 툄 소리가 올챙이처럼 툄 떨어진다구, 그래서 그걸 올챙이목이라 그러지.}

10325 # 인나렌 주루 인제 그게 지금두 여그 마:나유, 인제. {옛날엔 주로 이제 그게 지금도 여기 많아요, 이제.}

10325 # 거 사머거보진 모태니까. {그 사 먹어 보진 못 하나까.}

10325 @ 사머거 봐씨요. {사 먹어 봤어요.}

10325 # 머, 여근 또 올채두 더러 안해, 지끄른 야가서 그게 생쫄루 툄러가주. {뉘, 여근 또 올챙이도 더러 안 해, 지금은 약아서 그게 생철(?)로 툄어가지고.}

10325 @ 지끄른 쪽:: 이케 빠지는데 엔나레는 올채~이~처럼... {지금은 쪽 이렇게 빠지는데 옛날에는 올챙이처럼...}

10325 # 그래 그래 툄 떠러지지 그래더 올채무기라구래 권테. {그래 그래 툄 떨어지지 그래서 올챙이목이라 그래 그런테.}

10325 @ 음. {음.}

10325 # 근테 머 이케 지금두 그래 이케 지금 우리가 여그서 시머서 나오능거 옥씨기르 가따 해문 고수해. {근테 뉘 이케 지금도 그래 이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심어서 나오는 거 옥수수를 가져다 하면 고소해.}

10325 # 권테 이건 무근 옥씨기가 수출해다 해오는 옥씨기야 지금 여기 뉘나오능게. {근테 이건 목은 옥수수가 수출해서 해 오는 옥수수야 지금 여기 목 나오는 게.}

10325 # 우리 지금 해는 옥씨기르 가따 늘루머 노라치를 아너. {우리 지금 하는 옥수수를 갖다 누르면 노랑지를 앓아.}

10325 # 노라치 안, 지금 옥씨기 노라케 나오자누, 그케 옥씨기 월래가 채가 그거 노:래요, 옥씨기 아리. {노랑지 안, 지금 옥수수 노랑게 나오잖아, 그케 옥수수 원래가 채가 그거 노래요, 옥수수 알이.}

10325 # 수익꺼야, 거 외국꺼야. {수입 거야, 거 수입 거야.}

10325 # 그래서 마시 읍짜너, 냄새가 안나자너여. {그래서 맛이 없잖아, 냄새가 안 나잖아요.}

10325 # 여기 옥씨기루 지금 햄 늘러머거야 고수해지. {여기 옥수수로 지금 하면 늘러 먹어야 고소하지.}

10325 # 그거 되게 가러가주구 그거 해먹씨, [2초] 칩. {그케 되게 갈아가지고 그거 해 먹지, 칩.}

10325 # 치기 입싸구 크자너. {칩이 앞사귀 크잖아.}

10325 @ 예예. {예예.}

10325 # 되게 그걸 가러가주구 거그다 이르게 한수갈씩 떠 너:. {되게 그걸 갈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한 손갈씩 떠 넣어.}

10325 # 떠가주 이르게 탁 썸부머 머야, 맨들, 그시기야. {떠가지고 이렇게 탁 접으면 뉘야, 만든, 그 식이야.}

10325 # 그래머 그걸 쟁거리에다 가따 지버너쿠 썸, 그르케 해서. {그러면 그걸 쟁거리에다 갖다 집어넣고 썸, 그렇게 했어.}

10325 @ 어디에 썸다고요? {어디에 썸다고요?}

10325 # 솔뚜쟁걸로쿠 인제 거그다가 깔구다가 그걸 체, 그걸 치깁싸구에다가 그걸. {솔도 쟁거리를 놓고 이제 거기다가 깔고 그걸 툴잇사귀에다가 그걸.}

10325 @ 아 소테다가요? {아, 솔에다가요?}

10325 # 그래 그거 쟁 거그다 쟁걸로쿠 인제 그걸 옥씨기르 되게 가러가주구, 썸가주구. {그래 그거 쟁, 거기다 쟁거리를 놓고 이제 그걸 옥수수를 되게 갈아가지고, 썸가지고.}

10325 # 그건 그냥 가러 되게 해기만 해, 올채묵하구는 다르지. {그건 그냥 갈아, 되게 하기만 해, 올챙이묵하고는 다르지.}

10325 # 올채무근 썸:서 그게 걸러나오능게구. {올챙이묵은 썸:서 그게 걸러 나오는 거고.}

10325 # 옥씨기 떠진 그냥 그 되:게 가러가주구, 눈게 해:면 안되지. {옥수수 떡은 그냥 그 되게 갈아가지고, 눈게 하면 안 되지.}

10325 # 그래가주 그걸 칠게 한수까릭 떠서 칠게다 요러크 다머가주 착 저버서 거 쟁거리에다가 따 쪽 까라. {그래가지고 그걸 툴에 한 손가락씩 떠서 툴에다 요렇게 담아가지고 착 접어서 그 쟁거리에다 갖다 쪽 갈아.}

10325 # 그래가주구다 소딩꾸에 또 고평 썸머년 이 야중에 인제 다이근 다음 여러면 그래 칙 그게 칙건 아주 다 이게 되지. {그래가지고 솔 엮구 또 거기다 썸면 이 나중에 이제 다 익은 다음 여러면 그래 툴 그게 툴은 아주 다 이게 되지.}

10325 @ 쟁, 쟁이 머예요, 쟁? {쟁, 쟁이 뭐예요, 쟁?}

10325 # 꺾:리능거이, [1초] 공가니 뛰어난대능게 쟁거리지. {쟁거리라는 것이, 공간이 띄운다는게 쟁거리지.}

10325 # 이르케 소테다 놀램, 무리 안 다께. {이렇게 솔에다 놓으려면, 물이 안 닿게.}

10325 @ 쟁거리요? {쟁거리요?}

10325 # 그래, 그걸 쟁거리라구래지. {그래, 그걸 쟁거리라 그러지.}

10325 # 솔, 무래 안다께 해니까는. {솔, 물에 안 닿게 하니까.}

10325 # 이르케 여기서 무리 인는데 여 무래다 이르케 노면 안, 다 다:니깐 이르케 이게 띄워서 농걸 쟁거리라구래지. {이렇게 여기서 물이 있는데 여 물에다 이렇게 놓으면 닿으니까 이렇게 이게 띄어서 놓은 걸 쟁거리라 그러지.}

10325 @ 아, 쟁거리요? {아, 쟁거리요?}

10325 # 으~. {응.}

10325 # 그래 그건 엔나렌 뭘, 그저 막 그거 나무래두 까껴서 인제 그르케 고, 무를 부꾸 거기 아놀라 오게끔 그르 쟁거릴 놔. {그래 그건 옛날엔 뭘, 그저 막 그거 나무라도 깎아서 이제 그렇게 그, 물을 붓고 거기 안 올라 오게끔 그래 쟁거리를 놔.}

10325 # 그래 인제 그게 수, 수, 부를 때면 꼬르먼 그 무리 그 음:시게 안 다께끔 맹길게 땡게. {그래 이제 그게 숯, 숯, 불을 때면 끓으면 그 물이 그 음식에 안 닿게끔 만들게 된 게.}

10325 # 그르케 짐:무루다가 인제... {그렇게 김:로다가 이제...}

10325 @ 아, 지:무로 하께끔. {아, 김:로 하께끔.}

10325 # 지:무루다 올려서 인제 맹기능거. {김:로 올려서 이제 만드는 거.}

10325 @ 그게 쟁거리라고 해요? {그게 쟁거리라고 해요?}

10325 # 그럼, 쟁거리라구래 그건. {그럼, 쟁거리라 그래 그건.}

10325 @ 아, 참 재밌는 마리네요, 쟁거리. {아, 참 재밌는 말이네요, 쟁거리.}

10325 # 그르케 머어썸, 그래서 그게 고수해유, 그래 옥씨기도. {그렇게 먹었지, 그래서 그게 고

소해요, 그래 옥수수도.)

10325 # 그게 아주 그래며 아주 고수해다구. {그게 아주 그러면 아주 고소하다고.}

10325 #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능건 하나두 못머겨.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하나도 못 먹어.}

10325 # 건 외국꺼야, 옥씨가 지금 멍넝건 여, 우리나라서 멍느 옥씨가 안니예유. {그건 외국 거야, 옥수수가 지금 먹는 건 여기, 우리나라서 먹는 옥수수가 아니예요.}

10325 # 우리나라 옥씨기루 지금 해보우. {우리나라 옥수수로 지금 해 보오.}

10325 # 그거 마시 이찌. {그거 맛이 있지.}

10325 # 국썬 그르케 해 머어. {국수는 그렇게 해 먹어.}

10325 # 올챙이 국씨 해면. {올챙이 국수 하면.}

10325 # 머글만 해지. {먹을만 하지.}

10325 # 마시 별로... {맛이 별로...}

10325 @ 마시 업뜨라고요, 올챙이 국씨가. {맛이 없더라고요, 올챙이 국수가.}

10325 # 나두 그래, 나두 안머겨유 그거느. {나도 그래, 나도 안 먹어요, 그것은.}

10325 # 싸군 싸니까 뭐, 지금 그거뚜 이치뉘니야. {싸긴 싸니까 뭐, 지금 그것도 이천 원이야.}

10325 @ 음, 싸기는 싸죠. {음, 싸긴 싸죠.}

10325 # 그르데두 안, 머때가리 하나두, 나 그래 안 사머겨... {그런데도 안, 멋대가리 하나도, 나 그래 안 사 먹어.}

10325 # 또 금방 내려가 그거. {또 금방 내려가 그거.}

10325 # 그거 한, 점프사라면 안머겨. {그거 한, 젊은 사람은 안 먹어.}

10325 # 일해는 사라머 안머겨. {일하는 사람은 안 먹어.}

10325 # 금방 내려간다구. {금방 내려간다고.}

10326 @ 어르신 저기, 옌나레는 바메 바미 되며는 뭐로 불, 불, 부를 발켜써요? {어르신 저기, 옛날에는 밤에 밤이 되면 뭐로 불, 불을 밝혔어요?}

10326 @ 아주, 옌나레는? {아주, 옛날에는?}

10326 # 지르미지 머, 지름. {기름이지 뭐, 기름.}

10326 @ 예. {예.}

10326 # 그게 돛박찌르미 그거야 다 그릉게 아니, 옌나렌. {그게 동백기름이 그거야 다 그런 게 아니, 옛날엔.}

10326 # 지르미야, 지름무르, 그르~이~간. {기름이야, 기름으로, 그러니까.}

10326 @ 그... {그...}

10326 # 그르이까... {그러니까...}

10326 @ 그거바께 업쩍나요, 동...? {그거밖에 없었나요, 동...?}

10326 # 그거야 그거인데 그거 지르멀 인자 그걸 접씨다 그 무털 분눈다구, 지르멀. {그거야 그거있는데 그거 기름을 이제 그걸 접씨에다 그 물을 붓는다고, 기름을.}

10326 # 그래머 인제 그 심지래능게 이씨, 심지는... {그러면 이제 그 심지라는 게 있어, 심지는...}

10326 @ 그건 어떤 지르를 마니 써써요? {그건 어떤 기름을 많이 썼어요?}

10326 # 동박찌르른 인제 그래가 피마주찌름, 아주 지름 쪼그미나 다 드러가능게 인제, 불, 불만 부트면. {동백기름은 이제 그래서 피마자기름, 아주 기름 조금이나 다 들어가는 게 이제, 불만 불 으면.}

10326 @ 아, 동박찌르미나 그, 그 아까... {아, 동백기름이나 그, 그 아까...}

10326 # 피마주찌름, 뭐. {피마자기름, 뭐.}

10326 @ 피마주찌름. {피마자기름.}

10326 # 그림. {그림.}

10326 @ 아. {아.}

10326 # 다 그거 다 이... {다 그거 다 이...}

10326 # 지름므 종유넌 다드러가유. {기름의 종류는 다 들어가요.}

10326 # 그런데 그게 부리 분녕건 다드러가지, 옌나렌. {그런데 그게 불이 붙는 건 다 들어가지, 옛날엔.}

10326 # 그래가주 심지에다 고걸 해머 그 심지가 고저 머 그 지르미 지버머그니깐 접씨에다가 인제 이러케 노면 인제 요리케 저저유 꺾, \*\*\*데 쪼끄 요리케 나오게 해서 요그다 대레면 부리 부찌 머. {그래가지고 심지에다 그걸 하면, 그 심지가 거기, 뭐, 그 기름이 집어 먹으니까 접시에 다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요렇게 젖어, 꺾, \*\*\* 데에 조금 요렇게 나오게 해서 요기에다 \*\*\* 불이 붙지 뭐.}

10326 # 그래 인제 그게 초하구 또까튼 시기야, 초하구. {그래 이제 그게 초하고 똑같은 식이야, 초하고.}

10326 @ 아, 예, 고런, 고령거를 머라 그래썬요? {아, 예, 그런, 그런 것을 뭐라 그랬어요?}

10326 # 초, 초뿌리라구래썬, 그래두 그래지 그걸. {초, 촛불이라 그랬어, 그렇게 그러지, 그걸.}

10326 # 저, 접씨가 아니지, 접씨뿌리, 그걸 아이, 머라구러더라. {저, 접시가 아니지, 접시 불이, 그걸 아니, 뭐라 그러더라.}

10326 # 접, 그 접씨빨배께 더 인나 난 그 이르문 몰르겐는데. {접, 그 접시 불밖에 더 있나 난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10326 @ 그럼 그거 말고 인제 쪼끔 지나서 인제 요르케 요리, 요런데다가 멀 다마서 이르케 하는 불...? {그럼 그거 말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요렇게 요령, 요런 데다가 멀 담아서 이렇게 하는 불...?}

10326 # 어, 등잔. {어, 등잔.}

10326 # 그건 등자니지. {그건 등잔이지.}

10326 # 그거는 그건 서귀가 이짜너 서귀. {그거는 그건 석유가 있잖아 석유.}

10326 # 그릉까 인제 그게 읍:짜 이거 서귀가 나옉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자마자 이거 석유가 나온 거지.}

10326 # 그릉간 그 접씨에 해던 부리 읍썬지구 서귀가 나온후에 인제 그게 등, 등자니 생긴거지. {그러니까 그 접씨에 하던 불이 없어지고 석유가 나온 후에 이제 그게 등잔이 생긴 거지.}

10326 @ 아, 서? {아, 서?}

10326 # 등잔, 서귀등잔. {등잔, 서귀등잔.}

10326 @ 서귀? {서귀?}

10326 # 그래 지금 지름 이짜너 지름 그거. {그래 지금 기름 있잖아 기름 그거.}

10326 # 그래다 그걸 등, 등자니라 고르게 또 맹길자너 사람드리 고걸 아주. {그러다 그걸 등잔이라 그렇게 또 만들잖아 사람들이 그걸 아주.}

10326 # 이뿌게. {예쁘게.}

10326 @ 예예예. {예예예.}

10326 # 꼬대\* 이르케 그 인제 고기다 심지르 해다바거노쿠 인제 고 미튼 쫘 크니까 거기다 그 지르물 부:머너 인제 그 심지가 빠러올리능거지. {\*\*\* 이렇게 그 이제 거기다 심지를 해서 박아놓고 이제 그 밑은 쫘 크니까 그 기름을 이제 그 심지가 빨아 올리는 거지.}

10326 @ 그머 옰나레는 옰::나레는 고령거 말고 이렇거도 이써씨요? {그럼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런 거 말고 이런 거도 있었어요?}

10326 @ 이케 길:게 이 긴 모양으로 요러케 요러케 들고 다니는 그령거 이써짜나요? {이렇게 길게 이 긴 모양으로 요렇게 요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10326 # 포, 어~. {포, 어.}

10326 # 그거 이찌 남포. {그거 있지 남포.}

10326 @ 아. {아.}

10326 # 남포등. {남포등.}

10326 # 남포라구래지 머. {남포라 그러지 뭐.}

10326 @ 그릉길, 그릉거 보셔씨요? {그런 것, 그런 거 보셨어요?}

10326 # 아이, 보나 우리엄마 그걸루 사멸 사머찌, \*\*날 우리 그거 어무니 도라가실때꺼정 그케 이썸는데. {아니, 보나 우리 엄마 그걸로 삼을 삼았지, \*\*날 우리 그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케 있었는데.}

10326 # 그르이까 증:기가 안드로니까는, 그때.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때.}

10326 # 어물찌게두 그걸루 전부 그거 한::, 한 이십등 사다가 전::부 인제 그 지름 뉘:서 서귀 뉘가주구 키구래찌. {\*\*\*에도 그걸로 전부 그거, 한 이십등 사다가 전부 이제 그 기름 넣어서 석유 넣어가지고 켜고 그랬지.}

10326 @ 그다메 이제 여기는 인는지 모르케더, 옰나레는 옰날집 요르케 이썸, 벼게다가 진:호글 요러::게.

10326 # 고. {고.}

10326 # 고쿠리라구래덜 그걸. {고콜이라 그러더라 그걸.}

10326 @ 하하하. {하하하.}

10326 # 고쿨. {고쿨.}

10326 @ 예예. {예예.}

10326 # 그건 옰나렌 다, 그래~이간 이게 지르미야, 그케 마래자면. {그건 옛날엔 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야, 그케 말하자면.}

10326 # 지르미 읍썰제는 그르케능거지 사람더리. {기름이 없을 제는 그렇게 해 놓은 거지 사람들.}

10326 # 지르미 읍썰제년 부를 발케야 되니간 그게더 바람짜에다 고. {기름이 없을 제는 불을 밝혀야 되니까 거기에 바람 쪽에다 그.}

10326 # 근데 그케 방더 뜨드데. {근데 그케 방도 뜨뜻해.}

10326 @ 어디에다 한다고요? {어디에다 한다고요?}

10326 # 바람쪼게다 해자너. {바람쪽에다 하잖아.}

10326 @ 바람. {바람.}

10326 # 여기 이 여기. {여기 이 여기.}

10326 # 바람짜게다 해는데. {바람쪽에다 하는데.}

10326 # 그 방에다 이르케 툄러 이걸 툄루구 헨다 구래 바까테다 인제 그걸 멍기러 이 툄구러케 지::따라케 인제 거그 바까테다 그걸 부친다구. {그 방에다 이렇게 툄어 이걸 툄고 한다 그래 바깥에다 이제 그걸 만들어 이 등그렁지 길다랑게 이제 거기 바깥에다 그걸 붙인다고.}

10326 # 그 여기다가 이 바람짜게다 여기서 인제 그 미테다 돌가튼 녁찌캉거 이르케 대:가주구

다 부쳐. {그 여기다가 이 바람쪽에다 여기서 이제 그 밑에다 돌같은 넘직한 거 이렇게 대가지고 붙여.}

10326 # 그러면제 저:짜아 인제 한:테니까 인제 불 굴뚜나가더시 그르케 나가게 돼이씨. {그러면 이제 저쪽에 이제 한 테니까 이제 불 굴뚜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

10326 # 그래서 그그 방이 뜨드태유,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 방이 뜨뜻해요, 내가 해 보니까.}

10326 # 그르~이~까 인제 그래가주인제 사람다리 그거, 그걸루 다 질싸멀 짜구 다 엔나렌 그르케 해 머겨씨 그 불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거, 그거로 다 길쌈을 짜고 다 옛날엔 그렇게 해 먹었어 그 불로.}

10326 # 초뿌리랑게 이썸, 야중, 그뎨 초뿌리면 이 이 증:기 그시기야. {쫓불이라는 게 있으면, 나중, 그뎨 쫓불이면 이 전기 그 식이야.}

10326 # 등, 등잔뿌리 뭐가 발기유, 생가글 해보오. {등잔불이 뭐 밝아요, 생각을 해 보오.}

10326 # 거그서두 그거 노인, 옛날 노인네덜 그게 다 질싸멀 해서 파러멍게 그거야. {거기서도 그거 노인, 옛날 노인네들 그게 다 길쌈을 해서 팔아 먹는 게 그거야.}

10326 # 오태임녕게 짜구해능게. {옷 해 입는 것이, 짜고 하는 것이.}

10326 # 증기가트머 예::, 뭐, 하하. {전기 같으면 예이, 뭐, 하하.}

10326 # 그르케 옛날 사람덜 불쌍해요. {그렇게 옛날 사람들 불쌍해요.}

10326 #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10326 # 그른데서 사라씨니 머. {그런 데서 살았으니 뭐.}

10326 # 제대루 머, 먹기나 해나, 임녕걸 제대루 입나. {제대로 뭐, 먹기나 하나, 입는 걸 제대로 입나.}

10326 # 흘버꾸 참마로. {혈벗고 참마로.}

10326 @ 음. {음.}

###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28 # 소녀 쾩, 쇠물 명녕겨, 그건 나 나무루 돼. {소는 구유, 쇠죽물 먹는 거, 그건 나무로 돼.}

10328 @ 소 머요, 쇠? {소 뭐요, 쇠?}

10328 # 쾩. {구유.}

10328 @ 예? {예?}

10328 # 소, 소. {소.}

10328 # 소 명녕건 이, 가따주능겨 쾩, 쾩이라 그래, 그거. {소 먹는 건 이, 갖다 주는 거, 구유, 구유라 그래, 그거.}

10328 @ 예, 쾩? {예, 구유?}

10328 # 응. {응.}

10328 # 그건 나무를 파가주구 해능겨야. {그건 나무를 파 가지고 하는 거야.}

10328 @ 고 마를 한번 천쳐니... {그 말을 한번 천천히...}

10328 # 통나무를 가따가. {통나무를 갖다가.}

10328 @ 천쳐니 한번. {천천히 한번.}

10328 # 쾩. {구유.}

10328 @ 아, 썩. {구유.}

10328 # 그걸 고 가무텔 파가주구 그래가주구다 그걸. {그걸 그 가운데를 파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10328 # 엔나렌 제 그래가주 소를 거기다가 여무럴 다 주능거지. {옛날엔 이제 그래가지고 소를 거기다가 여물을 다 주는 거지.}

10328 @ 아, 어떤 통? {아, 어떤 통?}

10328 # 나물루 판대니까 나물루 그거. {나무를 판대니까 나무를 그거.}

10328 @ 아 나무를 파세요. {아 나무를 파세요.}

10328 # 저래 큰:: 나물 비다가 머 마래잠 일곱짜든지 여덟짜 지래기루. {저래 큰 나무를 베다가 뭐 말하자면 일곱 자든지 여덟 자 길이로.}

10328 # 이 이렇걸 그래서 그걸 그 소걸 다 파내지제. {이 이런 걸 그래서 그걸 그 속을 다 파내서 이제.}

10328 # 알께 아주 다 파내 알께. {얕게 아주 다 파내 얕게.}

10328 # 그래가 그걸 걸머 인제 그래믄 인제 소루 가따 드려 두:마리 세마리 거다 매지. {그래서 그걸 걸면 이제 그러면 이제 소로 갖다 들어 두 마리 세 마리 거기다 매지.}

10328 # 그제 인제 크, 널부니까. {그제 이제, 넓으니까.}

10328 # 그래서 거기다 여무러 거기다 가따 인제 물하구 다... {그래서 거기다 여물을 거기다 갖다 이제 물하고 다...}

10328 # 엔나렌제 나무 또 그르케 해서, 썩 지구. {옛날엔 이제 나무 또 그렇게 해서, 구유 짓고.}

10328 @ 음. {음.}

10328 @ 귀옹이라고 합니까? {귀옹이라고 합니까?}

10328 # 어? {응?}

10328 @ 귀옹? {귀옹?}

10328 # 아, 썩이라구래지 그냥 그걸. {아, 썩이라 그러지 그냥 그걸.}

10328 @ 아, 썩. {아, 썩.}

10328 # 어, 그럼. {어, 그럼.}

10328 # 엔나레 인제 전부 그르켄데 지끄믄 머. {옛날에 이제 전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10328 # 또 도라무짱두 나오구 머 벨게 다 나오는데. {또 드림통도 나오고 뭐 별 게 다 나오는데.}

10328 # 머 지끄믄 또 야개루 썩, 지끄믄 그 지끔 그래 거. {뭐 지금은 또 양희로 줌, 지금은 그 지금 그래 그.}

10328 # 또 양애루만 그냥 그클 멩그러 해구 지끄믄 그래. {또 양희로만 그냥 그렇게 만들어 하고 지금은 그래.}

10328 @ 양, 양은? {양, 양은?}

10328 # 세면. {시멘트.}

10328 # 세머누루다가 바거가주구다... {시멘트로 박아가지고...}

10328 @ 아, 세면 세면, 아 예. {아, 시멘트, 아 예.}

10328 # 그냥 지끄믄 또 그르케 메겨, 지끄믄 전부. {그냥 지금은 또 그렇게 먹여, 지금은 전부.}

10328 @ 세면으로요? {시멘트로요?}

10328 # 그저 썩은 또 이 소가 또 뜯능게 이썩, 소가. {그저 구유는 또 이 소가 또 뜯는 게 있

어, 소가.}

10328 # 그 나물 깨무러 멧는 소가 이썸. {그 나무를 깨물어 먹는 소가 있어.}

10328 # 그래서 썩얼 가 우똥건 다 깨무, 뜨 뜨 뜨터 논는다구 아주 그거. {그래서 구유를 가지고 어떤 건 다 뜯어 놓는다고 아주 그거.}

10328 @ 아, 고걸 아까 썩이라고, 귀영이라고 하나요? {아, 그걸 아까 썩이라고, 귀영이라고 하나요?}

10328 # 귀영이 아니 썩이야, 썩. {귀영이 아니 썩이야, 썩.}

10328 @ 귀용. {귀용.}

10328 # 으 그거 그걸 판대능게 썩이야 그제. {응, 그거 그걸 판다는 게 썩이야 그제.}

10328 # 그거 나무, 옛날엔 그걸 나무 파가지구 거그다 썩썩가 썩이라구래지. {그거 나무, 옛날엔 그걸 나무 파가지고 거기다가 썩으니까 구유라 그러지.}

10328 @ 귀용요? {귀용요?}

10328 # 그림. {그림.}

10328 @ 귀용, 귀용. {귀용, 귀용.}

10328 # 그르~이~까 지끄른 인제 시대가 바끼니까 머 도라무짱두 이꾸 머, 도라무짱 반쪽으면 그 썩이 되자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끼니까 뭐 드림통도 있고 뭐, 드림통 반쪽이며 그 구유가 되잖아.}

10328 # 또 세머느 부루꾸 딱딱 싸니까 다 썩이 되구. {또 시멘트로 벽돌 딱딱 싸니까 다 썩이 되고.}

[기침]

10328 # 그르~이~까 인날꺼가 다 읍썩지능거야, 대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10328 # 옛날썩땡게 인제 대:개 읍썩지능거지. {옛날 쓰던 게 이제 대개 없어지는 거지.}

10328 # 썩이야 그거, 머 다릉건 읍:썩. {구유야, 그거, 뭐 다른 건 없어.}

10328 # 다 그르이까 다 시대가 바끼니깐대 대:구 인제 발찌니 되구 대:구 그래~까 그래치 머, 다. {다 그러니까 다 시대가 바끼니까 대구 이제 발전이 되고 대구 그러니까 그렇지 뭐, 다.}

10328 # 인제 발따리 되구 다:: 그래니깐. {이제 발달이 되고 다 그러니까.}

10328 # 다 옛날건 다 부시부실해구 다 그래. {다 옛날 건 다 부실부실하고 다 그래.}

10328 @ 읍. {읍.}

10328 # 또. {또.}

10328 @ 드, 드시고 썩. {드시고 썩.}

10328 # 어. {응.}

10327 @ 어르신 여기 인제 옛날레 마으레 인제 마을 사람드리 마니 모여 사라짜나요. {어르신 여기 이제 옛날에 마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잖아요.}

10327 @ 머 여러가지 공동체 생활하고 인는데 이제 소도 마니 메겨썩 꺼고. {뭐 여러가지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소도 많이 먹였을 거고.}

10327 @ 근데 옛날레는 소를 어트케, 쇠를 어트케 길러썩요? {근데 옛날에는 소를 어떻게, 소를 어떻게 길렀어요?}

10327 # 그래~이~까 인제 노, 노년 사람 베짖, 해구 그래구 또. {그러니까 이제 노는 사람 벗짚, 하고 그러고 또.}

10327 # 올나렌 이 저 인제 치윳따래, 가서 푸럴 비어요. {옛날엔 이 저 이제 칠월달에, 가서 풀을 베요.}

10327 @ 예예. {예예.}

10327 # 그뎨 키가 크지, 그릉까 그게 인제 그걸 벼:서 거그다 이르게 무꺼서 세워 쪽. {그뎨 키가 크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벼서 거기다 이렇게 묶어서 세워 쪽.}

10327 # 뭉태기, 뭉태기. {뭉태기.}

10327 # 그래 인제 그래따 인제 갈:게 다 농사 다 디레노쿠 인제 그걸가 저다가 그걸 마구까네다 까러써. {그래 이제 그랬다가 이제 가을에 다 농사 다 들여 놓고 이제 그걸가지고 저다가 그걸 마구간에다 깔았어.}

10327 # 그래~간 [2초] 베 나넣거른 소를 모꼴러, 마구까널 모:까러 뜨드태게 해줄래면. {그러니까 벼 나는 걸로는 소를 못 길러, 마구간을 못 깔아, 뜨뜻하게 해 주려면.}

10327 # 지끄면 이 바양까니 망:쿠 그래니간 인제 그래지. {지금은 이 방앗간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10327 # 올나렌 인제 그걸. {옛날엔 이제 그걸.}

10327 # 그래구 인제 벼:는데 북대기, 거:서 나오능거 하구 그래서 인제 그걸 가따가 주면 인제 소두 먹꾸. {그러고 이제 벼 떠는 데 북대기, 거기서 나오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주면 이제 소도 먹고.}

10327 @ 음. {음.}

10327 # 나, 그, 그거 쥐저푸리라구래, 쥐저리래, 쥐저리푸리라구래드라구 올나레, 응. {나, 그거 주전부리라 그래, 주전부리, 주저리풀이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응.}

10327 # 근데 그거뚜 인년 사래미나 해지 또 음:년 사람 또 그거뚜 모태. {근데 그것도 있는 사람이나 하지 또 없는 사람 또 그것도 못 해.}

10327 # 그 사네서 벼서 그르케 뭉껴다 이르게 해노면 그게 거그서 말른다구. {그 산에서 벼서 그렇게 묶어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거기서 마른다고.}

10327 # 그래머 그걸 저다가 지베서 가려 노쿠. {그러면 그걸 저다가 집에서 가려 놓고.}

10327 # 아이, 이저버려. {아이구, 잊어버렸네.}

10327 # 겨울게면제 술, 인제 내:다보면 인제 신시만데 거 한단씨그 가다 소 머그라구주구 이제 그거야. {겨울에 이제 소를, 이제 내다보면 잇 심심한데 거 한 단씩을 가져다 소 먹으라고 주고 이제 그거야.}

10327 @ 음. {음.}

10327 # 그겐데 그거 음년사라면 그냥 소 [2초] 그냥 그 그거 먹꾸인제 사우 올나렌 그래씨 머. {그건데 그거 없는 사람은 그냥 소 그냥 그거 먹고 이제 사뭇 옛날엔 그랬지 뭐.}

10327 # 소두 머 크게 머글께 머 인나. {소도 뭐 크게 먹을 게 뭐 있나.}

10327 # 사람두 몬머글파닌데 머. {사람도 못 먹을 판인데 뭐.}

10327 @ 예 그러머는 그 소를 그 올나레 이케 소를 기르기, 기를때 그 여러가지 어디다가 길러 씀니까 소를? {예 그러면 그 소를 그 옛날에 이렇게 소를 기르기, 기를 때 그 여러가지 어디다가 길렀습니까, 소를?}

10327 # 아 집저테다, 바 마구까널 멍길자너. {아, 집 곁에다바로 마구간을 만들잖아.}

10327 # 지베 지, 집저테다가 마구까널. {집에, 집 곁에다가 마구간을.}

10326 @ 어디에 집? {어디에 집?}

10326 # 그레이까 운:젠지 그 마:구까닐 아느루 디레노케 돼이썸.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마곳간을 안으로 들여놓게 돼 있어.}

10326 @ 아네다가요? {안에다가요?}

10326 # 지바느루. {집 안으로.}

10326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26 # 그레이까 이 울타리에 바카트루 아니구 아느루. {그러니까 이 울타리에 바깥으로 아니고 안으로.}

10326 # 그르이가 엔나렌 소두 훈처 가짜너. {그러니까 옛날엔 소도 훈처 갔잖아.}

10326 # 그래서 아느루 디리능거지. {그래서 안으로 들이는 거지.}

10326 # 근데 그건 또 따루 이르케 했는데. {근데 그건 또 따로 이렇게 했는데.}

10326 # 그르이가 인지 안채 이꾸 이 행랑채라구 인제 거 바카테다. {그러니까 이제 안채 있고 이 행랑채라고 이제 그 바깥에다.}

10326 # 행랑채라구래구 바카테 거그다 인제 멍기러가 따루 인제. {행랑채라 그러고 바깥에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따로 이제.}

10326 # 사란테가 헤까니 이꾸 인제 마구까니 이꾸 인제 그르케 멍기러... {산 데가 헛간이 있고 이제 마곳간이 있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10326 # 또 방이는 크게 질랩 방:두 거그다 꾸밀썸가 이꾸. {또 방이는 크게 지으려면 방도 거기다가 꾸밀 수가 있고.}

10326 # 또 따른, 헤까는 그건 헤까니랑건 인제 사란미 드러멩기는데야, 문, 인제 해다가 인제. {따 다른 헛간은 그건 헛간이란 것은 이제사람이 들어 다니는 데야, 문, 이제 해다가 이제.}

10326 # 그런데 고거 여페다가 또 달구 그래지. {그런데 그거 옆에다가 또 달고 그러지.}

10326 @ 그러면 그 헤간 여페 주로 마구까늘 이러케 햐...? {그러면 그 헛간 옆에 주로 마곳간을 이렇게 햐...?}

10326 # 그러치. {그렇지.}

10326 @ 예. {예.}

10326 @ 그런데 인제 그 소를 이르케 아까 얘기햐햐머거 소를 이르케 햐머는 소를 멀: 줍니까 소에게 주능계주능계? {그런데 이제 그 소를 이렇게 아까 얘기 햐던 거 소를 이렇게 햐면 소를 멀 줍니까, 소에게 주는 게 주는 게?}

10326 # 주녕계? {주는 게?}

10326 # 머기능계 그거야 소. {먹이는 게 그거야 소.}

10326 # 머 이썸 지, 지, 집, 집쌀머주능거지 머 그거 쓰:리가주구. {뭐 있어 쥘 삶아 주는 거지 뭐 그거 썰어가지고.}

10326 @ 쓸러가주구 그거를 무레... {썰어가지고 그거를 물에...}

10326 # 그레 무레다 끄리능거지 머. {그레 물에다 끓이는 거지 뭐.}

10326 @ 끄레서 그걸 멀 멀, 무슨 멀 줍니까? {끓여서 그걸 멀, 무슨 멀 줍니까?}

10326 @ 그걸 머라고 햐니까? {그걸 뭐라고 햐니까?}

10326 # 미영... {떡이지...}

10326 # 메기지, 메기, 그런데 그거는 머, 머긴데. {떡이지, 떡이, 그런데 그거는 뭐, 떡이인데.}

10326 # 그거 햐구 또 인제 갈:게 이제 베찌면 그 고운 제가 나오자너. {그거 햐고 또 이제 가을에 이제 벼 찌면 그 고운 겨가 나오잖아.}

10326 @ 예? {예?}

10326 # 제. {겨.}

10326 # 쌀제. {쌀겨.}

10326 @ 예예. {예예.}

10326 # 고옹거 거제는 인제 고거 왕제년 모씨구. {고운 거 걸겨는 이제 그거 왕겨는 못 쓰고.}

10326 @ 예 안되고 예. {예 안 되고 예.}

10326 # 거 속:제 인제 그걸 가따가 꼬릴제 한바가지씩 거기다 뉘:가주 꼬려. {그 속겨 이제 그 걸 갖다가 꿇일 제 한 바가지씩 거기다 넣어가지고 꿇여.}

10326 # 버, 그래가주 버무려서. {그래가지고 버무려서.}

10326 @ 속제를요? {속겨를요?}

10326 # 그래, 쌀제. {그래. 쌀겨.}

10326 @ 예예예. {예예예.}

10326 # 인제 그르케 인제 쌀제년 싸레기두 마너유. {이제 그렇게 이제 쌀겨는 싸레기도 많아요.}

10326 # 그르िका 소미길람, 운년사라머 그거뚜 다 빼, 그 싸레기를 빼서 그걸 멩넨데. {그러니까 소 먹이려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다 빼, 그 싸레기를 빼서 그걸 먹는데.}

10326 # 그제 싸쓰름해유 바벌해면. {그제 싹싸름해요 밥을 하면.}

10326 # 싸레기는. {싸레기는.}

10326 # 그런데 그제 눈떠러징거 마라잠, 눈, 쌀, 눈떠러징거거덩 그제. {그런데 그제 눈 떨어진 거 말하자면, 눈, 쌀, 눈 떨어진 거거든 그제.}

10326 # 그래서 인제 그거누쿠다가 인제 한테 험, 버무려서 그르케 주능거야. {그래서 이제 그 거 놓고서 이제 한테 버무려서 그렇게 주는 거야.}

10326 # 그래구 인제 머 참... {그리고 이제 뭐, 참...}

10326 @ 그걸 며 여, 염... {그걸 뭐, 염...}

10326 # 어, 머 여무리지 머 여무리라구래지 근데. {어, 뭐 여물이지 뭐 여물이라 그러지 근데.}

10326 @ 여무를 어디에 담습니까? {여물을 어디에 담습니까?}

10326 # 그 소치 이짜너 큰::소테다 해주자너 소를. {그 술이 있잖아 큰 술에다 해 주잖아 소를.}

10326 @ 근데 이제 고거를 소테다다 여무를... {근데 이제 그거를 술에다가 여물을...}

10326 # 응, 꼬려가주구... {응, 꿇여가지고.}

10326 @ 퍼서 소 이르케 아페... {퍼서 소 이렇게 앞에...}

10326 # 쨍에다 가따주지 그거 내가 아까 얘기해짜, 지따라케 나무 파가주 헨데 쨍이랑케 그제, 거기다 메기능거지. {구유에다 갖다 주지 그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길다랑케 나무 파가지고 했는데, 구유라는 게 그제, 거기다 먹이는 거지.}

10326 # 쨍, 그걸 쨍이라구래. {구유, 그걸 구유라 그래.}

10326 # 그건 나무를 파여, 통나무 가따가. {그건 나무를 파요. 통나무를 갖다가.}

10326 # 물 안새개꿈 고르케 되게끔 툄러. {물 안 새개꿈 그렇게 되게끔 툄어.}

10326 # 그래가주 가따 달자너 그걸 소아페다가 그애 소문:너머울정도루. {그래가지고 갖다 달잖아 그걸 소 앞에다가 그래 소 못 넘어 올 정도로.}

10326 # 그러치 머 줄게 머inna 소, 주... {그렇지 뭐 줄게 뭐 있나 소, 줄...}

10326 # 소줄꺼 업써유 그저 쥐야 그저 지피, 나제 저저, 그냥 우물우물해라구 인제 집 한단씩 지버주구그래. {소 줄 거 없어요 그저 쥐야 그저 짚이, 나 이제 저저, 그냥 우물우물하라고 이제 짚 한 단씩 집어주고 그래.}

10326 # 소는 그래. {소는 그래.}

10326 @ 그다음. {그다음.}

10326 @ 요까지만 일판... {요까지만 일단...}

10326 @ 어르신 그 아까 소에 대한 얘기는, 엔나레는 지베서 직접 소를 기르기도 하고 나만테서 소를 기르기도 헨썬짜나요. {어르신, 그 아까 소에 대한 얘기는 옛날에 집에서 직접 소를 기르기도 하고 남한테서 소를 기르기도 했었잖아요.}

10326 # 그저네 인제 도넘는 사람 나메 소 갈따 메기른 {그전에 인제 돈없는 사람 남의 소 갖다 먹이면.}

10326 # 갈:개. {가을.}

10326 @ 이거 이거 버스셔도 돼요. {이거 벗으셔도 돼요.}

10326 # 예 갈:개 머 싸를 향가마. (예 가을 뭐 쌀을 한 가마.)

10326 # 주구다가 인제 그걸 갈따 매서 나메 소를 가지구 내 농사를 진꾸 그랜찌 엔나레. {주구 인제 그걸 갖다 매서 남에 소를 가지구 내 농사를 짓구 그랬지 옛날에.}

10326 @ 일련 소를 빌리면 쌀 한 가마를 주는 걸로 해서. {일련 소를 빌리면 쌀 한 가마를 주는 걸로 해서.}

10326 # 그런 주이늘 소 임자를 그랜찌. {그럼 주인을, 소 임자를 그랬어.}

10326 @ 그럼 나메 집 소를 기를때는 쌀 한 가마를 주는 조꺼느로. {그럼 남의 집 소를 기를때는 쌀 한 가마를 주는 조건으로.}

10326 # 응 그래가지구 갈따 매는 거지 내가 인제 농사짓기 위해서. {응 그래가지구 갖다 매는 거지 내가 인제 농사짓기 위해서.}

10326 # 소옴년 사라문 그래씨. {소 없는 사람은 그랬어.}

10326 @ 보통 한 어르신 한 소 면마리, 면빠리틀? {보통 한 어르신 한 소 몇 마리틀?}

10326 # 나요? {나요?}

10326 @ 예. {예.}

10326 # 그냥 인제 두 바리 뭐 농사꾸는 소 마이 문 메기자너, 이 소니 미쳐 문 도라가니까. {그냥 그냥 두 마리 뭐 농사군은 소 많이 못 먹이잖아, 이 손이 미쳐 못 돌아가니깐.}

10326 @ 예. {예.}

10326 # 엔나렌 다 그 제서글 푸를 벼와사 메기구 겨우게 인제 썬서 메기지만. {옛날에는 다 그 조석을 풀을 벼와서 먹이구 겨울에 인제 썬어서 먹이지만.}

10326 # 그건 다 사라미 노을째 썬어 메기니깐 겨우게 그러치만. {그건 다 사람이 놀 때 썬어 먹이니깐 겨울에 그렇지만.}

10326 # 이랄 켜느 소 꼬릴 베다가 푸를 베다 메기게 땀썬. {일 할때는 소 풀을 베다가 풀을 베다 먹이기 때문에.}

10326 # 그래 심드러 그래서 마이 문 메기게 켜떠라구. {그래 힘들어 그래서 많이 못 먹이겠더라구.}

10326 # 또 머 소깝씨 난:나 엔나렌? 지금 소깝씨 조안찌. 엔나렌 소깝 아무떠 아니야. {또 뭐 소값이 낮나 옛날에는, 지금 소값이 좋았지, 옛날에는 소값 아무것도 아니야.}

10327 @ 엔나렌 소를 이케 드릴 때, 길, 질드릴때 어터게 드려썬요? {옛날에는 소를 길들일 때 어떻게 드렸어요?}

10327 @ 소가 말을 안듣짜나요. {소가 말을 안 듣잖아요.}

10327 # 안듣찌 그런데 그걸 대구 인제 그걸 메워야대, 엔장에다 메워야 대, 그 멩에다가, 그래 가지구 가르쳐야 사라미 아페서 끌구 대구. {안 듣지. 그런데 그걸 대구 인제 그걸 메워야 돼. 엔장에다 메워야 대 그 멩에다가. 그래 가지구 가르쳐야 사람이 앞에서 끌구 대구.}

10327 # 그러케. {그렇게.}

10327 @ 그리고 소 그러케 인제 안할때는 말 듣게 할라고 여기... {그리고 소 그렇게 인제 안 할 때는 말 듣게 할라고 여기...}

10327 # 코트레이 {꼬뚜레.}

10327 @ 예. {예.}

10327 # 꼬 꾸녕건 인제 나이가 들므 다 코를 꾸게 돼이써. {꼬 꾸는 거는 인제 나이가 들면 다 코를 꾸게 돼 있어.}

10327 @ 언제쯤 꾸나요? {언제쯤 꾸나요?}

10327 # 그거 인제 절떼므 목딸기가 되자나 목딸기 이거 요 이게 요거다 거 목따리해능거 그걸 해다가. {그거 인제 절떼면 목딸기가 되잖아, 목딸기 이거 요기다 목딸기 하는 거 그걸 해다가.}

10327 # 아 고게 또 잘 마를 안 드려 코를 꾸단구. {아 고게 또 잘 말을 안 들어 코를 꾸단구.}

10327 @ 목따리는 머예요? {목다리는 뭐예요?}

10327 # 그레이간 거기다 이러케. {그러니깐 거기다 이렇게.}

10327 # 지게 밀빵처럼 요렇게 따가지구다가 요기다 매구 인제 그래 그래가지구 꾸늘 매지 그런 데. {지게 밀빵처럼 요렇게 따가지고 요기다 매구 인제 그래갓고 꾸늘 매지 그런데.}

10327 # 그걸꾸 인제 몬빼기므는 코를 지랄을 하므 코를 꿰야 매글 몬추자 소는 코 꾸므 매글 몬추거든. {그것도 인제 못 배기면 코를 지랄을 하면 코를 꿰야 맥을 못 추잖아, 소는 코 꾸면 맥을 못추거든.}

10327 @ 예. {예.}

10327 # 그게 인제 고삐하구 영겨리 돼인짜너 이러케 그러니까는. {그게 인제 고삐하고 연결이 돼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깐.}

10327 # 괴삐를 자버댕기니까 코가 아프니까 인제 소가 매글 몬추지.{고삐를 잡아당기니까 코가 아프니깐 인제 소가 맥을 못추지.}

10327 @ 그거 어터게 똥습니까? {그거 어떻게 똥습니까?}

10327 # 그 똥똥한 나무. {그 똥똥한 나무.}

10327 # 그걸 뽕:조카게 깎껴요 아주 부레다 여쿠 인제 부레다 달궤가지구 아주 아주아주 반들 반들해 그래가주다가. {그걸 뽕족하게 깎아요. 아주 불에다 넣고 인제 불에다 달궤가지구 아주 아주 반들반들 해 그래가지고.}

10327 # 이러케 이러케 꾸며는 이 코 요리케 하면 알븐테가 이써 코예. {이렇게 이렇게 꾸면은 이 코 요렇게 하면 얇은 데가 있어 코예.}

10327 # 그래서 고 알븐 텐 그러니까 소를 사람네가 꿈쩍 모타게 분드러 매노쿠 인제. {그래서 고 얇은 데 그러니깐 소를 사람네가 꿈쩍 못하게 붙들어 매놓고 인제.}

10327 # 그래 그걸루 똥루능거야 그래 그거다가 코뚜레를 멩그러따 그걸 쩍어가지구다가 해먹찌므. {그래 그걸로 똥구는거야, 그래 거기다가 코뚜레를 만들었다 그걸 꾸어가지고 해먹지똥.}

10327 # 그래서인제 그걸 츠:메는 꾸여가지구. {그래서 인제 그걸 처음에는 꾸어가지고.}

10327 # 그냥 요런 영게미진테다가 여기 또 꾸니 인꺼덩 요거 이게. {그냥 요런 \*\*\*진 테다가 여기 또 꾸이 있거든 요거 이게.}

10327 # 고기다 매노치. {거기에다 매놓지.}

10327 @ 머리쭈구로요? {머리 쪽으로요?}

10327 # 오 그럼. {오 그럼.}

10327 # 그래서인제 그게 아무므 인제 고삐가 인제 그 코뚜레 거기다가 꾸늘 맨다구 그래서 해지 꾸어나서 인제 그 아문다메 인제 거기다가 고삐달구. {그래서인제 그게 아물면 인제 고삐가 인제 그 코뚜레 거기다가 꾸늘 맨다구 그래서 하지 꾸어나서 인제 그 아문 담에 인제 거기다가

고삐달고.}

10327 # 그 아물때까정 그 인제 던나까바 그러케 그래야. {그 아물때가지 그 인제 덧날까봐 그렇게 그래야.}

10327 # 소는 코대가 웨노므느 매글 못추거등.{소는 코뚜레만 웨놓으면 맥을 못추거든.}

10327 # 그래가지구 부레멍는거지므. {그래갖고 부러먹는거지.}

10331 @ 소를 이러케 몰때 소를 이러케 이를 이러케 시킬때 소를 모:는 소리 인짜나요 처음에 인제. {소를 이렇게 몰 때 소를 이렇게 일을 이렇게 시킬 때 소를 모는 소리 있잖아요 처음에 인제.}

10331 # 가는거? {가는거?}

10331 @ 예 어떠케? {예 어떻게?}

10331 # 그 인제 츠:메 갈텐데 그래노쿠 몽텡이가 인짜나 이 손가락 가는거 지따난거 한발 되는 거 그걸 그걸루다가 가 딱때리므 인제 소가 나간다구. {그 인제 처음에 갈 때 이제 그래놓구 인제 몽둥이 있잖아 이 손가락 가는거 길다란거 한발 되는거 그걸 그걸로다가 가 딱 때리면 인제 소가 나간다고.}

10331 # 그래가 안 갈때는 그거 뒤를 때린다구 그럼 소가 가게 대이써. {그래서 안 갈라때는 그거 뒤를 때린다구 그럼 소가 가게 돼있어.}

10331 # 그래서 해는거지. 그리고 겨리는 인제 이 소가 이 엔손짜그로 나간다 이게 똑바로 나가야는데 엔소느로 대구 나가지 그래믄. {그래서 하는거지. 그리고 겨리는 인제 이 소가 이 왼손쪽으로 나간다 이게 똑바로 나가야하는데 왼손으로 대구 나가지 그러면.}

10331 # 이쪽 마라쏘 고삐를 자바맹기기믄 그게 몬나가자너. {이쪽 마라쏘 고삐를 잡아당기면 그게 못나가잖아.}

10331 @ 예. {예.}

10331 # 그러니까 이러케 대따 그걸 자브면 이러케 되거등 그러니까 그러믄 똑빠로 나가능게지. {그러니깐 이렇게 되었다 그걸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깐 그러면 똑바로 나가는 거지.}

10331 # 그러니까 그 고삐 가지구 고삐가 이러케 뵈짜나 마라쏘 이러케 그래가지구 그걸루 조종을 해는거지. {그러니깐 그 고삐 갖고 고삐가 이렇게 뵈잖아 마라쏘 이렇게 그래갖고 그걸로 조종을 하는거지.}

10331 # 그러면 똑빠로 나가구 그걸 안잡꾸 가는 거지. {그러면 똑바로 나가구 그걸 안잡고 가는 거지.}

10331 # 그러니깐 인제 지리 잘 라느 소는 별써 다 아라서 지가 해니까 가느니까느. {그러니깐 인제 길이 잘 난 소는 별써 다 알아서 자기가 하니깐 가니깐.}

10331 # 아주머 사람보다 더 그게 용해지유, 말귀두 다 아리들꾸. {아주 뭐 사람보다 더 그게 용하지요, 말귀도 다 알아듣고.}

10331 # 그러니까 그걸 인제 처메 헐는데 여는 사라미 배운다구 인제 그걸 헐는데 해므 모태지 소 말 안드러 소두 다 아라요. {그러니깐 그걸 이제 침에 했는데 여느 사람이 배운다구 인제 그걸 했는데 하면 못하지, 소 말 안 들어 소도 다 아라요.}

10331 # 쥐위니 해는거하구 나미 해는걸 다 아러.{주인이 하는거 하구 남이 하는 걸 다 알아.}

10331 # 그래서 마를 안드러 판데로 내빼 대구 그래 묻갈지 아무나 묻가는 이유가 이거야, 그러지만 주인이 해는거 뭐 그냥 가자구 채때기 탁 때리므 그저 목똥치구더 딱 꼬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말을 안들어 판데로 내빼 대고 그래 못갈지 아무나 묻가는 이유가 이거야 그렇지만 주인이 하는거 뭐 그냥 가자구 채쩍 탁 때리면 그저 먹줄치듯이 딱 그대로 나가니깐.}

10331 @ 목똥치는거? {목똥치는거?}

10331 # 그래 먹똥치는거 줄 이르게 이르게 때, 이 먹통 인짜나, 그저네 이러케 대구 왜 나무

짚르는 금 금:는거야 그 시그로다가 똑빠로 나가는거지. {그래 먹줄치는 거, 줄 이렇게, 이 먹통  
있잖아, 그전에 이렇게 대고 왜 나무 자르는 금 곳는거야 그 식으로다가 똑빠로 나가는 거지.}

10331 @ 먹줄치는... {먹줄치는...}

10331 # 그럼 똑빠로 나가능기야. {그럼 똑빠로 나가는 거야.}

10331 # 게서 인제 빈나가든 고삐를 자바당기든 인제 자바당기든 인제 그 소가 문나가자나. 잘  
그래가 인제 멀리, 알, 그래서 똑빠로 나가 {그래서 인제 빗나가면은 고삐를 잡아당기면 인제 잡  
아당기면 인제 그 소가 못 나가잖아, 잘, 그래가 인제 똑빠로 나가.}

10331 # 근데 말귀를 다 알아듣기 뻘서, 호리두 그래 호리두 호리두 똑까튼거야 호리쏘두. {근  
데 말귀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호리도 그래 호리도 똑같은거야, 호리소도.}

10331 # 덜덜덜덜 이래 테데테데 이래든 고삐 이러케 때리든 이짜그로 간다구. {덜덜 이래 델델  
이러면 고삐 이렇게 때리면 이쪽으로 간다구.}

10331 @ 고삐를 이쪽 오른쪽. {고삐를 이쪽 오른쪽.}

10331 # 이러케 나가다가 바른소네서 자버당기다가 테데테데 해든. {이렇게 나가다가 바른손에  
서 잡아당기다가 테데 하면.}

10331 # 바른 쪼그로 올라오질 모태구 일루 소가 떠러진다구 발짜구가. {바른 쪽으로 올라오질  
못하구 이리로 소가 떨어진다고 발자국이.}

10331 @ 바른쪼그로 이러케 하며는 오른쪼그로 가겐군요. {바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  
로 가겠군요.}

10331 # 그럼, 그걸루 때리든. {그걸로 때리면.}

10331 @ 왼쪼그로 때리면 오른쪼그로 가고. {왼쪽으로 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10331 # 그래서인제 그 호리소 그냥 단지 그거구 겨리탈 머 이러 마러 머 그러케 헐짜너. {그래  
서 인제 그 호리소그냥 단지 그거고 겨리는 뭐 이러, 말아, 뭐 그렇게 했잖아.}

10331 # 그르~이~까 그건 또 마라쏘 안쏘가이씨니깐 인제 그게 가능거. {그러니까 그건 또 마  
라소 안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

10331 # 그르이게 마라쏘가 잘모태쓰든 마라아 올라서라 내려서라 인제 그래지 그러인 소가 그  
걸 다 아러들꾸. {그러니까 마라소가 잘 못해으면 마라아 올라서라, 내려서라 그러면 소가 그럴  
다 알아듣고.}

10331 # 그게 다 왈따간따 해는거요. {그게 다 왔다갔다 하는거요.}

10331 @ 그럼 고삐가 이쓰며는 가라 그럴때는 뭐라 소리치는거예요? {그럼 고삐가 있으면은 가  
라 그럴때는 뭐라 소리치는 거예요?}

10331 # 궁데만 똑 때리든 가는거야 인제. {궁둥이만 똑 때리면 가는거야 인제.}

10331 @ 소리는 안 질러요? {소리는 안 질러요?}

10331 # 그럼 가자구 그리구 툅 때리든 가는거니깐. {그럼 가자고 그리고 툅 때리면 가는거니  
깐.}

10331 @ 멈추라고 할 때는요? {멈추라고 할 때는요?}

10331 # 멈추는거는 고삐를 자바당기자나. {멈추는거는 고삐를 잡아당기잖아.}

10331 # 고삐를 양쪼글 다 자름 두마리가 다 나오자나. {고삐를 양쪽을 다 잡으면 두 마리가 다  
나오잖아.}

10331 # 자바당게 딱 이러케 자바당기므 지가 알아서 싹 시른거지므. {잡아당기어 딱 이렇게 잡  
아당기면 자기가 알아서 싹 서는 거지 뭐.}

10331 # 그럼 그걸 자바당기므 안가요 두마리를 한꺼번에 이러케 자버당기니까 딱 시른거지므,  
게 거기서 또 쉬키구 인제 쉬열따까 인제. {그럼 그걸 잡아당기면 안가요 두 마리를 한꺼번에 이  
렇게 잡아당기니깐 딱 서는 거지 뭐. 그래 거기서 또 쉬게 하고 쉬었다가 인제.}

10331 # 쉬엄 돌리구 인제 그래다가 또 갈래구 가자구 툇 때리므 이제 또 가구. {숨 돌리구 인제 그래다가 또 갈러구 가자구 툇 때리면 인제 또 가고.}

10331 # 오른 바른쪽 가라구 그럴 때는 어터게 하면 됩니까? {오른 바른쪽 가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331 # 바른쪼게? {바른쪼에?}

10331 @ 예 어떤 소리를 질름니까? {예 어떤 소리를 지름니까?}

10331 # 바른쪼게라 하믄 야. {바른쪼이라 하면 야.}

10331 # 안쏘 드러시라구 그래지 안쏘 안쏘 드러시라구 인제 그러믄 그놈이 드러시믄 마라쏘가 주춤해지 밀리지. {안쏘 들어서라고 그래지 안쏘 들어서라고 인제 그러면 그놈이 들어오면 마라쏘가 주춤하지 밀리지.}

10331 @ 이쪼크 윈쪼크? {이쪼크 윈쪼크?}

10331 # 윈쪼크하면 또 안쏘가 주춤해구. {윈쪼크하면 또 안쏘가 주춤해구.}

10331 @ 윈쪼크로 갈라믄는 마라쏘를 그냥 툇. {윈쪼크로 갈러면 마라쏘를 그냥 툇.}

10331 # 그럼 그러믄 툇빠로 나가. {그럼 그러면 툇바로 나가.}

10331 @ 무슨 소리를 질르면서 하는겁니까? 어떤 소리를 질름니까? {무슨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겁니까? 어떤 소리를 지름니까?}

10331 # 그러니까 안쏘로 갈래믄 마라쏘가 빠져나가야 돼 빨리 그 마라쏘. {그러니까 안쏘가 갈러면 마라쏘가 빠져나가야돼. 빨리 그 마라쏘.}

10331 @ 한다고 생각글 하고 함번 해보세요 함번 해주시겠습니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0331 # 그러니까 인제 그러케 가다 안쏘가 들어가자나 그럼 마라쏘 가라고 인제 궁뎅 툇 때리지.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가다 안쏘가 들어가자나 그럼 마라쏘 가라고 인제 궁뎅이 툇 때리지.}

10331 # 그러믄 빨리 나가지 그러믄 이 야중 가다리 툇빠로 되지 그러믄 또 마라쏘가 처지구 안쏘가 갈믄 마라쏘르 또 때리믄 또 빨리 툇빠로 나가지. {그러면 빨리 나가지 그러면 이 가다리 툇바로 되지 그러면 또 마라쏘가 처지고 안쏘가 갈면 마라쏘를 또 때리면 또 빨리 툇바로 나가지.}

10331 # 그 인제 채채기를 가지구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소를 채채기로 친다구 그러니까는 툇빠로 나가는거야. {그 인제 채찍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소를 채찍으로 친다고 그러니까는 툇바로 나가는거지.}

10331 # 먹똥치는 것처럼 나가요 그거 소가. {먹똥 치는 것처럼 나가요 그거 소가.}

10331 @ 먹똥처럼 예. {먹똥처럼 예.}

10331 # 아 그럼 먹똥 딱 치는 아 쪼꿈두 안 꾸부러지지 머 그러케 소가 그건 다 지가 아라서 나가능야. {아 그럼 먹똥 딱 치는 아 조금도 안 꾸부러지지. 뭐 그렇게 소가 그건 다 제가 알아서 나가능야.}

10331 # 고 고게 타구 나가능거지. {그 고게 타고 나가능거지.}

10333 @ 이케 소보믄는 소는 또 색까리 색까리랑 모양 가튼게 다 다르자나요. {이렇게 소 보면은 소는 또 색깔이 색깔랑 모양 같은 게 다 다르잖아요.}

10333 # 꺾정소가 인꼬 칙쏘가 인꾸 그래요. {꺾정소가 있고 칙쏘가 있구 그래요.}

10333 @ 꺾정소는 뭘니까? {꺾정소는 뭘니까?}

10333 # 천체가 까먼게 꺾정소지머. {전체가 까먼게 꺾정소지뉘.}

10333 # 그래구 인제 칙소래는건 얼룩덜러켄 거. {그리고 인제 칙소라는 건 얼룩덜러한 것.}

10333 # 그걸 인제 얼룩덜러 칙쏘라구 그래지. {그걸 인제 얼룩덜러 칙쏘라구 그래지.}

10333 # 그래구 인제 빨가케 나오구. {그래고 인제 빨갱게 나오고.}

10333 @ 빨가게 나오는 건 뭘니까? {빨강게 나오는건 뭘니까?}

10333 # 색까리가. 빨가게 나오는거지 그거야. {색같이 빨강게 나오는거지 그거야.}

10333 @ 그건 무슨 소라구 합니까? {그건 무슨 소라고 합니까?}

10333 # 그건 머 이거 평균 소지머 그건 머. {그건 뭐 이거 평균 소지똥. 그거는 똥.}

10333 # 이름인는거 꺼머니깐 껌정소다 칙쑈 칙치캐게 인제 이게 줄기가 갠꺼덩 그래니까 칙쏘라구 그래지머. {이름있는 거 겹으니까 껌정소다 칙소는 칙칙하게 인제 이게 줄기가 갠거든, 그러니깐 칙쏘라구 그러지 똥.}

10333 @ 그래요. {그래요.}

10333 # 그럼. {그럼.}

10333 @ 그담엔 다른 소는 업꼬요? {그담에 다른 소는 없구요?}

10333 # 업찌. {업지.}

10331 @ 소보머는 소뿔 이짜나요 뿌리 또 완저니 마이 다르자나요. {소 보머는 소뿔 있잖아요. 뿔이 또 완전히 많이 다르잖아요.}

10331 # 다 달라지 근데... {다 달라지 근데.}

10331 @ 어떤 뿌리 어떤 뿌리 인나요? {어떤 뿔이 어떤 뿔이 있잖아요?}

10331 # 뿌리 머 이러케 나와가지구 이게 이러케 똥구 드러가는데 인짜나 제 사를 똥는다구 게 그건 고치지 모태. {뿔이 뭐 이렇게 나와갠고 이게 이렇게 똥고 드러가는데 있잖아, 제 살을 똥는다구 게 그건 고치지 못해.}

10331 # 그래 그래니깐 그건 인제 토부로 잘르자나. {그래 그러니깐 그건 인제 툽으로 자르잖아.}

10331 # 잘라줘야 안 잘라주므 이거 파고 들어가거든 뿌리. {잘라줘야 안 잘라주면 이거 파고 들어가거든 뿔이.}

10331 @ 뿌리 요러케 자기. {뿔이 이렇게 자기.}

10331 # 그럼 그래가지구 요러케 꼬부라진다구. {그럼 그래갠고 이렇게 꼬부러진다구.}

10331 @ 아 꼬부라진게 자기 얼굴을 이게, 하는. {꼬부러진 것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하는.}

10331 # 그럼. {그럼.}

10331 # 그러니까. {그러니깐.}

10331 @ 그런 뿌른 무슨 뿌리라 그래요? {무슨 뿔이라고 그래요?}

10331 # 그걸 그걸 무슨 뿌리라구 그래야 될까? {그걸 그걸 무슨 뿔이라구 그래야 될까?}

10331 @ 뿔보머는 또 이러케 요런 뿌리 인짜나요? 고런 뿌른 무슨 뿌리예요? {뿔보머는 또 이렇게 이런 뿔이 있잖아요.}

10331 @ 반듯하게 딱. {반듯하게 딱.}

10331 # 근데 난 그걸 모르겜써 그건 머 누가 머 그걸 물러가지구 그게 있나 그런 몰르겐는데. {근데 난 그걸 모르겜어 그건 똥 누가 똥 그걸 물어갠고 그게 있나 그건 모르겜는데.}

10331 @ 뿌리 인제 {뿌리 인제.}

10331 # 아 여러가지로 날찌 그게. {아 여러가지로 낫지 그게.}

10332 @ 안쪽그로도 요러케. {안쪽으로도 요렇게.}

10332 # 요리카다 요러케 된게 인꾸 또 이 아프로 이러케 나오는게 인꾸.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있고 또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

10332 @ 그럼 머 뿔 이르믄? {그럼 똥 뿔 이름은?}

10332 # 난 그거 몰르겐는데. {난 그거 모르겜는데.}

10332 @ 아, 그래요, 소보머 소도 나이가 인짜나요. {아 그래요, 소 보머 소도 나이가 있잖아요.}

10332 # 그건 이빨리 빠지는 거 가지구 그래자나. {그건 이발이 빠지는거 갖고 그러잖아.}

10332 # 이빨리 가:는대루 난거자나 전니 전먹편 이가 빠지... 그게 그게 머 한살 두살 그래자나 그거 이루 가려유. {이빨이 가는 대로 난 거잖아. 젓니 젓먹던 이가 빠지. 그게 그게 뭐 한살 두살 그러잖아. 그거 이로 같아요.}

10332 @ 소가 마냐게 한살이면 그즈음 뭐라고 합니까?{소가 만약에 한살이면 그즈음 뭐라고 합니까?}

10332 # 한사리라구 그러더라구. {한살이라구 그러다라구.}

10332 # 한살. {한살.}

10332 @ 그냥 다른거는? {그냥 다른것은?}

10332 # 다른거는 업써유. {다른것은 없어요.}

  

10332 @ 두사리며는. {두살이면은.}

10332 # 두리빠진거. {둘이 빠진것.}

10332 @ 두리 빠지게 머예요? {둘이 빠진 것은 뭐예요?}

10332 # 두:사리예요 그게 나이가. {두살이예요 그것이 나이가.}

10332 # 그런거요 이:루다가 해는거야 엔나래 전먹편 저지 이:가 이러케 다 빠져유. {그런 것이오. 이로 하는거야. 옛날엔 젓먹던 젓이 이가 이렇게 다 빠져요.}

10332 # 그게 대구 가러. {그게 대구 같아.}

10332 @ 소가요? {소가요?}

10332 # 응 다 간다구 그게 {응 다 간다구 그게.}

10332 @ 전먹편 이를 다. {젓먹던 이를 다.}

10332 # 전니가 다 그럼 그래프 이제 다 같은 늑따리지머 그건머 나이가 머. {젓이가 다 그럼 그러면 이제 다 같면 늑다리지.그건뭐 나이가 뭐.}

10332 # 머 일구 여덜살 돼따 인제 그르케. {뭐 일곱여덟 됐다 이제 그렇게.}

10332 @ 아 늑따리는 보통 일구 여덜살. {아 늑다리는 보통 일곱여덟살.}

10332 # 그럼 그럼. {그럼 그럼.}

10332 @ 어린거는 머라구? {어린 것은 뭐라구?}

10332 # 어린거는 솜보지기라구 그러더라구 고건 하나두개 빠지는거. {어린것은 손보지기라고 그러더라고. 고것은 하나 두개 빠지는 것.}

10332 # 고게 마른 지금 절른사람드를 한 이십대 나이. {고것이 말은 지금 젊은사람들은 한 이십대 나이.}

10332 @ 예. {예.}

10332 # 그거야 이제. {그거야 이제.}

10332 @ 손 머라고?

10332 # 솜보지기라구 그러자나 솜보지기. {손보지기라고 그러잖아 손보지기.}

10332 @ 솜? {솜?}

10332 # 솜보지기. {손보지기.}

10332 @ 손보지기. {손보지기.}

10332 # 응 그게 인제 아주 고거 한참 뒤에 나이가 조태는거야 나이가 조태는. {응 그게 인제 아주 그거 한참 뒤에 나이가 좋다는거야 나이가 좋다는.}

10332 @ 고거 솜보지기라 하구. {그거 손보지기라 하고.}

10332 @ 그럼 조금 지나서 중년정도 되면 뭐라구 해요? {그럼 조금 지나서 중년정도 되면 뭐라고 해요?}

10332 # 그러니깐 그게 인제 섬보지기 인꾸 증보지기가 일판마리아, 그러니깐 인제 그거 머 한 서너개빠지른 한 증보지기가 되지. {그러니깐 그게 인제 손보지기가 있고 증보지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깐 인제 그거 뭐 서너개 빠지면 한 증보지기가 되는 거지.}

10332 @ 보지기 그러다 인제. {증보지기, 그러다 인제.}

10332 # 나이가 대구 올라가지 다선여살때 그러니깐 벌써 다선여선살 데문 사람드리 그 인정을 안해자너 늘걸때는 애기지. {나이가 대고 올라가지. 다섯 여섯살때 그러니깐 벌써 다섯 여섯살 되면 사람들이 그 인정을 안하잖아, 늙었다는 애기지.}

10332 # 사람과 또까튼거야 섬보지기. {사람과 똑같아 손보지기.}

10336 @ 그럼 이제 소를 고를 때. {그럼 인제 소를 고를 때.}

10336 @ 옌나레 소를 사와야 될꺼 아님니까 사는 경우도 이짜나? {옛날에 소를 사와야 될꺼 아님니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10336 # 사오는데. {사오는데.}

10336 @ 사올려면 조은소 골라야 되지 아나요? {사올려면 좋은 소 골라야 되지 않아요?}

10336 # 그래니깐 뭐든지 이 모메 아주 똑빠로야대. 그게 이 궁뎅이 이게 소가 똑빠로 뎅게 업썬요. 꾸부러지지 이러케 이러케 알르 떠러진다구. {그러니깐 뭐든지 이 몸에 아주 똑바로 돼. 그게 이 궁뎅이 이게 소가 된것이 없어요. 꾸부러지지 이렇게 안으로 떨어진다구.}

10336 # 아주 그거 머 똑빠로 뎅게 이썬여, 그런데 주로 그거지 그거하구 다리하구 다리두 선지 캐구 찰븐게 인짜나 또 징:게 인꾸 사람과 또까튼건데 머. {아주 그거 뭐 똑바로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그것이지. 그것하고 다리하고, 다리도 선직하고, 짧은게 또 있잖아, 또 긴것이 있고 사람과 똑같은건데 뭐.}

10336 # 안즐배 하구 우리네 요런 사람하구 그 시기야 그러니까 인제 그 여러가질 보자너. (얇은뎅이하고 우리네 요런 사람하고 그 식이야 그러니깐 인제 여러가지를 보잖아.}

10336 @ 그러면 엉덩이. {그러면 엉덩이.}

10336 # 엉덩이가 똑빠로 등어리하구 똑바로 이러케 나가야. {엉덩이가 똑바로 등어리하고 똑바로 이렇게 나가야.}

10336 # 그게 이러케 나갈때 이러케 꾸부러져따구 짐승언 다 그래 이러케 뒤가 꾸부러져, 이 꼬트메 가서, 근데 그게 꾸부러지지 안꾸 똑빠로 나가고 인제. {그게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꾸부러졌다구 짐승은 다 그래 이렇게 뒤가 꾸부러져 끝에 가서 근데 그게 꾸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나가고 인제.}

10336 # 그런데 그거 인제 사람드리 보는 게 인제 그런거 다리두 어느 정도. {그런데 그거 인제 사람들이 보는것이 인제 그런 것 다리도 어느 정도.}

10336 @ 다리도 쪽. {다리도 쪽.}

10336 # 그럼, 그럼, 그럼 찰븐거 보다두 또 징:거 인제 그런 걸 주로 마이 보지. {그럼, 그럼, 그럼 짧은거 보다도 또 긴거 인제 그런걸 주로 많이 보지.}

10336 # 그리구 인제 빨두 제대로 잘 이러케 나와서 요리케 잘 신거 보는거지 꾸부러진건 그건 좀 나미 바두 그 우습짜나 그 꼬부라진거는. (그리고 인제 빨도 제대로 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잘 선 거 보는 거지. 꾸부러진 것 그건 좀 남이 봐도 그 우습잖아 그 꼬부라진 것은.}

10336 그게 이 꾸부러진 거는 고삐가 소 열게미라구 열게~이~ 그걸 친다구 이걸 그걸 역꺼서 꼬늘 열겨서 인제 거기다 해가지구 인제 코뚜레가 부터인는거야 코뚜레가. {그게 이 꾸부러진것은 고삐가 소 열게미라 그래 열게이, 그걸 친다구 이걸 그걸 엮어서 끈을 엮어서 인제 거기다 해가지구 인제 코뚜레가 붙어있는거야.}

10336 #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깐 그게.}

10336 @ 열킨다구요? {얹인다구요?}

10336 # 그럼 그걸 이러케 이러케 해서 얼귀요 그래든 인제 거기다가. {그럼 그걸 이렇게 해서 엮어요 그러면 인제 거기다가.}

10336 @ 얼게미로 얼, 영는다고요? {얼게미로 엮는다고요?}

10336 # 그럼, 그거 짜는 사라미 드무러 아주 시기 더러워 그제. {그거 짜는 사람이 드물어, 아주 세계 더러워, 그것이야.}

10336 # 그러며 인제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10336 # 괴빠가 드러가는거야 그래 쇠 고빠에다가 그제 사는거야 그런데 그건 하나 베끼지지 양케 해내서 일로 안 베끼지게 되구 여기두 꼬늘 다러서 꼭때기에 올라가지두 양쿠 그러케 돼이썬. {고빠가 드러가는거야, 그래 소 고빠에다가 그제 사는거야 그런데 그건 하나 벗겨지지 않게 해내서 이리도 안 벗겨지게 되고 여기도 끈을 달아서 꼭때기에 올라가지도 앓고 그렇게 돼 있어.}

10336 @ 고러케 인제 조은 소를. {그렇게 인제 좋은 소를.}

10336 # 인제 그제 지끔 어쩜 마라자면 우리 사람두 그러차나 별 사람 다 일짜나 보든 우리가 인제 봐두 여자나 남자나 야 그 사람 잘났다 얼구리 잘났다 안 그래, 몸매두 그거까 똑까튼 거지 다른 건 업써 그제. {이제 그제 지금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 별사람 다 있잖아 보면 우리가 인제 봐도 여자나 남자나, 야 그 사람 잘났다 얼굴이 잘났다 안 그래, 몸매도 그렇니깐 똑같은 거지 다른거 없어. 그제.}

10336 # 그러니까 짐성두 잘 빠진 거 데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도 잘 빠진 거 되는 거야.}

10336 # 우리두 그래 우리 지그, 내가 개를 메겨두 그래 개두 돼지잠녕 개는 이 꼬랑지가 달려야대 여느 개 가튼 거 하든 안돼. {우리도 그래 우리 지금 내가 개를 먹여도 그래 개도 돼지 잡는 개는 이 꼬리가 달라야 돼 여느 개 같은 거 하면 안 돼.}

10336 # 풍지가 운제든지 이러케 빠치여 돼요. {풍지가 언제든지 이렇게 뺨쳐야 돼요.}

10336 # 풍지가 빠치야지 이게 아주 똑 떠러지구 이러케 꼬부라지든 히믈 묻써, 개가.

10336 # 게서 우리 개드론 이 풍지가 이러케 일짜로 나간다구. {그래서 우리 개들은 이 풍지가 이렇게 일자로 나간다고.}

10336 # 그건 돼지를 해, 그러치마 이러케 꼬부라진 거는 매글 묻춰. 이러케 척 느러져두 안되구. {그건 돼지를 해, 그렇지만 이렇게 꼬부라진 것은 맥을 못춰, 이렇게 척 늘어져도 안 되고.}

10336 # 그거 또까태 개두. {그거 똑같아 개도.}

10336 # 그래두 개두 보드 벌써 저건 돼지를 자블깨다 아니다 인제 우리는 하두 메기니까는 다 아려요 그걸. {그래도 개도 보면 벌써 저건 돼지를 잡을 개다 아니다 인제 우리는 하두 먹이니깐 다 알아요 그걸.}

10336 # 그래서 인제 그러케 노찌 그래서 인제 그제 또 다 나서 새끼가 다 돼지 잡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제 그렇게 놓지 그래서 인제 그제 또 다 나서 새끼가 다 돼지 잡는것이 아니야.}

10336 # 다 잡는 게 아니야 그제 한 서너마린 거기서 나와 한 두 마리 서너 마리 나와요 열 마리르 나아따 그래브 거기서 한 서너마리 배께 묻써. {다 잡는게 아니야 그제 한 서너마리는 거기서 나와 한두 마리 서너 마리 나와요 열 마리를 낳았다, 그러면 거기서 한 서너 마리밖에 못써.}

10336 # 에미가 풍지가 그러케 쪽 빠져두 그제 또 안그래, 또 꼬부라징게 인꾸 그래 그래서 한 서너마리는 거기서 나와 인제 우리 애두 하두 메기니깐 그놈이 알지 벌써. {에미가 풍지가 그렇게 쪽 뺨어도 그제 또 앓그래. 또 꼬부라진 게 있고 그래, 그래서 한 서너머리는 거기서 나와 인제 우리 애도 하두 먹이니깐 그놈이 알지 벌써.}

10336 # 개 인제 모~야~얼 보구 인자 해는 거지 머. {개 이제 모양을 보고 이제 하는 거지 뭐.}

10336 # 그래서 우리두 그저네두 츠:메 헬제는 심들지, 돼지 하나 못잡찌므 이 녀석 개는 조:타구 그래두 갑따 노면 안돼 잡찔 모태. {그래서 우리도 그전에도 침에 했을 때는 힘들지, 돼지 하나 못 잡지 뭐, 이 녀석 개는 좋다고 그래도 갖다 놓으면 안 돼, 잡지를 못 해.}

10336 # 근데 그건 아늑두 조와야대 아늑미 조와야 돼요 아늑미 아늑두 조쿠 순늑두 조와야 인제 거기서 나오는 게 신다 인제 그거지. {그런데 그건 암늑도 좋아야 돼 암늑이 좋아야 돼요 암늑이 암늑도 좋고 숫늑도 좋아야 인제 거기서 나오는 게 쓴다, 이제 그거지.}

10336 # 소두 그래 소두 새끼 잘 난는 소가 일썌, 소라구 새끼를 다 또까치 난는 게 아니야. {소도 그래 소도 새끼 잘 낳는 소가 있어, 소라고 새끼를 다 똑같이 낳는 게 아니야.}

10336 또 암쏘가 쪼꼬매두 새끼를 잘 난는 소가 이썌 또 암쏘가 크다고 해서 새끼를 크게 난는 건 아니야 또 반대바~야~이야유, 난는게. {또 암소가 쪼꼬만해도 새끼를 잘 낳는 소가 있어 또 암소가 크다고 해서 새끼를 크게 낳는것은 아니야. 또 반대방향이에요, 낳는게.}

10336 # 그래 인제 그래 몸매가 인제 사라미나 짐스~이~나 그러케 잘 나오는 게 그걸 치는거지므 다른 거는 업썌. {그래 이제 그래 몸매가 인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렇게 잘 나오는 게 그걸 치는 거지 뭐 다른 것은 없어.}

10338 @ 그다메 이제 엔나레 머슴사리 해짜나요 그런거두 마니 이썌쥬? {그다메 옛날에 머슴살이 했잖아요 그런것도 많이 있었쥬?}

10338 # 머슴사리 만:치, 그건 인는 머슴사리 인는 지베가 논넌 거야 머슴사리는 다른 거 업썌. {머슴살이 많지 그건 있는 머슴살이 있는 집에서 놓는 거야 머슴살이는 다른 것 없어.}

10338 # 뭐든지 뭐 농토두 망:쿠 인제 내 재사니 마느니까 일꾸를 두구 해멍는지 그러니깐 쥐이니 아내구 인제 그사라만테 땀끼는거야 살리믈. {뭐든지 뭐 농토도 많고 인제 내 재산이 많으니깐 일군을 두고 해 먹는지, 그러니깐 주인이 안하고 인제 그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살림을.}

10338 # 그건. {그건.}

10338 @ 주로 어떻걸 헨나요? {주로 어떤 것을 헨나요?}

10338 # 어? {어?}

10338 # 아 농사지므 그 사라미 다 그걸 마타서 그사라미 다 해는 거지 그건. {아 농사지 그 사람이 다 그걸 맡아서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지 그건.}

10338 # 일꾸닌 내가 헬꺄 일꾸니 다 해는 거지 머. {일군인 내가 할꺄 일군이 다 하는 거지 뭐.}

10338 # 머슴사는 사람 그래서 그게 새경이라구 일년농사를 지므 싸를 뭐 다섯까마를 준다 여섯까마를 준다 그러지 아너 지끔 그런데 저 경사도로 더 내려가믈 열가마를 주더라구 일러네 거기 쌀 마이 바더유. {머슴 사는 사람 그래서 새경이라구 일년농사를 지으면 쌀을 뭐 다섯 가마를 준다 여섯 가마를 준다 그러지 않아 지금 저 경사도로 더 내려가면 열 가마를 주더라구 일년에 거기 쌀 많이 받아요.}

10338 # 그러니까 인제 그 머시믈 사러두 줌 인는 사라믈 그걸 안쓴다구 그래구 그 열가마를 바더서 나믈 준다구 장내라 그래 그걸 그래믈 일러널 무기며는 내가 한 가마를 주믈 거기 다러오능게 쌀 단마리 다러와 열마를 주믈 열따선마리 드러온다구. {그러니깐 인제 그 머슴을 살아도 줌 있는 사람은 그걸 안쓴다고 그리고 그 열가마를 받아서 남을 준다구 장너라고 그래. 그걸 그러면 일년을 묵히면 내가 한 가마를 주면 가기 따라오는 것이 쌀 다섯 마리 따라와 열 말을 주면 열다섯 말이 들어온다구.}

10338 @ 장내가 뭐예요 다시한번? {장너가 뭐예요 다시 한번?}

10338 # 그게 인제 한가마를 나믈 쥐짜너 내가 한가마를 거기서 갑따 머거서 농사진은 싸리 업썌가지구 가게가서 단마를 더 한가마에다 단마를 더 보태서 내가 바더야대. {그게 인제 한가마를 남을 줬잖아 내가 한 가마를 거기서 갔다 먹어서 농사 짓는 쌀이 없어가지고 가게 가서 다섯말을

더 한가마에다 다섯말을 더 보태서 내가 받아야 돼.}

10338 # 그거 장:내라 그러거든 옛날엔 장:내. {그거 장:내라 그러거든 옛날엔 장:내.}

10338 # 그게 그러케 늘지 아니 생가케 바라 열가마이면 열다섯가마가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늘잖아 생각해봐라 열 가마이면 열다섯 가마가 되는 거야.}

10338 # 내가 열가마 싸를 간따 쥐씨른 그 열가마 머근 사라미 열탄말씩 무러오니까 벌써 열다섯가마가 되자나. {내가 열가마 쌀을 갔다 줬으면 그 열가마 먹은 사람이 열탄말씩 물어오니까 벌써 열다섯 가마가 되잖아.}

10338 # 그래보더 이태므 삼십가마가 되는 거야, 큰 부자가 되유, 그게 장:내는 심드러 그거 그거 원만한 사람 몬머거유. {그리고 모두 이년이면 삼십가마가 되는 거야 큰 부자가 돼요 그게 장:내는 힘드러 그거 그게 웬만한 사람은 못 먹어요.}

10338 # 그거 한가마 머거따가 우물쭈물해른 열가마를 무러준대니까는 장:내가 그래 그러케 인썸 옛날엔 그걸루 성공한 사람 만치. {그거 한 가마를 먹었다가 우물쭈물하면 열가마를 물어준다니깐 장:내가 그래 그런것이 있소 옛날에는 그걸로 성공한 사람 많지.}

10338 @ 인는사라미 하지 업는 사라미 몬하자나요 장:내를 할라면. {있는 사람이 하지 없는 사람이 못하잖아요 장:내를 할려면.}

10338 # 아 인제 그거 그런데 그사라미 그걸 나미 머시를 사라서 그러케 잘해른 되는데 그걸 간따 인제 머 바라를 피우거나 그래른 아주 허덩이지 그저네두 이제 나메 머시를 사라가지구 지금 내가 단란주점 얘기 해짜나 아가씨. {이 인제 그거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남의 머숨을 살아서 그렇게 잘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 인제 뭐 바람을 피우거나 그러면 아주 헛탕이지. 그전에도 인제 남의 머숨을 살아가지고 지금 내가 단란주점 얘기 했잖아, 아가씨.}

10338 # 그 호라우스 이짜나 호라우스라구 여기두 흥치네이씨, 호라우스 여자들. {그 호라우스(?) 있잖아 호라우스라고 여기 흥천에 있어, 호라우스 여자들.}

10338 # 호라우스라구 그래 그거 여자 상대하는거 남자들 노는데. {호라우스라고 그래. 그거 여자 상대하는거, 남자들 노는데.}

10338 # 거기 가면 나메 머숨 일년 사라가지구 거기다가 다 간따 바친대니까 그래니까 빈 털터리가 나오는거야, 그걸두 뭐 그걸 그런델 안 댕기구 꼼꼬미 모으른 금방 부자가 되지. {거기 가면 남의 머숨 일년 살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갖다 바친다니깐. 그러니까 빈 털터리가 나오는거야, 그것두 뭐 그걸 그런곳에 안 다니고 꼼꼼히 모으면 금방 부자가 되지.}

10338 # 그럼 인제 저 미테는 열가마니 주자나요, 여기는 몇가마니 쥐씨요 보통? {그럼 인제 저 밑에는 열가마니 주잖아요 여기는 몇가마를 줬어요 보통?}

10338 # 여긴 다섯가마. {여기는 다섯 가마.}

10338 @ 마지기에 따라 다르죠. {마지기에 따라 다르죠.}

10338 # 아니 마지기에 따라 할땐 그러치마는 그래두 여기는 내가 알 땐 여기하구 아랫녘 하구 달르더라구. {아니, 마지기에 따라 할때는 그렇지마는 그래도 여기는 내가 알 때는 여기하고 아랫녘 하구 달르더라구.}

10338 # 그러니깐 아랫녘 땅이 마느니까 크니깐 열가마씩 바더, 일꾸니 그런데 여긴 다섯가마 배께 안주더라구. {그러니깐 아랫녘은 땅이 많으니깐 크니깐 열가마씩 받아, 일꾼이 그런데 여기는 다섯가마 밖에 안주더라구.}

10338 @ 다섯가마 그러니까 그 사람드른 그거 열가마를 너른 열다섯가마야. {다섯가마 그러니깐 그 사람들은 그거 열가마를 넣으면 열다섯가마야.}

10338 # 일련마 지내가른 이태므 삼십가마가 느는거야, 그래가지구 부자되는 사라미 마너, 지금 두 여기 지금 현지에 나메 머심 사라가지구 그러케 허퇴지 양케 씨구 여자한테 발키지 양쿠 해른 부자가 금방 되유, 그게. {일년만 지나가면 이태면 삼십 가마가 느는 거야, 그래작고 부자되는 사

람이 많아, 지금도 여기 지금 현지에 남의 머슴 살아가지고 그렇게 헛되지 않고 여자한테 발키지 않고 하면 부자가 금방 돼요, 그제.}

10338 # 엔나레는 이를 할때 모내기 할때 혼자 모타니까 사람드를 사서 하기도 하구 그다메 인제. {옛날에는 일을 할때 모내기 할 때 혼자 못하니깐 사람들을 사서 하기도 하고 그 답에 인제.}

10338 @ 그건 품 사라블 내가 도는 주니깐 그랜짜마는. { 그건 품 사람을 내가 돈을 주니깐 그랬지만은.}

10338 # 그냥 하는 건 품아시래는 거야 그제, 내가 오늘 저 사라만테서 이랬쓰른 내른 내가 저 지베 가 내가 또 그 댕까를 해는 거야. {그냥 하는 것은 품앗이라는 거야 그제,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서 일했으면 내일은 내가 저 집에가 내가 또 그 댕가를 하는 거야.}

10338 # 그걸 품아시라구 그래거등, 서로 인제 가프니깐 그래구 인제 도움주는거는 도움주는거구 그건 아니구. {그럴 품앗이라고 그러거든, 서로 인제 갇으니깐 그리고 인제 도움주는 것은 도움주는 것이고 그건 아니고.}

10338 # 그래니까 인는 사람 이제 돈 내가 심들른 다 도느로 방천하른 내가 나메 일 안 해자나, 그 식 그래. {그러니깐 있는 사람 이제 돈 내가 힘들면 다 돈으로 \*\*하면 내가 남의 일 안 하잖아, 그 식 그래.}

10340 @ 품아시는 어떤 어떤 거 보통 품아시 하나요? {품앗이는 어떤 어떤것 보통 품앗이 하나요?}

10340 # 질 어려운 게 노니지. {제일 어려운것이 논이지.}

10340 @ 예? {예?}

10340 # 논 모 심는게 질 어렵지 아너, 엔나렌 그 바틀 혼자두 해자너, 그러치만 노는 그 혼자서 몬심짜너, 썸머논거 다 썸머 그날 다 심어야 돼. {논 모 심는것이 쥘 어렵지않아, 옛날에는 그 밭을 혼자도 하잖아, 그렇지만 논은 혼자서 못 심잖아, 삶아논 것을 다 삶아 그날 다 심어야 돼.}

10340 # 그러니까 그제 하나두리서 심는 게 아니자너, 그제 사라리 머 이십명씩 그러케 얻찌, 인제 그래서 인제 도니 인는 사람 마니 사가지구 해지. {그러니깐 그제 하나 둘이서 심는게 아니잖아, 그제 사람들이 뭐 이십명씩 그렇게 얻지, 인제 그래서 인제 돈이 있는 사람 많이 사가지고 하지.}

10340 # 또 나두 그래, 나두 인제 그걸 또 매껴 주는 거 도그비라구 그래 인제, 한사라만테 그걸 땀겨 그러니까 그매글 마지기로 따져 한마지게 울:마다. {또 나도 그래 나도 인제 그걸 또 맡겨주는 것을 도급이라고 그래 인제, 한사람한테 그걸 맡겨, 그러니깐 금액을 마지기로 따져 한마지기에 얼마다.}

10340 # 한마지기에 오쳐넌 오쳐넌 고러케 따져가지구 다 시몬재드리 인제 고기다가. {한마지기에 오천원 오천원 그렇게 따져가지고 다 심은 자들이 인제 거기다가.}

10340 # 저넌 한마지기에 사라미 두리 드러가는걸 하나를 덴다구 도급 심년 사람드른. {전원 한마지기에 사람이 둘이 들어가는 걸 하나를 덴다구 도급심는 사람들은.}

10340 # 하날루 우리네가 그냥 어더해른 두를 대구 도그패논 애드른 제가 그래 도니 더 두로지 아너, 제 아프로 그러니깐 쯤금 모아가지구 또 개드른 또 열시미 해, 개드른 쉬는거뚜 업꾸. {하나로 우리네가 그냥 얻어하면 둘을 대고 도급한 애들은 제가 그래 돈이 더 들어오지 않아. 제 앞으로 그러니까 쯤금 모아가지고 또 개들은 또 열심히 해 개들은 쉬는 것도 없고.}

10340 # 그 모 심는 아치메 나와 모를 썸야 심짜누, 모자리행거 그거 소느르 뽀바야 심짜너, 그 르~이~간 재드른 아주 처째버게 나오구 우리 품아시는 느지마카게 나와서 그냥 바:는 놀구 해니깐. {그 모 심는 아침에 나와 모를 썸야 심자 앓아 모자리 한 거 그거 손으로 뽑아야 심지 앓아. 그러니까 재들은 아주 첫새벽에 나오구 우리 품앗이는 느즈막하게 나와서 받은 놀고 하니까.}

10340 # 그래서 인제 뒤번 그래서 비싸지 원래. {그래서 인제 두어번 그래서 비싸지 원래.}

10340 # 그러케 내가 좀 편할려면 도니 이쓰면 나물 주믄 그냥 그날 개들 다 심어주긴 다 시머 줘, 열명을 두든 두명을 지버너튼 도급만 주면 그놈이 다 아러서 해니깐. {그렇게 내가 좀 편할려면 돈이 있으면 남을 주면 그냥 그날 개들 다 심어주긴 다 심어줘 열명을 두든 두명을 집어넣든 도급만 주면 그놈이 다 알아서 하니까.}

10340 # 그담 메게주거는 메게주구. {그담에 먹여줄 것은 먹여주고.}

10340 @ 이를 할때 또 사자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을 할 때 또 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340 # 새경이요 그거 품아시는 품아시라구 그래구 사는거는 뭐라구 그래? {새경이요, 그거 품앗이는 품앗이라고 그래고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래?}

10340 # 사는거 배께 더돼 뭐? {사는 거 밖에 더 돼 뭐?}

10340 @ 일꾸늘 산다구 합니까, 아니면 언는다구 합니까? {일군을 산다고 합니까, 아니면 언는다고 합니까?}

10340 @ 일꾸늘 산다구 그래요 언는다구 그래요? {일군을 산다고 그래요 언는다고 그래요?}

10340 # 언는건데 언는거는 내 품아시구 업찌므. {언는것인데 언는것은 내 품앗이고 업찌므.}

10340 # 사는건 동가지구 사는건 사는건 뭐 업찌. {사는것은 돈가지고 사는것은 사는것은 뭐 업찌.}

10340 # 가치 어울러 해는걸 품아시라 그래구, 내가 오늘 해니 내가 이르그이리그 바꿔야 하는게 인제 그 품아시구 도느로 해는 거는 뭐. {같이 어울러 해는걸 품아시라 그래고 ... 그 이렇게 이렇게 바꿔 해는거 품앗이고 돈으로 하는것은 뭐.}

10340 @ 돈을 주고 살때나 아니면 일꾸늘 어들때나 품아시할때는 일꾸늘 언는다구 하자나요? {돈을 주고 살 때나 아니면 일군을 얻을 때나 품앗이를 할 때는 일꾼을 언는다고 하잖아요?}

10340 # 업찌. {업찌.}

10340 # 그러니까 품아시는 내가 댕기므 다 어더야 되구 도급주는건 한사람 한사람 맨게주믄 끈나는거야 지가 아러서 지가 사라믄 다 어더 대니깐. {그러니까 품앗이는 내가 다니면서 다 얻어야 되고 도급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면 끝나는 거야. 지가 알아서 지가 사람을 다 얻어 대니깐.}

10340 # 도그븐 그러니깐 인제 여느 품, 품아시는 내가 일리리 다 댕기므 어더야대. {도급은 그러니깐 인제 여느 품은 품앗이는 내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얻어야 돼.}

10340 # 또 도늘 주는것뚜 그러쿠 도그파구 그 또 그게 두가다리야, 도그븐 한 사라맨테 맨끼는게 도그빈데 {또 돈을 주는 것도 그렇고 도급하고 그 또 그것이 두 가다리야, 도급은 한 사람한테 맡기는게 고급인데.}

10340 # 또 내가 내 자의로 또 사라믄 사서 심는건 건 아니자너 그건 도그브로 안드러가 그건그러니깐. {또 내가 내 자의로 또 사람을 사서 심는것은 아니잖아 그건 도급으로 안 들어가 그건 그러니까.}

10340 @ 사라믄 사면 뭘 줘야 됩니까? {사람을 사면 뭘 줘야 됩니까?}

10340 # 사면 품값똥 주지, 하루 얼마되는 거, 그래구 도그븐 한사라맨테 맨끼는데 이제 마냐게 한마지기에 오쳐뉘니믄 인제 오쳐뉘니믄 오쳐뉘늘 정해므는 개드리 고걸 아러서 고 동가지구 정해는데 일꾸늘 덜 지버너치, 그러니깐. {사면 품값을 주지 하루 얼마되는 것을 그리고 도급은 한 사람한테 맡기는데 이제 만약에 한마지기에 오천원이면 인제 오천원이면 오천원을 정하면 개들이 그걸 알아서 그 돈 가지고 정하는데 일꾼을 덜 집어넣지, 그러니깐.}

10340 # 하루 나가서 오쳐뉘 버는게 칠쳐뉘 그러케 올라가, 일꾸늘 쪼끔 너치, 그러니까 그 사라믄 그만큼 이를 마이 핸대는 얘기지. {하루 나가서 오천원 버는것이 칠천원 그렇게 올라가, 일군을 조금 넣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만틈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10340 # 열명씩글 지버너을 때다가 일곱빼게 안지버너어, 사라를 그래 세사라미 빠지자너. {열명씩을 집어넣을 때다가 일곱밖에 안 집어넣어, 그래 세사람이 빠지잖아.}

10340 # 그래 저가 인제 빨리 심자면 심는거야. 그러니까는 심긴 다 심찌 저가 빨리 시므니깐, 도니 고기 인제 자기 아프로 도라오자너. {그래 제가 인제 빨리 심자면 심는거야. 그러니까 심긴 다 심찌 제가 빨리 심으니까, 돈이 거기 인제 자기 앞으로 돌아오잖아.}

10340 # 그래 그게 도그비야 그래구 사서 심는건 내가 일이리 그건 내가 사는 사라른 내가 사서 심는건 그러쿠 품아시는 뭐 그건 서로 품아시 하니까. {그래 그것이 도급이야 그리고 사서 심는 것은 내가 일일이 그건 내가 사는 사람은 내가 사서 심는것은 그렇고 품아이는 뭐 그건 서로 품아이는 하니까.}

10340 # 그러치 품아시두 그래 그게 심드러, 그거 내는 심꾸다가 그거 땡기 품가플래면 지베서 풀두 묻 벼. 만날 나가 나메 해, 열명이면 열명을 다 땡기며 모를 시머야 대. {그렇지 품아이기도 그래 그게 힘들어, 그거 내는 심다가 그거 다니며 품갓을려면 집에서 풀도 못 벼. 만날 나가 남의 해 열명이면 열명을 다 다니면서 모를 심어야 돼.}

10340 # 소 일꾸 하른 심들지, 아주 심드러 풀 벨 시간두 업써, 점심때 꼬를 베야 되는데 점심 머그른 해찌근하구 아주 풀비기... 아, 또 저물구 해면 아주 해는 너머가지 꼬른 베야지 골치 아픈 게 그거야. {소 있고 하면 힘들지. 아주 힘들어, 풀 벨 시간도 없어, 점심때 풀을 베야 되는데 점심 먹으면 \*\*\*하고 아주 풀 베기... 아, 또 질물고 하면 아주 해는 너머가지 풀은 베야지 골치 아픈 것이 그거야.}

10340 # 들떠 그때는 사라미 그래서 돈 인는 사라른 조은거야, 돈 갓따만 주른 하루 오쳐널이른 오쳐널 딱 주른 나메 이를 안 가자나, 내 꺼만 돌려다보지. {들뛰어 그때는 사람이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거야. 돈 갓따만 주면 하루 오천원이면 오천원 딱 주면 남의 일을 안 가잖아. 내 것만 돌보지.}

10340 # 그러니깐 돈 업는 사람 심드러 농사두 그래 그러니깐 도그블 나물 쫄따른 그냥 슬슬 그냥 지베 논무리나 보구 이리 업찌 안그래? {그러니까 돈 업는 사람 힘들어 농사두 그래 그러니까 도급을 남 족다하면 그냥 슬슬 그냥 집의 논물이나 보고 일이 없지, 안그래?}

10340 # 품아시해른 만날 나가야 된단 말이야 매일 나가야 되자나. {품아이하면 만날 나가야 된단 말이야, 매일 나가야 되잖아.}

10340 # 내가 열명을 품아실 하므 여르를 꼭 나가야 돼, 소는 꼬를 베다 머게야 되니까 아주 힘들지. {내가 열명을 품아이하면은 열흘을 꼭 나가야 돼, 소는 풀을 베다 먹여야 되니까 아주 힘들지.}

10340 그 해찌근한테 뚜군데 가서 풀 벨란 점심머근 정말 묻벼 죽겐써, 또 해 넘어가는데 꼬치 나니깐 그게 베기두 바쁘자너. {그 \*\*\*한테 그 뜨거운 데 가서 풀 베려면 점심 먹고는 정말 못 벼 죽겠어, 또 해 넘어가는데 끝이 나니깐 그게 베기도 바쁘잖아.}

10340 # 덜뛰야 돼, 말두 모태 농사하는 게, 마지막이야 아이구 심드러. {들뛰어야 돼, 말도 못 해, 농사하는 게 마지막이야 아이구 힘들어.}

10340 # 지끄른 기계로 해니깐 사람들 안하.... 지끄른 그냥 그 기계 까그비 하루 언마다.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사람을 얹아 지금은 그냥 그 기계 가급이 하루 얼마다.}

10340 # 고걸 처가주구 한마지기 언마다 그게 나와 지끄른 그래 그거 기계가 지가 아려서 시머 주니까는 편해긴 편하지 그 사람은 돈만 주른 그 사라른 마지기 따져서 돈 받꺼덩 모 심어주므 기계루 심는 거는. {그저 정해주고 한마지기에 얼마다 그게 나와 지금은 그래 기계가 제가 알아서 심어주니까 편하긴 편하지 그 사람은 돈만 두면 그 사람은 마지기 따져서 돈 받거든. 모 심어주면 기계로 심는 거는.}

10340 # 그러니깐 편해지 지끄른 그래니깐 품아시가 업써, 지끄른 아내 지끄른 안 그래요 옌나

레나 그랜찌 지끄른. {그러니까 편하지 지금은 그러니까 품앗이가 없어. 지금은 얹해 지금은 안그래요,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10340 # 그리구 뭐 엔나레는 다 그 베 베를 또 비여서 까는건뚜 그래 벼 영 까러 강안도는 저 아랫너근 묵더구먼 여기는 벼서 제 자리서 까라뿌러 그걸 제자리다 워다가 인제 까라서 그걸 걷찌 아너, 또 사람 어더서 또 다 무꺼야대 요만큼씩 심드러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다 그 벼를 또 베여서 까는 것도 그래 벼 영 깔아 강원도는 저 아랫녘은 묵더고만, 여기는 벼서 제자리서 깔아 버려 그걸 제자리다 워다가 인제 깔아서 그걸 걷잖아, 또 사람 얻어서 또 다 묶어야 돼 요만큼씩 힘들어요.}

10340 # 그러니깐 지끄른 그게 업짜나. 기계가 나와서 기계가 와서 다 비여줘서 기계는 그게 다 버더 기계 올라가든 지피 다 무러 올라간다구.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없잖아. 기계가 나와서 기계가 와서 다 베줘서 기계는 그게 다 벌써 그게 올라가면 짚이 다 물어 올라간다고.}

10340 # 올라가든 거기서 떠러져서 빈 짐만 뒤로 떠러진다구. {올가가면 거기서 떨어져서 빈 짐만 뒤로 떨어진다구.}

10340 # 그건뚜 지끔 또 발따리 돼가서 지금 그걸 엔나렌 그걸 떠러진 걸 말린 걸 무꺼서 파러 머 건는데 지그른 안 그래, 또 그놈 기계가 또 이써, 그 베짖까러 노은 말린걸 와서 기계가 뜨새머 그놈미 물구드러가든 거기서 다 이런 노그닥처럼 무꺼져 나와 끄느루 그래, 그런데 그걸 갈따 인제 소를 메기거든 지금 그래요. {그것도 지금 또 발달이 되어가서 지금 그걸 옛날에는 그걸 떨어진걸 말린걸 묶어서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또 그놈 기계가 또 있어, 그 벗짚 깔아 놓은 마른 걸 와서 기계가 \*\*\* 그놈이 물고 들어가면 이런 \*\*\*처럼 묶어져 나와 끈으로 그래, 그런데 그걸 갖다 소를 먹이거든 지금 그래요.}

10340 # 대구 그래 그래, 농사는 발따리 돼가지구 힘 안드러, 지끔 사랴를 어더 씨지르 아나, 도 으지 그냥 지끄른 그냥 기계만 부르든 되는거야. {대구 그래 그래. 농사는 발달이 되어가지구 힘 안들어, 지금 사랴를 얻어 씨지를 얹아, 도저히 그냥 지금은 그냥 기계만 부르든 되는 거야.}

10340 # 아 엔나레 그 뭐 사람 한 이십명씩 지그른 이우싸람 한 댕명씩 여자를 어더야 되자너, 그건 여자들 채김이야 음식그 맵그러서 지구오는게. {아 옛날에 그 뭐 사람 한 이십명씩 지금은 이웃사람 한 다섯명씩 여자를 얻어야 되잖아, 그건 여자들 책임이야 음식을 만들어서 지고 오는 것이.}

10341 @ 음식을 만드는데 일꾼을 어더서 메겨야 되자나요, 그러면 머머 줘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일꾼을 어더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뭘 줘니까?}

10341 # 먹는게? {먹는거?}

10341 @ 아치든 다 먹꾸 오자나요? {아침은 마 먹고 오잖아요.}

10341 # 아침 먹꾸 오는데가 인꾸 메기는데가 인꾸 그래, 여러가지야 그런데. {아침 먹고 오는데가 있고 먹이는데가 있고 그래, 여러가지야 그런데.}

10341 # 우리 멍는 거지뜨, 특별음시기라는게 고기 사오는게 특별 무시기지뜨 다른 게 이써 안 그래? {우리 멍는 거지 뭐, 특별음식이라는 것이 고기 사오는 것이 특별 머시기이 지뭐 다른게 있어 안그래?}

10341 # 짜게 먹따가 고기 새로 갈따 주므 그게 특별 머시기지 인제 그게. {짜게 먹다가 고기 새로 갖다 주면 그게 특별 머시기이지 인제 그게.}

10341 @ 아치믈 주나... {아침을 주나...}

10341 # 아침두 줘. {아침도 줘.}

10341 @ 아치믈 보통 면씨에 멍나요? {아침은 보통 몇시에 먹나요?}

10341 # 날만 새믈 나가자나 그게 그러니깐 뭐 지금 일곱씨 한 여섯씨 하믈 다섯씨 그 정도되지. {날만 새믈 나가잖아 그게 그러니까 뭐 지금 일곱시 한 여섯시 하면 다섯시 그 정도되지.}

10341 @ 그담에는 뭐 먹어요? {그담에는 뭐 먹어요?}

10341 # 그게 제누리라구 인써, 그게 또 제누리 지그른 공사해는데 다 제누리 메겨, 애들 지베서 바반머거나서 애들 일구 씨든 다 나와 일해야 된다고 집짚는 사람들 개들두 근데. {그게 제누리라구 있어, 그게 또 제누리 지금은 공사하는 데서 다 제누리 먹여, 애들 집에서 밥 안 먹어서 일곱씨면 다 나와 일해야 된다고 집짚는 사람들 개들도 그런데.}

10341 # 열씨른 개드리 제누리 먹더라구. {열시면 개들이 제누리 먹더라구.}

10341 @ 젠? {젠?}

10341 # 젠누리. {제누리.}

10341 # 그럼 열씨른 먹더라구 집짚는, 사람들뚜 농사꾼두 그러치므, 근데 농사꾸는 한 여란시쯤 돼서 제누리가 나오지 그거 먹꾸 정시른 새로 한시가 돼야 먹. {그럼 열시면 먹더라구 집짚는, 사람들도 농사꾼도 그렇지 뭐, 근데 농사꾼은 한 열한시쯤 돼서 제누리가 나오지 그거 먹고 점심은 새로 한시가 돼야 먹어.}

10341 @ 한시에 먹꾸 나며는요. {한시에 먹고 나며은요.}

10341 # 그런데 제낙제누리두 이씨요 인킨 그게 또 제낙때두 제낙때두 이씨요, 그러니깐 네킨지 그러케 명는다구. {그런데 저녁제누리도 있어요, 있긴 그게 또 저녁때도 저녁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끼닌지 그렇게 먹는다구.}

10341 @ 아침부터 하며는. {아침부너 하면은.}

10341 # 아침, 제누리, 제낙제누리, 점심 네끼야 네깎 메게야 대. {아침, 제누리, 저녁제누리, 점심 네끼야, 네기를 먹이어야 돼.}

10341 # 점심먹꾸 그러니깐 인제 제누리 인제 해 거방 갈 무래 인제 그때 제낙제누리가 나와. {점심먹고 그러니까 인제 제누리 인제 해가 금방 갈 무렵에 인제 그때 저녁제누리가 나와.}

10341 # 그러니깐 인제 그거 머그므 그거 먹꾸 가 나메 풀베구 또 어떤 사라른 지베가 그냥 자빠져 자구 또 그냥 나오구 그래. {그러니까 인제 그거 먹으면 그거 먹고 가 남의 풀베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가 그냥 자빠져 자구 또 그냥 나오고 그래.}

10341 # 그래 심드러, 그게 여자가 하는거지 그건다 여자꺼지. {그래 힘들어. 그게 여자가 하는 거지 그건다 여자까지.}

10341 # 여자드리 심들지. {여자들이 힘들지.}

10341 @ 제누리에는 머머 나와요? {제누리에는 뭐뭐 나와요?}

10341 # 제누리는 국쌀 살머요, 바쁜 아내. {제누리는 국수를 삶아요. 밥은 안해.}

10341 # 주로 국쌀 마이 삼찌머. {주로 국수를 많이 삶지뵤.}

10341 @ 그다메 머 또 마신는거 또 일씨요? {그담에 뭐 또 맛있는거 또 있어요?}

10341 # 마신는거 머 정시벤 고기야 그때 돼지고기 머. {맛있는거 뭐 정심에 고기야 그때 돼지고기 뭐.}

10341 # 닥 그건뚜 인제 자라는 사라른 그러꾸 그러치므. {답 그것도 인제 잘하는 사람은 그렇고 그렇지뵤.}

10341 @ 뭘 또 마시나요, 마시는게 뭐가 이씨요? {뭘 또 마시나요, 마시는것 뭐가 있어요?}

10341 # 마시는거 뭐가 일나? {마신는것 뭐가 있나?}

10341 # 아이 생가개보라, 고기 머 닥꼬기 돼지고기 그리구 소고기 심들지 아너 \*\*\*\*\*. {아니 생각해봐, 고기 뭐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힘들지 않아 \*\*\*\*\*.}

10341 @ 멍능거 이게 마시는 거 마시는 거요. {먹는 거 이게 마시는 거 마시는 거요.}

10341 # 그건 막걸리지 그때는 또. {그건 막걸리지 그때는 또.}

10341 @ 그때 그걸바께 업씨요? {그때 그것밖에 없어요?}

10341 # 그럼. {그럼.}

10341 # 막걸리지 그전 옼나렌 지끄문 인제 또 이르케 전부 쇠주지만 옼나렌 또 막걸리지, 막걸리 한말씩 바더다가 통자로다가 사옴 먹꾸 그랜찌 머. {막걸리지 그전 옼날옼 지금은 인제 또 이렇게 전부 소 주지만 예날옼는 막걸리지 막걸리 한말씩 받아다가 통으로다가 사옴면 먹고 그렸지 뭐.}

## 1.4. 의생활

### 1.4.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10401 @ 어르신 그 옛날에 의생활에 대해 여쭙보겠는데 여기서의 옷만들거 만들기 위해서 재배한거 인가요? {어르신, 그 옛날에 의생활에 대해 여쭙보겠는데 여기서의 옷같은거 만들기 위해서 재배한것 있나요?}

10401 # 온? {옷?}

10401 @ 예 옷만들려고 재배한거. {예 옷만들려고 재배한 거.}

10401 # 그거 사미지 명. {그거 삼이지 명.}

10401 @ 여기서만 해썬요? {여기서만 했어요?}

10401 # 삼베하구 명. {삼베하고 명.}

10401 @ 예. {예.}

10402 # 삼베 지금 아낙네가 삼베 마이 해자녀. {삼베 지금 아낙네가 삼베 많이 하잖아.}

10402 # 사람 여음 해는 데두 인꾸 그거 드러가구, 명은 우리네 지금 입는 바지저구리. {사람 엮하는 데도 있고 그거 들어가고, 명은 우리네 지금 입는 바지저고리.}

10402 # 그건 마이 햐찌므 그거 솜트러 가지구 그거 시:털 빼가지구다가 그걸루다가 내 소느로 짜가지구 전부 햐이버찌므 옛날엔. {그걸 많이 했지뵤. 그것 솜틀어 가지고 그걸 실을 빼가지고 그걸로다가 내 손으로 짜가지고 전부 햐 입었지 뵤.}

10401 @ 그러며는 그걸 하기위해서는 멀 시머야 되쥬 그거 명 할러며는 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뵤 시머야 되쥬, 그걸 명 할러면 뵤?}

10401 # 명을 시머야 인제 그게 열매가 달린다구 지금 내 우리집게 지금 보니깐 한 이십송아리 심었떠라 그래 그걸 멀라 심었는지 몰라. {명을 심어야 인제 그게 열매가 달린다고, 지금 내 우리 집 것 지금 보니까 한 이십송아리 심었떠라, 그래 그걸 뵤하려고 심었는지 몰라.}

10401 @ 그걸 목. {그걸 목.}

10401 # 모카라 그러지 모카. {목화라 그러지 목화.}

10401 # 아직 그게. {아직 그게.}

10401 @ 그걸 어떻게 재배합니까? {그걸 어떻게 재배합니까?}

10401 # 심는다구 씨를 시머는 그게 나와 명. {심는다구 씨를 심으면 그것이 나와 명.}

10401 # 그게 열매처럼 돼썬유 아주 그놈이 여무느므 고느므 바라진다구 요러케 네가닥 짝 바라 지므 고기서 햐얀 소미 이러케 나온다구. {그게 열매처럼 뵤어요. 아주 그놈이 여물면 고 놈이 발 가진다고 요렇게 네 가닥 짝 발가지면 거기서 햐얀 솜이 이렇게 나온다구.}

10401 # 아주 보기 조치, 그게 개두 그 화초를 시머떠라구 여기 나직게 가는데. {아주 보기 좋 지. 그게 개도 그 화초를 심었떠라고. 여기 \*\*\* 가는데.}

10401 @ 어디서 시머요? {어디서 심어요?}

10401 # 여기 시머떠라구 누가 화초를 시머떠라구. {여기 심었떠라구. 누가 화초를 심었떠라구.}

10401 # 기계 트러가지구 그걸 시를 뵤짜녀, 이 물레에다가 그거 모태 이 가라기래는 게 거기에 다가 햐가지구다가 끄늘 매가지구 햐므 그 소미. {기계 틀어가지고 그걸 시를 뵤잖아, 이 물레에 다가 그거 못햐 이 가락이라는 게 거기에다가 햐가지고다가 끈을 매가지고 햐면 그 솜이.}

10401 # 요러케 뵤그라케 마라, 그 고치라구 그걸 요만큼 그래 그걸 가다 대:서 요러케 햐구 한 소네 이러케 들뵤 이 물레 가라긴가 그놈이 도라가믈. {오렇게 뵤그랴게 햐야, 그 고치라고 그걸 요만큼 그래 그걸 갖다 대서 요렇게 햐고 한 손에 이러케 들뵤 이 물레 가락인가 그놈이 돌아가 면.}

10401 # 이 시리 뽀바저, 이러케 돌든 그러든 이게 이러케 해가주 다됨 또 또 이러케 해든 그걸 뽀 \*\*\*\* 그놈이 그놈 두루루 해서 다 시를 다 마러올려. {이 실이 뽀아져, 이렇게 돌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갖고 다 되면 또 이렇게 해면 그것도 \*\*\*\* 그놈이 그놈 두루루 해서 다 실을 다 말아올려.}

10401 # 그래서 거그 그걸루다가 그걸루다 끄늘 해는 거지 그래가지구 그걸 해가주구다 그늘 대면 인제 길게 연결시키는데야. {그래서 거기 그걸로다가 그걸로 끈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끈을 대면 이제 길게 연결시키는데야.}

10401 # 그래가지구다가 벼를 짜는거야, 벼에 명 엔나렌 다 그래썬, 또 명이라는 거는 꼬치야 누에꼬치. {그래갖고 벼를 짜는 거야, 벼에 명 옛날에는 다 그랬어, 또 명이라는 것은 꼬치야 누에꼬치.}

10401 # 누에 꼬치를 그러케 꼬러가지구 시를 뽀바내유, 그래가지구 그거지 구그래가지구 다 짜지, 세가지야 바테다 나서 해는 건. {누에꼬치를 그렇게 끊어갖고 실을 뽀아내유, 그래갖고 그거지 그 그래갖고 다 짜지, 세가지야 밭에서 나서 하는 것은.}

10402 @ 벼 이짜나, 삼베 이짜나요, 삼베는 언제 심나요, 언제 어디서 어디에 심나요? {벼 있잖아, 삼베 있잖아요, 삼베는 언제 심나요, 언제 어디서 어디에 심나요?}

10402 # 그걸뽀 이른 보메 심찌, 그래서 인제 여름나쁜 갈:게 되든 벼서 가메 가튼데다 크게 짜가지구 거기다가 무를 붙꾸다 그 삼베란 게 한 다섯여섯짜 되지, 찌레기가 되게 커 요런게. {그것도 이른 봄에 심지, 여름이면 가을되면 벼서 가마 같은데다가 크게 짜갖고 거기다가 물을 붙고 그 삼베란것이 한 다섯여섯자 되지, 길이가 되게 커 요런게.}

10402 # 그래 거기다 지버너쿠 싸가지구 꼭 싸가지구다가 그래구서 미테다 부를 때면 그 무리 끌르면서 그 지메 그놈 잉는다구. {그래 거기다 집어넣고 싸가지고 꼭 싸가지고 그리고 밑에다 물을 때면 그 물이 끓으면서 그 김에 그것이 익는다고.}

10402 @ 어르신, 고걸 다시 여쭙보고 시폰데 삼 가튼 경우 사미 크면 수화글 하자나요, 수화글 하면 어더게 손질해서 벼를 만드나요? {어르신. 그걸 다시 여쭙보고 싶은데 삼 같은 경우 심이 크면 수화글 하잖아요, 수화글 하면 어떻게 손질해서 벼를 만드나요?}

10402 # 그놈 더 마초라구 그놈 모태게 해자나 문 먹짜나, 입싸구 그놈 삼 입싸구야, 그걸 인제 그 이파리를 다 따다구. {그놈 뭐, 마초라고 그놈 못하게 하잖아, 못 먹잖아, 잎사귀, 그놈 삼 잎사귀야 그걸 인제 그 이파리를 다 따다구.}

10402 @ 이파리를 다 따고요. {이파리를 다 따고요.}

10402 # 그럼 다 따구 아이구 인제 가지에 막 이런 게 올라가 그놈께 다섯여섯짜 지레기 똑바로 올라가지 그놈 그놈 그걸 벼 가지구다가 무꺼 이만큼씩 무꺼가주구. {그럼 다 따고 아이고 이제 가지에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올라가 다섯여섯 자 길이가 똑바로 올라가지 그놈 그러면 그걸 베어가지고 묶어 이만큼씩 묶어가지고.}

10402 @ 어느 정도 묶습니까?{어느 정도 묶습니까?}

10402 # 으~? {응?}

10402 @ 어느 정도? {어느 정도?}

10402 # 아 그러니까 들구 당길 조을 망큼 무꺼서 가매에다 지버너어, 큰 가멜 이러케 맵기러 거기다 무를 붙꾸다가 그리구 그 놈들 갈따 거기다 지버 눈넌 거야. {아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좋을 만큼 묶어서 가매에다 집어넣어, 큰 가마를 이렇게 만들어 거기다 물을 붙고 그리고 그 놈을 갖다 거기다 집어 넣는 거야.}

10402 # 그래갈꾸 꼭 싸매, 지미 문 나가게. {그래갖고 꼭 싸매, 김이 못 나가게끔.}

10402 @ 어더게 꼭매기 씌니까?{어떻게 꼭매기 씌니까?}

10402 # 아 이제 그르그 흘구 꼭 더찌 여는걸 더퍼가지구 짐 몬나가게. {흙을 꼭 덮지, 어느 걸

덜어가지고 김 못 나가게끔}

10402 @ 흑? {흑?}

10402 # 그럼. {그럼.}

10402 @ 어떤 흘글 쓰나요? {어떤 흑을 쓰나요?}

10402 # 땅 흘가지므 땅 여는 걸루 형겁가튼 걸로 싸가지구 그래가지구 그럼 지미 몬나가게 멩 그는 거야, 짐만 몬나가게 {땅흘이지뵤, 땅 여는걸로 형겻같은걸로 싸가지고 그래작고 그럼 김이 못나가게 만드는데야, 김만 못 나가게끔.}

10402 # 미테다 부를 때면 그 무리 끌차너, 그럼 무리 끄러 올라가면서 기메 폭 이겨. {밑에다 불을 때면 그 물이 끓잖아, 그럼 물이 끓어 올라가면서 김에 폭 익어.}

10402 # 그래믄 그걸 인제 다 빼구 시근다메 꺼내믄 그게 꺼푸리 주루룩 그냥 저절로 베껴지므. {그러면 그걸 인제 다 빼구 식은 담에 꺼내면 그게 꺼풀이 주루룩 그냥 저절로 벗겨지지 뵤.}

10402 @ 한 얼마나 계속 부를 지핍니까? {한 얼마나 계속 불을 지핍니까?}

10402 # 그런데 고건 난 때는 거 몰란데 그게 한 머 하루믄 충분내지, 그건. {그러면 그건 난 때는 것은 몰랐는데 그게 한 뵤 하루면 충분하지, 그건.}

10402 @ 하루 계속 때야 돼요? {하루 계속 때야 돼요?}

10402 # 그러치 고거 물만 끄를짱, 고거 인제 정도해서 해는 거니까 그거. {그렇지 그거 물만 끓을 정도, 그거 이제 정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10402 @ 그무를 그거 이제 무를 막 끄리면 이제 그게 무리 이제 증기가 이러케 막 생겨가지구. {그 물을 그거 이제 물을 막 끓이면 이제 그게 물이 이제 증기가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10402 # 그래서 인제 그게 잉는거야. {그래서 인제 그게 익는 거야.}

10402 # 감자찜 해 멩는 그 시기야, 감자 \*\*\* 해서 물부머 물 찌그럭해믄 감자 옥시기 구워멍는 거 보자너, 그거 이러케 해가지구 그 시기야. {감자찜 해 멩는 그 식이다, 감자 \*\*\* 해서 물 부으면 물 찌그럭하면 감자 옥수수 구워멍는 거 보잖아, 그거 이렇게 해갓고 그 식이야.}

10402 # 그래가지구 그 꺼푸를 베껴서 인제 그놈을 인제 그놈을 갓따 그놈을 쟈무레데가. {그래갓고 그 꺼풀을 벗겨갓고 인제 그놈을 인제 그놈을 갓따 그놈을 재물에다가.}

10402 # 쟈무르믄 다르게 아니라 재를 갓따 시루에다 대구 무를 그걸 부어가지구 무를 부으면 그게 그거야 그 물을 그걸 갓따가 거기다가 한데 버무려서 또 디리 빠라요, 그래믄 그 껍테기가 다 뵤겨진다구. {재물은 다르게 아니라 재를 갓따 시루에 대구 물을 그걸 부어갓고 물을 부으면 그게 그거야 물을 그걸 갓따가 거기다가 한데 버무려서 또 되려 빨아요, 그러면 그 껍테기가 다 벗겨진다고.}

10402 # 다 뵤겨지므 그걸 갓따가 또 여자드리 이 인찌아너, 그걸. {다 벗겨지면 그걸 갓따가 또 여자들이 잇잖아, 그걸.}

10402 # 그걸 이어 고걸. {그걸 이어 그걸.}

10402 # 이브로다 해 지끔 여기 다: 뵤겨져 노인들 그거 안노인네드리 하자나, 그러니깐 그거 양짜겉 두겉 다 쥐구 바늘 쪼개 요러케 딱 대자나, 요러케. {그걸 입으로 해 지끔 여기 다: 벗겨져 노인들 그걸 안노인네들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양쪽 겉 두 개를 다 쥐고 반을 쪼개, 요렇게 딱 대잖아, 요렇게.}

10402 # 그러믄 고래가지구 요러케 하면 오러케 하믄 아직 그게 안 떠러져 여길로 질게 되지 마라자면 여기서 머 서우털 가든 말든 그래 인제 어느 정도. {그러면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아직 그게 안 떨어져 여기로 길게 되지 말하자면 여기서 뵤 서울을 가든 말든 그래 인제 어느 정도.}

10402 # 이제 한 자로 대믄 한 삼십짜나 사십짜 쟈도 지래기로 해래, 그걸 그러믄 인제 또 나무 또 짜서 이러케 팔랑개비처럼 열십짜로다 질:게 짜가지구 거기다가. {이제 한 자로 대면 삼십자나

사십자 정도 길이로 하래, 그걸 그러면 인제 또 나무 또 짜서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열십자로 길게 짜가지고 거기다가.}

10402 # 꼬테다간 말뚝글 하나 툄러가지구 바겨, 거기다가 거는거야, 대구 요건 물레다 툄러가지구 고 꾸리르. {끝에다가 말뚝을 하나 툄어가지고 박아, 거기다가 거는 거야 대구 이건 물레다 툄러가지고 그 꾸리를.}

10402 # 그건 머 머야, 요러케 맹그러, 이 실망큼 요망큼 맹그러 고걸 빼, 빼날따 거기다가 인제 그걸 간:는거야 이러케 아주. {그건 뭐야, 요렇게 만들어, 이 실만큼 요만큼 만들어 그걸 빼, 빼냈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감는 거야 이렇게 아주.}

10402 # 그걸 크게 짜지게, 짜레기가 인제 한 일구 여덜짜 되게 그래야 딱 열십짜야, 그제. {그걸 크게 짜지게, 길이가 이제 한 일곱 여덟 자 되게 그래야 딱 열십 자야, 그제.}

프# 그런데 거 꼬트마리에다가 말뚝글 바그니간 인제 거기서 거러서 이러케 툄리른 거기 다 갱긴게 아니야 그제 연겨를 해가지구 그래가주구다가 그제 짜유. {그런데 그 끝머리에다 말뚝을 박으니까 이제 거기서 걸어서 이렇게 툄리면 거기에 다 감긴 게 아니야 그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짜요.}

10402 # 그래가지구 그놈들 다 나라가지구 허여케 또 무레 재무레다 빠러가지구 인제 갈따 그놈물 또 그 베턄레다 거기다가 해는데 또 그 가머 그걸, 감능게 이써. {그래가지고 그놈을 다 날아가지고 허영게 또 물에 재물에다 빨아가지고 이제 갖다 그놈을 또 그 베턄레다 거기다가 하는데 또 감어, 이제 그걸, 감능게 있어.}

10402 # 그걸 그 시를 다 거기다 가머.

10402 # 가머가지구 그 저 바징가 아이구, 거기다 그 고기 그 널비마꾸 그 또 바지가 이써, 왜 우리 이제 비석 비석과 또가태 빈, 그래 인제 그제 영성헨거는 머 인제 그걸 짜므는 영그러케 나오구. {감아가지고 그 저 바지인가 아이고, 거기에다 그 넓이만큼 또 바지가 있어, 왜 우리 비석과 똑같아, 그래 이제 그제 영성한 것은 뭐 이제 그걸 짜면 영그러케 나오고.}

10402 # 그제 곱:게 아주 송칠배긴건 그건 조치아너. {그제 곱게 아주 송필 박힌 것은 그건 좋지 않아.}

10402 # 인제 그르케 나오능게 사래미 짜가주구.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사람이 짜가지고.}

10402 @ 얼, 어르신 근데 그 고 고걸 이르케 이어쓸 때 ... {어르신 그걸 이렇게 이었을 때...}

10402 # 어, 바, 바지, 바, 바지라구래드라, 머 \*\*\* 나 이거는 저두 모르게는데. {응, 바지라 그러더라, 뭐 \*\*\* 이건 저도 모르겠는데.}

10402 # 그 나갈 모~냐~이야. {그 나갈 모양이야.}

10401 @ 저기 아까 그... {저기 아까 그...}

10401 @ 고걸 일케 이연 이연짜나요, 고게 쪽:: 인제 꺾질 버껴지면 고걸 고걸 머라 합니까, 고거는? {저 이제 꺾질 벗겨서 그것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10401 # 이 이음매라 그러지 머 그걸 머 이리미 인나 그제 머. {이 이매라 그러지 뭐. 이름이 있나 그거.}

10401 @ 고거를 인자 모시라... {그것을 이제 모시라...}

10401 # 아 그거 거 삼베만 그러케 해. {아 그거 그 삼베만 그렇게 해.}

10401 @ 아 삼베만뇨? {아 삼베만요?}

10403 @ 그이가 모시가통 경우에는 그러머는... {그거 모시같은 경우에는 그러머는...}

10403 # 모시도 또까통 거지머. {모시도 똑같은 것이지 뭐.}

10403 # 그래두 거 점부 이르케 대고 여:가지고 여 글게 질게 맹그릉 거야. {그래도 그 전부 이

렇게 대고 넣어 가지고 그렇게 길게 만든 거야.}

10403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403 # 그럼. 명은 대고 이 이 숨빠로 트러. {그럼. 명은 대고 숨빠로 틀어.}

10403 # 씨, 그 씨, 머 씨아싱가 머 그거 이러 트러가지고 씨 빼가지고다 그거 숨빠로 틀면 언 제 이 그걸 갓따가. {씨, 그 씨, 뭐 씨앗인가 뭐 그걸 틀어가지고 씨를 빼가지고다가 그걸 숨빠를 틀면 이제 그걸 갓따가.}

10403 # 똑, 고치라 그래. 그걸 요그보다 국계 지레기 요리케 마러 그래 그걸가따 물레에다 또... {또 고치라 그래. 그걸 요것보다 굵게 길게 이렇게 말아. 그래서 그걸 갓따가 물레에다 또...}

10403 # 가라게다가 해가지고 가라게 고 가락 빼조캥게 그 네미 도라가머서. {가라에다다가 해 가지고 가락에 그 가락 뽀족한 게 그 놈이 돌아가머서.}

10403 # 시를 이러케 자버 땡기므 시리 나온다구. {실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실이 나온다고.}

10403 # 그래도 이러케 해서 또 이러큼 딱 시 가라게 지머서 으뚜케 돌리문 그누무 시를 그노이 다 도라감 다 지버머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딱 실 가락에 \*\*\* 어떻게 돌리면 그놈의 실을 그놈이 다 돌아가머 다 집어 먹어.}

10403 # 그래구 이르게 다 되면 또 인제 돌리고 수우카면 이게 시리 그러케 조조. {그래고 이렇게 다 되면 또 인제 돌리고 수욱 하면 이게 실이 그렇게 지어져.}

10403 # 모태는 사람 그갓 국따 알따 그러케 나오테요 몽태기로 막 빠져 딱 그또 요령이 인제 그게 송끄트로 해놓 건데... {못하는 사람은 그게 굵다가 얇다가 그렇게 나오테요. 몽태기로 막 빠져, 딱. 그것도 요령이, 인제 그게 손끝으로 하는 건데...}

10403 # 그래가지고 인제 그걸 해가지고 대구 인제 그 가라게다 해가지고 그걸 대구 또 이인는 다고. {그래가지고 인제 그걸 해가지고 대구 그 가라에다 해가지고 그걸 대고 또 잇는다고.}

10403 # 게서 그걸 대구 여러가지르 포하매가지고 인제 그 그 바지라 그래 그그. {그래서 그걸 대구 여러가지를 포함해가지고 인제 그 그 바지라 그래 그거.}

10403 # 거기다 찌머서 인제 그래가지고 또 부를 해노코 거기다가 풀치를 해서, 쓰, 마, 대구 풀 치를 해서 말려 그러니까 꺼푸리 아니러나지. {거기다 찌머서 인제 그래가지고 인제 그래가지고 또 불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풀칠을 해서, 풀칠을 해서 말려 그러니까 꺼풀(보풀?)이 안 일어나 지.}

10403 # 그래이까 시리 아주 그게 이 꺼푸리 이러나지 모타게. {그러니까 실이 아주 그게 이 꺼 풀이 일어나지 못하게.}

10403 # 그래가주 이르게 풀치를 해가서 매다 인제 뜨드태니까 거기 말르면 인제 그 도, 도툼바 리라 그래드라 시방 거기다 가머, 그걸.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칠은 해서 매달면 인제 뜻뜻하니까 그게 마르면 이제, 그 도툼바리라 그러더라 시방, 하는 거기에다 감아, 그걸.}

10403 # 거 머 픽, 그거하고 또까찌 그거 인제 고기다 꺾어오 하나하나씩 따. {거 머 그거하고 똑같지, 그걸 이제 거기다 꿰고 하나하나씩 다.}

10401 # 그래다 인제 줄 드문 꺼능건 건 억써, 그게 인제 짜두 오시 삼베가 그거야. {그래다가 인제 드\*\*\*\* 건 그게 억세, 그게 인제 짜도 옷이 삼베가 그거야.}

10401 # 그게 이제 고오게 행건 쪼끄민제 부드러꾸. {그게 이제 곱게 한 건 조금 인제 부드러 고.}

10401 # 그거야, 명도 그래. {그거야, 명도 그래.}

10401 # 그래서 그러케 짜가지구다가 살은 다 일러그로 여자드리 짜가 그케 해가 짜가지구 그걸 루 인제 가물 맹기능거지 그거 인제 오슬 해 임능거지 머. {그래서 그렇게 짜가지고다가 살은 다 인력으로 여자들이 짜가, 그렇게 해가, 짜가지고 그것으로 인제 감을 만드는 거지, 그거 인제 옷 을 해 입는 거지 뭐.}

10403 @ 그 모시 가튼 경우에는 모시 머 짜고 삼꼬 그렇거 이짜나요? {그 모시 같은 경우에는 모시 뭐 짜고 삼꼬 그런 거 있잖아요?}

10403 # 그래 공계 그게 또까튼 거지. {그래 그러니 그게 똑같은 거지.}

10403 # 모, 모시도 또가튼 거예요.다. {모시도 똑같은 거예요, 다.}

10403 # 다 그러케 영그리다 실로 질게 맵기룽거야. { 다 그렇게 영글이다 실로 길게 만든 거야.}

10403 # 짜능거야. {짜는 거야.}

10403 @ 짜능거는 머예요, 모시 짜능거는 머예요? {짜는 건 뭐예요, 모시 짜는 거는 뭐예요?}

10403 # 짜능거? {짜는 거?}

10403 # 껌찌를 이런저런 저런데 저그 뺑둘러 이거 부터짜너. {껌질을 이런저런 저런데 저기 뺑둘러 이거 붙었잖아.}

10403 # 그래서 인제 그 빈 데 그 꼬트말 거그가 이러케 하면 그 베껴지자너. {그래서 인제 그 빈 데 그 꼬트머리 거기가 이렇게 하면 그게 벗겨지잖아.}

10403 # 그 그르먼 그를 소는 너코 이력카면 고계 그낙 다 한테 부터서 그 껌떼기가 흘랑 비껴지능거야. {그러면 인제 그래, 소늘 넣고 이렇게 그게 그냥 다 한테 붙어서 그 껌떼기가 흘랑 벗겨지는 거야.}

10403 # 그래가 나쁜 나무대로 떠러지고 실 전체가 그게 가다리 안지구. {그래서 나무는 나무대로 떨어지고 실 전체가 그게 가달이 안 지고.}

10403 @ 예, 그걸로 인제 모시가... {예, 그걸로 인제 모시...}

10403 @ 그게 인제 짜능 거예요, 아, 그럼 짜고 나서 삼능 거는뇨? {그게 인제 짜는 거예요, 아, 그럼 짜고 나서 삼는 거는요?}

10403 # 그럼. {그럼.}

10403 # 씹:능거, 그거 이따 씹능거 그 제... {삼는 거, 그거 이따 삼는 거, 그 제...}

10403 @ 삼능거요, 삼능거, 모시 삼능거. {삼는 거요, 삼는 거, 모시 삼는 거.}

10403 # 삼능거 그때 그그 저저 이 저 나무 때, 그걸 시루에다가 구멍, 시루가 구멍 뚜러져짜너? {삼는 거, 그때 그그 저저 이 저 나무를 때, 그걸 시루에다가 구멍, 시루가 구멍 뚫어졌잖아?}

10403 # 거기다가 다머가지구 무를 부멍 그 무리 대:구 떠러져 인제.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대구 떨어져 인제.}

10403 # 그 그르세다가 안찌노코 그러믄 그걸 쟈무리라 그래. 예, 엔나렌. {그 그릇에다가 얹혀 놓고 그러면 그걸 잣물이라 그래. 예, 옛날엔.}

10403 # 근데 거기다 빨자나. 그래가 거기다 당귀. {근데 거기다 빨잖아. 그래서 거기다 담귀.}

10403 # 그래가지고 냐, 저런 큰 강에 그런데 가타 그룽글 다 거기다 푸러다가 이르게 대구 혼드러 빨지. {그래가지고 냐, 저런 큰 강에 그런데 갔다 그런 걸 다 거기다 풀어다가 이렇게 대구 흔들어서 빨지.}

10403 # 그러믄 인제 그 거테 껌떼기가 다 비끼져 나가능거야. { 그러면 인제 그 곁에 껌떼기가 다 벗겨져 나가는 거야.}

10403 # 그르이까 하야케 데능거지. {그러니까 하얗게 되는 거지.}

10403 @ 모시 날기는 머예요, 날기, 날기라는 거시 모시 나는거? {모시 날기는 뭐예요, 날기, 날기라는 것이 모시 나는 거?}

10403 # 어, 모시?{어, 모시?}

10403 @ 예 모시를, 모시 날기, 그룽거 인나요? { 예 모시를, 모시 날기, 그런 게 있나요?}

10403 # 그게 뭘까? {그게 뭘까?}

10403 @ 모시 메는 거는뇨, 모시 메는 거? {모시 메는 거는요 모시 메는 거?}

10403 # 응 끈맨능거? {응 끝 맺는 거?}

10403 # 매능, 모시두 또까찌머, 사마고 또까툭 건데 내가 머 알겐, 그 제 칩뚜 해요, 칩. {메는, 모시도 똑같지 뉘. 삼하고 똑같은 건데 내가 머 알까. 그 저기 칩도 해요, 칩.}

10403 # 칩 나가능거 그거 모시야 그게. {칩 나가는 거 그거 모시야, 그게.}

10403 # 요, 요러케 매드매드대다 요러케 이 싸고나자나 칩또 이케 버더 나가면서. {이, 이렇게 마디마디에다 이렇게 이 싸고 나잖아, 칩도 이렇게 벌어 나가면서.}

10403 # 고런데 고 매대기 고 아늘 고 끄너 가지고 그걸 그거또 그러케 베껴.{그런데 그 매대기 그 안을 그 끊어 가지고 그걸 그것도 그렇게 벗겨.}

10403 # 그래가지고 그게 모시야요 그래믄 그게 삼베하고 다르지. {그래가지고 그게 모시예요 그러면 그게 삼베하고 다르지.}

10403 # 그걸 해요.그리고 매딜 뚝 찢라가지고 그걸 헨다고. {그걸 해요. 그리고 마디를 뚝 잘라가지고 그걸 헨다고.}

10403 # 그래서 그게 다 이매를 해야 돼 그래가그래까 그게 모시가 데능거야. {그래서 그게 다 이음매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모시가 되는 거야.}

10403 # 그걸 이제 시:를 질게 매, 대고 영겨를 해가지구 매가지구 그걸 해머는 인제 그게 모시가 데능거야. {그걸 이제 실을 길게 매, 대고 연결을 해가지고 매가지고 그걸 하면은 인제 그게 모시가 되는 거야.}

10403 @ 그걸 이, 인능거를 이매라 한다고요? { 그걸 잇는 걸 이매라 한다고요?}

10403 # 그럼, 임:매라 그러지. 근데 그걸 바늘 쪼개 양쪽질 다.{그럼, 이음매라 그러지. 근데 그걸 반을 쪼개. 양쪽 질 다.}

10403 # 그래가지고다가 이르케 마터. {그래가지고다가 이렇게 맞혀.}

10403 # 이르케 그래가지고다 우리는 그게 안테드라, 여자드른 자라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다 우리는 그게 안되더라, 여자들은 잘하는데.}

10403 # 이룩, 마창가지, 이력, 이력케 이력케 하믄 딱 분능깁데 우린 해머는 그게 암부터. {이렁, 마창가지, 이렁,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붙는 건데 우린 하면은 그게 안 붙어.}

10403 # 여자는 자래요.그래 순저니 그걸 가지고 그르케 질게 짜, 그룽게 머 한 삼십짜. {여자는 잘해요. 그래 순전히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길게 짜, 그러니까 머 한 삼십자.}

10403 # 그르케 그글 이:음매 하능기야.{그렇게 그걸 이음매 하는 거야.}

10403 # 하나를 그르이까 그 그 수수이 여 가다리야냐 그게 널께 할라믄, 다 그러케 해서 멩기러. {하나를 그러니까 그 그 여 가달이 아냐, 그렇게 넓게 하려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10403 @ 그럼 이:매, 임:매? {그럼 이매, 임매?}

10403 # 그럼, 임:매 해가지구. {그럼, 임매 해가지고.}

10403 @ 임:매라고 한나고요? {임매라고 한나고요?}

10403 # 그럼 임:매라 그러지. {그러니 임매라 그러지.}

10403 # 그래가 다 짜능거, 어디 머 지르케 징게 어디써 생가글 해바. {그래거지고 다 짜는거야, 어디 머 저렇게 긴 게 어뵈어, 생각을 해봐.}

10404 @ 이 질싸믄 하자나요, 질쌘. {이 질쌘을 하잖아요, 질쌘.}

10404 # 어, 글썸, 그걸 질싸미라 그러지 였나렌. {어? 글썸, 그걸 질쌘이라 그러지 였날엔.}

10404 @ 할 때 어떤 그 쓰는 기구는 어떻게 이써써요, 질싸메? {할 때 어떤 그 쓰는 기구는 어떤 게 있었어요, 질쌘에?}

10404 # 물:레가 이짜나 물:레. {물레가 있잖아, 물레.}

10404 @ 이제 그애 물레가 이꼬요. {이제 그게 물레가 있꼬요.}

10404 # 그래 물레가 하능거야, 그래 각, 가락, 그거이 꺼 세가 고거 인제 가라기랑근 세루 멩기  
릉거야, 세루 빼조카게. {그래 물레가 하는 거야. 그래 각, 가락, 그것이 그 쇠가 그거 인제 가락  
이란 건 쇠로 만든 거야. 쇠로 뽀족하게.}

10404 # 그래 인제 그게 물레에대게 그르케 마라자문 이 덩어리가 인제 이케 물렌데 잔체가.  
{그래 인제 그게 물레에다가 그렇게 말하자면 이 덩어리가 인제 이케 물레인데, 전체가.}

10404 # 그노물 여기다가 또 쪼꼬마케 인제 그 물레이 그 테두리에다가 그 주리 이르게 가써 가  
게. {그 놈을 여기다가 또 조그맣게 인제 그 물레의 그 테두리에다가 그 줄이 이렇게 갔어, 가  
게.}

10404 # 가머너 인제 요그요그 쪼코마케 또 멩기러서 그래너 고기다 이제 가라라찌 머이 그 시  
를. {가면은 인제 여기여기 조그맣게 또 만들어서 그래 이제 거기다 이제 갈아놨지 뭐 그 실을.}

10404 # 인제 고고도 도라가 그르이간 큰 물레에 그 영그리 데 이따고 그 쪼니. {인제 그것도  
돌아가. 그러니간 큰 물레에 그 연결이 되 있다고, 그 끈이.}

10404 # 그르이간 이걸 물레를 돌리멍 고 자궁 거또 도라가게 돼:찌. {그러니간 이걸 물레를 돌  
리면 그 작은 것도 돌아가게 되었지.}

10404 # 그 인제 고기다가 인제 시를 멩기능 거야 거기다 대고 잉게는 거야. {그 인제 거기다가  
인제 실을 만드는 거야 거기다 대고 읊기는 거야.}

10404 # 그르이까닌제 그게 인제 커 이망커씩 몽쳐. {그러니간 인제 그게 인제 커, 이만큼씩 몽  
쳐.}

10404 # 시를 대 뽀브니간. {실을 대구 뽀으니간.}

10404 # 그게 시리 나와 그 이 명도 우린 안데지만 여자드른 그 기수리 이써가지고 요 고 가락  
게다 부쳐가지고 요로케 하면 츠메 하면 고 부터 이러케 시리 데요. {그게 실이 나와. 그 이 명도  
우린 안되지만 여자들은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여 고 가락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침엔 하  
면 거기 붙어 이렇게 실이 되요.}

10404 # 그르데, 우리는 안데, 그게. {우리는 안 돼, 그게.}

10404 # 그르이간 그 손쪼츠로 헨는데 그르이간 국제 그를라문 굴게구, 가늘게 행 가늘게 해구.  
{그러니간 그 손끝으로 했는데, 그러니간 굵게 그러려면 굵게 하고, 가늘게 하려면 가늘게 하고.}

10404 # 그르케 인제 그려서 그걸 인제 대고 인제 요만큼 몽치면 빼나. {그렇게 인제 그리 해서  
그걸 인제 대고 인제 요만큼 몽치면 빼나.}

10404 # 빼노고 판노물 또 또 해구 대구 대 그려케 영 그리. {빼놓고 판 놈을 또 또 하고, 대고,  
다 그렇게 영 그래.}

10404 # 그르이간 글 마너애지 인제 그노물 가따 야주~에~ 인제 한테 퍼\*\* 해따 감:능게지.  
{그러니간 그걸 많아야지 인제 그놈을 갖다 나중에 인제 한테 퍼??다 감는 거지.}

10404 # 큰:: 또, 이 굴레에다가. {큰 또, 이 굴레에다가.}

10404 @ 굴:레요? {굴레요?}

10404 # 그걸 또 여 한 이 지레기 일곱짜 여덟짜 찌레기를 해가다 여시따를 이를 해야 딱 마저.  
{그걸 또 여 한 이 길이 일곱 자 여덟 자 길이를 해 가서 여섯 달을 일을 해야 딱 맞아.}

10404 # 그르이 여 이르게 하면 여기에 구녕을 파서 거 꼬지엘 끼워. {그러니 여 이렇게 하면  
여기에 구멍을 파서 거기 꽃이 끼워.}

10404 # 그래 미빠제다 안 너머가게쪼 웨노문 인제 그래가주 이르그 돌리문 팔랑개비가 또까통  
거여 이케 도라가자너, 그래머. {그래,밀밭이에다 안 넘어가게끔 웨어 놓으면 인제 그래가지고 이  
걸 돌리면 팔랑개비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면.}

10404 # 거기다 쪼늘 은제 거그다 그걸 돌리다 거기다 다 가멍거여 그거린제 여러겔. {거기다  
끈을 인제 거기다 그걸 돌리다 거기다 다 감은 거야. 그걸 인제 여러개를.}

10404 # 그래서 인제 그노를 또 쟈무레 내가지고 인제 강에 가서 무레다 다 해야 혼드러 꺾떼기를 다 빼나야 자너. {그래서 인제 그놈을 또 잣물에 내가지고 인제 강에 가서 물에다 다 해서 혼들어 꺾떼기를 다 빼놔야 하잖아.}

10404 # 그래가지고 인제 그거린제 다 합다멘 가따가 인제 베트레 베트레 언는 언능 건데 이제 그걸 뻗, 뻗, 야구 이거... {그래가지고 인제 그걸 인제 다 한 다음엔 갖다가 인제 베틀에 베틀에 얹는 건데 이제 그걸, 뻗, 뻗, 야구, 이거...}

10404 # 그걸 뭐라 그래야다 거기다 가머유.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거기다 감아요.}

10404 # 이건제 부레다 말려야 풀치를 햄서 말리면서 거기다 말르면 또 가머. {이건 이제 불에다 말려야 풀칠을 하면서 말리면서 거기다 마르면 또 감아.}

10404 # 대고 인제 그걸. {대고 인제 그걸.}

10404 @ 도투마리는 언제? {도투마리는 언제?}

10404 # 영? 도투마리? {영? 두투마리?}

10404 # 거 거 위에 거기서 해능거야, 도투마리다 가머서. { 거 거 위에 거기서 하는 거야. 도투마리에다 감아서.}

10404 # 그래 이 미테너 인제 그제 부를 때가지고 은제 재 부를 때가지고 거기다 이러케 그롱카 이게 이 시리 여러가지까 이 이제 이정 하바가 이정두루 텐다우 짜능게. {그래 이 밑에는 인제 그제 불을 때가지고 인제 재 불을 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실이 여러가지니까 이 이제 넓이가 이 정도로 된다고, 짜는 게.}

10404 # 그제 인제 거 나오며 거그서 이 솔루다가 풀치를 해머서 대구 비끼면 뜨드태니겐 이제 시리 병크러지지가 안차나 아주. {그제 인제 거기 나가면 거기서 이 솔로다가 풀칠을 하면서 대고 벗기면 뜨뜻하니까 이제 실이 병클어지지가 않잖아, 아주.}

10404 # 푸레 부트이가 아주 아주. {풀에 붙으니까, 아주 아주.}

10404 # 고러케 해둔 디 대토투레다 그 터레다한테 가머, 그래가지고 글 야중에... {그렇게 해둔 뒤 대털에다 그 터레다한테 감아.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10404 @ 어디다, 어디다 감는다고요? {어디에다, 어디에다 감는다고요?}

10404 # 대, 터리라고 이짜나, 대토리라고 인제 그거. {대, 털이라고 있잖아, 대털이라고 인제 그거.}

10404 @ 대, 대터리요? {대, 대털이요?}

10404 # 어, 그거 그르이간. {어, 그거 그러니깐.}

10404 # 이 너쩍항거 다 익 한바쭈 까꾸 저 너까라 씨그루 헨는 요 감때만 인제 쪼꼬마케 해노쿠 인제 유\*\*,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머. { 이 넓직한 걸 다 이 \*\*\* 짚고 저 너까리 식으로 헨는 요 감때만 이제 조그맣게 해놓고 인제 ???, 그래가지고 거기다 감아.}

10404 # 그러면 그걸 요 송까락 가튼 제 나무썰 대구 까꺼두 거다 대면서 요르케 까꺼여, 한테 언물리지 않게. {그러면 그걸 이 손가락 같은 제 나무썰에 대고 짚아도 거다 대면서 이렇게 짚아요, 한테 엇물리지 않게.}

10404 # 한대 봄방아게 안되게. {한테에 ??? 안 되게.}

10404 # 그래가지고 닉, 그래서 그걸 멘다구. {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걸 멘다고.}

10404 # 그래가지고 야도 인제 그걸가따 다 또 베트뤼에다 그걸 올리노코 인제 거서 나를 다능거야 인제 거 바지에다가. {그래가지고 애도 인제 그걸 갖다 다 또 베틀 위에다 그걸 올려놓고 인제 거서 날을 다는 거야. 인제 그 바지에다가.}

10404 # 그 젓 열게미가튼 데다 우리 빔, 그 촛초만 그 거기다가 고 하나하나씩 다 꺾어 아주 고걸. {그 저 열게미같은 데다 우리 빔, 그 촛촛한 그 거기다가 그 하나하나씩 다 꺾어 아주 그걸.}

10404 # 그래가즈 글 해스 꾸어 가져 그 자리서 어떤지, 거또 고 인제 꾸리라고 인제 증망게 또 또 이써 인제 실빠베. {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웨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떤지, 것도 그 인제 꾸리라고 인제 젓는 게 또 또 있어, 인제 실밥에.}

10404 # 그건 이근 장 장지래기루 해능게 이꾸, 꾸른 인제 쪼꼬매 요다래. {그건 이근 장지래기로 하는 게 있고, 꾸리는 인제 조그망지 요래.}

10404 # 요마네, 그거 인제 부기래란 또 부걸 고 치능거야. 인제. {이만해. 그거 인제 북이라는, 또 북을 고기 치는 거야.}

10404 # 그게 거기다 디미러가지고 다 이르게 인제 그거 인제 그 장지래기로 나강게 그제 인제 이 바레 또 영그리이써. { 그제 거디가 디밀어 가지고 다 이렇게 인제 그거 인제 그 장지래기로 나가니까 그제 인제 이 밭에 또 연결이 있어}

10404 # 바를 탁 이러케 노면 딱 안 부러지꾸. {밭을 탁 이렇게 놓으면 딱 안 부러지고.}

10404 # 아 이르게 자바댕기븐 찍 버러진다구 그제 그러면 그 부기 요 요마나지 머 요렇게 그제 고 새가늘 이리 디민다구 여자들. {아 이렇게 잡아당기면 찍 벌어진다고, 그제. 그러면 그 북이 이 이만하지 뭐. 이렇게 그제 그 사이를 이렇게 디민다고 여자들.}

10404 # 그러면 이러카구 다 드리감 이짜게서 소놀림 또 박꾸.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 들어가면 이쪽에서 손오리면 또 받고.}

10404 # 그래 드리간난니걸 너모다 탁 치면 그누미 여그와 시리 딱 분능거지. {그래서 들어갔는 이 걸 놓으며 탁 치면 그 놈이 여기 와 실이 딱 붙는 거지.}

10404 # 그르케 그르케 잘 그 연날 노인네들 그 잘해. { 그렇게 그렇게 그 옛날 노인네들 그 잘해.}

10404 # 그건 빼스루 끄래, 그 이러케 탁 탁치꾸 탁치꾸 이러케구 발러내꾸 그르까 저 가마니 치너 시기지. {그건 \*\*\* 그래, 그 이렇게 탁 탁치고 탁치고 이렇게 하고 발라내고 그러니까 저 가마니 치는 식이지.}

10404 # 가마니 왜 \*\*까 이 지푸래기 끼꾸다가 이러 바지르 바지로 다 드리감 툭 때려서 느러나는 시기야, 똑카테. {가마니 왜 \*\*까 이 지푸라기 끼고다가 이렇게 바지로, 바지로 다 드리가면 툭 때려서 늘어나는 식이야, 똑같아.}

10404 # 그래요. {그래요.}

10405 @ 인제 그 무멍이나 삼베 모시 가통거 이짜나요. {인제 그 무멍이나 삼베, 모시 같은 거 있잖아요.}

10405 @ 거 고거는 다늬를 어떠케 세나요, 고거는 한, 한, 피리라고 하나요? {그, 그거는 단위를 어떻게 세나요? 그거는 한, 한, 한 필이라고 하나요?}

10405 # 한 필을 가따가 한 필 머 두 필 그러자나 거 이제 고거 자수로 가지고 얘기하능거야. {한 필을 갖다가 한 필, 뭐 두 필 그러잖아. 그 이제 그거 자수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10405 @ 며짜가 한? {몇자가 한?}

10405 # 그거 머 한 피리 머 삼십짜라 그래딩가 그래 그거. {그거 뭐 한 필이 삼십자라 그러던가, 그래 그거.}

10405 @ 거 다 또카테요? 한 피리 삼십짜예요? { 그거 다 똑같아요? 한 필이 삼십자예요?}

10405 # 어, 근데 그거 자두 또 그거 재는 자는 또 즈:거 우리네 쟁구씨능거하곤 달라유. { 어, 근데 그거 자도 또 그거 재는 자는 또 작아. 우리들 평균쓰는 것 하곤 달라요.}

10405 @ 그래요? {그래요?}

10405 # 그럼! {그럼!}

10405 # 거 건 자가 또 우리네 지끔 씨능 기하곤 달리. {그 그 자가 또 우리들 지금 쓰는 것하곤 달라.}

10405 @ 아 어쨌든 한 피른 보통 삼십짜. { 아 어쨌든 한 필은 보통 삼십자.}

10405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0405 @ 그러며는 하루에 보통 그건 얼마나 짜요? { 그러면은 하루에 보통 그건 얼마나 짜요?}

10405 # 짜능거? {짜는 거?}

10405 # 짜능게 그계...{짜는 게 그계...}

10405 @ 명이나 삼베는 좀 다름가요, 비스탕가요? { 명이나 삼베는 좀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10405 # 짜능게 아마 한 두어벌 짜는지 모르게편데. { 짜는 게 아마 한 두어벌 짜는 지 모르겠던데.}

10405 # 쟈지기르 올라짜머 그러케 짜드라. {근데 쟈제기를 올라 짜면 그렇게 짜더라.}

10405 # 쟈제기르 짜면, 그계. {쟈제기를 짜면, 그계.}

10405 @ 아, 두 발료? 두 발료? { 아, 두 발요? 두 발요?}

10405 # 근 발 하나로가 짜능거지 머. {그건 발 하나로 가지고 짜는 거지 뭐.}

10405 # 그리까 그이 그 끈지라 크능 그를... {그러니까 그거 그 ??라 하는 것을...}

10405 @ 바를 짜며는, 아니 얼마나 짤다고요? {발을 짜면, 아니 얼마나 짤다고요?}

10405 # 한 두 발? {한 두 발?}

10405 @ 두 발료, 두 바리면 어느 정도 데능 거예요? {두 발요? 두 발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405 # 이 바로 이러케 하면. { 이 발로 이렇게 하면.}

10405 # 그걸 두바리라 그러지, 이게 한 발, 두바리면 두발. {그걸 두발이라 그러지, 이게 한 발, 두 발이면 두 발.}

10405 # 해면 그래. 그래, 그래. {하면 그래, 그래, 그래.}

10405 @ 파를 짹 벌러쓸때 이게 한바리며는 이게 인제 두발정도로... {팔을 짹 벌렸을 때 이게 한발이면은 이게 인제 두 발 정도로...}

10405 # 그계 인제 그래 하도 쟈지늘 드러올라 짜면 그거 짜, 그런데, 그러케 짜지 모태요. {그계 인제 그래 하도 쟈제기를 들어 올라 짜면 그거 짜, 그런데, 그렇게 짜지 못해요.}

10405 # 여러날 걸리조 거. {여러날 걸리쥬, 그거.}

10405 # 생가갈 해우 고이 머르까까, 가통기 드러가서 그계 이르게 내늘구는데 얼마나 증말 심들지. {생각을 해 보오, 그계 머리카락 같은 게 들어가서 그계 이렇게 내늘리는데 얼마나 정말 힘들지.}

10405 @ 어르신도 그거 짜보셔썬요? {어르신도 그거 짜보셨어요?}

10405 # 남재가 그거 안해자나 남잔 모태 데지 아나. {남자가 그거 안하잖아, 남잔 못해, 되지 않아.}

10405 # 다그래 여자들 다 해무...{다 그래 여자들 다 하...}

10405 # 지끄른 여자는 모태자나 지끄른... { 지금은 여자는 못하잖아, 지금은.}

10405 # 우리 마누른 이제 시어머니한테 배아도 해다가 그러지마는... { 우리 마누라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하다가 그러지만은...}

10406 @ 친정어머니한테 안 배우고 왜 시어머니한테 친정 이제 지 처녀때 시집올때 그 시어머니 어 친정어머니한테 그 다 배워오능거 가튼데... { 친정어머니한테 안 배우고 왜 시어머니한테 친정 이제 지 처녀때 시집올 때 그 시어머니 어 친정어머니한테 그 다 배워오는 거 같은데...}

10406 # 그루치 안 배우고는 심들지. 시어머니한테 배울래면 더 힘들지. { 그렇지 안 배우고는 힘들지. 시어머니한테 배우려면 더 힘들지.}

10406 # 그래두 나는 마누래가 그래두 와가지고 배우기 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 눈썰미가 이 썬가지고 금방 배우더라구. { 그래두 나는 마누라가 그래도 와 가지고 배우기 하는데 우리 어머

니한테, 그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금방 배우더라고.}

10406 # 눈썰미 엮는 사람 심들지 마눌 머 쿠사리나 머 거찌 머 시어머이한테. {눈썰미 없는 사람 힘들지. 마누라 뭐 쿠사리나 먹었지, 머 시어머이한테.}

10406 # 친정한테 배우능건 나찌. {친정한테 배우는 건 낫지.}

10406 @ 친정... 배워야 요글 덜 무글 텐데... {친정에서 배워야 욱을 덜 먹을 텐데...}

10406 # 그럼. {그럼.}

10406 # 이 칠싸바 아랜녀게두 만차나, 지금도 해자누 아랜녀젠. {이 \*\*\* 아랫녘에도 많잖아, 지금도 하잖아, 아랫녘엔.}

10402 # 이 삼베, 그게다 소느로 짜서 올라오능거야, 그계. {이 삼베 그계 다 손으로 짜서 올라오는 거야, 그계.}

10402 # 사람 베주고 욱: 현대능거야. {사람 \*\*\* 엮 한다는 거야.}

10402 # 머 이복까통거 그거 아랜녀게서부터 여기 여 마니 와요, 아랜녀게서 그거 가지구. {뭐 의복 같은 거 그거 아랫녘에서부터 여기 여기 많이 와요, 아랫녘에서 그거 가지구.}

10402 # 그계 다 아래서 나 지 지끄른 그계 점부터 글 시기는 동네가 이짜나 거 삼심능계, 그래가지고 해서 나오지. {그계 다 아래서 나. 지 지금은 그계 전부터 그걸 시키는 동네가 있잖아. 거 삼 심는 거. 그래가지고 해서 나오지.}

10402 # 인제 그건 아무나 몬 심짜나 그런...{인제 그건 아무나 못 심잖아. 그런...}

10402 # 저 아편이랑 또까통 거래서. { 저 아편이랑 똑 같은 거래서.}

10402 # 사른 아무나 몬 시머. {삼은 아무나 못 심어.}

10402 # 그래 인제 고거 허가난 구역근 마 모 시머서 그 삼베들 짜. { 그래 인제 그거 허가난 구역은 마, 뭐 심어서 그 삼베들 짜.}

10402 # 그래이까 이제 야그니까 그걸 가따 베르가따 나이종 피루를 맹긴단, 나이롱으루 으투케 그러케 짜가지구 지끔 해. {그러니까 이제 약으니까 그걸 갖다 베를 갖다 나일론 필름을 만든단, 나일론으로 어떻게 그렇게 짜 가지고 지금 해.}

10402 # 그러이칸 지끔 그 나이롱 빼여 임마냥건 지끔 여그 사람 주거두 이보해보능계 나이롱 빼여. {그러이칸 지끔 그 나일론 베야. 이만한 건 지금 여기 사람 죽어도 의복해 보는게 나일론 베야.}

10402 # 그러이 아랜녘 가서 거 여자드리 가져 나오능거 건 진짜지. { 그러니 아랫? 가서 거 여자들이 가져 나오는 건 그건 진짜.}

10402 # 그르이칸 차이가 마너. { 그러이칸 차이가 많아.}

10402 # 그래서 나이롱 빼루 내 사라를 무꺼다가 가따 파무짜나, 안 썩거. {그래서 나일론 베로 사람을 묶어다가 갖다 파문잖아, 안 썩어.}

10402 @ 나이롱 빼요? {나일론 베요?}

10402 # 나이, 그 나이, 지끄른 점부 나일롱 빼야. 지끔 이 파능계. 그계. {나일, 그 나일, 지금은 전부 나일론 베야. 지끔 이 파는 계. 그계.}

10402 # 그 가짜야 그계 그래도 그 누른 땅에 드러가도 안 썩능거야, 지끔 우리 빈, 빈, 빈누르하고 똑까테. {그거 가짜야, 그계 그래서 그 놈은 땅에 들어가도 안 썩는 거야, 지금 우리, 비, 비, 비닐하고 똑같아.}

10402 # 비닐 왜 소게 드러가도 안 썩는다 지끔 그러자나, 태우지. {비닐 왜 속에 들어가도 안 썩는다 그러잖아, 태우지.}

10402 @ 그 안 썩으면 안데자나요? {그 안 썩으면 안되잖아요?}

10402 # 그래서 그래텡가 그러이까 사람, 도닌는 사라른 인제 그 진짤배길 사, 사 논는다고 인제 자기들 부모네 주그른 그걸로 헨다구.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인

제 그 진짜배기를 사, 사 놓는다고, 인제 자기들 부모네 죽으면 그걸로 한다고.}

10402 # 난, 난 꿈도 안 꾸규, 나도 이찌만 그거 할래면 머해. {난, 난 꿈도 안 꾸고, 나도 있지만 그거 하면 뭐해.}

10402 # 근데 내가 그걸 파보니깐 안 삭떠라고. {근데 내가 그걸 파보니깐 안 썩더라고.}

10402 # 그게 안 사가요. {그게 안 썩어요.}

10402 # 근데 그게 이 난, 나이, 나이롱이야. 이게 치농거는 아니야. {근데 그게, 이 난, 나이, 나일론이야. 이게 치는 거는 아니야.}

10402 # 그 파보이칸, 사람 무등걸 파보니까. {그 파보니까, 사람 묻은 걸 파보니까.}

10402 # 이르게, 이르게 해서 짜능 거는 인는데 이 나 지따롱거 그, 그게 나이롱이더라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짜는 거는 있는데, 이 길다란 거, 그, 그게 나일론이더라고.}

10402 # 그노른 앙끄너져. {그 높은 안 끊어져.}

10402 # 근데 이 이르게 치능 건 썩는데 이 나른 앙끄너져. {근데 이 이렇게 치는 건 썩는데 이 날은 안 끊어져.}

10402 # 그러더니 이르게 드러보니까 이 드러보니까 척 꺼끼는데 이 이거 다 망어져. {그러더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들어보니까 척 꺾이는데 이거 다 망가져.}

10402 # 그런데 이 이 지따라케 헨 나른 안 망어져. {그런데 이 길다랗게 한 날은 안 망가져.}

10402 # 그러니까 이게 심져 그내리가 구부러져 올라오더라구. 그게 앙끄너지더라구. {그러니깐 이게 심지어(?) ???가 구부러져 올라오더라고. 그게 안 끊어지더라고.}

10402 # 이 이르게 처서 짱거는 끄너지는데 인나 이건 끄너지는데 지따라케 행건 낭끄너져. {이렇게 처서 짱 거는 끊어지는데 이, 이건 끊어지는데 길다랗게 한 건 안 끊어져.}

10402 # 내 그걸 해보이까 그래. 염 해보니까. {내가 그걸 해보니까 그래. 염 해보니까.}

10402 # 그래서 그래서 다 사람드리 인제 그걸 안썩다 그러는데 우먼 사람 해볼쑤 이찌? 나가치 도넛씨면 그냥 아무거나 썩다 가따 몽능거지 머 그디 머... {그래서 그래서 다 사람들이 인제 그걸 안 썩다 그러는데 엄한 사람 해볼 수 있어, 나같이 돈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썩다 갖다 묻는 거지, 뭐 그 어디, 뭐...}

10402 # 아 나도 승경이, 안 썩. {아, 나도 신경이, 안 썩.}

10402 # 그게 내가 해보니까 안썩뜨라고, 해보이... {그게 내가 해보니까 안 썩더라고, 해보니까.}

10402 @ 아까 멩주에 이썩, 예. {아까 멩주에 있었, 예.}

10402 # 그 그 응, 그건 파본 사라미나 알:지, 여한 사라문 몰라여. {그 그거, 응? 그걸 파본 사람이나 알지, 여간(?) 사람은 몰라요.}

10402 # 지찌 그거 파본 사라미나 알지, 모르지. {직접 그거 파본 사람이나 알지, 모르지.}

##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10414 @ 아까 멩, 멩주 이썩자나요, 멩주, 예. {아까 멩, 멩주 있었잖아요, 멩주, 예.}

10414 # 멩지? {멩주?}

10414 # 멩지는 그 고치가 멩기는 거지 머. {멩주는 그 고치가 만드는 거지 뭐.}

10414 # 이 그 멩지 빠지. {이 그 멩주 빠지.}

10414 # 옛날엔 이 멩...{옛날엔 이 멩...}

10414 @ 그인제 고거로 고걸로 인제 고치로...{그 인제 그 그걸로 인제 고치로...}

10414 # 그럼, 그거또 사래미 다해썩 구뜨케. {그럼, 그것도 사람이 다 했어, 그 어떻게.}

10414 @ 머를 고걸 머라 그래썬요, 고를? {뭘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10414 # 그걸 고치라 그러지 이르켄 실 고거또 똑까툭 거야, 고러케 뽕브능거, 어? {그걸 고치라 그러지, 이렇게 실 그것도 똑같은 거야, 그렇게 뽑는 거, 어?}

10414 @ 무슨 고치라 헨나요, 무슨? {무슨 고치라 했나요, 무슨?}

10414 # 뉘고치 아냐, 누에고치를. {누에고치아냐, 누에고치를.}

10414 @ 아, 예. {아, 예.}

10414 @ 근데 인제 누에고치, 누에칠 때, 저서 인제, 비단 그름 비단을 만들자나요, 고걸로. {근데 인제 누에고치, 누에칠 때, 저기서 인제, 비단 그런 비단을 만들잖아요, 그걸로.}

10414 @ 그런데 인제, 누, 누에가 처음 누에가 이짜나요, 누에. {그런데 인제, 누, 누에가 처음에 누에가 있잖아요, 누에.}

10414 @ 누에는 크기에 따라서 이르미 따로 인나요? {누에는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따로 인나요?}

10414 # 따루 업져, 그게 이제... {따로 없지, 그게 이제...}

10414 # 머 함방내기 두밤내기 그게 세 밤인가 자요. {머 한밤내기, 두밤내기, 그게 세 밤인가 자요.}

10414 # 뉘가. {누에가.}

10414 @ 그럼 먼저 이제... {그럼 먼저 이제...}

10414 # 그래, 자, 자는 때는 뽕을 암머거. {그래, 자는 때는 뽕을 안 먹어.}

10414 @ 그럼 제일 먼저 이제... {그럼 제일 먼저 인제...}

10414 # 그냥 자, 그러다 그걸 꿰면 인제... {그냥 자자, 그러다 그걸 꿰면 인제...}

10414 @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얘기하며는 누에를 이제 칠 때 치려면 먼저 누에가 뭘 먹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얘기하면은 누에를 이제 칠 때 치려면 먼저 누에가 뭘 먹어요?}

10414 # 뽕이지! {뽕이지!}

10414 @ 그러면 그거를 인제 가지고 그걸 이제 따다가... {그러면 그거를 인제 가지고 그걸 이제 따다가...}

10414 # 따다가 가따 노치. {따다가 갖다 놓지.}

10414 # 츠멘 이게... {츠멘 이게...}

10414 @ 어, 어떠케 나두나요? {어, 어떻게 놔두나요?}

10414 # 고게 뉘엔, 츠메 그제 아리아 알, 아러? {그제 누에, 처음에 그제 알아야, 알, 알아?}

10414 @ 누에 아리조 {누에 알이죠.}

10414 # 그제 번데기가 아를 멩그그든 이제 고거 바다서 고거해든지 고노메서 나오능어 아주. {그제 번데기가 알을 만들거든 이제 그거 받아서 그거하든지 그놈에서 나오는 건 아주.}

10414 # 아즉 머에다 새카망게 머 우수찌 아주 그제 그러니까 이 그거 때여니지 그래 인제 그때 뽕을 따다가 하지. {아직 뉘에다 새카망게 뉘 우습지 아주 그제 그러니까 이 그거 ??이지, 그래 인제 그때 뽕을 따다가 하지.}

10414 # 마:니 칼르다 이르케 이킨다고 아주 보드럽게. {많이 칼로다 이렇게 이킨다고, 아주 보드럽게.}

10414 @ 뽕. {뽕.}

10414 # 뽕을. {뽕을.}

10414 @ 뽕나무를요, 아님 뽕이플료? {뽕나무를요, 아님 뽕잎을요?}

10414 # 뽕 이파리를. {뽕 이파리를.}

10414 @ 근데 빵이플 그냥 나두면 안데고 어뜨케 이르게 설치를 해두나요? 그거를, 빵이플?  
 {그런데 빵있을 그냥 놔두면 안되고 어떻게 이렇게 설치를 해두나요? 그거를, 빵있을?}

10414 # 그르니까 다투 잠바기이짜너,그 다투를 거기다 노차너, 그 이이... {그러니까 누에를 잠박  
 이 있잖아, 그 누에를 거기다 놓잖아, 그 이이...}

10414 @ 누에를 어디에 논느다고요? {누에를 어디에 놓는다고요?}

10414 # 누에 잠바기 이씨. {누에 잠박이 있어.}

10414 @ 잠바기요? {잠바기요?}

10414 # 그러, 잠바기라 그, 옛날엔 그걸 저 전부 저 찌르깔 비다 그러케 트러씨, 그걸 얼거서  
 인제. {그러, 잠박이라 그, 옛날엔 그걸 저 전부 저 찌리가지를 베어다 그렇게 틀었어, 그걸 얹어  
 서 인제.}

10414 @ 쌀깔? {쌀깔?}

10414 # 찌르까리를 가따가 얼거서, 영, 영. {찌리가지를 갖다가 얹어서, 영, 영.}

10414 @ 아, 찌르까리를 언저가지고 인제 잠바기를 만들고...{아, 찌르깔이를 얹어 가지고 인제  
 잠박이를 만들고...}

10414 # 그 담, 요요 하바가 요정도 데고 인제 이제 하바유 궁게 요로 길게 요걸 하자나. {그  
 다음, 이 이 넓이가 요정도 되고 인제 이제 넓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요걸 하자나.}

10414 @ 한 세 길로 두 세 자 데나요? {한 세 길로, 두 세 자 되나요?}

10414 # 그래서 인제 덕대를 메고 지베다가 어디따가 저때를 메 거그다가 그 이층시기야, 그 그  
 저 작뜰 메고 고 고그다 캉카니 이러게 지블... {그래서 인제 덕대를 메고 집에다가 어디다가 적  
 대를 메 거기다가 그 이층식이야, 그, 그, 저, 작뜰 메고 거 거기다가 칸칸이 이렇게 집을...}

10414 @ 덕대를 메능건 머예요? {덕대를 메는 건 뭐예요?}

10414 # 서까래를 그르케 맹긴다구. {서까래를 그렇게 만든다고.}

10414 # 우리 저 갈당시그로다가. {우리 저 갈당식으로다가.}

10414 @ 아, 예. {아, 예.}

10414 @ 예 요러케 차곡차곡. {예 이렇게 차곡차곡.}

10414 # 어, 그래다 거기다 꿩 고걸 작 고기다 꿩을 저 시, 신문깔구 거기다가 인제... {어, 그러  
 다가 거기다 누에, 그걸 거기다 누에를 저 시, 신문 깔고 거기다가 인제...}

10414 @ 빵이플, 신문깔고, 빵이플 노코요. {빵있을, 신문 깔고, 빵있을 놓고요.}

10414 @ 빵이플 아까 인제 깔로 이래... {빵있을 아까 인제 깔로 이렇게...}

10414 # 그거 처메 새끼를 까가지고 할때 인제 고걸 아주 가지가지 메게이 그케 쪼꼬망게 막  
 \*\*\*\* 보이지도 안는데 새카망게 그케 그데 그걸 머거. {그거 처음에 새끼를 까가지고 할 때 인제  
 그걸 아주 가지가지 먹여야 그케 조그만 게 막 \*\*\*\* 보이지도 않는데 새카만 게 그케 그래도 그  
 걸 먹어.}

10414 # 그걸 착채이게가지고 주면 처메 고거 머 초코 먹찌. {그걸 착착 이겨가지고 주면 처음  
 에 그거 뭐 조금 먹지.}

10414 # 그래, 그놈이 그글 먹꼬 큰다고. {그래, 그놈이 그걸 먹고 큰다고.}

10414 # 그래가아지구 그케 자유. {그래가지고 그케 자유.}

10414 # 꿩가 자는 나른 빵을 암머거, 아주 머릴 바짱 들구 자, 아주. {누에가 자는 날은 빵을  
 안 먹어, 아주 머릴 바짝 들고 자, 아주.}

10414 # 하나두 이베두 안대, 머 한자구, 궁게 세 버늘 자 그케. {하나도 입에도 안 대, 머 ???,  
 그러니까 쉰번을 자 그케.}

10414 # 세버늘 자머는 그때서부터는 올라간다구. {세번을 자면은 그때서부터는 올라간다고.}

10414 # 자기가 인제 버 다 늘거가지구 꿩 꿩 고치를 맹길게 데이씨. {자기가 인제 벌써(?) 다

늪어가지고 누에 누에 고치를 만들 게 되 있어.}

10414 @ 인제 그러면는 쪼코마게 이능거슨 인제 뽕이플 먹짜나요 인제. {인제 그러면은 조그마 하게 있는 것은 인제 뽕잎을 먹잖아요, 인제.}

10414 @ 머꼬 이제 얼마마네 한잠 자나요? {먹고 이제 얼마만에 한잠 자나요?}

10414 # 몰라 난 그걸 얼마만큼 때 그때 이제 어젠, 어제는 크지, 어제는 크면 그게 거반 이정도 되면 커 그게 자더라구, 그래 석짜를 자며는... {몰라 난 그걸, 얼마만큼 때 그때 이제 어젠, 어제는 크지, 어제는 크면 그게 거반 이정도 되면 커, 그게 자더라고, 그래 석잠을 자면은...}

10414 @ 새끼송까락 만하면 한번 자요? {새끼손가락 만하면 한번 자요?}

10414 # 세버는 자야 올라가. {세번을 자야 올라가.}

10414 # 세버늘 자면 올라가. {세번을 자면 올라가.}

10414 @ 어딜 올라가요? {어딜 올라가요?}

10414 # 올라, (웃음), 올라가 이제, 이제 자기 주그면 저 지블 지어야 데자나. 고 짐 멩기능 게 그게 올라가는... {올라, 올라가 이제, 이제 자기 죽으면 저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 집 만드는 게 그게 올라가는...}

10414 @ 아, 집절라고 올라간다고요? {아, 집 지으려고 올라간다고요?}

10414 # 그럼, 그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고 이이게 머그면 배때기가 이르게 보면 노흐래. {그럼, 그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고 이게 먹으면 배때기가 이렇게 보면 노래.}

10414 # 그게 이제 저 살 꺾떼기가 다 노라케 데요. {그게 이제 저 살 꺾떼기가 다 노랑게 데요.}

10414 # 그러면 빨리 인제 또 그러지아능 먹찌도 양코 데으 기어 탱기문 안데 그건 보통 자기 지블 찬능거야. {그러면 빨리 인제 또 그러지않고 먹지도 않고 기어 다니면 안돼. 그건 보통 자기 집을 찾는 거야.}

10414 # 그르니까 가따 인제 소나울 찌게다 거다 빼고시 이러케 세워. {그러니깐 갖다 인제 \* 나을 적에다 거기다 빼곳이 이렇게 세워.}

10414 # 그래고 뉘를 그 미테다 이러케 노은 디 아를 뽕, 뽕을 안주구, 그라문 그네 탁 기어올라가능기야. {그러고 누에를 그 밑에다 이렇게 놓은 뒤 알을, 뽕 뽕을 안 주고, 그러면 그 놈이 탁 기어올라가는 거야.}

10414 # 기어올라가가지고다가 거 거무 또까테 거무.{기어올라가가지고고다가 그 거미, 똑같이 거미.}

10414 # 이짜나 거무, 치더시, 그나이 주를 내른다구 그르게 이베서 그롱거 주리 나온다구. {있잖아 거미, 치듯이, 그 놈이 줄을 내린다고, 그렇게 입에서 그런 거 줄이 나온다고.}

10414 # 다 엉그리 가치 거 거러케 지블 지꼬 드러안짜너. {다 웅크려(?) 같이 그 그렇게 집을 짓고 들어앉잖아.}

10414 # 그 그롱게 다 데며는 인제 고걸 따서 인제 그 번 고치야, 이르미. {그 그런 게 다 되면은 인제 그걸 따서 인제 그 번, 고치야, 이름이.}

10414 @ 거 거미줄 가튼 인제 그렁 걸 고치라구, 그렁 걸 인제 다 따가지구 그다메 어떠케 하나요? {그 거미줄 같은 인제 그런 걸 고치라 하고, 그런 걸 인제 다 따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10414 # 그럼, 그럼. {그럼, 그럼.}

10414 # 그래가지고 그걸 팔자나. 그걸 전부다 그걸, 차지아나 그걸. {그래가지고 그러 팔잖아, 그걸 전부다 그걸, 차(?)지 않아 그걸.}

10414 # 그래가지고 그걸 그 실고치는 그누므 린제. {그래가지고 그걸 그 실고치는 그 놈을 인제.}

10414 # 요르게 인제 부강줄 쪼꼬마케 멩가주 인제 냄비가통거 요르게 언처노코 인제 고그다 부를 떼면 무리 끌차누? {요렇게 인제 부강주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인제 냄비 같은 거 없어 놓고 거기다 불을 떼면 물이 끓잖아?}

10414 # 그느무 그느멸 거그다 지버너 고치를 지버너 그케 끄르면 이 이게 이러나 실가통케 일케 인나구. {그 그 놈을 거기다 집어 넣어, 고치를 집어 넣어, 그케 끓으면 이 이게 일어나, 실같은 게, 이렇게 일어나고.}

10414 그래 그걸 소느루다 요로쿄로감 시리 나온다구. {그래 그걸 손으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실이 나온다고.}

10414 # 그러면 그노를 가지고 인제 또 조저랑케 아까 내가 그래짜나 몰레 두 돌리드시. {그러면 그 놈을 가지고 인제 또 ??? 아까 내가 그랬잖아, 몰레 도, 돌리듯이.}

10414 # 그래면 그케 다 그 여러개가 다 딸리 드러온다구. {그래면 그케 다 그 여러개가 다 딸리 들어온다고.}

10414 # 그래 고걸 다 베끼능거야. {그래 그걸 다 벗기는 거야.}

10414 # 대구 요러케, 도라가면서 도 꼬지능까는. {대구 요렇게 돌아가면서 더 꼬아지니깐은.}

10414 # 그래서 인제 그걸 감능거야, 또까통거야. {그래서 인제 그걸 감는 거야. 똑같은 거야.}

10414 # 삼베나 며, 저 명이야, 다 그 시기야, 그걸. {삼베나 명이나, 다 그 식이야, 그거.}

10414 # 번택, 그러면 인제 그 번테기가 나오자나 그르케 다 나오면 번택, 시:리 다뽀바지며 번테기가 나오능거지. {번택, 그러면 인제 그 번테기가 나오잖아, 그렇게 다 나오면 번택, 실이 다 뽑아지면 번테기가 나오는 거지.}

10414 # 그래가지고 그거또 다 영겨를 해가지구 드 질게해.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연결을 해가지고 더 길게 해.}

10414 # 그래이가 인제 질게 하능거 이제 며 한 지래기 한 삼 자로 따지면 한 삼십짜하면 삼십짜 지래길 다 향군데 인능거야 한 주리. {그러니까 인제 길게 하는 거 이제 뭐 한, 길이가 한 삼, 자로 따지면 한 삼십자하면 삼십자 길이를 다 한 군데 잇는 거야, 한 줄이.}

10414 # 그래 되자너 그래 그걸 다 짜면 지래기가 그르케 이제 지러지능거지. { 그래야 되잖아, 그래 그걸 다 짜면 길이가 그렇게 이제 길어지는 거지.}

10414 # 그래가지고 그걸 한 피리다 두 피리다 그래더라구. {그래가지고 그걸 한 필이다, 두 필이다 그러더라고.}

10414 @ 이제 그렁 거뜨를 이제 가미라고 하자나요 가미 가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이라고 하잖아요, 감이, 감.}

10414 # 그래. {그래.}

10414 # 가문 이제 그걸 오슬 가지고 가미라 그러지 며. {감은 이제 그걸 옷을 가지고 감이라 그러지 뭐.}

10414 # 그래 한 필 두 필 그러지 며. {그래 한 필 두 필 그러지 뭐.}

10414 @ 아, 예. 이제 그 시를 멩, 멩, 멩지, 멩지라등가 아니며는 명이라등가 이렇게 테자나요? {아, 예 이제 그 실을 명, 명, 명주, 명주라등가, 아니면은 명이라등가 이런 게 되잖아요?}

10414 @ 모시 가통케 이쓰며는 인제 고걸로 오슬 만들꺼 아니예요? {모시 같은 게 있으면은 인제 그걸로 옷을 만들 거 아니예요?}

10414 # 멩길지. {만들지.}

10414 @ 이제 오슬 멩길 때, 예, 그 처네, 오슬 만드는 청가통거 이짜나요. 감. {이제 옷을 만들 때, 예, 그 천의 옷을 만드는데 천 같은 거 있잖아요, 감.}

10414 @ 거 어떻 게 이써요? {그 어떤 게 있어요?}

10414 # 아 그 옌나른 그거지 내가 지금 얘기항거 그거지 며 저 언:능거 머가 이써. {아 그 옛

날은 그거지 내가 지금 얘기한 거 그거지 뭐, 뭐 저 없는 게 뭐가 있어.}  
 10414 # 명, 삼베, 그거지 머. {명, 삼베, 그거지 뭐.}  
 10414 @ 또 아까 그거 누에가 나오는 멍... {또 아까 그거 누에가 나오는 멍...}  
 10414 # 미영, 명지가통건 건 또 고그비야, 마라자문. {명, 명주같은 건 또 고급이야, 말하자면.}  
 10414 # 그건... {그건.}  
 10414 @ 그렇거 고그비니까 거의 안쓰고... {그런 건 고급이니까 거의 안 쓰고...}  
 10414 # 그럼, 그건 고그비야, 그거 저 인는 사라미나 그거 해 이버. {그럼, 그건 고급이야, 그거 저 있는 사람이나 그거 해 입어.}  
 10414 # 명, 명지 저건 이우사춘도 뜨뜨태다능거 내가 이브문. {명, 명주 저건 이웃사춘도 뜨뜻했다는 거, 내가 입으면.}  
 10414 # 이우사춘도 뜨뜨태다능거여, 아니버도. {이웃사람도 뜨뜻했다는거야, 안 입어도.}  
 10414 # 그래도 그거또 인는 사라미 임능거지 명 저 고치, 그 명지라 그한테 그건 도넘는 사라문 몬니버, 명지. {그래도 그것도 있는 사람이 입는 거지, 명, 저 고치, 그 명지가 그한테 그건 돈 없는 사람은 못 입어, 명주.}  
 10414 # 그 나미 봄, 허이구사, 허 그렇걸 다이버따 그러지. {그 남이 보면, 허이구, 허, 그런 걸 다 입었다 그러지.}  
 10414 # 근 드무러요, 명지는. {그건 드물어요, 명주는.}  
 10414 # 그르니까 그 명 오시야, 명이 체고 마능거야, 명. {그러니까 그 명 옷이야, 명이 최고 많은 거야.}  
 10414 # 그르니까 이제 음는 사라문 삼베로 이제 입찌만...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사람은 삼베로 이제 입지만...}  
 10414 # 내가 이거 머 유괴때, 저 이북꺼정 가따 완는데, 그때 시월따레 간는데, 거기 가이간 점부 삼베 오시야. 여자드리 이븐 온. {내가 이거 머 육이오때, 저 이북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시월달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전부 삼베 옷이야, 여자들이 입은 옷.}  
 10414 # 그때 시월따런데 추우떠라고 여기나우, 근데 여기서은 그게 이버서 쑥 드러가제. {그때 시월달인데, 춥더라고 여기 나오면, 근데 여기서은 그게 입어서 쑥 들어가지.}  
 # 삼베는 여름에만 뜨글때만 임능거야, 시위네게. {삼베는 여름에만 뜨거울 때만 입는 거야, 시원하게.}  
 # 그래서 그한테 거기 거기 사는 그 여자가 이븐 온 삼베를 이버떠라고. {그래서 그한테 거기, 거기 사는 그 여자가 입은 옷, 삼베를 입었더라고.}  
 10414 # 야, 그래서 참 모쌀긴 모싼다 내 그리히고 나완는데... {야, 그래서 참 못살긴 못산다. 내가 그리하고 나왔는데...}  
 10414 @ 업쓰니까 머 이버야조. {없으니까 뭐 입어야조.}  
 10414 # 그럼. {그럼.}  
 10414 # 명지는 심드러, 나두 나두 명지 이버 바지 저고리 이버 바찌마는... {명주는 힘들어, 나도 나도 명주 입어, 바지 저고리 입어 봤지만은...}  
 10414 # 잠 마누라 죽곤 다 읍찌전는데. {잠 마누라 죽고는 다 없어졌는데.}  
 10414 # 심드러, 그건 아무나 몬니버. 그래고 그거 주로 명지야, 저저 명이야. {힘들어, 그건 아무나 못 입어, 그러고 그거 주로 명지야, 저저 명이야.}  
 10414 # 명 아니면 해 볼 수가 업짜너. {명 아니면 해 볼 수가 없잖아.}  
 10414 # 삼베는 그냥 여름에, 그래고 우리는 인제 명으로 짜가지고 해고 이제 거기다가 그 숨, 소미 거거거딩. {삼베는 그냥 여름에, 그리고 우리는 인제 명으로 짜가지고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숨, 숨이 그거거든.}

10414 # 명, 그게 그걸 튼려다가 이제 기계다 틀면 데구 옛날엔 화를 멩그러 화를 이르게 드가 따 나가따 해면 또 그러케 돼. {명, 그게 그걸 틀어다가 이제 기계에다 틀면 되고, 옛날엔 활을 만들어 활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또 그렇게 돼.}

10414 # 기계다 놔 기계가 다 소물 멩기는데. {기계다 놓으면 기계가 다 숨을 만드는데.}

10414 # 또 그거 안 틀면 이 우리 왜 노는 애들도 활 메가지고 이리 쏘능거 이짜너. {또 그거 안 틀면 이 우리 왜 노는 애들도 활 메 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

10414 # 크게 인제 메 그래가지고 그걸 명을 이제 거그다 씨아시에서 돌려가주 씨를 빼고 거그다 노코 이노를 가따 일 대구 나따 드러따 해면 그게 멩그러케 이러난다구. {크게 인제 메어 그래가지고 그걸 명을 이제 거기에다 씨앗이에서 돌려가지고 아주 씨를 빼고 거기다 놓고 이놈을 갖다 이리 대고 봤다 들었다 하면 그게 멩그렇게 일어난다고.}

10414 # 부푸러 이러나. {부풀어 일어나.}

10414 # 그래서 멩기러서. {그래서 만들어서.}

10414 # 그래 그걸 노차너. {그래 그걸 놓잖아.}

10414 # 지금도 소문 이씨여, 저 소미야 지금, 인는 사라문 그거 해 입는다구, 숨. {지금도 숨은 있어요, 저 숨이야 지금, 있는 사람은 그거 해 입는다고, 숨.}

10414 # 거 눈녕거 이부래. {그거 넣는 거, 이불에.}

10414 # 나이롱 거도 만치면, 지금 나일롱이도 마누지면 인는 사라문 또 거 소물 또 녀요. {나일론, 것도 많지만, 지금 나일론도 많지만, 잇는 사람은 또 그 숨을 또 넣어요.}

10414 # 진짜지 그게 월래가. {진짜지 그게 원래가.}

### 1.4.3. 옷 만들기

10419 @ 저 삼베가통거나 모시, 모시 아니면 명지로, 오슬 만들 땐 어떠논 만드러써요, 옛날엔? {저 삼베 같은 거나 모시, 모시 아니면, 명주로, 옷을 만들 땐 어떤 옷 만들었어요, 옛날엔?}

10419 @ 오쥬뉴 어떠노뜰 만드러쓸까요? {옷 종류, 어떤 옷들 만들었을까요?}

10419 # 아 그게 며 바지 저고리지 뭐 땅그야? {아 그게 며 바지 저고리지 뭐 땐 거야?}

10419 @ 남자드른 그리고 여자드른뇨? {남자들은 그렇고 여자들은요?}

10419 # 여자도 그러치며, 그른데 며 남자드리 마이 입찌 여자드른... {여자도 그렇지 뭐, 그른데 뭐 남자들이 많이 입지, 여자들은...}

10419 @ 여자들 오슨 멀로 만드나요? {여자들 옷은 뭘로 만드나요?}

10419 # 아 명저고리 거 그거지 며. {아 명저고리 거 그거지 뭐.}

10419 # 어우 머가 이씨, 그리고 며 유으 옛날레 며 어서 날라오는 오슨 내가 몰르지마는... {어우 뭐가 있어,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어디서 날라오는 옷은 내가 모르지만은...}

10419 # 우리네가 날게 저꿍건 그거지며. {우리네가 날게 꺾은 건, 그거지 뭐.}

10419 # 삼베하고 명하고 명지바께 더 인나 며? {삼베하고 명하고 명주밖에 더 있나 뭐?}

10419 @ 그걸로 며 만드능게 아까 얘기해땐 여자 그 바지 저고리... {그걸로 뭐 만드는 게 아까 얘기했던 여자 그 바지 저고리...}

10419 # 그래 다 그거지. {그래 다 그거지.}

10419 @ 여자 위에 입는... {여자 위에 입는...}

10419 # 그른데 그게 며 비단노시라고 이자너 그건 여그꺼가 아니고, 그건 판나라꺼지. {그른데 그게 뭐 비단옷이라고 있잖아, 그건 여기 것이 아니고, 그건 판나라 것이지.}

10419 # 바다노시랑게 머 따...{ 비단옷이란 게 머 따...}

10419 @ 모시가통 걸룬 머 만드려써요, 어떤 오슬 만드려...{모시같은 거로는 뭐 만들었어요? 어떤 옷을 만들었...}

10419 # 아 그게 이제 바지 저고리제 그게 다 멩기룽거 몸보신내게 여르메 임능거야 그게. {아 그게 이제 바지 저고리제. 그게 다 만든 거 몸보신하게 여름에 입는 거야, 그게.}

10419 # 지금... {지금...}

10419 @ 그렇거 말고 또 겨우레 임능 거는뇨? {그런 거 말고 또 여름에 입는 거는요?}

10419 # 겨울머~냥건 명이라이 되지, 그 그 그거, 그거 명지 거 그건... {겨울에 뭐나면 그 명이라야 되지, 그, 그, 그거, 명주 거, 그건...}

10419 # 그건 명지에더 겨우레 소물 너니깐 입찌. {그건 명주에다 겨울에 솜을 넣으니깐 입찌.}

10419 # 근데 그건 주로 남자드리 마니 이벼요. {근데 그건 주로 남자들이 많이 입어요.}

10419 # 명지는, 명지바지라고. {명주는, 명주바지라고.}

10419 @ 그러머는 이제 여르메 임는 요러케 이케 팔...{그러면 이제 여름에 입는 이렇게 팔...}

10419 # 반바지? {반바지?}

10419 @ 반바지 말구요, 옴나레 이제 옴나레 소곧까통 경우에도 그렇거 다 만드려찌 아난나요? {반바지말고요. 옛날에 이제 옛날에 속옷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다 만들었지 않았나요?}

10419 # 속꼴? 여자들? 그래 옴나레는 소꼬시시지 머. {속옷? 여자들? 그래, 옛날에는 속옷??지 뭐.}

10419 # 옴나렌 다 소꼬시야. {옛날엔 다 속옷이야.}

10419 # 그리고 아주 옴나른 여자드른 이 궁테를 타게 나요. {그리고 아주옛날엔 여자들은 이 궁둥이를 타게 해봐요.}

10419 # 궁테를 타게 논는다구. {궁둥이를 타게 놓는다고.}

10419 @ 타게 논능게 됩니까? {타게 놓는 게 됩니까?}

10419 # 다 쪼개 논는다고 다 이러케 바지처럼 안 멩기러 옴날도 여자드른. {다 쪼개 놓는다고, 다 이렇게 바지처럼 안 만들어 옛날도 여자들은.}

10419 @ 아아, 타, 타, 타서 논는다구요? {아아, 타, 타, 타서 놓는다고요?}

10419 # 그, 그럼 다 타게 봐 그릴. {그, 그럼 다 타게 봐, 그걸.}

10419 # 여 인날도 보면 다 그래써요. {여 옛날도 보면 다 그랬어요.}

10419 # 그러िका 인제 이 이거 오슬 암버짜나 여자드른 그냥 거 떼고 타나쓰니깐 그기 인제 이 르케 마디 우루내기 여 이거파 또까통거야 이거. {그러니까 인제 이 이거 옷을 안 벗잖아, 여자들은. 그냥 그거 떼고 태어났으니깐, 그게 인제 이렇게 마디, 우리네 여기 이것과 똑같은 거야, 이거.}

10419 # 그걸 타야 그러케 해나써 옴날 노이는. {그걸 타야 그렇게 해 봤어 옛날 노인은.}

10419 # 근데 이제 그게 우췌저짜너 여자드른 그러케 해써.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 여자들은 그렇게 했어.}

10419 # 그래서 여자드른 사라미 우이 농사 농사 이 부라궁지 떼자나 나무떼는 이유가 그거야. 여자드른. {그래서 여자들은 사람이 우이 농사, 농사 이 불아궁이 떼잖아 나무떼는. 이유가 그거야. 여자들은.}

10419 # 지금 내, 냉이, 그게 이제 그 아니 이리 버러지자너. 그니깐 아궁지 부를 떼자너. 그 뜨드태짜너. {지금 냉, 냉이, 그게 이제 그 안이 이리 벌어지잖아. 그니깐 아궁이 불을 떼잖아, 그 뜨듯했잖아.}

10419 # 그래서 인제 그게 마니 인제 여자드른 도우미 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제 그게 많이 인제 여자들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10419 # 그래 지금 그게 읍짜너. {그래 지금 그게 없잖아.}

10419 # 그래서 여자들 병이 만타는 얘기야. {그래서 여자들 병이 많다는 얘기야.}

10419 # 그게 옴마나 그게 부찌메 뜨드태기 해기 데면서 여자들 병이 읍따고 그르케 내리오는데, 지끄른 그게 읍짜너. {그게 얼마나 그게 불 김에 뜨뜻하게 하게 되면서 여자들 병이 없다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

10419 # 그게 큰 도우미 데. {그게 큰 도움이 돼.}

10419 @ 바지 저고리나 치마 저고리 가통 경우 보며는 그 부분 부분 명칭이 이짜나요? {바지 저고리나 치마 저고리 같은 경우 보며는 그 부분 부분 명칭이 있잔하요?}

10419 @ 바지 저고리 가통 경우는... {바지 저고리 같은 경우는...}

10419 # 글썸 그근 난... {글썸 그건 난...}

10419 @ 이게 여, 남 여자 저고리며는 저고리며는 저고리 여기에 맨 머머 여기에 머머 머머... {이게 여자 저고리며는 저고리며는 저고리 여기에 맨 뭐뭐, 여기에, 뭐뭐...}

10419 # 조께다고 이찌머 조끼배께 더 인나머? {조끼라고 있지 뭐 조끼밖에 더 있나 뭐?}

10419 @ 조끼도 이꼬 고기 인제 여기 매는 머, 머가 인... {조끼도 있고, 거기 인제 여기 매는 뭐, 뭐가 있...}

10419 # 끈. {끈.}

10419 # 그게 옴나레는 또 그 단추가 읍짜너. {그게 옛날에는 또 그 단추가 없잖아.}

10419 @ 그걸 끈이라고 하나요? {그걸 끈이라고 하나요?}

10419 # 그니까 끈 그걸 끈느루다가 맨다고 단초로맹크로 똥그라케. {그러니까 그걸 끈으로다가 맨다고, 단추같이(?) 둥그랴게.}

10419 # 우리 그거 잘 몬매게떠라고, 그걸 우뚜케 대고 웨가주구 해머 똥그라케 웨요. {우리 그거 잘 못 매졌더라고 그걸 어떻게 대고 웨어가지고 하면 둥그랴게 웨요.}

10419 # 근데 그걸 가따 이러케 달자너.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달잖아.}

10419 # 인제 여기도 고르재기를 또 달고 여 단추를 달고 그럼 거기다 웨능거지. {인제 여기도 고르재기(?)를 또 달고 여기 단추를 달고 그럼 거기다 웨는 거지.}

10419 @ 그다메 여기 쫘 이제 여기 머 쫘 이러케 다라 다라서 머 돈 가통거 너코 하는 그... {그다음에 여기 ? 이제 여기 뭐 좀 이렇게 달아, 달아서 뭐 돈 같은 거 넣고 하는 그...}

10419 # 주머니? {주머니?}

10419 # 그거 돈주머니지 머 지껴 지갑. {그거 돈주머니지 머 지끔 지갑.}

10419 # 금 머 실제 머 직 지가비지 마라자른 우리네 지가비야 지끔. {그거 뭐 실제 뭐 직, 지갑이지 말하자면, 우리네 지갑이야, 지끔.}

10419 # 옴나렌 그기 읍찌니깐 그 주머닐 맹기룽거야 주머닐 타가지구.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깐 그 주머니를 만든 거야, 주머니를 타 가지고.}

10419 # 인제 그거뚜 골치기루 해서 웨노 꾸니깐 이제 그래 이걸 이르케 하면 썩 빠리지구. {인제 그것도 골치기로 해서 ?? ??? 이제 그래 이걸 이렇게 하면 썩 벌어지고.}

10419 # 쪽 짜바대면 아오모로지자나, 그래그 이러케 동기면 아무러지고. {쪽 잡아대면 아물어지잖아, 그래 그 이렇게 당기면 아물어지고.}

10419 # 옴나렌 그거지 인제. {옛날엔 그거지 인제.}

10419 # 주머니야. {주머니야.}

10419 @ 근데 이제 바지 저고리 가통 경우엔 요러케 또 머 내리면... {근데 이제 바지 저고리 같은 경우엔 이렇게 또 뭐 내리면...}

10419 # 썩, 츠, 끈, 썩, 재름. {썩, 그건, 재름}

10419 # 대루미나 그러자나, 끈니거. {대님이라 그러잖아, 끈 이거.}

10419 # 이거 고래가주 요거 그인제 요런, 바지저구리 그러니까 요거 이제 모쨌게 가따 인:자래 이계. {이거 그래가지고 요거 그 인제 요렇, 바지저고리 그러니까 요거 이제 못 쏠리게 갖다 왼쪽 에 이계.}

10419 # 이거 그미쓰니 고걸 요르케 대가지고 요걸 아래우로 요르케 다 딱대가지고 이걸 착 이 러케 하면 그 끄늘 가따 매능거야 대, 대루미라고. {이거 금있으니 그걸 요렇게 대가지고 이걸 아 래 위로 요렇게 다 딱 대어가지고 이걸 착 이렇게 하면 그 끈을 갖다 매는 거야, 대, 대넘이라 고.}

10419 @ 대, 대 대름뇨? {대, 대, 대넘요?}

10419 # 그 그르이 그걸루다가 매능거지 머. {그, 그러니 그걸로다가 매는 거지 뭐.}

10419 # 인나렌 다 그 그래 바지 이렇거 지르니까 이걸 이러케 해서 매능거. {옛날엔 다 그 그 래. 바지 이런 거 기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매는 거.}

10419 # 그래 머 인제, 허, 옴나레는 또 허리빠도 업송이까 이제 석때라능게 업짜나. {그래 뭐 이제, 허, 옛날에는 또 허리띠도 없으니까, 이제 혁대라는 게 없잖아.}

10419 # 그라이까 그 끄느루다 해써, 석 그게 석때대신 인제. {그러니까 그 끈으로다가 했지. 혁, 그게 혁대대신 인제.}

10419 # 허리띠, 허리띠가 테능 거지 머. {허리띠, 허리띠가 되는 거지 뭐.}

10419 # 허리띠이고, 그리고 이 실궁도 그래. {허리띠고, 그리고 이 실강도 그래.}

10419 # 지금 저러케 머 저러케 조차나, 옴나렌 그게 옹짜너, 그르이까 저기다 나무를 이러케 매, 끄누루. {지금 저렇게 뭐 저렇게 좋잖아, 옛날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다 나무를 이렇 게 매, 끈으로.}

10419 # 화때라구. {화때라고.}

10419 # 양쪽 끄늘 매서 저글 이르 부뜨러매 양짜 부뜨러매 그러면 나무끼니깐. {양쪽 끈을 매 서 저길 이렇게 붙들어 매, 양 쪽을 붙들어 매 그러면 나무니깐.}

10419 # 그래게 이제 그게 화때야. {그렇게 이제 그게 화때야.}

10419 # 그리고 오슬 점부 거능거야 옴나렌. {그리고 옷을 전부 거는 거야, 옛날엔.}

10419 @ 무슨 대요? {무슨 대요?}

10419 # 화때라고, 여, 여그 바름대루다가. {화때라고, 여, 여기 발음대로다가.}

10419 @ 아, 화때요? {아, 화때요?}

10419 # 닥때기 진는데다 양짜끈트머리다 끄늘 매. 그래가지고 저기도 모슬 박꼬 모세다 그걸 메면, 이러케 되자너, 그저 구네 그 시기 아냐. {작대기 짓는 데다 양쪽 끈트머리에다 끈을 매. 그래가지고 저기도 못을 박고 못에다 그걸 메면, 이렇게 되잖아, 그 저 그네, 그 식이 아냐.}

10419 # 그림 저기다 오슬 거러 거능거야, 예나렌 다 그러케 해써. {그림 저기다 옷을 걸어, 거 는 거야.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

10419 # 지끄른 인제 개명이이 되구 인제 그러이까 다 인제 이러케 되지. {지금은 이제 개명이 되고 인제 그러니까 다 인제 이렇게 되지.}

10419 # 그저네 활, 화때라 그래. {그전에 활, 화때라 그래.}

10419 # 옴나렌 다 그러케...{옛날엔 다 그렇게...}

10419 @ 그거랑 실경이랑 머가 달라요? {그거랑 실경이랑 뭐가 달라요?}

10419 # 실경은 또 실궁은 그 지따랑걸 대면 즈 저기서 여기도 가따니 여 어리땅기 이 이렇걸 가따 저기 대고 여기다 구녕을 푼루구 양짜열. {실강은 또 실강은 그 기다란 걸 대면 저, 저기서 여기도 갖다가 이 어리땅은 게 이런 걸 갖다 저기대고 여기다 구멍을 뚫고 양쪽을.}

10419 # 두궐 가따 꺾:녕거야 그래머는 그 실궁이지. {두개를 갖다 찍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실 강이지.}

10419 # 그러면 거기다 모던진다고 못. {그러면 거기다 못 없진다고, 못.}

10419 # 요러케 나께도 풀르구 노피도 해노쿠 그래 그러면 나께... {이렇게 낮게도 뚫고 높이도 해놓고 그래, 그러면 낮게...}

10419 @ 실경은 방 아네 인나요? {실거운 방 안에 있나요?}

10419 # 그르치 방 아니지. 그르िका 니이불 가통거또 개서 고기다 시, 시... {그렇지 방 안이지. 그러니까 이불 같은 것도 개어서 거기다 시, 시...}

10419 # 언지면 언저, 어? {없으면 언저, 어?}

10419 @ 화때는 화때는 어뜨케 논나요, 화때는? {화대는 , 화대는 어떻게 놓나요, 화대는?}

10419 # 활, 화때는 즈른데 노피 거러야지 그래야 오솔 걸자나 거기다가. {화, 화대는 저런데 높이 걸어야지 그래야 옷을 걸잖아, 거기다가.}

10419 # 고평 가따 투꾸, 버서더 거 척 켄치 이러케 논녕거야 그제 화때야. {거기 또 갖다 벗어서 거 척 켄치 노는 거야, 그제 화때야.}

10419 # 옛날엔 다 그거야, 지금 이 머 거 고리대기가 이짜나 옛날엔 다 화때지. {옛날엔 다 그거야, 지금 이 뭐 그 고리대기가 있잖아, 옛날엔 다 화때지.}

10419 # 그래서 실공은 그 그 실공은 거 나무에 그 두개만 다 가따 찌부면 그래이 새, 새닥다리 생가카면 대, 새닥다리. {그래서 실공은 그 그 실공은 그 나무에 그 두개만 갖다 집으면 그러니까 사, 사닥다리 생각하면 돼, 사닥다리.}

10419 # 우리 나고 올라가는 새닥다리 이짜너 그런 시기지머. {우리 놓고 올라가는 사닥다리 있잖아, 그런 식이지 뭐.}

10419 # 그러िका 거 그 거기다 이제 머 이불 다 개 영꼬 그래지 머. {그러니까 거, 거기다 이제 뭐 이불 다 개어 얹고 그러지 뭐.}

10419 # 옛날엔 이제 그제 그제 실공이라 그래 마라 실공이라구. 그걸 가따... {옛날엔 이제 그제 그제 실경이라 그래, 말하, 실경이라고. 그걸 갖다가...}

10419 @ 그 천 가를 가지고서 이제 오솔 어떠케 오솔 이게 이게 이게... {그 천, 감을 가지고서 이제 옷을 어떻게, 옷을 이게, 이게, 이게...}

10419 # 가마능게 그거야 머 내가 아나 그거야 머 머 그거 지금 기술짜가 박, 진능거니깐 그건 여자가 루이칸... {감하는 거 그거야 뭐 내가 아나, 그거야 뭐 뭐 그거 지금 기술자가 박, 짓는 거니깐 그건 여자가 마르니칸...}

10419 # 오까를 말루िका 이제 그건 여자가 이제 말루이칸... {옷감을 마르니까, 이제 그건 여자가 이제 마르니까...}

10419 # 그제 그르िका 양복 지금 진는 기술짜가 그제 또까통거인데. {그제 그러니까 양복 지금 짓는 기술자가 그제 똑같은 건데.}

10419 # 그거또 그르칸 여자드리 다 오솔 다 몬맹기능거야 여자라고 오솔 다 몬맹기러. {그것도 그러니깐, 여자들이 다 옷을 다 못 만드는 거야, 여자라고 옷을 다 못 만들어.}

10415 @ 그럼 말룰 때 어떻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요? {그럼 마를 때, 어떤 걸 어떤 도구를 사용해요?}

10415 # 옛날 다 한보기지 머 어떤 시그루 해. {옛날 다 한복이지 뭐 어떤 식으로 해.}

10415 @ 아니 쓰능거 이짜나요, 거 온, 천... {아니 쓰는 거 있잖아요, 거 옷, 천...}

10415 # 아 가새로 인제 고걸 말르자너 고걸. {아 가위로 인제 그걸 마르잖아, 그걸.}

10415 @ 가새도 이써야되고 또 머도 이써야 되나요? {가위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나요?}

10419 # 그걸 이제 그르िका 그 번,버보늘 뜨능건데 버늘 떠가지고 인제 고대로 고걸 오리자너.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본, 본을 뜨는 건데 본을 떠가지고 인제 그대로 그걸 오리잖아.}

10419 # 버는 떠가지구. {본을 떠가지고.}

10419 # 그래이 이 이이 버선도 그래. {그러니 이 이 버선도 그래.}

10419 # 버선두, 버선도 또까테, 그 번이 이씨. {버선도, 버선도 똑같아, 그 본이 있어.}

10419 # 고려케 맹감 고기다 그걸 대고다 뜨능거지, 고거대로. { 그렇게 만들면 거기다 그걸 대고다가 뜨는 거지, 그거대로.}

10419 # 그래서 버선도 그제 인제 두 껍데기야. {그래서 버선도 그제 인제 두 껍데기야.}

10419 # 그릉까 거그 소믈 라여 옌나렌 그걸 버서늘 그 흐무떼기만 진는게 아냐. {그러니까 거기 숨을 놔요, 옛날엔 그걸 버선을 그 형겍떼기만 짓는 게 아냐.}

10419 # 그래 소믈 거그다 지버 너유. {그래 숨을 거기다 집어 넣어요.}

10419 # 짐너쿠 훌떡 디지브먼 또 아주 그 소게다 드러가기 데 이씨, 저, 저비니까는. {짐 넣고 후떡 뒤집으면 또 아주 그 속에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 접, 접이니까는.}

10419 # 그리이까 인제 버선이 뜨드태다능 예기, 이제 양바리 아니고... {그러니까 인제 버선이 뜨듯했다는 얘기, 이제 양말이 아니고...}

10419 # 오, 오푸 그래 오푸 그 버니 이씨 버니 그 이 이쓰이까 그걸 보구 고거대루다 고걸 가새로 오리니까 이제 버, 나오자나, 오까미. {옷, 옷도 그래, 옷도 그 본이 있어 본이, 그걸 보구 그대로다 그걸 가위로 오리니까 이제 버, 나오자나 옷감이... {옷, 옷도 그래, 그 본이 있어, 본이, 그 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거대로다 그걸 가위로 오리니까 이제, 버, 나오잖아 옷감이...}

10419 # 그러케 해능거지 머. {그렇게 하는 거지 뭐.}금

10419 # 양복뚜 그래 거 대선사드리 다 그기 그제 버니 이씨서 그러케 해능거지 머. {양복도 그래 그 재단사(?)들이 다 그제 본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10419 # 그냉 잉구므루 딱 잘라다 해능건 읍씨 하나도 읍씨. {그냥 원금으로 딱 잘라다 하는 건 없어, 하나도 없어.}

10419 # 또까통 거여. {똑같은 거야.}

10419 # 양복써메두 다 그러차나 그제. {양복점에도 다 그렇잖아, 그제.}

10419 # 그제 기술짜가 인제 기술짜라 그러차나 지끔 양복찐능거뚜. {그제 기술자가 인제 기술자라 그러잖아, 지금 양복 짓는 것도.}

10419 # 그 버니 이씨요. {그 본이 있어요.}

10422 @ 예, 여자드리 바느질 하자나요? {예, 여자들이 바느질 하잖아요?}

10422 @ 바느질 마니 하죠. {바느질 많이 하죠.}

10422 @ 할 때, 어떻게 어떻게 바느질 할 때 가지고 인능게 바느질 할 때 드능게요. {할 때, 어떤 거 어떤 거 바느질 할 때 가지고 있는 게 바느질 할 때 드는 게요.}

10422 # 바느라고 머 실배기 더 이서? {바늘하고 머 실밖에 더 있어?}

10422 # 머 바느질 헐 쩌. {뭐 바느질 할 때.}

10422 @ 또... {또...}

10422 # 그리고 인제 대릴 땀 인두가 이씨. {그리고 인제 다릴 땀 인두가 있어.}

10422 # 다 대리구다가 그제 인제 영크러징걸 신드러커 문지르라구 은제 고:께 인제 부트라고 고:께. {다 다리고다가 그제 인제 형클어진 걸 심드렇게[편편하게] 문지르라고 인제 곱게 인제 불으라고 곱게.}

10422 # 그저넌 그 이 저 그 실로 꾸미능게 이꼬 부치능게 이씨요. {그전엔 그 잇 저 그 실로 꿰매는 게 있고 붙이는 게 있어요.}

10422 # 그래서 그 풀루 그래 인제 그걸 이 화레다가 옌나렌 전부 화리에다 부를 다마 방에다 놓는다고 옌나렌. {그래서 그 풀로 그래 인제 그걸 이 화로에다가 옛날엔 전부 화로에다 불을 담아 방에다 놓는다고, 옛날엔.}

10422 # 그릉겐 인제 거기다 인두래능게 이써. {그러니깐 인제 거기다 인두라는 게 있어.}

10422 # 쪼꼬망게 거기다 꼬자놈 그게 뜨뜨태게 그걸루다가 노코 그 인제 이 송파닐 가주 요러  
 케 널봉걸 이제 고걸 지따라케 맵기러써 요러케. {조그마한 게 거기다 꽃아 놓으면 그게 뜨듯하  
 게 그걸로다가 놓고 그 인제 이 송판을 가지고 이렇게 넓은 걸 이제 그걸 길다랗게 만들었어 이  
 령게.}

10422 # 맵기러노코 고기다 흥겹떼길 이르케 다 씹어빠럴써. {만들어 놓고 거기다 흥겹떼기를  
 이렇게 다 씹워 버렸어.}

10422 # 그래 인제 그걸 노코 그 은제 오슬 거기다 노코다가 고 풀칠헨델 고걸 로 인두를 이려  
 고 쪽 내밀면 딱 부찌 그 오시. {그래 인제 그걸 놓고 그 인제 옷을 거기다 놓고다가 그 풀칠한  
 데를 그걸 인두를 이려고 쪽 내밀면 딱 ?지 그 옷이.}

10422 # 인제 그거배께 업찌 머. {인제 그거밖에 없지 뭐.}

10422 # 그거지 머. {그거지 뭐.}

10422 @ 그다멘 이제 옴나레는 지금 쓴 지금 인제 소느로 하는데 옴나레는 그 머 기계 업션나  
 요? 다다다다. {그 다음엔 이제 옛날에는 지금 쓴, 지금 인제 손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 뭐 기  
 계 없었나요. 다다다다.}

10422 # 아, 자방? {아, 재봉?}

10422 # 옴나렌 자방이 인나. {옛날엔 재봉이 있나.}

10422 # 옴나렌 자방이 읍찌. 자방은 이 시, 심들지. {옛날엔 재봉이 없지. 재봉은 이, 시, 힘들  
 지.}

10422 # 몰라 아주 큰 부자드른 인는지 몰라. {몰라 아주 큰 부자들은 있는지 몰라.}

10423 @ 근데 어르신, 어르신도 이거 바느질 쫘 해보셔써요? {근데 어르신, 어르신도 이거 바느  
 질 쫘 해보셨어요?}

10423 @ 마니는 아나지만 그 쫘 하자나요. {많이는 안하지만 그 쫘 하잖아요.}

10423 # 그래 머 지금도 그러치 머 내 머 온 저 타지면 내가 꿰매입꾸 그러능거지. {그래 뭐 지  
 금도 그렇지 뭐 내 뭐 옷 저 뜯어지면 내가 꿰매어 입고 그러는 거지.}

10423 @ 그 꿰매 때 바느질 하는 방버베 꿰매는 방버비 여러가지가 이짜나요. {그 꿰매 때 바  
 느질 하는 방법에, 꿰매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10423 # 여러가지가 이찌 그런데 그게 안... {여러가지가 있지 그런데 그게 안...}

10423 @ 어떻게 어떻게 이써요? {어떤 거 어떤 게 있어요?}

10423 @ 그양 함번 이르케 그러건 머라 멀 한다 그래요? {그냥 한번 이렇게 그런 건 뭐라 뭇  
 한다 그래요?}

10423 # 어 그래 그러거. {어 그래 그러거.}

10423 # 머 그 머 이르미 인나? {뭐 그 뭐 이름이 있나?}

10423 # 그 이르문 읍찌 바느질라는 데 머. {그 이름은 없지 바느질하는 데 뭐.}

10423 # 그게 머 그르이까, 킁, 기계로 행거 하구 내가 소느루 행가구 달르지. {그게 뭐 그러니  
 까, 기, 기계로 한 거 하고 내가 손으로 한 거 하고 다르지.}

10423 # 나는 낭 그냥, 타기가 아껴 그제 되는대루 꿰매닝간 그 표가 나자나. {나는 난 그냥 타  
 지지만 앓게 그저 되는 대로 꿰매니깐 그 표가 나잖아.}

10423 # 그래 기계로 찌그명 일 일짜로 쫘캐니까는 자방으루 행건, 그르이칸 폐가 안나지. {그  
 래 기계로 찍으면 일, 일자로 쫘 하니까는, 재봉으로 한 건, 그러니깐 표가 안나지.}

10423 # 그 나 소느루 꿰매건 앙그두 그게 폐가 나지. {그 나 손으로 꿰매건 아무래도 그게 표  
 가 나지.}

10423 @ 오시 이르케 타지며는 이걸 오슬 어떠케 해야 됩니까, 오슬 처늘 가따대고 오슬 쫘 그

거 하능걸 머? {옷이 이렇게 타지면은 이걸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천을 갖다대고 옷을 쪽 그거 하는 걸, 뭐?}

10423 # 오솔 대곤 모태쥬. {옷을 대고는 못하쥬.}

10423 @ 아니 청 가통걸 대고 이러케 멀 한다고 하나요, 요렁 걸? {아니 천 같은 걸 대고 이렇게 뭘 한다고 하나요, 이런 걸?}

10423 # 그 그건 자방에야만 해 그게 소느룬 안데, 소매도 엔나렌 해긴 헨는데 소느루 다 꿰매 이꾸, 양반두 다 꿰매입꾸 이 오또 다 꿰매이버썸 다 엔나렌. {그 그건 재봉이어야만 해 그게 손으론 안 돼, 소매도 옛날엔 하긴 했는데 손으로 다 꿰매고, 양발도 다 꿰매 입고 이 옷도 다 꿰매 입었어 다 옛날엔.}

10423 # 오시 읍썸서. {옷이 없어서.}

10423 # 이 나무해고 해는 사라문 만날 떠러지자나 이게. 나무해다. {이 나무하고 하는 사람은 맨날 떨어지잖아 이게, 나무 하다가.}

10423 @ 거 떠러지며는 누더기가 그걸 어뜨케 해야 돼요, 그렇건? {그 떨어지면은 누더기가, 그 걸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런 건?}

10423 # 그까 그 누더기지 아주 그건.{그러니까 그 누더기지 아주 그건.}

10423 # 아 그거들 대그 대구 뺱돌려 꿰매능거지 머 그거야 머. {아 그걸 대구 뺱돌려 꿰매는 거지지 뭐 그거야 뭐.}

10423 @ 꿰맨다는 말 아나고 머 땀 말 안쓰나요, 머 뉘, 뉘? {꿰맨다는 말 안하고 뭘 땀 말 안 쓰나요, 뉘, 뉘, 뉘?}

10423 # 그걸 머라 그래? {그걸 뉘라 그래?}

10423 # 누빈다 그래나 그걸? {누빈다 그러나 그걸?}

10423 @ 그런 마른 안 썸요? {그런 마른 안 썸요?}

10423 # 그건 난 몰라 그거. {그건 난 몰라 그거.}

10423 @ 글 머 누, 누비, 방금 얘기해뉘... {그걸 뉘 누, 누비, 방금 얘기했뉘...}

10423 # 아 그 거시 다 꿰 꿰매 임는다 그러지 머 따나르미 머 인나. {아 그 것이 다 꿰, 꿰매 임는다 그러지 뉘 땀 이름이 있나.}

10423 @ 누, 누빈다는 마를 안썸요? {누, 누빈다는 말을 안 썸요?}

10423 # 누, 누비능건 또 아주 총최미태능게 이썸 총최미 방능걸 누빈다 그래더라고. {누, 누비는 건 또 아주 촘촘히 하는 거 있어, 촘촘히 박는 걸 누빈다 그러더라고.}

10423 # 아주 총최미 방능걸 아주, 총최미 이래 꿰매능걸. {아주 촘촘히 박는 걸 아주, 촘촘히 이래 꿰매는 걸.}

10423 # 그, 그렇건 저, 그 자방으루 마이 해지 머 지끔두 그렇게 이짜너? {그, 그런건 저, 그 재봉으로 많이 하지 뉘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

10423 # 지끔 능이 바지 머 그렇거 나오자나 그거 지끔 나오는데, 소느룬 그러케 모태유. {지금 누비 바지 뉘 그런 거 나오잖아 그거 지금 나오는데, 손으론 그렇게 못해요.}

10423 @ 그럼 자방으로 이게 누, 누... {그럼 재봉으로 이게, 누, 누...}

10423 # 그럼, 손. {그럼, 손.}

10423 # 소느룬 이리리 모태. {손으론 일일이 못해.}

10423 @ 아 소느룬 모타고요 자방으로 누, 멀 헨다고 합니까? {아 손으론 못 하고요 재봉으로 누, 뉘 한다고 합니까?}

10423 # 그, 누, 누빈다 그래지, 응. {그, 누, 누빈다 그러지, 응.}

10423 # 근데 소느룬 그러케 모태. {근데 손으론 그렇게 못해.}

10423 @ 엔나레는 머... {옛날에는 뉘...}

10423 # 근데 진능거 근데 흥그때대구 저 얼, 그느물 대 지버매능 거야. {근데 짓는 거 근데 형  
 겹테기 대고 그놈을 대고 집어매는 거야.}

10423 # 머 이씨 다룽거 머가 이씨. {뭐 있어, 다른 게 뭐가 있어.}

10423 @ 아, 형거브로 질? {아, 형겹으로 짓?}

10423 # 그럼 대구다가 인제, 그래 흥겹 이래고 대면 이제 그겹 여기또 이르거 대자나. {그럼  
 대고다가 인제, 그래 형겹 이려고 대면 이제 그겹 여기도 이렇게 대잖아.}

10423 # 그러면 여서 시자가서 꾸매리가 총최미 꾸매능게지 머 이러케 도라가며... {그러면 여서  
 시작해서 꿰매내러가 촘촘히 꿰매는거지 뭐 이렇게 돌아가며...}

10423 @ 예 그렇겹 머라고 한다고요? 질? {예 그런 겹 뭐라고 한다고요? 질?}

10423 # 그렇거 머 멀 마리 이씨. {그런거 뭐 뭘 말이 있어.}

10423 # 진능겹 머 무 마리 이씨. {짓는 겹 머 말이 있어.}

10423 # 마리 읍찌, 그은. {말이 없지, 그진.}

10423 # 아, 오떠러져서 진능거 머. {아, 옷 떨어져서 짓는 거, 머.}

10423 @ 방금 얘기하셔짜나요 고런 말씀.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10423 # 누빈다능거? {누빈다는 거?}

10423 @ 아니 누빈다능 말고 오까를 진... {아니 누빈다는 거 말고 옷감을 진...}

10423 # 그래구 오시 떠러지면 머 근데 지, 떠러진데 진는다 그러자나. {그래 옷이 떨어지면 근  
 데 지, 떨어진 데 짓는다 그러잖아.}

10423 @ 그럼 어떻게 해 이버라 이런 말 씀니까 야, 떠러진 오슬? {그럼 어떻게 해 입어라 이  
 런 말 씀니까 야, 떨어진 옷을? }

10423 # 그래, 진는대배게 더 이씨? {그래 짓는다 밖에 더 있어?}

10423 @ 예, 어떻게 해라, 그러쥬, 시킬 때. {예 어떻게 해라, 그러쥬, 시킬 때.}

10423 # 그래 그거 글치 마 아버지꺼라면 아버지 그거 오떠러징 그거 지어라 그러지 머. {그래  
 그거 그렇지 뭐 아버지꺼라면 아버지 그거 옷떨어진 그거 지어라 그러지 뭐.}

10423 # 머머 그러치 머 다르게 읍찌. {뭐뭐 그러치 뭐 다른 게 없어.}

10423 @ 예, 예, 예. {예, 예, 예}

10424 @ 그 다음에 강가통거 빨래하는 방법뜨리 여러가지 이짜나요? {그 다음에 감 같은 거 빨  
 래하는 방법들이 여러가지 있잖아요?}

10424 @ 빨래를 할 때... {빨래를 할 때...}

10424 # 그정 녀자드리 알지 그거 내가 아나 즈건 저 여자드리 해는데 그거 가메 딸 딸르지.  
 {그건 여자들이 알지 그거 내가 아나, 저건 저 여자들이 하는데 그거 감에 따라 다르지.}

10424 # 씹능거 이꼬 안 씹능게 이따 마려 오시. {삶는 거 있고, 안 삶는 게 있단 말이야, 옷  
 이.}

10424 @ 그건 멀로 씹, 쌀물 땀 멀 نن나요 예나레는? {그건 뭘로 삶, 삶을 땀, 뭘 넣나요, 옛날  
 예는?}

10424 # 눈능거? 그거 비누로 마이다 씹뜨라구, 지금뚜. {넣는 거? 그거 비누로 많이들 삶더라  
 고, 지금도.}

10424 @ 엔나렌 비누 읍쓰짜나요. {옛날엔 비누 없었잖아요.}

10424 # 엔나렌 그겹 이 나무재로 해 나무썰 바쳐서, 그게 저 비누 대신. {옛날엔 그겹 이 나뭇  
 재로 해, 나뭇재를 받혀서, 그게 저 비누 대신.}

10424 # 그이 그겹 양젼무리라 그래. {그, 그겹 양젼물이라 그래.}

10424 # 엔나렌. {옛날엔.}

10424 # 그래구 사라미 열구리 썬능건 판, 파트를, 그 멍는 파출 빠가지구 그 가루를 그 분대신

발러따구. {그러고 사람이 얼굴에 씻는 건 팔, 팔을 그 먹는 팔을 빵아 가지고 그 가루를 그 분 대신 발랐다고.}

10424 # 엔나렌. {옛날엔.}

10424 # 얼구리다가. {얼굴에다가.}

10424 @ 파출 빠가지고요? {팔을 빵아 가지고요?}

10424 # 그럼. {그럼.}

10424 # 그걸 빈누로 멩길고 이제 날또 씨꼬 그래쎄. {그걸 비누로 만들고 이제 닳도 씻고 그랬어.}

10424 # 그게 비누가 읍썰 쟈는. {그게 비누가 없을 때는.}

10424 @ 엔나레 인제... {옛날에 인제.}

10424 # 그래가 인제 비누가 나옴 인제 그렇게 읍쎄지. {그래서 인제 비누가 나오니 인제 그렇게 없었지.}

10424 # 그 판, 그렇걸로 해구, 또 쟈무른 나무재를 가따가 그르케 시루에다 해:쓰때 무를 내리면 인제 그걸 그 무리 인제 아주 파::라케 우로난다구. {그 판, 그런 걸로 하고, 또 잣물을 나뭇재를 갖다가 그렇게 시루에다 했을 때 물을 내리면 인제 그걸 그 물이 인제 아주 파랗게 우러난다고.}

10424 # 그걸 가따가 해면 인제 그게 이 지끔 비누씨그루 인제 그 때가 그러케 잘 진다구.{그걸 갖다가 하면 인제 그게 이 지금 비누식으로 인제 그 때가 그렇게 잘 진다고.}

10424 @ 며 이제 여자드리 오솔 할 때, 아, 오솔 빨 때 어디서 빠나요, 주로? { 뭐 이제 여자들이 옷을 할 때, 아, 옷을 빨 때 어디서 빠나요, 주로?}

10424 # 빠능거야 며 개우리고 며 지베서 빠능기고 그거 그건 여러가지 그거야. {빠는 거야 뭐, 개울이고 뭐 집에서 빠는 것이고 그거 그건 여러가지 그거야.}

10424 @ 소느로 이러케 하기도 하고 그 다으메 막...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10424 # 빨래방치로 때리능거도 이꾸 그러치 며 그 인제. {빨래방망이로 때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 뭐 그 인제.}

10424 @ 빨래, 머요? {빨래, 뭐요?}

10424 # 방매이, 빨래 방매이라고 이제 며 그거지 며. {방망이, 빨래 방망이라고 이제 뭐 그거지 뭐.}

10424 @ 근데 여자드리 여자드른 인제 한다레 함번씩 달거리 하자나요? {근데 여자들이, 여자들은 인제 한달에 한번씩 달거리 하잖아요?}

10424 # 어? {어?}

10424 @ 달거리를 하자나요. {달거리를 하잖아요.}

10424 @ 그러머는 그 이르게 피가 무등 거는 어떻게 여자드리 빠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피가 묻은 거는 어떻게 여자들이 빠는지 혹시 아세요?}

10424 # 모헨다구? {뭐한다고?}

10424 @ 여자드리 한다레 함번씩 달거리를 하자나요. {여자들이 한달에 한번씩 달거리를 하잖아요.}

10424 # 논다고. {논다구.}

10424 @ 예, 예? {예, 예?}

10424 # 논다구? {논다고?}

10424 # 아, 달거리. {아, 달거리.}

10424 @ 예, 예. {예, 예.}

10424 # 그 할 때 그렇 거뜨른 어떠케 빠는지 흑씨 아... {그 할 때 그런 것들은 어떠케 빠는지 흑씨 아...}

10424 # 아 그건 머 자기네가 한디 그거머 그거 남자 보이키게 빠나? {아 그건 뭐 자기네가 하는데 그거 뭐 그거 남자 보이게 빠나?}

10424 @ 어르신도 잘 모르세요, 그럼? {어르신도 잘 모르세요, 그럼?}

10424 # 그거여 그럼, 그게 달거리 해능 건 머 여자들 인제 그거 이제 슴마린제 그릉걸 빨지 빠러서 인제 그르치. {그거여 그럼, 그게 달거리 하는 건 뭐 여자들 인제 그거 이제 \*\*\*\* 그런 걸 빨지, 빨아서 인제 그렇지.}

10424 @ 그 잘 안 지자나요, 그거는. {그 잘 안 지자나요, 그거는.}

10424 # 잘란지지, 그럼, 쫓가 나지. {잘 안지지, 그럼, 표가 나지.}

10424 # 그래두 옛날엔 다 그거 그거뚜 지금처럼 머 오시 조아, 옛날레? {그래도 옛날엔 다 그것, 그것도 지금처럼 뭐 옷이 좋아, 옛날에?}

10424 # 옛날룻뚜 거저 명:으로 멩기러 머 조케나 이 내:나 점부 그러치. {옛날 옷도 그저 명:으로 만들어 뭐 좋게나 이 매나 전부 그렇지.}

10424 # 그러이간 심들지 머 옛날 지끔가태? {그러니깐 힘들지 뭐, 옛날, 지금같아?}

10424 # 에이 지끔가트명 그거 머 그냥 버서서 핵 지버너콘 고마니야나. {에이 지금같으면 그거 뭐 그냥 벗어서 핵 집어 넣곤 그만야나.}

10424 # 옛날엔 그게 아니자너. {옛날엔 그게 아니잖아.}

10424 # 그르이까 심들지. {그러니까 힘들지.}

10424 # 그머 그거 여자들 다다리 나오능거 고 머 그거 보름망쿠씩 나오능게 아니구. {그 뭐 그거 여자들 다달이 나오는 거 그 뭐 그거 보름만큼씩 나오는 게 아니고.}

10424 # 그릉게 다 그르이께 그게 기저구라 그러지 인제.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게 기저귀라 그러지 인제.}

10424 # 기저귀를 탄다 그래는데 그게 타 인제. {기저귀를 탄다 그러는데, 그게 타 이제.}

10424 # 그래두 그걸 여자들 빠러야지. {그래두 그걸 여자들 빨아야지.}

10424 # 또 차야 똤자너 나올 쟈 그르이간. {또 차야 되잖아, 나올 땐 그러니깐.}

10424 # 여자들 그거 이브먼 성가시든지 머 그여 보르고 마제 나오능 건데 머. {여자들 그거 입으면 성가시던지, 뭐, ?? ??? ?? 나오는 건데 뭐.}

10424 # 지끄른 오까미 조으니깐 아난데, 그아지끄 한번 나오면 그 내꼬지머 되지 옛날엔 그게 읍찌. {지금은 옷감이 좋으니깐 아난데, 그까짓거 한번 나오면 그 내곶으면 되지, 옛날엔 그게 없지.}

10424 # 워 어떠해 오시 엄능걸 그걸 버리지는 모태자너. {어떡해 옷이 없는 걸 그걸 버리지는 못하잖아.}

10424 # 그러이까 심들지. {그러니까 힘들지.}

10424 # 여 걸 기저구라 그래, 애들 저 아 타능거, 기저구. {그걸 기저귀라 그래, 애들 저 타는 거, 기저귀.}

10424 @ 그 예저네는 빨래를 한 다음에 빨래하고 이제 말리자나요. 오까믈. {그 예전에는 빨래를 한 다음에 빨래하고 이제 말리잖아요.}

10424 @ 말리고 어떠케 손질하죠? 말리고 나서. 그게 쭈글쭈글쭈글하자나요. {말리고 어떻게 손질 하죠? 말리고 나서. 그게 쭈글쭈글쭈글하잖아요.}

10424 # 그릉까 디리 개자너. {그러니까 들어 개잖아.}

10424 # 걸 차곡차곡 개. {그걸 차곡차곡 개.}

10424 @ 예, 근데 개는데, 개기 저네 이게... {예 근데 개는데, 개기 전에 이게...}

10424 # 명, 명으루 짜서 해. {명, 명으로 짜서 해.}

10424 # 저무 그거지, 인제 도닌는 사람 부자찌비 인제 그게 그 우리나라서 아느루 나우 만나우 능가떠라고. 옛날엔. {전부 그거지, 인제 돈있는 사람 부자집이 인제 그게 그 우리나라서 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옛날엔.}

10424 # 옛날에도 어서 오능거 가떠라고 그게 비다니라능게. {옛날에도 어디서 오는 것 같더라고 그게비단이라는 게.}

10424 @ 어르신 아까 빨래를 인제 손지를 할러므는 주굴주굴항건 어뜨케 합니까? {어르신, 아까 빨래를 인제 손질을 하려면은 주글주글한 건 어떻게 합니까?}

10424 # 그걸 대리미로 착착 개서 발루 박꾸 그래더라고. {그걸 대리미로 착착 개서 발로 밟(?)고 그러더라고.}

10424 @ 그다메 또 이... 예. {그 다음에 또 이... 예.}

10424 # 저 다리미지래능거? {다리미질 하는 거?}

10424 # 그거 인제 츠메 하능거지 그건 츠메 오짚제 하능거야 다짐지래능건. {그거 인제 처음에 하는 거지, 그건 처음에 옷 질 때 하는 거야. 다림질이라는 건.}

10424 # 그래서 거 인제 고러케 알부지라고 아주 똑빡대라고 다지지멸 그 오까물. {그래서 그 인제 그렇게 ??지라고 아주 똑바르게하여고 다리지 뭘, 그 옷감을.}

10424 @ 그럼 쪽 펴라믄 뭘 해야 데나요, 쪽 펴라믄... {그럼 쪽 펴려면 뭘 해야 되나요, 쪽 펴려면.}

10424 # 그러이까 다림지리 하면 인제 딱 퍼질러지지. {그러니까 다림질을 하면 인제 딱 퍼질러지지.}

10424 @ 멀로 다림질할... {뭘로 다림질 할...}

10424 # 그 끈나고 수치라고 해짜너 나무땀 순 맹길자너 지금 잔나무 순 나오는 그거지. {그 끈나고 솟이라고 했잖아, 나무때면 솟 만들잖아, 지금 잣나무 솟 나오는 그거지.}

10424 # 그걸루다가 거그다가 부를 다르면 인제 그래가지고 이 그걸 대리미라 그래. {그걸루다가 거그다가 불을 담으면 인제 그래가지고 이 그걸 대리미라 그래.}

10424 # 그걸루다가 이제 오때리능게 이제 그걸로 점부 대리능거지 옛날엔 그걸루. {그걸로다가 이제 옷 다리는 게, 이제 그걸로 전부 다리는 거지 옛날엔 그걸로.}

10424 # 오들 대링거야. {옷을 대리는거야.}

10424 @ 지그믄 대리미고 옛날에도 이썸나요, 그게? {지금은 대리미고 옛날에도 있었나요, 그게?}

10424 # 우리 이썸땀 사무 그거이 이썸썸. {우리 있을땀 계속 그게 있었어.}

10424 @ 대리미말고 머 또 이래... {다리미말고 뭘 또 이래...}

10424 # 대리미하고 인두배께 몰라. {다리미하고 인두밖에 몰라.}

10424 # 인두는 쪼까마케 멩기능 거고. {인두는 쪼그맣게 만드는 거고.}

10424 # 그건 스수로 썸능거니깐. {그건 수시로 쓰이는 거니깐.}

10426 @ 염색또 해짜나요, 오세 염색. {염색도 했잖아요, 옷에 염색.}

10426 # 어디 염새글, 그거 아내요. 지금들 해지. 옛날엔 염새근 모래요. {어디 염색을, 그거 안해요, 지금들 하지, 옛날엔 염색은 뭘 해요.}

10426 # 지금들 그 염새글 나무 이패리가통거 해자너, 지끄믄 마니. {지금들 그 염색을 나무 이파리같은 거요 하잖아, 지금은 많이.}

10427 # 근데 인나렌 머 그거해 머해. {근데 옛날엔 뭘 그거 해 뭘해.}

10427 @ 아까 빨래 그 할 때. {아까 빨래 그 할 때.}

10427 @ 그 무를 빨라고 하능게 아까 짐... {그 물을 빼라고 하는 게 아까 짐...}

10427 # 무를 빨라구? {물을 빼려고?}

10427 @ 아뇨, 그 빨래를 할때 젼물로 한다고 그래짜나요. {아뇨, 빨래를 할때 져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10427 # 빈물? {빗물?}

10427 @ 젼물. {아니 져물.}

10427 # 젼물, 어. {져물, 어.}

10427 @ 그 젼무라고 또 어떻게 이쓸까요? {그 져물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0427 # 그거배끼 읍찌. {그거밖에 없지.}

10427 # 그거 인제 젼무리라건 비누 안나올때 얘기하능거야. {그거 인제 져물이라는 건 비누 안나올 때 얘기하는 거야.}

10427 @ 예, 비누 읍쓸때. {예, 비누 읍을 때.}

10427 @ 기와짱 재짱 가루가지고 머 하기도 헨나요 기와짱 가루로. {기왓장, 기왓장, 가루가지고 뭐 하기도 헨나요, 기왓장 가루로.}

10427 # 재짱? 그 가루? {기왓장? 그 가루?}

10427 @ 기와짱 가루요. {기왓장 가루요.}

10427 # 그건 그 모냐하면 그릇 딱능거야 그계. {그건 그 뭐냐하면 그릇 닦는 거야 그계.}

10427 # 그계 저 노쇠 이짜너 헨나레. {그계 저 노쇠 있잖아 옛날에.}

10427 @ 저 그 일본들 다 건지 거더가찌. {저 그 일본이 다 건지, 걸어갔지.}

10427 # 그그 그계 노쇠 그걸 빠가지구 뽑게 해가지구 그걸 그르슬 땅능거야. {그 그계 노쇠 그걸 빨아가지고 \*\* 해가지고 그거로 그릇을 닦는 거야.}

10427 # 그러이까 인제, 추울 때 되머 그걸 점부 헨나레는 그걸 다:, 그걸로 지사를 지내니까 노쎄로다가 그르슬. {그러니까 인제, 추울 때 되면 그걸 전부 옛날에는 그걸 다 그걸로 제사를 지내니까 노쇠로다가, 그릇을.}

10427 # 그계 덕 땅어지자너. {그계 대개 땅가지잖아.}

10427 # 그 인제 그걸 재루다가 그걸 무쳐가지고 이러케 대그 이러케 문질러. {그 인제 그걸 재로 그걸 문혀가지고 이렇게 대고 문질러.}

10427 # 그러면 그계 반들반들하게 덴다구. {그러면 그계 반들반들하게 된다고.}

10427 # 내 그건 아라. {내 그건 알아.}

10427 # 기와짱을 빠가지구 그계 마라자문 모 모래 대신이야 마 빨리 재계구 그냥 우린 모래. {기왓장을 빨아 가지고, 그계 말하자면 모, 모래 대신이야 말, 빨리 재계면[말하면] 그냥 우린 모래.}

10427 # 대 가지고 이러케 하면 머 다꺼지구 그래자너 그 썩찌. {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닦아지고 그러잖아, 그 썩지.}

10427 # 녹끄룩 땅느라구 인제 그러케 해써 마. {노그릇 닦느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10427 @ 음. {음.}

10427 @ 자, 그럼. {자,그럼.}

## 1.5. 식생활

### 1.5.3. 밀반찬의 조리

10510 # 그냥 그 옥씨기 따다가 그냥 이르게 찌가주구 마당에다 그냥 명석깔구 거그나와 그제 그 저 오이, 냉:수라구래잔, 오이 오이를 쓰러서 인제 장:물하 서껴서 그거 노꾸. {그냥 그 옥수수 따다가 그냥 이렇게 찌 가지고 마당에다 그냥 명석 깔고 거기 나와서 그저 오이, 냉수라 그러잖아, 오이 오이—르 썰어서 이제 장물하고 섞어서 그거 놓고.}

10510 # 그래구 옥씨기 그냥 그 다머다 노꾸 그거 인제 한 두, 두토새씩 그냥 멍능거야, 그제 때지 머. {그리고 옥수수 그냥 그 담아다가 놓고 그거 이제 한 두 자루씩 그냥 먹는 거야, 그제 때지 뭐.}

10510 # 그르케 사무 때우능게지 머. {그렇게 사무 때우는 거지 뭐.}

10510 # 그애 인제 그래구 또 머 그거 읍씨면 그거 밀해다 밀가루 인제 그거 반주캐가 인제 뜨 대기라구 이르게 떼놓꾸 인제 그르케. {그래 이제 그래고 또 뭐 그거 없으면 그거 밀 해서 밀가루 이제 그거 반죽 해서 이제 뜨대기라고 이렇게 떼 놓고 이제 그렇게.}

10510 @ 뜨대기는 머예요? {수제비는 뭐예요?}

10510 # 뜨데기 노꾸 또뚝 떼논능거 아니야. {수제비 놓고 뚝뚝 떼 놓는 거 아니야.}

10510 # 납작캐가서 이르게 뚝뚝 인제... {납작해서 이렇게 뚝뚝 이제...}

10510 @ 밀칼... {밀가루...}

10510 # 으~. {응.}

10510 @ 그거를. {그것을.}

10510 # 그럼 반주글 해가주 납작캐게 해가주구다가 인제 무렁 끝는데다가 이르게 뚝뚝 떼노치. {그럼 반죽을 해가지고 납작하게 해 가지고 이제 물을 끓는 데다 이렇게 뚝뚝 떼 놓지.}

10510 @ 아, 고걸 뜨데기라고 하나요? {아, 그걸 뜨데기라고 하나요?}

10510 # 응. {응.}

10510 # 뜨데기라 구래지. {뜨데기라 그러지.}

10510 @ 아, 뜨데기요. {아, 뜨데기요.}

10510 # 그럼, 인제. {그럼, 이제.}

10510 # 그르거 주루 인제 사무 그래씨. {그렇게 주로 이제 사무 그랬어.}

10510 # 주루 그제 만치, 머 머글께 인나, 머 읍찌. {주로 그제 많지, 뭐 먹을 게 있나, 뭐 없지.}

## 제2편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베 베지 머
20102	이삭	베이사기라구
20103	볍씨	베씨
20104	못자리	모자리지 머
20105	모판	모파니라
20106	쟁기	겨리엔장이꾸 호리엔장이꾸고(+겨리엔장은 소 두 마리가 끄는 것이고 호리엔장은 소 한 마리가 끄는 것), 엔:장으로 가:능거지.
20107	보습	머서비야 그계
20108	벼	꼭때게 부튼건 베시고
20108-0-1	-이	그래 그건 베시 읍써.
20109	극쟁이	호리엔장이래니깐
20110	씨레	건 쓰:레야 쓰레
20111	번지	번지, 번지농녕경가?
20112	모내기	모낸다구래지 모 낸다구, 그럼 모내기
20113	흙덩어리	덩어리 가텡겨, 흑땡어리구
20114	고무래	고물개여, 이건 이겨 고물개구(+곡식, 재, 흙에 사용하는 모든 것의 통칭)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
20114-2	고무래(재 용도)	*
20114-3	고무래(흙 용도)	*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
20115	쇠스랑	쇠시랑두 그러쿠, 쇠시랑은 바테 꼬:꽤~이루다 쫓르지, 이건 꼬:꽤~이에으 ㅡ.(+ "-요"는 "요"와 "유"의 중간 발음)
20116	곡괭이	괭이루, 괭이지.
20117	괭이	괭이루, 괭이지.
20118	삽	삽, 삽뚜
20119	호미	허무
20120	농기구	그냥 농기계라
20121	김	지:미 마~이 나따.
20122	김매다	짐:매러간다
20123	애벌 매다	아이매러 간다고 이제
20123-1	두벌 매다	두벌매면 끈 다 나.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피사리해능거야
20124	논두둑	노니면 논뜨렁, 논또랑 마~이 나
20125	밭둑	바침 바뚜렁, 바뚜렁으루 가라

20126	밭두둑	*
20127	밭고랑	고:리라구래지, 고랑으로 가라, 바꼬랑으로 가라
20128	밭이랑	등, 바똥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골: 케능건 이게 고:르 케니까
20128-2	이랑밧기	버리밧뽕녕건데 {이 지역은 보리밧기를 하지 않고, 아랫녘(경상도)에서 한다고 함.}
20129	보리	버리가 이꾸
20129-1	가을보리	버리야
20129-2	봄보리	봄버리가 이꾸
20130	보리쌀	버린 버리쌀
20131	가을갈이	갈:카지, 갈:가지, 갈:카지헨다구래지
20132	깜베기	깜베기, 깜베기가 이씨.
20133	뒤엄두	뒤엄두, 뒤어문 인제 씨건거구
20134	거름	거름내능거, 거르미라구래지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갈:거지헨다구래지, 바:시미라구래(+ 추수 전에 약간 먼저 거둬 들이는 곡식)
20202	벧단	베따니먼 베판, 베판 가린다
20202-1	벧단(한 줌정도)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채따니라구래 (+ "챗단"은 끈으로 매서 들어치기 좋게 작게 묶은 단) 목따는 (+ "목단"은 빨리 거둬들이기 위해서 크게 묶은 단을 말하며, 표준어로는 "통단"이라고 한다)
20202-3	벧단(한 아름정도)	
20203	가리(積)	콩까리 잘 가리라구래지.
20204	가리다(積)	콩얼 가린다, 가려써 인제
20205	벧가리	벼까리 가린다, 베까리
20206	날가리	나까리 가능거배께 읍써요, 베나까리
20207	타작	타:저기라구래지
20208	벼훑이	홀터내능거 씨깨지, 씨깨로다 홀터 베훑넌씨깨배께 더돼 (+ 이것은 옛날에 사용되던 것인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름을 모른다고 함.)
20208-1	그네	
20209	개상	채라구래
20209-1	자리개	채끄니라구래자너
20209-2	자리개질	채질헨다구래 채지렌다
20210	도리개	도리개, 도루개
20210-1	도리갯장부	도루개장치
20210-2	도리갯열	도루개아드리라구래지

20210-3	도리깨꼭지	도루깨구멍이라고베껴 더이써
20211	벗짚	베짚
20211-0-1	-을	베찌블 거주와라
20211-0-2	-에	베찌비 베찌비 만:타, 베찌븐 만:타
20212	새뺨기	지꼬개~이
20213	쪽정이	쪽제~이
20214	티	티가 드러가따, 티게비라구래, 티가비 드러가따, 북떼기 나라간다구래지
20215	까끄라기	눈까치 드러가따, 깔치라 눈깔치라
20216	풍구	풍채
20217	원두막	주마기라구래지
20218	허수아비	화대비(+ 소), 정애비가 마저(+ 다)
20219	흉년	흉녀니라 구래지
20220	머슴	머심꾼, 나메지베 산다고 머시미고, 달머시물 (+ 한 달만 고용되어 일해 주는 사람), 달뜨기 한달 (+ 한 달만 고용되어 일해 주는 사람)
20221	놉	일꾼
20221-0-1	-을	내가 부레머그니가 일꾸니라구
20221-1	(놉을) 사다/얻다/부리다	일꾸늘 마:~이 으더따
20222	폼앗이	푸마시는 도로 인제, 니가 시구 내가 시구해능 게 푸마시야. {네가 아시고 내가 아시고 폼앗이 야.}
20223	폼삿	풍갑씨라구래지, 배럴 탈때 배싸기구
20223-0-1	-으로	그래 풍갑썰 받는다, 차싸기구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거 방애자나여
20302	디딜방아	발방애라구래
20303	방앗공이	공이에
20304	방아확	화:그로, 이거 화:기야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애
20306	연자방아	연자방애라
20307	절구	이건 절구라 그래자누
20308	절구통	절구통이라구
20309	절긋공이	공이
20310	절구질	절구질헨다
20311	겨	제로 나오능겨야
20312	보릿겨	버리제는
20313	왕겨	왕게루
20314	등겨	쌀제는
20315	검불	검불 검부리구

20316

겉질

겉메기

###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씨기라구
20402	참쌀	참싸리야
20403	멥쌀	메쌀 그래
20404	쌀보리	쌀버리가 이따
20405	조	조지, 조년
20406	차조	차조야
20407	메조	메조고
20408	좁쌀	좁쌀 찌어따, 좁싸리라
20409	작다	즈:거요, 즉:찌
20410	조이삭	이사기 이삭 대
20411	수수	수수라구래
20411-1	붉은색 수수	*
20411-2	장목수수	장목쭈수는
20411-3	찰수수	찰수수
20411-4	메수수	메수수
20412	수수깡	수수깡이구
20413	옥수수	옥씨기
20413-1	찰옥수수	차록씨기는
20413-2	메옥수수	메독씨기지
20414	귀리	귀렁게다
20415	메밀	메무리야 메물
20416	콩	콩두, 콩이라
20417	콩깍지	콩깍찌라 구랜다구
20418	메주	메주 메주지 뭐, 메주를
20419	매달다	매:단다구래지, 다라맨다구, 매다르니까, 아버지 가 매다러따
20420	띠우다	메줄 띠워애지, 띠운대능게
20421	곰팡이	곰:팡이 하야케 퍼야돼, 메주곰:파~이
20422	강낭콩	이건 강낭콩이야
20423	콩기름	콩기름
20424	깨	깨년, 깨털 짜먼 지르미라 그래
20424-1	참깨	창깨가, 참깨가
20424-2	들깨	들찌르른 들깨, 들깨가
20425	고소하다	아주 고소해지

## 2.1.5. 채소

20501	채소	채:수, 채:수라구래지
20502	나물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반나무리지
20502-2	"나물(밭 반찬)"	*
20502-3	"나물(들 재료)"	*
20502-4	"나물(들 반찬)"	*
20502-5	"나물(산 재료)"	산나무리라
20502-6	"나물(산 반찬)"	*
20503	푸성귀	푸성귀, 푸성귀라구래지
20504	다듬다	다듬는다, 다드무라구, 잘 다드머라
20505	반찬	그건 반차니라구래자너
20506	무	무:가 마시따
20507	썰다	채를 쓴다, 쓸구이따, 쓴:다, 채:수 즈 쓰러라
20508	무청	씨래기, 씨래기라구래(+ "무청"과 "씨래기"의 구별이 없음)
20509	시래기	무씨래기
20510	무말랭이	고자리
20511	장다리무	장다리라구래지
20512	배추	배:차를 헨다, 배:차가 드러가지
20513	고갱이	고개이
20514	오이	오이
20515	오이지	오이지라구, 외:지래능계
20516	오이소박이	오이속:빼기
20517	가지(茄子)	가지
20518	호박	호:바긴데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감자, 신감자(+ 감자 종류의 하나), 자지감자(껍질이 벌거수름하다, 싹눈이 움푹 들어감)
20520-1	잘다	잘다고
20521	우영	*
20522	파	파지 파
20523	고추	꼬추(+ 신), 꼬치(+ 구)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메나리
20526	부추	부:춘데 부:추라구
20527	상추	생추
20528	마늘	마나리구, 마날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나:새~이
20531	달래	달릉, 달릉도
20532	도라지	도라지
20533	더덕	더더기야, 더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이바비라구래지
20602	찬밥	참바비라구래지
20602-1	더운밥	더움바비라구지
20603	조밥	조바비지, 차조밤메조밥
20604	누룽지	누룽지
20605	눌은밥	누름바비라구
20606	송늡	송늡이라구
20607	뜨물	쌀뜨물
20608	김(蒸氣)	지:미라구래지
20609	갱죽(羹粥)	씨래기주기구, 찐지주기라구, 국쪽 썬능거 마령가, 국쪽(+ 장, 나물을 넣고 끓인 죽)
20610	싱겁따	싱겁따, 싱구워서
20611	국수	국씨가, 국씨 멥그능거
20612	칼국수	칼국씨, 칼국쑤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장칼국씨라, 누른국쑤(+ 분틀에다가 눌러서 뽑아낸 국수)
20613	건더기	건데기 건저 멥는다
20613-1	국물	구꿍물
20614	고명	괴미라구래딩가
20615	꾸미	고미라구래
20616	미역	미여기지
20617	김(海苔)	가:믄, 짐:바비라
20618	수제비	뜨데기
20619	끼니	끄네기라
20620	미음	미우미라구래
20620-1	(미음을) 끓이다/쑤다/삶다	쑤어따
20621	엿기름	질구미라구래, 질구미라구 질굽
20622	식혜(食醴)	감주, 단수리라구 시케라구
20623	식혜(食?)	*
20624	달다(甘)	설탕은 달지, 달다
20625	가루	가루라구래, 가루지, 콩까루
20625-0-1	-에	가루에다, 콩까루에 무체따

20625-0-2	-을	가루를 가지구, 갈름(+ 여)
20625-0-3	-도	가루배께
20626	밀가루	밀까루
20627	밀기울	밀찌우리라그래
20628	미숫가루	미수까루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이라(+ 다), 장:물두 당구구
20702	된장	메장에다, 된장 지저멍는거
20703	고춧가루	고치까루, 고치까루두, 고치깔루가
20704	고추장	고치장이라구, 고치장두, 꼬치장으로 드러가고, 꼬치장에두
20705	소금	소구믄
20706	김치	김치(+ 국물이 있음), 짠지라구래지, 김치라구두 하구 짠지라구두 하구
20707	김장	김장을
20708	깍두기	깍뚜기
20709	나박김치	나박째치
20710	담그다	빨리 당군다
20710-0-1	-고	당구자구래지
20710-0-2	-어라	김치 당귀머꾸
20711	양념	양너미, 양여미 드러가야, 양념해서
20712	버무리다	버무린다, 어떠케 버무리라
20713	버섯	버섯
20713-0-1	-이	*
20714	콩나물(재료)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찬)	콩나물
20714-2	숙주(나물)	*
20715	두부	두:부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쌍게 비지떠기다
20717	달걀	달기알
20718	가래떡	가래떠기라구
20719	시루떡	시루떡
20720	송편	송편
20721	빚다	빈넌다구, 비저라
20722	흰떡	신떠기지
20723	고물	고물

20724	팔죽	과죽
20725	새알심	옹시미
20726	백설기	백설기가
20727	튀밥	광재~이, 쌀광재기(+ 쌀로 만든 것), 옥씨기광재기(+ 옥수수로 만든 것)
20728	술	수리 마시따
20729	막걸리	막걸리
20730	소주	쇠주, 소주, 쇠주 이꾸
20731	부침개	저기야 저게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막
20802	가마솥	가매손
20802-0-1	-을	소치 단:다
20802-0-2	-에	*
20803	아궁이	아궁지라
20803-0-1	-이	*
20804	그을음	ㄱ:림, ㄱ:리미라
20805	불쏘시개	불쏘시개
20806	연기	영:기지
20806-1	내(煙氣)	*
20807	그을리다	ㄱ:러따
20808	부지깻이	비지깨~이
20809	부삽	비데~이
20810	냄다	영기가 만나서 맵따, 누니 시굽따, 내굽따
20811	냄비	남비, 냄비먼
20812	그릇	바끄를
20812-0-1	-을	그르시지, 그르슨, 박끄르세
20813	뚜껑	뚜껑이라구래구
20814	주발 뚜껑	복뚜께
20815	사발 뚜껑	*
20816	솔뚜껑	소뚜껑
20817	밥주걱	밥푸는 주걱
20818	순가락	수깔, 수까리자너
20819	젓가락	절깔
20820	종지	종지
20821	보시기	탱끼
20822	툇배기	장투가리, 투가리
20823	접시	접씨

20824	조리	조래~이
20825	이남박	남바기라구, 쌀람바기라
20826	바가지	바가지구, 바가치에다(+ 여)
20827	행주	행주
20828	행구다	행군다구, 빠러서 행귀라
20829	설거지	설거지야
20830	개숫물	자심물
20831	찌꺼기	찌꺼지
20832	화로	이건 화런데
20833	화룻불	화리뿌리라
20834	부젓가락	찌깨야 불찌깨
20834-0-1	-이	찌깨마 이쌌 되거던
20834-1	불순가락	불까래
20835	다리쇠	구멍세, 구멍쇠
20836	석쇠	설쌌
20837	도시락	고리채야 고리채라
20838	바구니	바구니지
20839	뒤주	쌀뚜지 두지
20840	찬합	차나비라그래게찌
20841	강판	간:다구 간판
20842	개다리소반	쪽쌍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안뻥
20902	벽	벽, 바람짜기라구래, 바름빼게
20903	다락	다라기야
20904	벽장	오시래, 오시래라
20905	감추다	감친다, 감처라
20906	흙	흙:낭건, 흐미 나따
20907	돌찌귀	돌:쪼구라
20907-1	암짜	안늻
20907-2	수짜	순누미야
20908	미닫이	미다지
20909	여닫이	무니라구래지
20910	덧문	*
20911	열다	무늘 열:구드러간다, 창무늘 여러라
20911	열다	으-ㄴ:다구 으-ㄴ:췌
20912	문고리	고리 몽꼬리

20913	자물쇠	쇠때야, 쇠때루 장군다, 자물쇠 장구능거지
20914	간히다	가처따
20915	열쇠	으ㅡ르:쇠라
20916	잠그다	장귀라, 장구능건
20917	구멍	구녀~이, 구멍이라, 구녕뚜러징걸, 구녕이, 구멍 을 뚫룬다
20917-1	취구멍	취구멍
20918	찢다	찢넌다, 찢저라
20919	구들	구들짱이래능게, 구들짱을
20920	흙받기	흑빠지
20921	흙손	주거기야
20922	흙칼	흐칼로, 흐카리라(+ 나무로 만든 것이나 쇠로 만든 것이나 모두 "흙칼"이라고 함.)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나무칼로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
20923	바르다	발룬다, 빨리 발러라
20924	장판	장파니지
20925	종이	종이라구
20926	도배	도배헨다
20927	구석	구석 구서끼라구두 해구
20928	굽도리	*
20929	깨끗하다	깨끄태다
20930	문지방	우린 그저 문쭈방, 문쭈방이라구
20930-0-1	-에	문쭈방에 올라시지 말라 그래자너 애덜
20931	틈	트므로, 트무로 드러온다
20932	가장자리	*
20933	가운데	가문테는 복파니지
20934	시렁	실렁에다, 실렁이라
20935	살강	살광이라
20936	선반	선반, 선바니라(+ "선반"의 "어"는 저설모음이 다)
20937	서랍	서라비라구래자너
20938	경대	화장실
20939	거울	거울, 거우리구
20940	걸다	거러라, 건:다
20941	호롱	등잔, 남포, 호야남포라구래, 등잔뿌리구, 코쿨

###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에서
21002	기와	기와짚이래니깐, 기왓 구워써유
21003	기와집	기아지비지
21004	수키와	*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대:들뽀지
21007	서까래	서까래
21008	추녀	충에라구래는데
21009	처마	초마끄테 떠러진다
21010	오두막	오막싸리
21011	초가집	초가지비지
21012	이영	으-ㅇ:이지 으-ㅇ:(+"으"보다는 약간 낮은소리)
21012-0-1	-에서	으-ㅇ:이라 영:이라
21013	용마름	용구새라구 이씨
21014	기스락	초스래미, 초새미, 지붕초스래미에서 달린다
21015	낙숫물	낙숨물 떠러지능거
21015-1	기스락물	지시랑무리라
21016	사닥다리	새다리
21017	용마루	*
21018	토방	봉당, 봉당이라그래지
21019	댓돌	대또리라
21019-1	섬돌	*
21020	마루	마룽, 마룽이라 그래자너
21020-0-1	-에	마룽에
21021	툃마루	툃마룽
21022	기둥	지둥
21023	주춧돌	주추
21023-0-1	-을	주추또리라
21024	굴뚝	굴:뚜근

### 2.3.3. 마당

21101	뜰	오라뜰, 오랍뜨리라그래거등
21102	마당	마당, 마당에다가
21103	넓다	우리 마당이 널따
21103-0-1	-어서	널버서

21104	넓히다	널핀다, 마당을 늘컸다, 늘킨다
21105	곳간	고간, 고까니라
21106	외양간	마:구칸(+ 사나 말이나 모두 "마곳간"에서 간다.)
21107	마구간	마:구까니자너
21108	광	광:에다
21109	헛간	회칸
21110	쓰레기	씨레기
21111	장독대	장두칸
21112	장독 뚜껑	뚜껑이야
21113	변소	재:칸
21113-1	똥장군	장구통, 똥장구
21114	울타리	울타리가 놉따
21115	담	담:, 다:미 놉따
21115-0-1	-에	다:메 올라가지 말라
21115-0-2	-도	담:도 넘어간다
21116	사립문	싸리문
21117	뒤결	두란
21117-0-1	-에	두라네서 놀지 말라
21118	바깥	바까치라구
21118-0-1	-에	바까테 나가놀라
21119	모퉁이	모테~이
21120	모서리	모시리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마을, 마으리
21202	윗마을	윈마른, 운마리라 그래고
21203	이웃	*
21203-0-1	-이	이우지라구래지
21203-0-2	-에	우리 이우제 산다
21204	마을가다	마실간다구래지
21205	우물	움물, 드레움물
21206	두레박	드레바기라구래
21207	샘(泉)	쌘:물, 새:미 난다해서
21208	가(邊)	가세루 가라, 가:세라구
21208-0-1	-을	*
21208-0-2	-에	가:세라구해기두
21209	물지게	물찌게라구래
21210	가게	가개, 가개라구래는데
21211	싸다	싸다, 싸서
21212	비싸다	비싸다, 비싸서 모싸따

21213	홍정	홍정을 부친다
21214	중매인(거간꾼)	홍정재~이라구, 홍정꾸니라구
21215	잔돈	잔도느로
21216	에누리	에누리
21217	거스름돈	거시름똥
21218	거스르다	거실러따
21219	꾸다(借)	꾼다구두
21219-0-1	-어야	꿔:따
21220	구두쇠	구두새라구래지
21221	맡기다	매껴따, 매긴다구
21222	나머지	나문지, 나문지는
21223	덤	더움, 더우물
21224	몫	내 목
21224-0-1	-을	내 목씨를 달라, 내 목쓸 달라
21225	빚	*
21225-0-1	-을	비설 가피따
21225-0-2	-에	비세 쪼들려다
21226	이자(利子)	이자를, 이자가
21227	심부름	심부르미, 심부르믈
21228	두름	한 주기라고
21228-1	축	한 다발
21228-2	쾌	항 캐가 수무마리
21228-3	접	저부로, 한 저비다
21228-4	쌈	한 쌈 두 쌈
21228-5	두름	한 줌, 한 주기라구
21228-6	단/몫(작은 묶음)	항 깨피, 항 강다리(+ 100개피), 항 강지(+ 100개피)
21228-7	단/몫(서너 개 묶음)	무:두 한 저비라구(+ 100개를 한 접)
21228-8	툇	함 무꿈, 한 무귀미라 그래나(+ 제?)
21228-9	모습	한 줌, 한 주먹(+ 머리카락)
21229	컬레	항 커리
21230	마지기	함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함 마지기야(+ 150평)
21231	꾸러미	꾸리미, 항 꾸리미야
21232	그루	항 그루
21233	포기	함 포기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자루는, 자루라구래지
21235-0-1	-을	자루가
21235-0-2	-에	자루에 담넌다
21236	하나	하나, 하나가 남짜너
21236-1	한-개	항개

21236-2	한-되	한되
21236-3	한-말	함말
21237	둘	둘:
21237-1	두-개	두:개
21237-2	두-되	두:되
21237-3	두-말	두:말
21238	셋	셋:
21238-1	세-개	세:개
21238-2	세-되	세:때
21238-3	세-말	세:말
21239	넷	넷:
21239-1	네-개	네:개
21239-2	네-되	네:때, 네:되를
21239-3	네-말	네:말
21240	다섯	다섯, 다섯시 남찌
21240-1	다섯-개	다섯개
21240-2	다섯-되	다섯때, 다섯되
21240-3	다섯-말	다섯말
21241	여섯	여섯
21241-1	여섯-개	여섯개
21241-2	여섯-되	여섯때
21241-3	여섯-말	여섯말
21242	일곱	일곱
21242-1	일곱-개	일곱개
21242-2	일곱-되	일곱때
21242-3	일곱-말	일곱말
21243	여덟	여덟, 여덟
21243-1	여덟-개	여덟개
21243-2	여덟-되	여덟때
21243-3	여덟-말	여덟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홉개
21244-2	아홉-되	아홉때
21244-3	아홉-말	아홉말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개
21245-2	열-되	열:때, 열:되
21245-3	열-말	열:말
21246	스물	수무리 대지
21246-1	스무-개	수무개
21246-2	스무-되	수무되
21246-3	스무-말	수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른개

21247-2	서른-되	서른데
21247-3	서른-말	서름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개	마흔개
21248-2	마흔-되	마흔데
21248-3	마흔-말	마흠말
21249	쉰	쉰:
21249-1	쉰-개	쉰:개
21249-2	쉰-되	쉰:데
21249-3	쉰-말	쉰:말
21250	예순	육십
21250-1	예순-개	육십개
21250-2	예순-되	육십데
21250-3	예순-말	육십말
21251	일흔	칠십
21251-1	일흔-개	칠십개
21251-2	일흔-되	칠십뉘
21251-3	일흔-말	칠십말
21252	여든	팔십
21252-1	여든-개	팔십개
21252-2	여든-되	팔십뉘
21252-3	여든-말	팔십말
21253	아흔	구십
21253-1	아흔-개	구십개
21253-2	아흔-되	구십뉘
21253-3	아흔-말	구십말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개
21254-2	백-되	백뉘
21254-3	백-말	백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한두개
21256-2	한두-되	한두뉘
21256-3	한두-말	한두말
21257	두셋	
21257-1	두세-개	*
21257-2	두세-되	두세뉘
21257-2	두세-되	두세뉘
21257-3	두세-말	*
21258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두서너뉘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말

21259	서넛	
21259-1	서너-개	서너개, 서너개만 가주와
21259-2	서너-되	서너테야
21259-3	서너-말	서너말
21260	네댓	네다선
21260-1	네댓-개	너더께, 네다서께
21260-2	네댓-되	너더떼
21260-3	네댓-말	너덤말
21261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대여서깨두
21261-2	대여섯-되	대여서떼
21261-3	대여섯-말	땀:말
21262	예닐곱	
21262-1	예닐곱-개	여닐구깨
21262-2	예닐곱-되	여니리곱떼
21262-3	예닐곱-말	여닐곱말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개	
21263-2	일여덟-되	
21263-3	일여덟-말	이러덜말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여닐구깨 가주와라
21264-2	여덟아홉-되	
21264-3	여덟아홉-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여나무개 가주와라
21265-2	여남은-되	여라문데
21265-3	여남은-말	여나무말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마라구
21302	길이	기리
21303	저고리	조고리라구
21304	색동저고리	꼬똥조고리
21305	두령이	투레~이
21306	무늬	무니, 무네, 무노를
21307	고쟁이	고재~이
21308	바지	바지라구
21309	두루마기	두루마기

21310	의복	이복
21311	구겨지다	꾸게지구
21312	옷고름	오꼬름
21313	단추	단추지 머
21314	동정	동종이라구
21315	결	거치구, 거치나
21315-0-1	-에	거테는
21315-0-2	-을	*
21316	홀옷	호도시다
21317	겹옷	저보시다
21318	잠방이	중바지라구래, 반:중우
21319	누더기	누데기누데기
21320	거지	그:지지
21321	구결	구결
21322	조끼	조끼
21323	내의	송:내이
21324	껴입다	찌이버따, 찌이부니깐, 찌이께
21325	소매	오쏘매
21326	주머니	그건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호주메~이
21328	허리띠	허리띠, 허리빠가 허리띠라구
21329	댕기	댕기야
21330	도포	도:포야
21331	삿갓	새깔
21331-0-1	-에	새까신데
21332	고깔	꼬깔
21333	사모	사:무관대라
21334	유건	그건 거니야 건
21335	대님	대름 맨다구래
21336	감발	*
21337	짚신	지푸루 사머따구 집썰기
21338	미투리	그건 미:투리라구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	집썰기 삼넌다
	결다	
21339	나막신	나막썬
21340	설피	*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지, 멩지 짜네 멩지
21401-1	명주실	멍지시리라
21402	목화	모과라구 모카

21402-1	목화다래	다래가 달려
21403	무명	명:이라구랜다구
21403-1	무명실	명:시리라 그래지
21404	씨아	이건 썸:, 씨애라고 이썸요
21405	자새	자새랭게
21406	물레	물:레, 이건 물:레야
21407	베	베, 베라구
21408	길쌈	질쌈, 질쌘미라구래지
21409	골무	골미야
21410	반질고리	반지끄룩
21411	가위	짚르능건 가새
21411-0-1	-을	가새가 만타
21411-0-2	-에	가새루다가
21412	마르다(裁)	오까물 마른다
21412-0-1	-고	마르라구
21412-0-2	-어라	말러야
21413	형겘	흥:겘
21413-0-1	-을	흥:거피야
21413-0-2	-에	흥:거푸루, 형거푸로
21414	바늘	바누레
21415	꿰다	꿰다
21415-0-1	-고	꿰:다구, 꿰매능거야
21415-0-2	-어라	꾸궤:가주구
21416	바느질	바누질
21417	재봉틀	자:방
21418	끈	끄나푸리라구래지
21419	노끈	노, 노라구, 노:야 노끈
21420	참바	조라기야요(+ 삼 껌질로 만듦), 동애주린데
21421	매듭	매디라구래, 함매디 두매디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매딜 진다
21422	보자기	보재기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소:미야
21425	포근하다	포근해다
21426	훈이불	훈니부리라
21427	겹이불	점니불
21427-1	솜이불	솜:니불
21428	누비이불	누빈니불
21429	베개	비:개, 비개
21430	베갯잇	베개꺾떼기
21430-0-1	-에	*
21431	목침	목침, 비능건 목치미구

21432	퇴침	테치믄, 퇴:침
21433	방석	방석
21434	담요	담:뇨도
21435	빨래하다	빨래헨다
21436	빨랫방망이	빨래빵매~이라구래
21437	빨래터	빨래터라구
21438	빨랫줄	빨래 줄
21439	다리미	대리미
21439-1	다림질	대리미질헨다
21440	인두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드미빵매~이야
21442	다듬잇돌	다드미또른
21443	다듬이질	다드미질헨다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날
21502	설	서:리라구
21503	선달 그믐날	스:딸그믐날
21504	목은세배	*(+ 선달그믐날에는 세배하지 않음)
21505	올해	올해지
21505-0-1	-는	오래가 뭐야
21505-1	작년	장녀니구
21505-2	재작년	*
21505-3	내년	내년
21505-4	후년	후년
21505-5	내후년	*
21506	작은설	그무미라(+ 특별한 이름이 없음)
21507	웃	*
21507-0-1	-을	*
21507-0-2	-에	*
21507-1	웃놀이	윤:노리
21508	웃가락	유까락, 그건 가라기라구래지
21508-1	도	토끼가 나따, 퇴끼야 퇴끼면, 퇴끼구
21508-2	개	개:가 나따
21508-3	걸	걸, 거리야
21508-4	웃	윤, 유:시야, 유:치구
21508-5	모	모가 나따
21509	단동	함피리 나간다
21509-1	외동무니	함피리구 두:리 가면 두:피리간다 스이가 가면

21509-2	두동무니	세:피리 간다
21509-3	석동무니	두:피리먼, 두피리 되능거지
21509-4	녁동무니	세필
21509-5	막동	네:개라면 네:피리고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
21510-1	삭망	보루미라 그래자너, 대보루미라
21511	추석	상망
21512	망월	추서기지, 향가올마지라구래드라구
21513	쥐불놀이	달마중이라
21514	자치기	쥐불, 쥐부리라구래
21514-1	작은막대	자치기라구랜다구
21514-2	긴막대	이건 메뚜기
21515	수수꺼끼	작때
21516	호미씻이	수수꺼끼라
21517	팽과리	일:꾸네나라라구래는데
21518	장구	팽과린데
21519	결두리	장구
21520	무당	사이, 체누리지
21520-1	박수	무당이자너
21521	고수레	남자무당도 이씨
21521-1	고수레!	고시레
21522	점쟁이	*
21523	상여(喪輿)	점쟁이라구래자너, 아는소리 자란다구 점재~이
21524	굴건	지
21525	제사	행성
21526	제기	거니야(+ 장사 지낼 때 사용), 굴근제보기라구
21527	귀신	지:사 지내는거
21528	도깨비	목씨잡씨
		귀:시니라구
		도깨비라구래지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고삐, 쇠고삐, 괴벨 자버댕겨가주구
21602	굴레	굴:레라구래지
21603	멍에	멍에
21604	길마	지름매라구래지

21605	부리망	소명
21606	구유	굉:
21607	작두	작뚜라구
21608	꿀	꿀 비러간다, 꼬리라구래
21609	여물	소여메기, 말메기, 여메기
21610	쇠죽	쇠죽 쭈능거
21611	쇠죽바가지	쇠물빠가지
21612	수레	마:차애요(+ 네 바퀴로 됨), 달구지는(+ 두 바퀴로 됨)
21613	끝다	끄:러따
21613-0-1	-고	끝:구간다
21614	바퀴	바꾸가
21615	새끼(繩)	새끼로 파: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라구래지
21616	망태기	망태기
21617	떡등구미	이건 등구미라구래 등구미
21618	거적	거적떼기
21619	가마니	요건 가마니로구나
21619-1	가마니틀	가마니틀
21620	돛자리	도짜리
21621	자리틀	자리트리라구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자릴 튼다
21622	왕골	왕고리라구
21623	삼태기	이건 삼태기야
21623-1	짚 삼태기	집쌈태
21623-2	싸리 삼태기	싸리삼태
21624	명석	이건 명서긴 모양인데
21625	어레미	얼게미라그래는데(+ 구멍이 크다), 도드미(+ "얼게미"보다 구멍이 조금 작음)
21625-1	고운체	고운체는
21625-2	굵은체	굵:근체 왕체라 그래구
21626	대장장이	대:장재~이라
21627	대장간	대:장까니라
21628	풀무	풍구라구래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
21631	갈퀴	궁는다해서 갈:키야 갈키
21632	집게	*(+ "찌깨망치"가 있음)
21633	장도리	장:도래~이
21633-1	노루발	망치대가리(+ 제?)
21634	툽	토비지
21634-0-1	-에	토부루

21635	도끼	도:끼루
21636	자루(柄)	도:끼잘루라구래 잘루, 도:끼짜루
21636-0-1	-을	도끼자루를
21636-0-2	-에	도끼짜루가 질:머
21637	갈고리	고리는
21638	썰기	썰:기라구래지, 썰:기 방는다
21639	송곳	통고시라고, 송:고시지
21639-0-1	-에	통고시야, 통송고시라고
21640	뽕죽하다	뽕주캐게, 뽕주캐다
21641	숫돌	쇠또리라고
21641-0-1	-에	쇠또레 간:다
21642	맷돌	맷또리야(+ 다), 맷또를, 맷이라하고(+ 소)
21642-1	수쇠	순늬암늬
21642-2	암쇠	암늬물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소코리
21645	지게 작대기	지게딱지기
21646	막대기	막때기는 가능걸 막때기라그래요
21647	몽둥이	멍테~이라 구래는데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짚기라구 이써, 비라구래지, 비짜루라그래지
21702	광주리	광:주리라구렌다구
21703	소쿠리	소코리야
21704	함지	이건 함지야
21705	폴비	폴뻬
21705-1	귀알	*
21706	독	도기라구
21706-0-1	-에	*
21707	물독	*
21708	항아리	항아리야, 항아리에다 당구자나 그걸
21709	단지	단지라구래나
21710	물뚱이	물뚱운데, 요게 동우라고
21711	따리	이건 따:리
21712	옹기	옹:기를
21713	표주박	조롱바기라구래지
21714	키(箕)	까불른다구 치라구
21715	떡살	살판, 떡살판
21716	다식판	다식판

21717	시루	시루
21717-0-1	-을	시루를
21717-0-2	-에	시루에다, 실레다가
21718	시룻밑	시루미치라그래
21718-0-1	-에	시루미틀
21719	시룻번	시루뺨
21720	부싯돌	부싯뚜리라구래지
21720-0-1	-을	*
21721	부시	부시
21721	부시	부싯돌
21722	부싯깃	*
21723	담배	담:배라구래지
21724	담뱃대	담:부때
21725	담배설대	설깡, 담:배때 설깡
21726	담배통	꼬가리라, 담:배꼬가리
21727	물부리	물뿌리라구, 빨뿌리구(+ 여)
21728	담배쌈지	담배쭈머니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베레뜰
21732	가락지	가락찌라구
21733	비녀	비네
21734	참빗	참빔
21734-0-1	-을	참비스로
21734-0-2	-에	*
21735	얼레빗	얼게미로
21736	세숫대야	세:수때라구
21737	비누	비누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아
21739	활대	*
21740	잉앗대	이걸 잉애라
21741	부티	부:테
21742	도롱이	도:레~이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때
21802	이마빼기	이마빼기라
21803	눈자위	눈똥자가 망허진다

21804	검은자위	꺼문동자구, 까문동자
21805	흰자위	신동자, 흰자구
21806	능꺼풀	능꺼풀 능꺼푸리지
21807	거적눈	거적누니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구, 눈썹비 아니야
21809	속눈썹	*
21809-0-1	-이	*
21810	눈두덩	*
21811	안경	이건 양경이, 앵:경
21812	안경집	앵:경지비라
21813	돋보기	근 도빠기
21814	주름살	주름
21814-0-1	-이	주루미야
21815	엿되다	*
21816	수염	수키口:, 수키:미고
21817	구레나룻	구레
21817-0-1	-을	구레가 마~이 나따
21818	코	코라구
21818-0-1	-이	코가
21819	코수염	코썬:미라
21820	코딱지	코따테~이
21821	코구멍	코꾸녕이라
21821-0-1	-을	*
21821-0-2	-에	코꾸멍에서
21822	코물	콤폴리라
21823	입술	입썰
21823-0-1	-에	입썰리라
21824	다물다	다무러따
21825	어금니	그걸 어금니라구
21826	덧니	덧니라
21827	회파람	회파람, 회파라믈
21828	침	치믈 뱀:는다
21829	삼키다	생켜라
21830	가래(痰)	가래침 뱀:는다
21831	뺨다	배:터라
21832	혀	세
21833	혓바늘	세빠누리라
21834	귓볼	귀뿌리라
21835	귀고리	귀거리
21835-1	귀걸이	귀거리
21836	귀지	귀총
21837	귀이개	귀비개가
21838	소리	소리가

21839	엿듣다	으ㅡ:뜯는다, 으ㅡ:뜨러라
21840	귀청	귀총이 떠러진다
21841	귀밑	귀미치라구래나
21841-0-1	-을	*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지미가 이따
21844	주근깨	주근깨
21845	턱	터기라구래자너, 터거리에 턱
21846	턱수염	턱쭈크口:
21847	뺨	뺨메 이따, 뺨두 아니구, 뺨멀 때려따
21847-1	볼	벌테기구
21848	가름하다	재름하다, 자름해다
21849	보조개	*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랑이라, 머리카이
21851	비듬	비름
21852	기계총	기부수름
21853	정수리	정:배기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곱쓸머리
21856	가르마	가르매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가르매 탄다그래
21857	가마	수까매라고, 가매(+ 머리에 있는 것)
21857-1	가마(鼎)	가마(+ 솥), 가마라구래(+ 솥)
21857-2	가마(轎)	가:매(+ 타는 것)
21857-3	가마(질그릇)	*
21857-4	가마(가마니)	가마니, 가마두 이꾸(+ 쌀을 넣는 "가마")
21858	뒤통수	뒤통이라, 뒤통을 때린다
21859	뒗덜미	덜미, 목덜미는
21860	목	모기지, 모걸 자버댕킨다
21861	떡살	목싸리구

##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로
21902	밑치다	어깨로 민:다, 미러
21903	겨드랑	저지랑
21904	등	등이 등이라, 등어리
21905	가슴	가시미 되구
21906	걸리다	질린다, 질러서
21907	갈비뼈	갈비가, 갈비때라구래

21908	허파	수키口:통, 수키口:통이라
21909	쓸개	쓰:레, 쓰레두, 쓸개라구래, 으—:리라구
21910	콩팥	콩판
21910-0-1	-에	콩파시
21910-0-2	-을	콩파설
21911	팔	파를 즈:는다
21912	팔꿈치	팔꾸머리,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팔짱찐다, 팔짱을 찐다
21914	손톱	손툽
21915	오른손	바른손
21916	왼손	왼손
21917	다르다	다르케, 달른데, 달르지
21917-0-1	-아서	달리
21917-1	틀리다	틀릴때도, 틀려따
21918	왼손잡이	왼손재비(+ ‘오른손잡이’는 ‘바른손재비’라고 함)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송꼬락
21920	집게손가락	찌까락
21921	가운뎃손가락	장가락
21922	약손가락	무명지가락
21923	새끼손가락	생끼송까락, 새끼가락
21924	생인손	생인손
21925	사마귀	사마구
21926	손아귀	소나구가 시다
21927	손목	숨목, 숨모기 시다
21928	뺨	뺨, 빼미라구래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를, 지팡이라구래
21931	옆구리	여꾸리
21932	간지럽다	여꾸리가 간지럽따, 간지르워서, 간지르지 말라,
21933	간지럼	간지르미라구
21934	간허리	가는허리, 잘로캥거 가는허리라
21935	근육	그:넉, 그:넉기라
21936	배꼽	배꼬비 아니야 배꼽
21937	목물	등미리, 등 민다

###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송아뼈라
22002	발가락	발꼬락, 엄지발꼬락, 생끼발꼬락
22003	발바닥	발빠당이라구

22004	발톱	발토비지
22005	냄새	냄:셀 만넨다고, 냄:새는
22006	고린내	발냄새가 난다고
22007	굳은살	구둣싸리라
22008	정강이	종지라구래자너, 종지꼬배~이, 정개~이라구두 하고 마른종아리라구
22009	종아리	종아리야
22010	장판지	장:판지
22011	회초리	회초리야
22012	무릎	*
22012-0-1	-을	*
22012-0-2	-에	*
22013	오금	오금패라고해고, 오금패이
22014	엉덩이	엉덩이라
22015	궁둥이	궁:땡이
22016	볼기	볼:기지 뉘, 볼기짜기라
22017	멍	멍이지
22018	멍울	몽오리
22019	가랑이	가래 가래라구
22020	사이	새가늘
22021	살	자그미, 자그미야
22021-0-1	-이	*
22021-0-2	-을	*
22022	사타구니	사투리
22023	가래톳	가래토시 시능거
22023-0-1	-을	가래토시가 서따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
22025	넓적다리	넙적따리라
22026	가부좌(跏趺坐)	책쌍다리라 그래
22026-1	가부좌(跏趺坐) 트다/꼬다/하다	치다/앉다/ 책쌍다리 해구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강:기지, 강:기가 온다
22102	기침	지침해능건 강:기배께
22103	재채기	재채기
22104	사레	싸레기 든다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싸레기가 든다
22105	딸꾹질	딸까기라구
22106	트림	트:름

22107	곰보	얼금배기
22108	천연두	마:라구래더라구
22109	여드름	이:드름
22110	학질	학찌리라
22110-1	하루거리	*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
22111	홍역	
22111	홍역	호낙, 호녀기지
22112	볼거리	볼거리라
22113	땀띠	땀띠
22114	두드러기	두두러기라
22115	버짐	그걸 버지민데
22115-1	마른버짐	마름버짐
22115-2	진버짐	*
22115-3	도장 버짐	도장빠짐, 도장버지미라
22116	문둥이	문:뎡이지
22116-1	문둥병	문:뎡이뎡은
22117	부스럽	글거서 부시레미 난다, 부시르미 그거야, 부시 름, 부시럼
22117-1	종기	종기, 종지, 혼:데를 가따가
22118	고름	고루미지
22119	곰기다	공긴다
22120	난쟁이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사팔떼기
22122	언청이	째보라고(+ 다), 헤챙이나(+ 소)
22123	소경	쇠경이라구 맹인이라구(+ "쇠경"은 상스러운 말 이고 "맹인"은 점잖은 말)
22123-1	당달봉사	먼:산배기, 따깨누니(+ 바로 앞만 보이는 사람)
22124	애꾸	애꾸니가 지내간다
22125	눈곱	눈꼬비 찢:다
22126	다래끼	대레키(+ 위쪽에 난 것과 아래쪽에 난 것의 구 별이 없음)
22126-1	다래끼(눈 위쪽)	*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
22127	절름발이	찢룩빠리라그래지
22128	곱사등이	곱:쌌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밤병어리, 밤:병어리
22131	병어리	병어리라구래지
22132	잠꾸러기	장꾸레기라구랜다
22133	줄리다	조:립따, 조:렷따, 조리워서
22134	하품	하품
22135	졸음	조:르미 와서

22135-0-1	--을	조:르플
22135-0-2	-에	*
22136	잠꼬대	장꼬대

## 2.7. 육아

22201	입덧	입뱀
22201-0-1	--을	입뱀비 심해다
22202	갓난아이	간난배기라 그래지
22203	어린아이	어리내기라구
22204	경기(驚氣)하다	장끼, 장낄 한다
22205	눅히다	누킨다
22206	계집아이	지지배라구
22207	예쁘다	이:뿌다
22208	사내아이	머시매
22209	아우	새:물 논다
22209-1	아우보다	*
22209-2	아우 타다	아수타능계, 저애는 아수를 타서 그런다구
22210	야위다	야왜진다, 야애진다
22211	쌍둥이	쌍둥이
22212	오줌	오주미
22213	똥	똥을
22214	기저귀	기저구야
22215	뉘다(排便)	누켜라, 누키라구
22216	방귀	방:구래능계, 방굴 꾸궤:라
22216-1	뀌다	꾸궤:라, 방굴 궤:서 실타
22217	구린내	쿠린내 나지
22218	구리다	방:굴 궤:서 쿠리다, 쿠레서 실타
22219	포대기	피대기
22220	기지개	기지개라구래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피 다	기지개 켜다
22221	거짓말	그:진마를 한다
22222	남부끄럽다	부꾸릅따, 부꾸루워따, 췁피시릅따
22223	겁쟁이	겁쟁이라구래지
22224	불쌍하다	불쌍해다, 너무 불쌍해서 도와준다
22225	죄암죄암	재물재물, 췁췁췁(+ 여)
22226	곤지곤지	곤지곤지
22227	따로따로	따루따루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짹짹

22230	부라부라	등개등개, 질러리질러리질러리
22231	걸음마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아중아중 거러간다
22233	넘어지다	너머저따
22234	곤두박질	곤두루바기, 곤두루바기 처따
22235	안기다	끄러 앙키지, 푸메 앙킨다, 놀:래서 앙킨다, 앙 긴다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팔랑가비
22237	호드기	호돌기
22238	숨바꼭질	숨바꼭찌
22239	소꿉놀이	통곶짱난헨다구
22240	사금파리	사곶파리라구
22241	연	연:, 그냥 여:니야
22241-1	방패연	*
22241-2	가오리연	*
22242	걸리다	걸려따, 걸렁건데
22242	걸리다	
22243	고누	사방치기라구래(+ 조?)
22244	땅뺏기	*
22245	팽이	팽이, 팽이노래~이지
22246	딱지치기	딱찌라구래, 건 딱찌노르미지
22247	구슬	다마치기라구(+ '구슬치기'는 '다마치기'라고 함), 구시리라그래요(+ 목에 거는 장식을 "구실 "이라고 함)
22248	그네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구넬 똤다
22249	밑신개	찌깨라구래, 발찌깨라구랜다구
22250	굴렁쇠	굴:렁새
22251	굴리다	굴:린다
22251-0-1	-고	*
22251-0-2	-어야	굴:려
22252	자전거	자장거
22253	목말	무등에
22254	말타기	말로리
22255	달음박질	똥박찢헨다
22256	썰매	썰:매노리라구래(+ 눈 위에서 타는 것), 쓰께야 타능계(+ 얼음 위에서 타는 것), 발구(+ 얼음 위 에서 타는 것)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쓰켈 탄다
22256-2	송곳	발구찌계야
22257	엄살	엄사리 그걸 엄사리라구래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 하다	엄사릴 헨다
22258	부아	부와가 난다

##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버지도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 아버지
22302	어머니	어머니라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
22303	할아버지	하라버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버지지
22304	할머니	할머니라그러지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니
22305	남편	넴편, 남피늘 가따가
22305-1	남편(호칭)	아무개아빠라구(+ 젊었을 때), 으—ㅇ:감(+ 늙었을 때)
22306	아내	내 처라구, 집싸라미라구
22306-1	아내(호칭)	여보(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자게(+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아무개엄마(+ 젊었을 때), 할머니야(+ 늙었을 때)
22307	형	성이라, 성님
22307-1	형(호칭)	그건 성이라구래, 성(+ 젊었을 때), 성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22308	아우	동생, 동상, 내 아우라고(+ 성인이 되었을 때)
22308-1	아우(호칭)	내동생
22309	누나	누:나, 누:니미라구
22309-1	누나(호칭)	누님
22310	누이	여동상이라구
22310-1	누이(호칭)	*
22311	자식	자식, 자시글
22312	맏아들	마다들
22313	맏딸	마딸, 큰따리라
22314	막내	막똥이, 망내
22315	오빠	오빠가
22315-1	오빠(호칭)	오빠
22316	언니	언니라구
22316-1	언니(호칭)	*
22317	아비	아버른 얼루 가씨
22317-1	아비(호칭)	애비야
22317-1	아비(호칭)	아범 어디가따
22318	어미	애엄마, 애어머른
22318-1	어미(호칭)	*
22319	손자	손자
22320	손녀	손녀

22321	사위	사우자녀, 사우를
22321-1	사위(호칭)	*
22322	외손자	외손주
22323	외손녀	외손주딸
22324	꾸짖다	꾸진다, 꾸지른다, 꾸지름한다
22324-0-1	-고	꾸지러따
22324-1	나무라다	나무른다, 나무러따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츠:녀
22327	혼인	호니를
22327-1	혼인식	호닌식, 겨론시글
22328	혼인 잔치	잔치
22329	장가가다	장:개가라
22329-1	시집가다	빨리 시지까라, 시지블 가라
22330	혼숫감	혼수
22331	함	하:미라 그래
22332	겹사돈	겹싸두니라그래
22333	새색시	삭:씨, 새악씨(+ 신), 새다글(+ 구), 새다기라구
22333-1	새색시(호칭)	삭:씨(+ 신), 새닥(+ 구)
22334	시아버지	시아버이, 시아버지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번님
22335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머~이가
22335-1	시어머니(호칭)	어먼님
22336	비위	비유라구래
22337	아주버니	아주버니
22337-1	아주버니(호칭)	아주버니
22338	서방님	시동생이라, 서방니미라
22338-1	서방님(호칭)	자근서방님
22339	도련님	대렌님
22339-1	도련님(호칭)	대렌님
22340	형님	마똥세, 동서그래지
22340-1	형님(호칭)	성님
22341	시누이	시누야, 시누가 되능거야
22341-1	시누이(호칭)	아가씨는
22341-2	아가씨	아가씨라그래구
22341-3	아가씨(호칭)	아가씨지
22342	올케	올케
22342-1	올케(호칭)	큰올케 자근올케
22343	매형	매향이지
22343-1	매형(호칭)	매향
22344	매제	매제구
22344-1	매제(호칭)	메제
22345	큰아버지	크나버지라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버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자그나버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
22346	큰어머니	크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머~이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자그너머~이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
22347	큰집	큰지비아
22348	작은아버지	자그나버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그나버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그너머~이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그너머~이
22350	삼촌	
22350-1	삼촌(호칭)	
22351	아저씨	사추니먼 아저씨가
22351-1	아저씨(호칭)	아저씨야
22352	아주머니	아주머니나
22352-1	아주머니(호칭)	아주머니
22353	조카	조카라구래지, 조카지 뭐
22354	조카딸	조카딸, 생기라녀
22355	고모	그건 고모야
22355-1	고모(호칭)	고몬님
22356	고모부	고모부라구두해구
22356-1	고모부(호칭)	*
22357	고종	고종사추니다
22358	이모	이모가
22358	이모	고종사추니라그래구
22358-1	이모(호칭)	이몬니미라
22359	이모부	*
22359-1	이모부(호칭)	*
22360	이종	이종사춘
22361	외삼촌	오삼추니
22361-1	외삼촌(호칭)	오삼춘, 외삼추네
22362	외숙모	아주머니라
22362-1	외숙모(호칭)	아주머니
22363	외종	*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라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외하라버지
22365	외할머니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할머니
22366	장인	자인, 자:이늘
22366-1	장인(호칭)	자인님
22367	장모	장:모, 장:모라고
22367-1	장모(호칭)	장:몬님 오세요

22368	처남	처나미구
22368-1	처남(호칭)	처남
22369	처남댁	아주머니
22369-1	처남댁(호칭)	아주머~이
22370	홀아버	호래비
22371	홀어미	과:부
22372	계모	계:모, 계:모지 계:모(+ 미혼인 여자가 시집온 경우), 서:모(+ 기혼인 여자가 시집온 경우), 이부덤마
22372-1	계부	이부다버지라구, 이부다버~이
22373	아저씨	아저씨니
22373-1	아저씨(호칭)	아저씨
22374	아주머니	아주머니라구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주머니
22375	사나이	무신 사내라구, 사나이, 대:장부
22376	영감	
22376-1	할망구	할멈
22377	나이	나이명는다
22377-0-1	-를	나이를
22378	환갑	항:가비라
22378-1	환갑 잔치	항: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린 사투리지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고기라구, 무레사는 피기
22402	민물고기	뭍물꼬기
22403	피라미	피래미라구래구
22404	지느러미	지시래미라구래
22405	아가미	아구미
22406	창자	창재
22407	송사리	송사리, 송:사리
22408	혜엄	수궤:ㅁ 친다구
22409	메기	며:기, 미여기두 이꾸
22410	자라	자라도
22411	거북	거부긴데
22412	미꾸라지	미꾸람지, 미꾸리두 이꾸
22413	개구리	개구리
22414	올챙이	올챙이
22415	두꺼비	두꺼비

22416	거머리	그:머리지
22417	다슬기	*
22418	우렁이	이건 울:배~이, 울뱅이야(+ 눈에 있는 큰 것)
22419	고둥	*
22420	달팽이	달팽이야, 탈팽이(+ 작은 것)
22421	새우	이건 새우
22421-1	새우(민물 대)	*
22421-2	새우(민물 소)	*
22421-3	새우(바다 대)	징:게미(+ 크며 바다에 산다)
22421-4	새우(바다 소)	*
22422	새우젓	새우젓
22422-0-1	-이	새우저지라구
22423	가재	가:재래능거야(+ 그림책에 있는 것은 바닷가재이며, 민물가재는 많지 않음), 민물가재 바다가재
22424	갈치	갈치
22425	고등어	고등애, 고등아도(+ 여)
22426	가오리	가오루
22427	가자미	가재미
22428	멸치	메레치, 메르치저지라(+ 멸치젓)
22429	명태	동:태
22429-1	동태	얼군건 동태애유
22429-2	황태	잘 말롱건 노랑태라(+ "노랑태"가 제일 맛이 좋음)
22429-3	노가리	*
22429-4	복어	부게, 요건 부건데(+ 여)
22429-5	생태	동:태는 날거가따 동:태라그래
22430	조기	조기, 참조기가 이꾸 메조기가
22431	도미	*
22432	뱀장어	뱀:종아
22433	낙지	낙쭈지 낙쭈질간다
22434	미끼	미끼지
22435	낙숫대	낙쭈때
22436	얼레	얼게
22437	조개	조개
22438	소라	*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거지
22502	날벌레	날파리
22503	파리	파:리, 파리

22503-1	쉬파리	쉬파리가 이꾸
22504	쉬슬다	쉬르 썬다구래지, 쉬를 썬:다
22505	가시	구테긴테
22506	진뎡물	진뎡물
22506-1	(진뎡물이) 끼다/얹다/생기 다	진뎡무리 생기먼
22507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야, 메물잠자리, 노랑잠자리
22508	방아깨비	방:개라구(+ 조?)
22508-1	암컷	*
22508-2	수컷	떼까치라구(+ 수놈)
22509	메뚜기	메뚜기야
22510	여치	으-:치
22511	사마귀	으-ㅇ:가시
22512	벌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버를 논:다
22513	땅벌	땅뻐는
22514	나비	나비지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라고 인는데
22516	풍뎡이	풍뎡이야, 물레방개
22517	모기	머기가(+ 모음 "어"가 "오"에 가깝게 들림), 머 기야 머기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벌레
22521	반딧불	개똥부리라 그래지
22522	거미	거:무야
22523	굼벵이	굼벵이야, 굼:베~이, 굼:벵이라구
22524	구더기	구데기
22525	노래기	노내기라구래
22526	그리마	똥뻐레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민테
22529	바구미	바구니야
22530	진드기	진데기라구
22531	벼룩	빼루기야, 빼레기
22532	이	이가 대지.
22532-1	서캐	서캐가 대구
22532-2	빈대	빈대가 이꾸
22533	송충이	송:챙이
22534	귀뚜라미	귀뚜레미
22535	누에	눠:
22536	고치	고추, 누에 꼬추라능건
22537	번데기	뻐데기라구
22538	지렁이	지렁이, 지레~이두

22539	회충(蛔蟲)	거시야 그건
22540	소금쟁이	소금재~잉가 소금재~이
22541	방개	물방개

###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추기라 그래지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멤멤멤멤
22605	황소	순쏘
22606	길들이다	지를 디린다, 지를 디려야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러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 고삐를 잡아당겨서 소를 세움)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라)	*(+ 고삐로 조종을 함)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라)	*(+ 고삐로 조종을 함)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물러물러
22607	쇠고기	소고기 주세요
22608	고기(肉)	고기
22609	둘치	글 둘쏘라 그래(+ 새끼 낳지 못하는 소), 둘개라 구리구(+ 새끼 낳지 못하는 개)
22610	꼬리	꼬랑지, 올채~이 꼬래기모냥으루(+ 여)
22611	망아지	망아지라
22612	당나귀	당나구
22613	갈기	마레지터리게찌(+ 제?)
22614	돼지	돼:지
22614-1	멧돼지	산돼지
22615	주둥이	주데~이라구
22616	돼지 머리	돼지대가리
22617	돼지우리	돼:지우리야
22617-1	오래오래	줄롤롤로
22618	개(犬)	개:라구래자너 개:
22618-1	수캐	수캐
22618-2	암캐	양캐
22619	강아지	강아지
22620	염소	염소야
22621	고양이	고냥이구, 고양이
22621-1	수고양이	수꼬내~이

22621-2	암고양이	양고내~이
22622	토끼	토끼, 퇴끼, 산토끼 집토끼
22623	거위(鵞)	게우야 게우
22624	암탉	암탉, 암타기
22625	병아리	병아리
22626	모으다	몬:다, 파가주구
22627	수탉	수탉
22627-0-1	-이	수타기, 수타근
22628	머슴(鷄冠)	그걸 면:도라구래
22629	부리	달게 주데~이지
22630	모이	모이
22630-0-1	-을	모이를
22630-1	모이다	다 모이지
22631	닭털	닥터라구, 달게터라구
22632	닭똥	달게똥이라구
22633	어리	병아리집, 달게둥주리
22634	닭장	우리지
22635	둥우리	둥어리
22636	날개	날개라구
22637	깃	날개지시라
22637-0-1	-을	날개지슬 뽑는다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랑이, 버:미라
22702	살쾅이	그건 살쾅이라구래, 살개~이
22703	여우	여우
22704	원숭이	원세~이
22705	사슴	사시미야, 사시믈 자부러가자
22706	노루	노루는
22706-0-1	-이	노루가
22706-0-2	-를	노루를 자버따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라구래
22708	두더지	두더지
22709	족제비	족제비
22710	뱀	배:미 간다, 뱀:두
22711	도마뱀	도매뱀
22712	구렁이	구러~이, 구렁이라구, 구레~이두(+ 여)
22713	살모사	글 살무새라구래는데
22714	생쥐	골:방쥐라구래
22715	박쥐	박:쥐
22716	까꾸로	까꾸로 매달린다

22717	다람쥐	다람쥐
22718	새(鳥)	새:가 난다
22719	콩지	콩지라구래지
22720	솔개	솔개미래능게 이거야
22721	독수리	이건 수리야요, 독쭈리
22722	제비(燕)	지:비
22723	두루미	항:새가 나라간다
22724	소쩍새	서쪽썰라구, 서쪽 서쪽 그래서 썩썩새라
22725	꿩	꿩이야 꿩, 꿩
22726	장끼	쟁끼
22727	까투리	까투리
22727-1	꺼병이	병아리라구래지(+ 닭이나 꿩이나 새끼는 모두 " 병아리"라고 함)
22728	종달새	종달새
22729	빼꾸기	빼꾸기야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복썩데, 뜸부기라구래는데
22732	올빼미	올:빼미
22733	까치	요건 까: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구
22735	덧	창애라구래는데(+ 꿩을 잡는데 사용), 돋(+ 그림 책에 나온 것은 '창애'임)
22735-0-1	-을	더시, 더설 멩긴다
22736	올가미	올매기(+ 토끼나 돼지를 잡는데 사용), 쫓:기라 그랜다구(+ 돼지를 잡는데 사용)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참꼬시라 그래요, 참꼬슨 머거두
22802	철쭉꽃	철쭉꼬시라고 이씨, 철쭉꼬슨
22803	민들레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맨도레미
22805	봉선화	봉송아야
22806	파리	파:리
22807	해바라기	이건 해바라기야
22808	꽃봉오리	꼰멍어리
22809	시들다	푸리 시드러따, 시든다

22810	질경이	질경이야
22810	질경이	질게~이(+ 식물 이름이나 반찬 이름 모두 동일 함)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
22811	빨기	*
22812	비름	비름, 참비르미 이꾸
22813	쇠비름	쇠:비름
22814	썸바귀	썸:썸바 이꾸(+ 가는 것), 요건 썸:썸바
22815	고들빼기	꼬들빼~이가(+ 굵은 것), 꼬들빼~이두, 꼬들빼 기라구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고비야
22818	도깨비바늘	도깨비푸리라구래, 가시푸리야(+ 여)
22819	도꼬마리	찢떡푸리야 찢떡풀, 찢떡풀
22820	억새	억:썸바구
22821	갈대	갈:따리
22822	이끼	바우오시라구래는데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리(+ 신), 피마주(+ 구)
22824	담쟁이	담장푸리라구
22825	수세미	수세미
22826	덩굴	덩구리나
22827	덤불	덤불
22827-1	가시덤불	까시덤불
22828	잔디	퇴를 심는다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구, 소나무야
22902	솔방울	솔빵울
22903	관솔	소개~이라구랜다구
22904	솔가리	솔개비, 솔껌부리라
22905	그러모으다	글거몬:다, 글거파 싹:다
22906	뽕나무	뽕나무지
22907	오디	건 오디라구래 오디
22908	도토리	도토리, 재랴~이라구 재래~이(+ 작은 것), 재: 래~이
22909	떡갈나무	굴비나무, 구피나무
22910	상수리	참나무라

22911	웃	온
22911-0-1	-으로	오시 올라따
22912	버드나무	버드나무라구
22913	느티나무	느테나무라그래요
22914	그림자	그림자가
22914-1	그늘	그느리 저따
22915	숲	수피라그래거덩
22915-0-1	-을	수푼 수피구
22915-0-2	-에	*
22916	시원하다	그느리 저서 시원내다
22917	짚레	짚:레라구, 짚:레꼐, 짚룽나무
22918	ଛ	ଛ근 아니자너, 칙뿌리야 치기야
22918-0-1	-에	ଛ글 캐따
22919	가지(枝)	가지라구래지
22920	끝	끝, ㅍ트맬 자버라
22920-0-1	-이	ㅍ치
22920-0-2	-에	ㅍ틀 자버라
22920-0-3	-을	ㅍ테 안저라
22921	삭정이	삭따리(+ 죽은 가지), 아:치(+ 살아있는 가지)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삭따리를 따온다
22922	나무	나무가 울청해다
22922-0-1	-을	그냥 낭구를 툇 짤라노쿠, 나물 벼:와라
22922-0-2	-에	낭게 달리능게
22923	나무하다	나무해러 간다
22924	그루터기	나무ㅍ루라구해구, 그루라구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
22925	등걸	등거지는
22926	장작	쩌갱건 장자기라구래지, 장자글 팬다
22927	패다	팬다, 빨리 패라
22928	부스러기	부시레기
22929	숯	숯
22929-0-1	-이	수치라구
22929-0-2	-을	수출
22929-0-3	-에	수체
22930	불잉걸	*
22931	쌈	쌈기 난다, 쌈글 길러따
22932	잎	이픈 이피지, 이파털
22932-0-1	-을	사과 이플
22932-1	잎사귀	입싸굴 가따
22933	가랑잎	가랑니피라
22934	뿌리	뿌레기, 뿌레기가 이씨니까, 뿌리라구래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 능그믐 아니야
23002	돌배	돌배
23003	복숭아	복숭아
23004	꽃감	꼬까미라 그래
23005	홍시	홍시리라구(+ 제?)
23006	고욤	오야미라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고야, 고애
23010-0-1	-을	고애라(+ 재래종)
23011	석류	형노
23012	모과	모과 모과(+ 제?)
23013	과일	과일
23014	꼭지	꼭지
23015	밤	바:땨, 바:미
23015-1	밤송이	밤 송아리
23015-2	팻밤	푸빠미라
23015-3	알밤	알:가미라구래, 알바미지
23015-4	쌍동밤	쌍동이라
23016	보늬	버물, 버무리래능거구
23017	호두	그건 호두야
23018	가래(楸子)	가래
23019	개암	개금
23020	머루	머루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
23024	참외	차메, 차뵈(+ 여)
23025	딸기	딸:구(+ 산에서 나는 것은 크기가 작고, 재배하는것은 크기가 크다)
23025	딸기	멍석딸기
23025	딸기	나무딸기두 이꾸, 낭구딸기는
23025-1	"딸기(밭 재배)"	*
23025-2	"딸기(밭 야생)"	*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
23025-5	"딸기(산 재배)"	*
23025-6	"딸기(산 야생)"	*
23026	뱀딸기	뱀:딸구(+ ?제)
23027	마름(菱)	*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상꼭때기 올라가지 마라
23102	기슭	지슬
23102-0-1	-에	기스레, 산지스레
23103	골짜기	골짜구니라구래는데
23104	메아리	미아리친다
23105	고함	고래 질른다, 꺄:, 고아미라구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고암 질른다
23106	묘	무이라구, 무이(+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 씀), 무더미라구(+ 학식 있는 사람들이 씀)
23107	뫓자리	무이짜리
23107-1	광중	내:광
23108	구덩이	구덩이가 생기지
23109	비탈	삼비야리라 해구
23110	가파르다	강파르다, 강파러서
23111	언덕	언더게 올라가지 마라
23112	낭떠러지	낭떠러지라
23113	들(野)	드:리 널따
23113-0-1	-에	드:레
23114	벌	벌파니라
23115	갈림길	쌍가달래(+ "세갈래길"을 뜻함), 가달래
23116	헤어지다	헤:진다
23117	바위	바우지
23117-0-1	-을	바우를 드리따
23117-0-2	-에	바우예 걸치따
23118	돌(石)	도:리지
23118-0-1	-을	도:를 골라따
23118-0-2	-에	도:레 안저따
23119	자갈	모래자갈
23119	자갈	자가리야
23120	모래	모래
23120-0-1	-를	모래를
23121	진흙	진흐기라구
23121-1	찰흙	찰흙기라구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무를 멩는다
23202	거품	거푸미 생긴다
23203	개운하다	개운해다
23204	도랑	도랑이라, 도랑을, 도랑으로
23204-1	봇도랑	보또랑이구
23205	둑	뚜기
23206	잠기다	쟁긴다
23207	개울	개우리라그래(+ 도랑이 모여서 개울이 되고 개 울이 모여서 강이 된다), 개처느로 흘러나가
23208	내(川)	*
23209	미역 감다	떡:까므러간대능거
23210	밭가숭이	빨거테~이라구래애지
23211	목욕하다	모요캔다, 모요캐러간다
23212	수채	*
23213	개굴창	개굴창, 개굴창이라
23214	시금창	시금창이
23215	옹덩이	옴덩이라구, 옴덩이
23216	수렁	수(+ 이 지역에서는 "수렁"과 "늪"을 구별하지 않음), 수:라구래
23217	늪	*
23217-0-1	-에	*
23218	배(船)	배, 배가 만타
23219	나루터	나루터지
23220	돛	*
23220-0-1	-에	*
23221	돛대	그거 도때지
23222	돛배	도때배라구래지
23223	돛 줄	도때주리라구래나(?제?)
23224	돛 줄	*
23225	거루	*
23226	상앗대	*
23227	개(펼)	개빠리라구
23228	물	*
23228-0-1	-으로	*
23229	밀물	*
23230	썰물	*
23231	가라앉다	가라안찌, 가라안자서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해:녀

###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복
23302	새벽밥	새복빠비라구
23303	아침	아치무로
23304	아침밥	아침빤, 조반
23305	점심	즘:심
23305	점심	즘:심빠비라
23306	저녁	저낙
23306	저녁	저낙빠비라구
23307	설빃하다	*
23308	노을	그걸 노:리라구래 놀:
23308-0-1	-을	노:를 본다
23309	불그레하다	발거수름해요
23310	해거름	해거루미라
23311	땅거미	해무릅
23312	봄	봄, 보미 오지
23313	여름	여름, 여르미 오구
23314	더위	더우, 더위가 오래간다
23315	추위	추:가 오래간다, 추우가 오지
23316	가을	가을
23316-0-1	-에	가으레, 갈:게 수:유
23317	겨울	겨울, 저우내나
23317-0-1	-에	겨울게 머글라구, 겨우레 누:니 온다구
23318	얼음	어르미 언다
23319	오늘	오늘 파월시보일, 오누리면
23320	내일	낼:, 내:리라, 내이리라구
23321	모레	모레, 모:레
23323	그글피	글피 그글피
23324	어제	어제 와따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봐따
23327	훗날	훈:날 만나자
23328	하룻날	하룬날
23329	이튿날	이튼날
23330	사흘날	사흔날
23331	나흘날	나흘 날
23332	닷셋날	다췌날
23333	엿셋날	여췌날
23334	이렛날	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여드렌날
23336	아흐렛날	아:렌날
23337	열흘날	여를 날
23338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나흘
23342	닷새	다세
23343	엿새	여세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레
23347	열흘	여흘
23348	한나절	한나절 반
23348-1	반나절	반:절
23349	그믐	그믐날
23349-1	그믐께	그믐께
23350	지금	지끄믐, 지끔 멍넌다
23351	아직	바블 안저거 암머거서
23352	이제	인제 멍넌다
23353	이미	*
23354	요즈음	요즘:, 요주멘 우투케 지내나
23355	금방	금방 머거따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비칠, 뽀래도 해빠시
23401-0-1	-이	해빠시 잘든다
23401-0-2	-을	해빠세 말린다
23402	따스하다	따드태지, 따드태다
23403	아지랑이	아지랭이, 아지래~이라
23404	응달	음달
23405	양달	양지
23406	비(雨)	비가 마니 와따
23407	가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양:개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쏘내기라구랜다구
23413	갑자기	갑짜기 오자너 쏘내기는
23414	홍수	홍수라 그래지 인젠
23415	번개	번들개
23416	천둥	천둥이라
23417	벼락	베락친다구
23418	무섭다	미수꾸, 미수워해니까
23419	함박눈	함방누니라구
23420	싸락눈	싸레기누니라구

23421	발자국	발차구라구래지
23422	진눈깨비	징:갈비가 온다
23423	우박	유:리그래 유:리라구래
23424	고드름	고두레미구
23425	햇무리	해무지라
23426	달무리	달무지
23427	둥글다	둥그러치, 둥굴다구, 둥구래서 조타
23428	은하수	으나수
23429	금성	새:뿔
23430	가뭄	가뭄, 가뭄미 드러따
23431	마르다	말른다
23431-0-1	-어서	말려서
23432	위	우에, 위에 안는다
23433	아래	요 알로 부찌, 알:루, 아:리지
23434	왼쪽	나는 왼쪼그로 나간다
23435	오른쪽	바른쪽
23436	결	저트루
23436-0-1	-에	내 저테 와 안저라
23437	회오리바람	돌개바라미라구래(+ 신), 회:리바라미라그래자 너(+ 구)
23438	북풍	북풍이 드룬다
23439	남풍	남풍이 드룬다, 남풍은
23439	남풍	
23440	동풍	동풍이지
23441	서풍	서풍이라

=2 공과가주다가 {괴어서}  
 =2 주저리라그래지 {벼를 묶어 놓은 것}  
 =2 깔끄릅따구래지  
 =2 망허징결가주구 {농사를 망친 것을 가지고}  
 =2 절구때  
 =2 영크러지  
 =2 보드럽찌  
 =2 짐성주능거야  
 =2 줄 {글}  
 =2 검부제기(소나무 잎사귀 떨어진 것)  
 =2 쌀루 나오기뻘서 {쌀로 나오기 때문에}  
 =2 꺼치려요  
 =2 동기지  
 =2 음서게서  
 =2 솔고지(나물의 일종)  
 =2 혼넙(나물의 일종)  
 =2 혼니븐(나물의 일종)  
 =2 막짱  
 =2 찌꺼지  
 =2 이매또리랑건(부뚜막 앞의 돌)  
 =2 밀짱지(+ 마루 끝에 다는 문)  
 =2 세며느로 해능거  
 =2 으-가리루 가라 {옆으로 가라}  
 =2 손방(+ "가게"를 뜻함)  
 =2 지끄른 석때가  
 =2 땡기꼬래~이  
 =2 행전  
 =2 도래방서기라(+ 짚으로 만든 방석)  
 =2 주저리푸리라구  
 =2 이건 바지구(+ 가마니 짜는데 쓰이는 기구)  
 =2 영구능건(+ "체" 같은 도구에 구멍이 크다는 뜻을 지님)  
 =2 바다린 크지(+ 말벌)  
 =2 늘메기(+ 등이 벌건 뱀)  
 =2 사추라구  
 =2 무서리 참서리  
 =2 동지미 당군데

# 제3편 음운

## 3.1. 음운 목록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테가 이따(+ "에"와 "애"의 구별이 있음)
31001-0-2	테(輪)-보다	테보다, 테두리야
31002-0-1	태(胎)-이/가	태가 질다
31002-0-2	태(胎)-보다	태보다 질다
31003-0-1	떼(群)-이/가	떼가 저서 간다
31003-0-2	떼(群)-보다	떼루 간다, 떼거리루 간다
31004-0-1	때(時)-이/가	때가, 머글 때가, 때가 마니 난다(+ 사람의 몸에서 나는 때)
31004-0-2	때(時)-보다	때라구
31005-0-1	틀(機)-이/가	트리지
31005-0-2	틀(機)-보다	틀
31006-0-1	털(毛)-이/가	터리 만타
31006-0-2	털(毛)-보다	털두, 털, 터라구라
31007-0-1	글(文)-이/가	그리 만타
31007-0-2	글(文)-보다	그를 일거라
31008-0-1	걸(옷)-이/가	거리 나와따
31008-0-2	걸(옷)-보다	걸두, 걸
31009-0-1	기(旗)-이/가	기가
31009-0-2	기(旗)-보다	기, 기두 펠러꺼린다
31010-0-1	귀(耳)-이/가	귀가 크다
31010-0-2	귀(耳)-보다	귀두, 귀라
31011-0-1	시(生時)-이/가	시가 조타
31011-0-2	시(生時)-보다	시를
31012-0-1	쉬(蠅卵)-이/가	쉬가 만타, 쉬를
31012-0-2	쉬(蠅卵)-보다	쉬파리가
31013-0-1	쇠(鐵)-이/가	쇠가
31013-0-2	쇠(鐵)-보다	쇠두 무겁따(+ 원순성이 약함)
31014-0-1	외:국(外國)-이/가	외:구구로
31014-0-2	외:국(外國)-보다	외:국
31015-0-1	왜국(倭國)-이/가	왜누미라구
31015-0-2	왜국(倭國)-보다	왜놈
31016-0-1	쉬:다(休)-더라	췌:다, 쉬:라구, 쉬니깐
31016-0-2	쉬:다(休)-어서	세수해구 수:다:라
31017-0-1	쇠:다(설을~)-더라	서를 췌:다
31017-0-2	쇠:다(설을~)-어서	서를 새:서
31018-0-1	베(布)-이/가	베를 찐다
31018-0-2	베(布)-이/가	베가 만타, 베를 찐다, 삼베가 질:다

31018-0-2	베(布)-보다	삼베
31019-0-1	배(船)-이/가	배가 크다
31019-0-2	배(船)-보다	배두 크다
31020-0-1	배(腹)-이/가	배가 아프다
31020-0-2	배(腹)-보다	배두 아프다
31021-0-1	(떡)메-이/가	메가 크다
31021-0-2	(떡)메-보다	메두 크다, 메
31022-0-1	매(鞭)-이/가	매가 질다
31022-0-2	매(鞭)-보다	매두 질다, 사랑에 매라구
31023-0-1	매:다(擔)-더라	매:기두 하고, 지물 미지 말라
31023-0-2	매:다(擔)-어서	미어따, 며:따
31024-0-1	매:다(繫)-더라	짱: 매지 말라
31024-0-2	매:다(繫)-어서	매:따, 매:라
31025-0-1	떼:다(分離)-더라	떼지 마라
31025-0-2	떼:다(分離)-어서	떼: 놔따, 떼:라
31026-0-1	때:다(炊)-더라	때:다구래야지, 때능거 때:능거
31026-0-2	때:다(炊)-어서	부를 때:서
31027-0-1	베:다(切斷)-더라	여기두 비:구
31027-0-2	베:다(切斷)-어서	벼:서, 벼:따
31028-0-1	배:다(孕胎)-더라	배구, 애길 배:구
31028-0-2	배:다(孕胎)-어서	애를 배:따
31029-0-1	세:다(算)-더라	시구 이따, 신:다구
31029-0-2	세:다(算)-어서	빨리 쳐:라
31030-0-1	새:다(漏泄)-더라	샌:다, 새기땀서
31030-0-2	새:다(漏泄)-어서	새:서는
31031-0-1	뒤(後)-이/가	뒤가
31031-0-2	뒤(後)-보다	뒤에는
31032-0-1	되(升)-이/가	되루 된다
31032-0-2	되(升)-보다	되보다, 되
31033-0-1	게:(蟹)-이/가	거이라(+ 제?)
31033-0-2	게:(蟹)-보다	거이라구
31034-0-1	개:(犬)-이/가	개:가
31034-0-2	개:(犬)-보다	우리지빈 개:두 만타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
31035-0-2	여럿(多)-보다	여러사라미서, 여러사라미다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
31036-0-1	물결(波)-이/가	*
31036-0-2	물결(波)-보다	물결(+ 제?)

31036-0-3	물결(波)-을/를	*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저리 바르다
31037-0-2	예:의(禮儀)-보다	*
31037-0-3	예:의(禮儀)-을/를	*
31038-0-1	계:획(計劃)-이/가	*
31038-0-2	계:획(計劃)-보다	*
31038-0-3	계:획(計劃)-을/를	계요글 세워라
31039-0-1	규칙(規則)-이/가	*
31039-0-2	규칙(規則)-보다	귀칙
31039-0-3	규칙(規則)-을/를	귀치글 잘 지켜라
31040-0-1	휴일(休日)-이/가	슈가
31040-0-2	휴일(休日)-보다	슈가라구, 쉬무다(+ 원순성이 거의 없음), 쉬무야
31040-0-3	휴일(休日)-을/를	*
31041-0-1	교통(交通)-이/가	*
31041-0-2	교통(交通)-보다	괴통, 괴통질써
31041-0-3	교통(交通)-을/를	괴통을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자라구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효자
31043-0-1	웬일(何事)-이/가	웬니리야
31043-0-2	웬일(何事)-보다	*
31043-0-3	웬일(何事)-을/를	*
31044-0-1	궤:( 짝)(櫃)-이/가	궤:짜기라구래, 궤:짜기라
31044-0-2	궤:( 짝)(櫃)-보다	*
31044-0-3	궤:( 짝)(櫃)-을/를	*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2	왜란(倭亂)-보다	왜늬드리라
31045-0-3	왜란(倭亂)-을/를	*
31046-0-1	헛대(鷄架)-이/가	해뿌리라(+ "덕대"라는 어형이 나오기 때문에 표제어를 "헛불"로 바꾸었음)
31046-0-2	헛대(鷄架)-보다	해빨
31046-0-3	헛대(鷄架)-을/를	*
31047-0-1	원망(怨望)-이/가	*
31047-0-2	원망(怨望)-보다	원:망해지 마라
31047-0-3	원망(怨望)-을/를	*
31048-0-1	권:투(拳鬪)-이/가	*
31048-0-2	권:투(拳鬪)-보다	콘:토, 콘:투
31048-0-3	권:투(拳鬪)-을/를	콘:토라구래자너
31049-0-1	의논(議論)-이/가	*
31049-0-2	의논(議論)-보다	*
31049-0-3	의논(議論)-을/를	이노늘 해라
31050-0-1	무늬(紋)-이/가	무네
31050-0-2	무늬(紋)-보다	*
31050-0-3	무늬(紋)-을/를	꿈무넬 놘:따, 무넬 놘:따, 무노를

31051-0-1	왕(王)-이/가	왕이라구래나
31051-0-2	왕(王)-보다	왕
31051-0-3	왕(王)-을/를	*
31052-0-1	과자(菓子)-이/가	과이리구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일, 과자라고
31052-0-3	과자(菓子)-을/를	*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리 남찌
31053-0-2	일(一)-보다	일보다
31054-0-1	일:(事)-이/가	*
31054-0-2	일:(事)-보다	일:보다
31055-0-1	매(鞭)-이/가	매가 질:다
31055-0-2	매(鞭)-보다	매두 질다
31056-0-1	매:(鷲)-이/가	매가 크다(+ 길다고 인식함)
31056-0-2	매:(鷲)-보다	매: 매:두 크다
31057-0-1	밤(夜)-이/가	바미 질:다, 바문 질:다
31057-0-2	밤(夜)-보다	밤두 질다
31058-0-1	밤:(粟)-이/가	바:미 마시따
31058-0-2	밤:(粟)-보다	밤:두
31059-0-1	눈(眼)-이/가	누니 크다
31059-0-2	눈(眼)-보다	눈두 크다
31060-0-1	눈:(雪)-이/가	누니 온다
31060-0-2	눈:(雪)-보다	눈:, 하누레서 눈두 온다
31061-0-1	말(馬)-이/가	마리
31061-0-2	말(馬)-보다	말두 크다
31062-0-1	말(斗)-이/가	되보다 마리 크다
31062-0-2	말(斗)-보다	말두 크다(+ 재는 단위)
31063-0-1	말:(言)-이/가	마:를 마니 헨다
31063-0-2	말:(言)-보다	말:두 만타
31064-0-1	손(客)-이/가	손니미
31064-0-2	손(客)-보다	*
31065-0-1	손(手)-이/가	소니 크다
31065-0-2	손(手)-보다	손도 크다
31066-0-1	손:(孫)-이/가	소:니 귀해다
31066-0-2	손:(孫)-보다	손두 귀해다
31067-0-1	배(梨)-이/가	배가 마시따
31067-0-2	배(梨)-보다	배두 마시따
31068-0-1	배:(倍)-이/가	*
31068-0-2	배:(倍)-보다	배:로 질다
31069-0-1	벌(罰)-이/가	버럴 신다

31069-0-2	벌(罰)-보다	벌두 신다
31070-0-1	벌:(蜂)-이/가	뵤:리 썩따
31070-0-2	벌:(蜂)-보다	뵤:, 뵤:두 만타
31071-0-1	솔(松)-이/가	소리 만타
31071-0-2	솔(松)-보다	솔:, 솔두 만타
31072-0-1	솔:(刷)-이/가	소리 만타
31072-0-2	솔:(刷)-보다	솔:두 만타
31073-0-1	줄(鉉)-이/가	주리 질:다
31073-0-2	줄(鉉)-보다	줄루 매라, 줄두
31074-0-1	줄:(연장)-이/가	주:리지, 주:리 마너
31074-0-2	줄:(연장)-보다	줄:두 만타
31075-0-1	돌:(石)-이/가	도:리 만타
31075-0-2	돌:(石)-보다	돌:두 만타
31076-0-1	담(牆)-이/가	다미라구
31076-0-2	담(牆)-보다	담두 뇨따
31077-0-1	담:(膽)-이/가	*
31077-0-2	담:(膽)-보다	담:너기 시다, 담:너기래야
31078-0-1	들:(野)-이/가	드:리 널따, 드:레 가서
31078-0-2	들:(野)-보다	들:두 널따
31079-0-1	달-(懸)-고	지끔 단다, 등을 달구 이따
31080-0-1	달-(甘)-더라	달다, 달질 안타
31081-0-1	달:-(熱)-더라	소치 단:다, 달:질 안는다
31082-0-1	갈-(換)-고	이거뚜 갈구 저거또 가러따
31083-0-1	갈-(磨)-고	가:녕건
31084-0-1	갈:-(耕)-고	바출 갈:지 말라, 간:다
31085-0-1	걸-(收)-고	거:꾸 이따, 거찌 말라, 건:넌다
31086-0-1	걸:-(步)-고	걸:꼬 이따, 걸:찌 말고 뚜궤:라 건:녕거 하고, 거:꾸 이따
31087-0-1	적-(書)-고	정는다 써다, 빨리 정는다
31088-0-1	적:-(小)-더라	즉:따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무럴 막찌 마라
32001-0-2	막-(防)[ㄱ]-고	*

32001-0-3	막-(防)[ㄱ]-더라	망능걸, 망넌다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그니까
32001-0-5	막-(防)[ㄱ]-아/어(았/었다)	마거따, 마거라
32002-0-1	흐르-(流)[ㅡ]-지	*
32002-0-2	흐르-(流)[ㅡ]-고	홀르구 이따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흐른다, 홀르능건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
32002-0-5	흐르-(流)[ㅡ]-아/어(았/었다)	홀러간다, 홀러서 간다
32003-0-1	오-(來)[ㅇ]-지	오지 말라
32003-0-2	오-(來)[ㅇ]-고	오고 이따
32003-0-3	오-(來)[ㅇ]-더라	일루 온다
32003-0-4	오-(來)[ㅇ]-으니까	오니깐
32003-0-5	오-(來)[ㅇ]-아/어(았/었다)	빨리 와라, 와따
32004-0-1	듣-(聞)[ㄷ변]-지	잘 드꾸 이따
32004-0-2	듣-(聞)[ㄷ변]-고	듣는 중이다
32004-0-3	듣-(聞)[ㄷ변]-더라	듣는다
32004-0-4	듣-(聞)[ㄷ변]-으니까	드르니깐 안다
32004-0-5	듣-(聞)[ㄷ변]-아/어(았/었다)	드러라
32005-0-1	많:- (多)[ㄴㅎ]-지	망:꾸
32005-0-2	많:- (多)[ㄴㅎ]-고	
32005-0-3	많:- (多)[ㄴㅎ]-더라	만:타, 사라미 만:타라
32005-0-4	많:- (多)[ㄴㅎ]-으니까	마:느른 냉겨라, 마:느니깐
32005-0-5	많:- (多)[ㄴㅎ]-아/어(았/었다)	마:너서 실타
32006-0-1	말-(任)[ㅌ]-지	*
32006-0-2	말-(任)[ㅌ]-고	이건 내가 마꼬, 니가 마꼬
32006-0-3	말-(任)[ㅌ]-더라	*
32006-0-4	말-(任)[ㅌ]-으니까	마트라능건
32006-0-5	말-(任)[ㅌ]-아/어(았/었다)	마터 헨다, 다 마터서
32007-0-1	알:- (知)[ㄹ]-지	알:지
32007-0-2	알:- (知)[ㄹ]-고	잘 알기때미래
32007-0-3	알:- (知)[ㄹ]-더라	잘 안:다, 안:다구
32007-0-4	알:- (知)[ㄹ]-으니까	알:쭈룩
32007-0-5	알:- (知)[ㄹ]-아/어(았/었다)	아러서, 아러써
32008-0-1	감:- (閉眼)[ㅁ]-지	감:찌 말라
32008-0-2	감:- (閉眼)[ㅁ]-고	누늘 감:꼬 이따
32008-0-3	감:- (閉眼)[ㅁ]-더라	감:녕거
32008-0-4	감:- (閉眼)[ㅁ]-으니까	가므면 암보인다
32008-0-5	감:- (閉眼)[ㅁ]-아/어(았/었다)	가머라
32009-0-1	벗-(脫)[ㅍ]-지	버찌 마라
32009-0-2	벗-(脫)[ㅍ]-고	버꾸 이따
32009-0-3	벗-(脫)[ㅍ]-더라	*

32009-0-4	벗-(脫)[ㅅ]-으니까	버스니까
32009-0-5	벗-(脫)[ㅅ]-아/어(았/었다)	더우니까 버서, 버서라
32010-0-1	움-(可)[ㄹ]-지	그 마리 올치 아너
32010-0-2	움-(可)[ㄹ]-고	네말도 올코
32010-0-3	움-(可)[ㄹ]-더라	올타
32010-0-4	움-(可)[ㄹ]-으니까	오루니깐
32010-0-5	움-(可)[ㄹ]-아/어(았/었다)	오라서
32011-0-1	입-(着衣)[ㅂ]-지	입찌 말라
32011-0-2	입-(着衣)[ㅂ]-고	오슬 이꾸 이따
32011-0-3	입-(着衣)[ㅂ]-더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이부니까
32011-0-5	입-(着衣)[ㅂ]-아/어(았/었다)	이버따
32012-0-1	바꾸-(換)[ㅌ]-지	바꾸자, 바꾸지 말라
32012-0-2	바꾸-(換)[ㅌ]-고	바꾸구 이따
32012-0-3	바꾸-(換)[ㅌ]-더라	바꾸는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바꾸니까
32012-0-5	바꾸-(換)[ㅌ]-아/어(았/었다)	자리를 바꿔라
32013-0-1	덮-(覆)[ㅍ]-지	
32013-0-2	덮-(覆)[ㅍ]-고	더꾸 이따
32013-0-3	덮-(覆)[ㅍ]-더라	덮넌다
32013-0-3	덮-(覆)[ㅍ]-더라	덮는 중이다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꾸니까, 더꾸라능건
32013-0-5	덮-(覆)[ㅍ]-아/어(았/었다)	더퍼라
32014-0-1	묻:- (問)[ㄷ 변]-지	무:찌 말고
32014-0-2	묻:- (問)[ㄷ 변]-고	무:꼬
32014-0-3	묻:- (問)[ㄷ 변]-더라	*
32014-0-4	묻:- (問)[ㄷ 변]-으니까	*
32014-0-5	묻:- (問)[ㄷ 변]-아/어(았/었다)	무러본다
32015-0-1	낫:- (癒)[ㅅ 변]-지	*
32015-0-2	낫:- (癒)[ㅅ 변]-고	나:꼬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차츰차츰 낫:는다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병이 나:니까
32015-0-5	낫:- (癒)[ㅅ 변]-아/어(았/었다)	나:따
32016-0-1	닫-(閉)[ㄷ]-지	다찌 말라
32016-0-2	닫-(閉)[ㄷ]-고	*
32016-0-3	닫-(閉)[ㄷ]-더라	닫는다, 닫는 중이다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드문
32016-0-5	닫-(閉)[ㄷ]-아/어(았/었다)	무늘 다더라
32017-0-1	쫓-(追)[ㅈ]-지	*
32017-0-2	쫓-(追)[ㅈ]-고	*

32017-0-3	쫓-(追)[ㄷ]-더라	뒤를 쫓는다
32017-0-4	쫓-(追)[ㄷ]-으니까	쫓츠러 간다
32017-0-5	쫓-(追)[ㄷ]-아/어(왔/었다)	쫓차간다
32018-0-1	베:-(枕)[베]-지	노피 비:지 말라
32018-0-2	베:-(枕)[베]-고	비구 잔다
32018-0-3	베:-(枕)[베]-더라	빈:다
32018-0-4	베:-(枕)[베]-으니까	비:머는
32018-0-5	베:-(枕)[베]-아/어(왔/었다)	누켜 벼:라, 노피 비어따
32019-0-1	깨:-(破)[깨]-지	깨지 말라
32019-0-2	깨:-(破)[깨]-고	깨구 이따
32019-0-3	깨:-(破)[깨]-더라	깁다구
32019-0-4	깨:-(破)[깨]-으니까	깨니깐
32019-0-5	깨:-(破)[깨]-아/어(왔/었다)	깨:따
32020-0-1	펴-(伸)[펴]-지	펴지 말라
32020-0-2	펴-(伸)[펴]-고	펴고 이따
32020-0-3	펴-(伸)[펴]-더라	편다
32020-0-4	펴-(伸)[펴]-으니까	펴니깐
32020-0-5	펴-(伸)[펴]-아/어(왔/었다)	펴:따, 펴야지
32021-0-1	밖-(明)[?]-지	박쩍 안치
32021-0-2	밖-(明)[?]-고	*
32021-0-3	밖-(明)[?]-더라	박따구
32021-0-4	밖-(明)[?]-으니까	*
32021-0-5	밖-(明)[?]-아/어(왔/었다)	발거서
32022-0-1	쌈:-(烹)[?]-지	쌈:찌
32022-0-2	쌈:-(烹)[?]-고	쌈:꾸 이따
32022-0-3	쌈:-(烹)[?]-더라	*
32022-0-4	쌈:-(烹)[?]-으니까	쌀브먼
32022-0-5	쌈:-(烹)[?]-아/어(왔/었다)	쌀머라
32023-0-1	읷-(吟)[읷]-지	*
32023-0-2	읷-(吟)[읷]-고	*
32023-0-3	읷-(吟)[읷]-더라	*
32023-0-4	읷-(吟)[읷]-으니까	*
32023-0-5	읷-(吟)[읷]-아/어(왔/었다)	*
32024-0-1	밟:-(踏)[?]-지	밟:찌마라
32024-0-2	밟:-(踏)[?]-고	바:꼬 이는 중이다
32024-0-3	밟:-(踏)[?]-더라	밟:넝거지
32024-0-4	밟:-(踏)[?]-으니까	발브먼
32024-0-5	밟:-(踏)[?]-아/어(왔/었다)	발버따, 발버라
32025-0-1	하-(爲)[하 변]-지	이를 해지 말라
32025-0-2	하-(爲)[하 변]-고	*
32025-0-3	하-(爲)[하 변]-더라	이를 한다, 이를 해는 중이다
32025-0-4	하-(爲)[하 변]-으니까	이:를 마니 해먼
32025-0-5	하-(爲)[하 변]-아/어(왔/었다)	해:따, 해라, 이:를 마니 해서 피곤해다

32026-0-1	맺-(結)[ㅈ]-지	매찌 말라
32026-0-2	맺-(結)[ㅈ]-고	*
32026-0-3	맺-(結)[ㅈ]-더라	맨는다, 맨는 중이다
32026-0-4	맺-(結)[ㅈ]-으니까	매즈먼 조타, 매지먼 조타, 매지려능건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매저따, 매저라 이:라
32027-0-1	없:-(無)[?]-지	*
32027-0-2	없:-(無)[?]-고	우:꼬
32027-0-3	없:-(無)[?]-더라	웁:따, 업:떠라, 읍:따구
32027-0-4	없:-(無)[?]-으니까	웁:씨니깐
32027-0-5	없:-(無)[?]-아/어(왔/었다)	업:써서
32028-0-1	앉-(坐)[ㅈ]-지	으르니 이씨니까 으자엔 안찌 말라
32028-0-2	앉-(坐)[ㅈ]-고	저기도 앙꼬
32028-0-3	앉-(坐)[ㅈ]-더라	안넌 중이다
32028-0-4	앉-(坐)[ㅈ]-으니까	으자에 안지라, 으자에 안지니까, 안즈니까
32028-0-5	앉-(坐)[ㅈ]-아/어(왔/었다)	안저 이따, 시지 말고 안저라
32029-0-1	비비-(刮)[ㅣ]-지	더 비비지 말라, 나도 비비자
32029-0-2	비비-(刮)[ㅣ]-고	*
32029-0-3	비비-(刮)[ㅣ]-더라	*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잘 비비먼 마시따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잘 비벼라
32030-0-1	끄-(消)[ㅡ]-지	끄지 말구
32030-0-2	끄-(消)[ㅡ]-고	부를 끄구 이따
32030-0-3	끄-(消)[ㅡ]-더라	난 부를 끈다, 끄는 중이다
32030-0-4	끄-(消)[ㅡ]-으니까	끄니깐 어둡따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부를 꺼야, 부를 꺼라
32031-0-1	꺾-(折)[ㄱ]-지	꺾찌말라
32031-0-2	꺾-(折)[ㄱ]-고	꺼꾸 이따
32031-0-3	꺾-(折)[ㄱ]-더라	꺾넌다
32031-0-4	꺾-(折)[ㄱ]-으니까	꺼끄니깐, 꺼끄먼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얼른 꺼꺼라
32032-0-1	신:-(履)[ㄴ]-지	신늘 신:찌 말라
32032-0-2	신:-(履)[ㄴ]-고	시늘 싱:꾸 이따
32032-0-3	신:-(履)[ㄴ]-더라	신:는다구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시늘 시늘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시너따
32033-0-1	보-(視)[ㅇ]-지	보능 거지
32033-0-2	보-(視)[ㅇ]-고	보구
32033-0-3	보-(視)[ㅇ]-더라	본다
32033-0-4	보-(視)[ㅇ]-으니까	보니깐
32033-0-5	보-(視)[ㅇ]-아/어(왔/었다)	봐:라
32034-0-1	추-(舞)[ㅈ]-지	추물 추지 말라
32034-0-2	추-(舞)[ㅈ]-고	추구 이따

32034-0-3	추-(舞)[ㅈ]-더라	잘 추더라, 추물 춘다, 추는 중이다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추니깐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취:라
32035-0-1	피우-(吸煙)[ㅈ]-지	피지 말라
32035-0-2	피우-(吸煙)[ㅈ]-고	피구 이따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피는 중이다, 피운다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담:빨 피니깐 영기가 난다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왔/었다)	피:라
32036-0-1	서-(立)[ㄱ]-지	*
32036-0-2	서-(立)[ㄱ]-고	시구 이따
32036-0-3	서-(立)[ㄱ]-더라	신다
32036-0-4	서-(立)[ㄱ]-으니까	시니깐 자더라
32036-0-5	서-(立)[ㄱ]-아/어(왔/었다)	이러서따, 선는데, 서따
32037-0-1	기-(匍腹)[ㅇ]-지	기지 말라
32037-0-2	기-(匍腹)[ㅇ]-고	*
32037-0-3	기-(匍腹)[ㅇ]-더라	긴다구래자너 긴다
32037-0-4	기-(匍腹)[ㅇ]-으니까	기니깐 아프다
32037-0-5	기-(匍腹)[ㅇ]-아/어(왔/었다)	기어간다, 영금 겨:가능거다
32038-0-1	이-(戴)[ㅇ]-지	머리에 이지 말라
32038-0-2	이-(戴)[ㅇ]-고	이구 이따
32038-0-3	이-(戴)[ㅇ]-더라	이능거지, 물똥을 인다
32038-0-4	이-(戴)[ㅇ]-으니까	이니깐
32038-0-5	이-(戴)[ㅇ]-아/어(왔/었다)	여:서 와라, 여와라
32039-0-1	아니-(否)[ㅇ]-지	*
32039-0-2	아니-(否)[ㅇ]-고	채기 아니구 얽피리다
32039-0-3	아니-(否)[ㅇ]-더라	아니다
32039-0-4	아니-(否)[ㅇ]-으니까	*
32039-0-5	아니-(否)[ㅇ]-아/어(왔/었다)	아니라, 채기 아니래서
32040-0-1	되-(升)[ㅇ]-지	*
32040-0-2	되-(升)[ㅇ]-고	되구 이따
32040-0-3	되-(升)[ㅇ]-더라	되루 된다
32040-0-4	되-(升)[ㅇ]-으니까	싸를 되면, 되며넌
32040-0-5	되-(升)[ㅇ]-아/어(왔/었다)	돼:라
32041-0-1	있-(有)[ㅅ]-지	*
32041-0-2	있-(有)[ㅅ]-고	이꼬
32041-0-3	있-(有)[ㅅ]-더라	*
32041-0-4	있-(有)[ㅅ]-으니까	이씨면, 이썸 시끄럽따, 이씨니깐 빌려준다
32041-0-5	있-(有)[ㅅ]-아/어(왔/었다)	이씨, 이씨서
32042-0-1	놓-(放)[ㅎ]-지	노치 말라
32042-0-2	놓-(放)[ㅎ]-고	32041-0-3 땅에다 노코 이따
32042-0-3	놓-(放)[ㅎ]-더라	땅에다 논:다

32042-0-4	놓-(放)[ㅎ]-으니까	땅에 노:니깐
32042-0-5	놓-(放)[ㅎ]-아/어(았/었다)	말론 땅에 놔:라
32043-0-1	훑-(扱)[ㄷ]-지	여물지 아나 훑찌 말라
32043-0-2	훑-(扱)[ㄷ]-고	이사글 훑꾸 이따
32043-0-3	훑-(扱)[ㄷ]-더라	나넌 훑런다
32043-0-4	훑-(扱)[ㄷ]-으니까	훑투니까
32043-0-5	훑-(扱)[ㄷ]-아/어(았/었다)	베이사글 훑터라
32044-0-1	굽:-(麗)[ㅂ변]-지	굽:짚 앙코
32044-0-2	굽:-(麗)[ㅂ변]-고	굽:꼬, 고:꼬
32044-0-3	굽:-(麗)[ㅂ변]-더라	굽:따
32044-0-4	굽:-(麗)[ㅂ변]-으니까	고:우니깐
32044-0-5	굽:-(麗)[ㅂ변]-아/어(았/었다)	
32045-0-1	쥐:-(握)[ㄱ]-지	쥐:지 말라
32045-0-2	쥐:-(握)[ㄱ]-고	쥐:구 이따
32045-0-3	쥐:-(握)[ㄱ]-더라	쥐:다
32045-0-4	쥐:-(握)[ㄱ]-으니까	쥐:니깐
32045-0-5	쥐:-(握)[ㄱ]-아/어(았/었다)	쥐:라
32046-0-1	가-(去)[ㄱ]-지	가지 마라
32046-0-2	가-(去)[ㄱ]-고	난 가구 이따
32046-0-3	가-(去)[ㄱ]-더라	간다
32046-0-4	가-(去)[ㄱ]-으니까	가니깐 잘 보인다, 이쫓그로 가면 암 보인다
32046-0-5	가-(去)[ㄱ]-아/어(았/었다)	천처니 가:라
32047-0-1	"떡-(食)-지 -고 -더라"	명넌다, 머꾸 이따
32047-0-2	"떡-(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머거라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뜯는다, 뜨꾸 이따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뜨더명능건
32049-0-1	"같-(如)-지 -고 -더라"	가따
32049-0-2	"같-(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태서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나따구래는데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나저서, 나즌데루, 나튼데, 나터서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헤테진다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난다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나러라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지 말라, 슬푸니까 운:다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만 우러라

서 -왔/었다"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인:다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 빨리 이러라  
 서 -왔/었다"  
 32055-0-1 "열:-(凍)-지 -고 -더라" 언다  
 32055-0-2 "열:-(凍)-아/어도 -아/어 두꺼께 어러서  
 서 -왔/었다"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사늘 녕:꼬 이따, 넘:넌다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 너머간다구  
 서 -왔/었다"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꾸 이따, 숨:꾸 이따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 슈머라  
 서 -왔/었다"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쉽:따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 너머 쉬:위서  
 서 -왔/었다"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누꾸 이따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 누워라, 누어  
 서 -왔/었다"  
 32060-0-1 "김:-(縫)-지 -고 -더라" 지:꾸 이따  
 32060-0-2 "김:-(縫)-아/어도 -아/어 지어라  
 서 -왔/었다"  
 32061-0-1 "밋:-(憎)-지 -고 -더라" 얄:밋따구  
 32061-0-2 "밋:-(憎)-아/어도 -아/어 얄:미워서  
 서 -왔/었다"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사니 높따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노파서 조타  
 -왔/었다"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진:는 중이다, 지:꾸 이따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 지어서 조타  
 서 -왔/었다"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싸:서 부:꾸 이따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 부어따, 뷘:서 아프다  
 서 -왔/었다"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우:찌, 깔깔 운:는데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 우서라  
 서 -왔/었다"  
 32066-0-1 "짚:-(吠)-지 -고 -더라" 지:꾸 이따  
 32066-0-2 "짚:-(吠)-아/어도 -아/어서 지저라, 지저서 시끄럽따  
 -왔/었다"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꼬꼬 이따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꼬자따, 꼬즈니까  
 -왔/었다"  
 32068-0-1 "냥:-(産)-지 -고 -더라" 난는 중이다, 난는다, 애길 나꾸 이따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나:따
32069-0-1	"땅:-(?)-지 -고 -더라"	땅:다, 따구 이따, 따:니까
32069-0-2	"땅:-(?)-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땅:기를 따라, 따:라
32070-0-1	"끊-(切)-지 -고 -더라"	끈능거지, 끄늘 꾸꾸 이따
32070-0-2	"끊-(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너라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 라"	괜찬타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 어서 -았/었다"	괜차너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잉는다, 일꾸 이따, 이꾸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일거라
32073-0-1	"뺨:-(澁)-지 -고 -더라"	툭짜너, 뺨:떠라구, 뺨:따
32073-0-2	"뺨:-(澁)-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뺨:버, 뺨:버서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옴:는다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올마따
32075-0-1	"뚱:-(貫)-지 -고 -더라"	뚱:룬다, 뚱:루구 이따
32075-0-2	"뚱:-(貫)-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빨리 뚱:러라
32076-0-1	"꿍-(?)-지 -고 -더라"	꿍:쿠이따
32076-0-2	"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러라
32077-0-1	"닭:-(? 연필 심이)-지 - 고 -더라"	다룽건, 닭:치 아너따
32077-0-2	"닭:-(?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러따
32078-0-1	"닭:-(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달쿠 이따
32078-0-2	"닭:-(煎 술에서 장이)-아/ 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러 이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다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짜서 몸머께따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만다구래지, 말구 이따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러라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그를 씬다, 그를 씨구 이따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빨리 씨라

	-왔/었다"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	올루고 이따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올라라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	바쁘지요, 바쁘다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바빠서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	고푸다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고파, 배가 고파서 바블 머거따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쏜다, 쏘구 이따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리 쏘:라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뀐다, 꾸구 이따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따, 꾸어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 라"	머무르는 중이다, 머물구 이따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머물러서 간다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	다듬꾸 이따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다드머라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	*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견더넨다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	말른다, 오까를 말르고 이따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말러라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 고 -더라"	앙개가 찢다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앙개가 찢서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	마신다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빨리 마셔라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시:다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셔:서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 라"	포갠다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그냥 포개라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 라"	두두린다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두두려라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	등을 켜구 이따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빨리 부를 켜라
32097-0-1	"씻:-(바람을)-지 -고 - 더라"	바라믈 씻구 이따
32097-0-2	"씻:-(바람을)-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바라믈 췌:라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쇠:건 꺾찌마리, 쇠지 아는건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쇠:따 그래지
32099-0-1	"쉬:-(?) -지 -고 -더라"	쉬:거하구, 쉬:지
32099-0-2	"쉬:-(?)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서, 수키:서 몸멍는다, 췌:서
32099-0-2	"쉬:-(?)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서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히다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희:서 조타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달달 봉넌건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달 보까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안:는다, 양:꼬 이따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아:너라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묻는다, 무꾸 이따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바라미 불:구 이따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부러라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	빨다, 빨구 이따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빠러라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병이 드리 중는다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거따, 주구머 이르믈 냉기구
32107-0-1	"걸:- (步)-지 -고 -더라"	거:꾸 이따, 건:넌다
32107-0-2	"걸:- (步)-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거러간다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	가문다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가무리따, 가무리서
32109-0-1	"졸:- (睡)-지 -고 -더라"	졸:다 떠리저따
32109-0-2	"졸:- (睡)-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조라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구 이따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당을 씨러따
32111-0-1	"감:- (捲)-지 -고 -더라"	감:넌다, 감:꾸 이따
32111-0-2	"감:- (捲)-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가머라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	더듬는다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빨리 더드머라
32113-0-1	"굽:- (炙)-지 -고 -더라"	고길 구:꾸 이따
32113-0-2	"굽:- (炙)-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구워라, 구:니깐 마시따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	31013-0-2 쇠는 무겁찌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무구워서
32115-0-1	"잇:- (連)-지 -고 -더라"	인:넌다, 이:꾸 이따
32115-0-2	"잇:- (連)-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이어라, 여:라, 이:라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비꾸 이따, 빈넌다, 비시먼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서라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	꺼머타구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거머서 조타, 까:매서 보기 조타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누꾸 이따, 는는 중이라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뉘:라, 누워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잘 곧:다구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잘 과:라
32120-0-1	"없-(載)-지 -고 -더라"	영꾸 이따, 실꿍에 언지고 이따
32120-0-2	"없-(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언저라, 언저따, 실꿍에다 언지니까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구찬타
32121-0-2	"귀찮-(?)-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구차나 주께따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발리구 이따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 어도 -아/어서 -았/었다"	발러라, 뼈를 잘 발러서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막따, 막따구, 말꼬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말거서 조타
32124-0-1	"굵:-(膿)-지 -고 -더라"	곰:넣거지, 종지가 곰:넌다
32124-0-2	"굵:-(膿)-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골무면, 골마서 아프다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굵:따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굵거서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얇:따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얇버서
32127-0-1	"쏟-(?)-지 -고 -더라"	*
32127-0-2	"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다 일쿠 와따(+ 노름판에서 돈을 잃다)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러따(+ 노름판에서 돈을 잃다), 이저버려따 (+ 물건을 잃다)
32129-0-1	"훅-(?)-지 -고 -더라"	훅런다, 개:가 훅꼬 이따
32129-0-2	"훅-(?)-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훅터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나는 짧따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짧버 실타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	깜짝 놀래능거지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 서 -았/었다"	놀래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물 잔다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라
32133-0-1	"못:하-(不爲)-지 -고 - 더라"	모:탠다, 모:태구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갈:러서 모:태니까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 라"	모루고, 몰:르는 사람, 몰:르는데
32134-0-2	"모르-(不知) -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몰:라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	아푸지 안타, 아풍걸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아퍼서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구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가 커서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꼰:다, 꼬:능거야, 새끼를 꼬고 이따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짜:라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	미우물 쭈구 이따, 쏘:다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주글 잘 썰라, 썰:라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 라"	잘 마치고 이따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잘 마치라, 마춰라
32140-0-1	"테우-(?)-지 -고 -더라"	테운다
32140-0-2	"테우-(?)-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테워서 멍녕거, 테워 멍넨다
32141-0-1	"이:-(蓋 지붕을)-지 -고 -더라"	인:다, 이:꾸 이따
32141-0-2	"이:-(蓋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라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	갈리고 이따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갈려따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 라"	뽕스를 기다린다, 기다리구 이따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 기다려따  
어서 -았/었다"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시:구 이따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 시어따, 빨리 셔:라  
서 -았/었다"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모슬 빼구 이따, 뺀다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빼:라  
-았/었다"

32146-0-1 "켜-(搥을)-지 -고 -더라 여푸루 켜다, 케구 이따  
"

32146-0-2 "켜-(搥을)-아/어도 -아/어 나무를 케라  
서 -았/었다"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되:다구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 돼:서  
서 -았/었다"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쉼:다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 수켜:라  
서 -았/었다"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향쿤다, 양쿤다구래지  
"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 양퀴서 아푸다  
서 -았/었다"

32150-0-1 "눌:-(?) -지 -고 -더라" 눌:쿠

32150-0-2 "눌:-(?) -아/어도 -아/어서 누리, 바비 누러따  
-았/었다"

32151-0-1 "깨달-(覺)-지 -고 -더라 깨달따  
"

32151-0-2 "깨달-(覺)-아/어도 -아/어 깨다러따, 깨다라따  
서 -았/었다"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 매릅따  
더라"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 매루워서  
아/어서 -았/었다"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 부꾸릅따  
라"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 부꾸루워서  
어서 -았/었다"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멀:지 양코 가깝따  
"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 가껴워서  
서 -았/었다"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지퍼서

	-왔/었다"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근:는다, 그물 그꾸 이따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라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바를 씨꾸 이따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어라, 씨:라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8-0-1	"짚-(搗)-지 -고 -더라"	방애를 찢다, 찢꾸 이따, 찢능거, 찢치앙꾸
32158-0-2	"짚-(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어라, 찢:라, 찢어서
32159-0-1	"값-(搔)-지 -고 -더라"	가꾸 이따
32159-0-2	"값-(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거멍는다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꾸 이따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머따
32161-0-1	"닻:-(似)-지 -고 -더라"	저사람두 당:꾸
32161-0-2	"닻:-(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머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그래서 실타, 뵈기실타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서
32163-0-1	"끓-(?) -지 -고 -더라"	끓코 이따, 끓는다
32163-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무를 분:는다, 부꾸 이따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뵈:라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고 이따, 타러 간다, 탄다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라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바짱 말른다, 마른다, 말르능건 말르지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러서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씨고, 씨다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서, 씨구워, 씨서 몸멍는다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푸다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퍼서 늠무리 나따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	기쁘다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기뻐, 마:미 기뻐서
32170-0-1	"쏘-(? 별이)-지 -고 - 더라"	쏜다, 쏘고 이따
32170-0-2	"쏘-(? 별이)-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쏘:서 아프다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준다, 주고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어따, 섬무를 주니깐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 라"	키우면, 애를 키우니까, 키우자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키워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	가두구 이따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가둬라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	부신다, 지블 부시구, 부시지 말라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부셔라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	나눈다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노나준다, 나눠준다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	쏘기면, 쏘기지 마라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쏘겨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찌다구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어, 골미를 찌:라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튀다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투:서 나라간다
32179-0-1	"괴:(滯)-지 -고 -더라"	한쪼그루 궂다
32179-0-2	"괴:(滯)-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괘:서
32180-0-1	"여위-(?)-지 -고 -더라" *	
32180-0-2	"여위-(?)-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야해서 뵈기실타, 야해진다, 멍쩨 아너서 야해 저따, 패래따, 패래서 보기실타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맵따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워서
32182-0-1	"뀌:-(?)-지 -고 -더라"	뀨:다
32182-0-2	"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굴 꾸:서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	고장낱걸 곤친다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빨리 곤처라, 곤처야
32184-0-1	"신:-(載)-지 -고 -더라"	신:넣거, 사라플 신:는다, 지멸 마~이 실찌
32184-0-2	"신:-(載)-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빨리 시러라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그냥 으:꾸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
32186-0-1	"뺑-(粉碎)-지 -고 -더라 "	고치를 뺑:는다
32186-0-2	"뺑-(粉碎)-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빠:서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	파라치, 파러치 하늘른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파래서, 파러서 조타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	모냥이 달르다, 달르지, 달르긴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모냥이 달러서, 달리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푼다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펴서, 피와라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눈다, 누쿠 이따, 오주물 누니까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어따, 누어서 시원해다
32191-0-1	"더:럽-(汚)-지 -고 -더 라"	드럽따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드:르워 어디루, 드:르워서 또 양간다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	건넌다, 거꾸 이따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	빨리 거더라

32193-0-1 서 -왔/었다" "끓-(沸)-지 -고 -더라" 끝쿠 이따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끄러따, 끄러서 뚜굽따  
 -왔/었다"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긴다, 싸워서 이기니깐  
 "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 이겨라  
 서 -왔/었다"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부시다  
 "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 부서서 누늘 모뜨게따  
 서 -왔/었다"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 저사람도 뒤루 자빠지구  
 더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 자빠저따  
 아/어서 -왔/었다"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 일쿤다  
 더라"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 일꿔야 된다  
 아/어서 -왔/었다"  
 32198-0-1 "당기-(引)-지 -고 - 더라 땡긴다, 주를 땡기구  
 "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 빨리 땡겨  
 서 -왔/었다"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리지 마라  
 "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 버려라, 버레라  
 서 -왔/었다"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고 이따  
 "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 훔쳐따  
 서 -왔/었다"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지 마라, 지면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저따  
 -왔/었다"  
 32202-0-1 "외:-(暗誦)-지 -고 -더 요 | 운다는  
 라"  
 32202-0-1 "외:-(暗誦)-지 -고 -더 요 | 워라  
 라"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 새기문, 잘 새긴다  
 라"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 새겨라  
 어서 -왔/었다"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썩는대는, 썩꾸 이따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거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다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러서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분능거, 까불구 이따, 까분다, 까부르능거
	"	치, 까불른다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치루 까불러라, 치루 까부러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다
	"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드무러서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무리 준:다, 줄:지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무리 주러서 바다기 보인다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심:넣거, 심:는다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시머라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 라"	씨담꾸 이따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씨다머준다
32211-0-1	"사:납-(猛)-지 -고 -더 라"	사:납따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사:나워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가볍따
	"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가부워서 들기 조타
32213-0-1	"젓:-(?) -지 -고 -더라"	즌:는다, 즈:꾸 이따
32213-0-2	"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라(+ "어"가 약간 높게 들림)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꿍따
	"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두꾸워서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무루다구
	"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물러서, 물:러진다, 으:내서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 라"	불긴다, 불기구 이따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불겨라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	배우구 이따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배워야지
32218-0-1	"다리-(?) -지 -고 -더라"	대린다, 잘 대리구 이따
32218-0-2	"다리-(?) -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잘 대려라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더라"	휘빈다, 귀를 휘비구 이따
32219-0-2	"후비-(?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를 휘벼라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	아리다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아려서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	그리구 이따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잘 그려야
32222-0-1	"저리-(癱)-지 -고 -더라 "	저리지
32222-0-2	"저리-(癱)-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저려서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	빨기지 마라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빨겨라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	따드태다, 따시해다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따드태 조타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 라"	뜨린다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뜨려라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	누비능겨, 누비구 이따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누벼라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	꾸긴다, 꾸기구 이따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꾸게서 버러라, 꾸겨서 버러라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빈:다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비어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 라"	무를 씨키구 이따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씨켜라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	맨다, 지물 매구 이따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매:라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시늘 매구 이따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매:라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구 이따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궤:가라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바구니다 담:꾸 이따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다머따
32234-0-1	"가렵-(?)-지 -고 -더라"	개름따, 머긴 깨밀머너 가렵따구 {모기는 깨물 면 가렵다고}
32234-0-2	"가렵-(?)-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개르워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	때린다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때려야 된다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	어둡따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어두워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꾸 이따, 잠는다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버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찬다구래, 차구 이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라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 모자르지, 모잘르지, 모잘르는데  
더라"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 모잘러서  
아/어서 -왔/었다"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노래를 잘 불른다, 부른다  
"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 잘 불러야, 불러서  
서 -왔/었다"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딸कु지, 딸कु다구  
"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 딸꿔따구  
서 -왔/었다"

32242-0-1 "쪼:- (啄)-지 -고 -더라" 모이를 쪼꾸 이따, 쪼는다

32242-0-2 "쪼:- (啄)-아/어도 -아/어 쪼:멍는다  
서 -왔/었다"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지 마라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뒤라  
-왔/었다"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씨기능겘, 씨긴대능거  
"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 씨겨야 조타  
서 -왔/었다"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 지리다  
고 -더라"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지려서 실타  
-아/어서 -왔/었다"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던지구 이따  
"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 던저라  
서 -왔/었다"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한쪼그로 모인다  
"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 모여서 멍는다  
서 -왔/었다"

32248-0-1 "만지-(?)-지 -고 -더라" 맨지구 이따

32248-0-2 "만지-(?)-아/어도 -아/어 맨저따  
서 -왔/었다"

32249-0-1 "쪼:- (?)-지 -고 -더라" 내려쪼다, 쪼다

32249-0-2 "쪼:- (?)-아/어도 -아/어서 내리쪼서 따굽따  
-왔/었다"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틀구 이따  
"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 비:트러라

	서 -왔/었다"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도:꾸 사능거지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와줘라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씨꾸 이따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버라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럽따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워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단:는다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눌:루구 이따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러따
32256-0-1	"주무르-(?)-지 -고 -더라"	주물른다 맨저본다
32256-0-1	"주무르-(?)-지 -고 -더라"	너무 주물르지 마러라"
32256-0-2	"주무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러따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구멍을 메우거라, 메우고 이따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워라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참깨는 고춧씨, 고송:건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수워서 마시따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리구 이따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려따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굴:리구 이따`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려따, 굴:러 간다, 굴:러가니까 굴:렁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쌀루 멩긴다, 소멍도 멩길구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멩기러따

32262-0-1	"늙-(老)-지 -고 -더라"	나도 늙꼬
32262-0-2	"늙-(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늙거따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꼬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도 아러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	쥐:늘 잘 따른다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따러야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꼬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따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	치우구 이따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치워라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 더라"	불거지고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나도 불거저따, 불거저서 아푸다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	다치구, 다치니깐 아푸다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다쳐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	느리다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느려간다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무친다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쳐 멍는다
32271-0-1	"죄:-(縮)-지 -고 -더라"	조인다, 나살 조이구 이따
32271-0-2	"죄:-(縮)-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조여라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구 이따, 팔지 마라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러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는다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바라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구 이따, 뒤:지 마러, 뒤:머는

"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 뒤어따  
서 -왔/었다"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치구 이따  
"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 마쳐따  
서 -왔/었다"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저리구 이따, 절구자  
"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 절구능거  
서 -왔/었다"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원:다, 쉬:구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수켜:서 모쨌다  
-왔/었다"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준:넌다, 주:꾸 이따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 주워 치워라, 주어라  
서 -왔/었다"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꾸 이따  
"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 강제루 빼서따  
서 -왔/었다"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지울구  
"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 지우러따, 기우러따  
서 -왔/었다"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따  
"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 아껴워  
서 -왔/었다"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따구, 손줄라서 방겁따, 방거꾸  
"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 방구워서  
서 -왔/었다"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다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찌서  
-왔/었다"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타  
"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 노래서  
서 -왔/었다"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사는 푸르치, 푸루다  
"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 푸러서

	서 -왔/었다"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 라"	서둘지 말라, 서둘루구 이따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서두러선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 더라"	스:툴다, 그게 스투른 사라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스:투러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 라"	길:르구, 길른 사람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길:러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 라"	따드태다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따드태서 조타
32290-0-1	"춥-(寒)-지 -고 -더라"	추게, 추웅건 춥따
32290-0-2	"춥-(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추워서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 라"	뚜굽때능부른, 뚜구꾸, 뚜거꾸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뚜구워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근향겨, 미지해다, 미지헨대능게, 미지행 걸루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	어르문 차지, 차구, 차다, 차겍찌두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차서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	부릅따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부러워
32295-0-1	"알밧-(憎)-지 -고 -더라 "	알:밧따구
32295-0-2	"알밧-(憎)-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알:미워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 더라"	비스태다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비스:태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	새롭따, 새롭다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새로워서
32298-0-1	"서:럽-(悲痛)-지 -고 - 더라"	서:럽찌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너머 서러워서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 라"	까다롭따그래지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까다로워서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	외롭따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외로워서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 라"	아쉽따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아수워서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 라"	단단해다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단단해 조타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게 자서, 느꾸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서, 느저따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하나 남:꾸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나머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 라"	냉기지 말라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냉겨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냉겨트리지 말라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트려따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 고 -더라"	*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 -아/어 도 -아/어서 -왔/었다"	*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

- "
-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 \*  
서 -왔/었다"
-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외우고 이따  
"
-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 외워라  
서 -왔/었다"
-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 문질른다  
라"
-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 문질러서 아푸다  
아/어서 -왔/었다"
-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 가르친다, 갈친다  
라"
-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 가르쳐라  
어서 -왔/었다"
- 32312-0-1 "가르치-(教)-지 -고 -더 가르치라  
라"
- 32312-0-2 "가르치-(教)-아/어도 -아/ 잘 가르쳐라  
어서 -왔/었다"
-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 저는다  
라"
-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 저뉘라  
어서 -왔/었다"
-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  
"
-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 \*  
서 -왔/었다"
-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 달개구 이따  
라"
-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 달개라  
어서 -왔/었다"
-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봄바드라, 본바꾸  
"
-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 봄바더라  
어서 -왔/었다"
-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 어지르지 말라  
라"
-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 \*  
어서 -왔/었다"
-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린다  
"
-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 달려서 기부니 조타  
서 -왔/었다"
-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우긴다구, 너머 우긴다, 너두 우기면

	"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우겨선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중얼거린다구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얼거리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 라"	*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	댕기구 이따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댕겨라, 다녀와라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러트려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구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물 깨: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굽찌, 시굽따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구워서, 너무 시니깐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손능겨, 손는다구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 나라간다
32327-0-1	"좋:- (好)-지 -고 -더라"	기부니 조:타
32327-0-2	"좋:- (好)-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조:와, 조:와서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	피는 빨개치, 피는 빨개타, 빨거케 다리따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피가 빨:개서, 발:개야만
32329-0-1	"끝:- (曳)-지 -고 -더라"	끝구 땡긴다, 끈:다
32329-0-2	"끝:- (曳)-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끄:려따
32330-0-1	"얇:- (薄)-지 -고 -더라"	널:따
32330-0-2	"얇:- (薄)-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강이 널버
32331-0-1	"하얇-(白)-지 -고 -더라 "	하여치, 머리가 하여케 시능걸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하얗서, 하얗니깐, 허여친 아너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라
32332-0-2	국(羹)-을/를	구글 명는다
32332-0-3	국(羹)-에(서)	
32332-0-4	국(羹)-으로	
32332-0-5	국(羹)-도	
32333-0-1	논(沓)-이/가	노니라
32333-0-2	논(沓)-을/를	
32333-0-3	논(沓)-에(서)	흐기 노네서 멩체징계 읊는
32333-0-4	논(沓)-으로	노느로
32333-0-5	논(沓)-도	
32334-0-1	쌀(米)-이/가	싸리 만타
32334-0-2	쌀(米)-을/를	싸를
32334-0-3	쌀(米)-에(서)	싸레다 무를
32334-0-4	쌀(米)-으로	쌀루
32334-0-5	쌀(米)-도	
32335-0-1	봄(春)-이/가	보미 도라오지
32335-0-2	봄(春)-을/를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32335-0-5	봄(春)-도	봄
32336-0-1	집(家)-이/가	초가지비지, 큰지비아
32336-0-2	집(家)-을/를	지블 부지구
32336-0-3	집(家)-에(서)	나메지베
32336-0-4	집(家)-으로	지부로
32336-0-5	집(家)-도	
32337-0-1	옷(衣)-이/가	오시 만타
32337-0-2	옷(衣)-을/를	오설 임는다, 오슬 이꾸 이따
32337-0-3	옷(衣)-에(서)	오세
32337-0-4	옷(衣)-으로	
32337-0-5	옷(衣)-도	
32338-0-1	방(房)-이/가	방이 널따, 문쭈방이라구
32338-0-2	방(房)-을/를	
32338-0-3	방(房)-에(서)	방에서, 방에, 문쭈방에
32338-0-4	방(房)-으로	
32338-0-5	방(房)-도	문쭈방

32339-0-1	낮(晝)-이/가	나지라
32339-0-2	낮(晝)-을/를	
32339-0-3	낮(晝)-에(서)	나제 먹짜
32339-0-4	낮(晝)-으로	
32339-0-5	낮(晝)-도	날
32340-0-1	낮(顔)-이/가	나시라구래지
32340-0-2	낮(顔)-을/를	나슬
32340-0-3	낮(顔)-에(서)	
32340-0-4	낮(顔)-으로	
32340-0-5	낮(顔)-도	
32341-0-1	부엌(廚)-이/가	부어키라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3	부엌(廚)-에(서)	부어케서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5	부엌(廚)-도	부엌
32342-0-1	밭(田)-이/가	바침 바치구 {밭이면 밭이고}, 바시 널따
32342-0-2	밭(田)-을/를	바출 간:다
32342-0-3	밭(田)-에(서)	바테 이따
32342-0-4	밭(田)-으로	바트루 가자
32342-0-5	밭(田)-도	
32343-0-1	앞(前)-이/가	내 아피 널따
32343-0-2	앞(前)-을/를	
32343-0-3	앞(前)-에(서)	
32343-0-4	앞(前)-으로	
32343-0-5	앞(前)-도	
32344-0-1	넋(魂)-이/가	
32344-0-2	넋(魂)-을/를	
32344-0-3	넋(魂)-에(서)	
32344-0-4	넋(魂)-으로	
32344-0-5	넋(魂)-도	
32345-0-1	흙(土)-이/가	흙기라, 흐기
32345-0-2	흙(土)-을/를	흙글 더퍼라, 흐글
32345-0-3	흙(土)-에(서)	흙게 파문는다
32345-0-4	흙(土)-으로	흙구루
32345-0-5	흙(土)-도	흑
32346-0-1	여덟(八)-이/가	여더리지 여덜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여덜, 여덜두
32347-0-1	돌(週歲)-이/가	도리 도라와따, 도리라
32347-0-2	돌(週歲)-을/를	도를, 도:를 골라따
32347-0-3	돌(週歲)-에(서)	도:레 안저따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5	돌(週歲)-도	돌두
32348-0-1	값(價)-이/가	값씨 비싸다, 풍값씨라구래지
32348-0-2	값(價)-을/를	값쓸 잘 쳐줘라, 풍값쓸 받는다
32348-0-3	값(價)-에(서)	
32348-0-4	값(價)-으로	
32348-0-5	값(價)-도	
32349-0-1	속:(內)-이/가	소:기 아프다
32349-0-2	속:(內)-을/를	소:글
32349-0-3	속:(內)-에(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5	속:(內)-도	
32350-0-1	돈:(錢)-이/가	
32350-0-2	돈:(錢)-을/를	도:늘 치뤄야지, 도:널 반넝거
32350-0-3	돈:(錢)-에(서)	
32350-0-4	돈:(錢)-으로	잔도느로
32350-0-5	돈:(錢)-도	돈:
32351-0-1	발(足)-이/가	바리 크다
32351-0-2	발(足)-을/를	바를 자버라
32351-0-3	발(足)-에(서)	
32351-0-4	발(足)-으로	발루 찬다
32351-0-5	발(足)-도	발두 크다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만타
32352-0-2	짐(荷物)-을/를	지물 시러라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5	짐(荷物)-도	짐두
32353-0-1	입(口)-이/가	
32353-0-2	입(口)-을/를	이불 다무레라
32353-0-3	입(口)-에(서)	
32353-0-4	입(口)-으로	이부루 마란다
32353-0-5	입(口)-도	
32354-0-1	낫(鎌)-이/가	나시지
32354-0-2	낫(鎌)-을/를	
32354-0-3	낫(鎌)-에(서)	
32354-0-4	낫(鎌)-으로	나스루 비어라, 나스로 다 비어내따
32354-0-5	낫(鎌)-도	날
32355-0-1	강(江)-이/가	강이라구
32355-0-2	강(江)-을/를	
32355-0-3	강(江)-에(서)	
32355-0-4	강(江)-으로	강으루 간다
32355-0-4	강(江)-으로	
32355-0-5	강(江)-도	강두 널따
32356-0-1	젓(乳)-이/가	저지라
32356-0-2	젓(乳)-을/를	저질 머거라

32356-0-3	젓(乳)-에(서)	
32356-0-4	젓(乳)-으로	
32356-0-5	젓(乳)-도	저뚜 크다
32357-0-1	꽃(花)-이/가	꼬치 핀다, 철뚝꼬시, 참꼬시라
32357-0-2	꽃(花)-을/를	꼬출 꺼꺼라
32357-0-3	꽃(花)-에(서)	
32357-0-4	꽃(花)-으로	철쭈꼬순
32357-0-5	꽃(花)-도	꼰, 꼬뚜 이뿌다
32358-0-1	팥(赤豆)-이/가	파치 마시따
32358-0-2	팥(赤豆)-을/를	파철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4	팥(赤豆)-으로	파츠루
32358-0-5	팥(赤豆)-도	파쭈
32359-0-1	옆(側)-이/가	여피 널따
32359-0-2	옆(側)-을/를	여플
32359-0-3	옆(側)-에(서)	여폐 서라
32359-0-4	옆(側)-으로	여푸루 켜다
32359-0-5	옆(側)-도	엽
32360-0-1	삿(賃金)-이/가	배싸기라구래지
32360-0-2	삿(賃金)-을/를	배싸글 줘라
32360-0-3	삿(賃金)-에(서)	
32360-0-4	삿(賃金)-으로	
32360-0-5	삿(賃金)-도	삭
32361-0-1	닭(鷄)-이/가	다기라, 달기 만타, 우리집 달기 이씨 조타, 암타기
32361-0-2	닭(鷄)-을/를	다글 자버라, 달글 길른다
32361-0-3	닭(鷄)-에(서)	달게
32361-0-4	닭(鷄)-으로	달근, 달건, 수타근
32361-0-5	닭(鷄)-도	닥, 닥뚜
32362-0-1	밖(外)-이/가	바끼 널따
32362-0-2	밖(外)-을/를	
32362-0-3	밖(外)-에(서)	바께 나가 노라
32362-0-4	밖(外)-으로	
32362-0-5	밖(外)-도	

# 제4편 문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0-1	내-가	내가 마랜다
40101-0-2	내	내물거니다
40101-0-3	나-를	나를 봐라
40101-0-4	나-에게	나한테 줘라
40101-0-5	나-와	나하고 가자
40101-0-6	나-는	나는 안다
40101-0-7	나-도	나두 안다
40102	저/제-가	
40102-0-1	저-가	지가 해따
40102-0-2	저-의	제 물거니다
40102-0-3	저-을/를	저를 봐주세요
40102-0-4	저-에게	저한테
40102-0-5	저-와/과	저하구
40102-0-6	저-는	저는 암니다
40102-0-7	저-도	저두 안다
40103	우리	우리아버지다, 우라버지에
40104	저희	저:아버지, 저:이아버지다
40105	너	
40105-0-1	-가	니:가 해라
40105-0-2	-의	니 물거니다
40105-0-3	-을/를	너를 준다
40105-0-4	-에게	너한테 준다
40105-0-5	-와/과	*
40105-0-6	-는	너만 준다
40105-0-7	-도	너두 가라
40106	자네	자네를 준다, 자네가 줌 해게
40107	당신	자기라 그래구 당시니라그래구
40108	너희	느:아버지두, 느:드리
40109	개	개:두 마를
40109-1	애	애:는 참 마를 잘 든는다
40109-2	재	재:두 말두
40110	자기	제 말만 올타, 자기말만 올타
40111	당신	하라버지 방에서 지무신다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기야?
40112-0-1	누-가	누가
40112-0-2	누구-의	누구꺼야, 누기꺼야
40112-0-3	누구-를	누구를 주어따, 누기를 만나러 간다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테 준다
40112-0-5	누구-와	누구하구
40113	무엇-이냐/입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뭘:니까?
40113-0-1	무엇-이	뭘:가 드린느냐
40113-0-2	무슨	무신 니리, 무신 해다
40113-0-3	무엇-을	뭘을 주든, 뭘: 머글래느냐?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뭘하구 비스태다

##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두루 갈꺼야?, 어:서 노란느냐?
40115	언제	언:제 갈래?, 언제 갈거시야?, 당시니 운제 봐 따고 밤마리아, 모 운:제 시머.
40116	어느	어느 물거니라
40117	왜	왜: 우니?, 이런 건 왜 무러보능거야?
40118	얼마나	얼마나 걸리느냐?
40119	어떻게	요주든 우트게 지내느냐?, 우투게 지내느냐, 요주멘 우투케 지

##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게 마:메 든다, 이건 움마냐?, 감씨 이거는 비싸다, 이걸루 요골루 조종올해능거야.
40121	그것	그거슨 움마냐?
40122	저것	저건 움마냐?
40123	여기	여기 와, 여그 와 안저라, 여그
40124	거기	거기, 거기두, 고기 이는게 이씨
40125	저기	저기 안저라

40126	이리	일루 와라
40127	그리	글루 안저라
40128	저리	절루 안저라

## 4.2. 조사

### 4.2.1. 격조사

40201	-이/가	갑씨 이거는 비싸다
40202	-이/가	코가 크다
40203	-을/를	내 귀를 때려따
40204	-을/를	무를 쥐:라 {물을 쥐라}
40205	-에게/게	저 사람한테 쥐라
40206	-보고/더러	누구더러, 누구더러 당시니냐구나 구래
40207	-보고/더러	누굴보고 우느냐?
40208	-에	나는 지비서 바블 머거따, 지비 가
40209	-에	야:중에 만나자
40210	-에서	큰지비서 지낸다
40211	-에서	서울서 만나자
40212	-에서	여기서 한시간
40213	-으로	쌀루 지어유, 메쌀루 멩킨다
40214	-으로	지푸로 짱게 가마니거등
40215	-으로	새끼로 몽는다
40216	-으로	얼루 갈래느냐?
40217	-와/과	배:추 쇠게다가 무:과 파과 마날과(+여), 무하구 파하구 마날하구, 수:바카구 차무
40219	-보다	
40220	-처럼	돼:지처럼 멩는다, 곰:처럼 생겨따
40221	-만큼	그만큼 커썸 조타, 아무개만큼
40222	-만큼	머글 만큼 머거라, 소 드러갈만큼
40223	-아/야	영처라
40224	-아/야	영처리
40225	-아/야	영수야
40226	-아/야	누님
40226-1	-예	*
40227	-아/야	하라버지
40227-1	-요	*

40228	-이랑	술하고 고기하고
40229	-커녕	*

## 4.2.2. 보조사

40230	-은/는	수른 머거두 담배는 암핀다, 담:벤 피어두 수른 암 멩는다
40231	-만	딸만 조:와한다
40232	-도	키두 크다, 열구리두 크다
40233	-마다	날마등 마신다, 날마등 만낸다, 날마뚝 해능건 데
40234	-부터	내일서버텨 가자, 내일서버텨 가자, 나버터미래 두
40235	-까지	내일꺼정 끈내자
40236	-조차	마실 조차두 읍따(+ 조?)
40236-1	-할라	*
40237	-이야/야	그사람마리아
40238	-을랑	그런소리는 다시는 해지 말라
40239	-이라도	부자래두 안산다
40240	-밖에	너배께 읍따, 공구능겨배께 더인다 {괴는 것밖에 더 있나
40241	-가지고	싸가주 가따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일로 오라구구래더라
40242	오라-고 한다	이쪼구로 오라구래더라
40243	알았어-요	그 마를 잘 아라써요
40244	했지-요?	*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	이짜게 와 안저라
40302	-게	따드텐데로 오게 여보게
40302	-게	양께

40303	-으오	지갑 찌버가시오, 돈: 바다 가우, 밥 빨리 잡쑤 꼬 가시오.
40304	-으십시오	안즈세요 안즈십씨요
40305	-세요	안즈세요

### 4.3.2. 청유법

40306	-자	장에 가치 가자
40307	-세	사우 가치 가세
40308	-으오	*
40309	-십시다	거기 아무개 갑씨다, 사머그러 갑시따
40310	-세요	가세요

### 4.3.3. 의문법

40311	-니	비가 오니?
40312	-나	비가 오나?
40313	-오	비가 와요?, 거기 이쏘?
40314	-습니까	비가 옵니까?
40315	-나요	*
40316	-니	어디 가느냐?, 어디 가니?
40317	-나	어디 가나?
40317	-나	얼루 가나?
40318	-시오	어디 가세요?, 얼루 가세요?, 가시우?, 모자리 다 해쏘?
40319	-십니까	가십니까?
40320	-세요	얼루 가세요?

### 4.3.4. 서술법

40321	-는다	잘 멩는다
40322	-네	그건 잘 멩네
40323	-오	잘 먹쏘, 가보시오.
40324	-습니다	잘 먹쑤니다
40325	-네요	*
40326	-다	작따, 즉:따
40327	-네	증:네

40328	-소	*
40328	-소	내소리가 마쑈.
40329	-으십니다	즉썸니다
40330	-으세요	즈:어유

### 4.3.5. 반말

40331	-아	아풍가?
40332	-지	생이리지?

### 4.3.6. -이다

40333	-이다	네 생이리다
40334	-이니	니 생이리 내이리냐?
40335	-이네	내이리네
40336	-인가	내이렁가?
40337	-이오	생이리오
40338	-이오	생이리오?
40339	-입니다.	생이립니다., 아번님 생시닙니다.
40340	-입니다	생이릅니까?
40341	-이시지요	생시니지요.
40342	-이시지요	*
40343	-이냐?	뫼:냐?
40344	-인가?	뫼:가?
40345	-이오?	*
40346	-입니다?	뫼: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
40349	-이어요?	뫼:요?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만:썸니다
40351	-습디다	*
40352	-는구나/구나	멍년구나
40353	-는구먼/구먼	*
40354	-일세	*

40355	-으마	가프마
40356	-음세	*
40357	-을라	다칠라 조심해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머꾸 텔레비를 봐따
40402	-으면서	보문서 멩는다
40403	-어/-어서	배:추를 저러설랑은, 따드태서 조르미 저절로 온다
40404	-으니 /-으니까	따드타니깐 조:르미 온다
40405	-관데	무신 이린데 마니 모여따
40406	-다가	오늘 오다가
40407	-거든	만내거등 저내라
40408	-더라도	바블 먹떠래도 쪼끔 머거라
40409	-으려고	40218 칭구하고 노나머글라고 마니 사따
40410	-도록	죽뚜루 해따, 나리 새뚜루 이를 해따
40411	-을수록	노플쭈룩
40412	-듯이	도늘 물씨드텐다, 비눌달드시, 이빠리 생기드시
40413	-지	보지 여느건 암본다

#### 4.5. 주체 존대

40501	-셔	*
40502	-셨소	하셔쭈?, 가션니?

#### 4.6. 시제

40601	웃는다	빵끄빵끝 운:넌다
40602	기어간다	기어간다, 잘 긴다
40603	크다	누니 크다
40604	생일이다	생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오고 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너 어제 바블 머건느냐?, 진지 잡쭈셔쭈요?

40607	왔었다	운제 봐썬냐?
40608	먹더라	잘 먹떠라, 크더라
40609	먹더냐	*
40610	만나는 친구	날마등 만내는 칭구다
40610	만나는 친구	매일 만내는 칭구다
40611	만난 친구	만넨 칭구다
40612	만났던 친구	
40613	만날 친구	넬:모레 만날 칭구가 이따
40614	큰 아이	경장이 큰 아이다 {굉장히 큰 아이다}
40615	크던 아이	크던 아이다
40616	컸던 아이	경장이 커편 아이다 {굉장히 컸던 아이다}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8	비가 오겠다	금방 오게따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암 머겨썬, 암 머겨썬요, 안적 암 머겨썬요, 만 내지 아너따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조:칠 안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깨끄칠 안타, 깨끄태질 안타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앙가썬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찌두 앙쿠 잠만 잔다
40706-1	먹도 않고	*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보지 모태따
40708	맞잖소?/안 맞소?	*

## 4.8. 사동과 피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려야지(+ 여), 살린대능거또(+ 여)살킨다, 빨리 살구궤애지
40802	늘리다	늘귀 이블래머는(+ 여), 늘킨다, 늘긴다

40803	말리다1	바짱 말러가주구선, 빨리 말린다
40804	말리다2	뜨더말러설랑은, 말린다
40805	얼리다	얼군다
40806	녹이다	뇌기지 말구(+여), 노킨다
40807	신기다	싱겨가주(+여), 빨리 싱킨다 싱켜
40808	보이다	잘 보인다, 보이니까
40809	알리다	알켜 달라, 알린다, 알려준다
40810	입히다	강제로 이핀다
40811	얏히다	안친다
40812	벗기다	베긴다
40813	웃기다	우긴다
40814	씩히다	췌겨서
40815	숨기다	숨긴다
40816	굽기다	궁기지 마러
40817	깨우다	깨워 깨운다
40818	돋우다	심지를 도꿔라

##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재핀다
40820	깎이다	마니 까껴따
40821	끼이다	찌어따
40822	떼이다	떼껴따
40823	채이다	채여서
40824	단히다	바라미 부러서 다쳐따
40825	들리다	들린다구, 잘 귀로 들린다
40826	엎히다	어핀다
40827	바꾸다	바꾸궤:따, 바궤따
40828	췌히다	도:리 췌핀다
40829	엎히다	언쳐따
40830	찍히다	발똥을 찌켜따
40831	놀리다	놀:려따, 놀리케따
40832	실리다	빨리 실러가따
40833	꿍기다	꿍케따
40834	글히다	글케따

## 4.9. 보조용언

40901	싫다	바꼬 시풍게 뭐:냐?
-------	----	-------------

40902	싶다	뭐:가 바꼬 시꾸냐?
40903	보다	이버보세요
40904	버리다	이저뿌리고 와따(+ 물건을 잃다), 다 머거버려따, 짤라빠려따
40905	대다	우리대더라
40906	-나/는가 보다	올래능거 가따
40907	-나/는가 보다	자능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추웅가보다

## 4.10. 부사

41001	실컷	실큰 머거라
41002	많이	마:니 머거서
41003	너무	너머 서러워서, 너머 우긴다, 너무 불쌍해서 도 와준다
41004	조금	쪼꿈 뷘:라, 쪼꿈 무끄먼 더디지. {조금 뭉으면 더디지}
41005	자주	자주 간다
41006	빨리	빨리 머꼬 빨리 가라, 빨리 머거라, 빨리 가치 덕짜
41007	얼른	요   워라 얼쩨, 얼릉 머거라
41008	기어코	기여코 가따
41009	가끔	가끔 멩는다
41010	먼저	먼저 가라
41011	나중에	야:중에 준다, 야:중에 인제 그거 한 보롬이따가
41012	가득	가뜩 채워따
41013	몽땅	몽탕 거주와라
41014	모조리	몽지리
41015	혼자	나 혼자만 이따
41015	혼자	다가고 나마 혼자 이따
41016	항상	항상 이리 바뿌다
41017	똑똑히	똑떼기 써라, 나두 근데 똑떼기는 몰루는데 {나 도 똑똑히는 모르는데}
41018	겨우	제워 참는다
41019	늘	늘 그저 잠만 잔다
41020	저절로	저절로 난다
41021	자꾸	자꾸 난다
41022	설마	설마 그칭구가 나를
41023	하마터면	함부테라든
41024	함께	함께 놀러가자

41025	걸핏하면	걸뻘태면
41026	공연히	괘:니 트지블 잠는다
41027	그냥	저사라만테도 그냥 으:꾸 {저 사람한테도 그냥 얻고}, 안사구 그냥 와따
41028	매우	매:우 시더라
41029	곧장	고짱 와라
41030	벌써	벌써 끈날 거신데, 하마 끈나따
41031	가장	*
41032	가만히	가마니 이씨라
41033	미리	홍수나기 저네 미리 막짜, 미리 헤라
41034	이따금	이따금 온다(+ 조?)

#### 4.11. 관용적 표현

41101	여보	여보, 아무개 아버지 여보시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여보시오 지갑 떠러져쏘, 아무개 아빠 (+ 자식이 있을 때),
41102	여보세요	여보(+ 남자일 때), 아줌마(+ 아줌마일 때), 아저 씨(+ 아저씨일 때)
41103	들어가요	안녕이 게세요
41104	수고하세요	잘 가, 오늘 혼나씨, 오늘 수고해씨, 안녕이들 가 십씨오.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 의 인사말	오래간마네 만나썸니다(+ 여자들끼리), 여길 어떠 케 오셔썸니까?(+ 남편의 친구인 경우), 잘들 이 씨썸?(+ 아들의 친구인 경우), 야 오래간마니다
41106		아니 어드로 가십니까?(+ 동네 어른에게 인사할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 때), 아이구 여그 오셔썸니까?(+ 시아버지 친구분 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이 온 경우), 아니 여그 오셔썸요?(+ 남편의 친구 가 온 경우), 아저씨 나오셔썸요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 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41108	여기 있습니다	여기썸요 돈
41109	예	예, 여기 사라요, 네 감니다

41110	아니	아닙니다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리치도 안타
41112	내버려 둬	내빼려 뒤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미빠진 도계 물부끼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 다	바늘 도둑이 소도도기 된다
41116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 랴	아니난 굴뚜게 영기나나?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 원 장 이 기 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 영 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 무 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 봉 국 (부 산 교 육 대 학 교)
- ◆ 위 원 김 정 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 경 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 강 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 영 목 (충 남 대 학 교)
- ◆ 자문위원 최 명 옥 (서 울 대 학 교)
- ◆ 자문위원 홍 윤 표 (연 세 대 학 교)

